

1	01 梁惠王章句上 - 凡七章	01 梁惠王章句上 - 凡七章	[제 1 편. 梁惠王章句(양혜왕장구) 上]
2	01-01 何必曰利章	01-01 何必曰利章	◇ 맹자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말한 것으로, 마땅히 仁義(인의)를 標榜(표방)해야 하고 그런 연후라야上下가 화친해지고 임금과 신하가 화합하게 됨을 밝힌 내용이다. - 이것이 天地의 法道이자 불변하는 道理이므로 맨 첫 장에 내세운 것으로 여겨진다.
3	梁惠王 魏侯罷也 都大梁 僮稱王 諡曰惠 史記惠王三十五年 卑禮厚幣 以招賢者 以孟軻至 梁	01-01-01 孟子見梁惠王	맹자가 양 혜왕을 만났는데,
4	叟 長老之稱 王所謂利 蓋富國強兵之類	01-01-02 王曰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왕이 말하기를, 「장로께서 천리를 멀다 아니하고 오셨으니, 역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할이 있겠지요?」
5	仁者心之德愛之理 義者心之制事之宜也 此二句 乃一章之大指 下文 乃詳言之 後多放此	01-01-03 孟子對曰 王何必曰 利 亦有仁義而已矣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왕께서는 하필 利(이)만을 말씀하십니까? 역시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6	此 言求利之害 以明上文何必曰利之意也 征 取也 上取乎下 下取乎上 故 曰交征 國危 謂 將有殺獲之禍 乘 車數也 萬乘之國者 天子畿內之方千里 出車萬乘 千乘之家者 天子之公卿 采地方百里 出車千乘也 千乘之國 諸侯之國 百乘之家 諸侯之大夫也 弑 下殺上也 騞 足也 言 臣之於君 每十分而取其一分 亦已多矣 若又以義爲後而以利爲先 則不弑其君而盡奪之 其心 未肯以爲足也	01-01-04 王曰何以利吾國 大 夫曰何以利吾家 士庶人曰何以 利吾身 上下交征利而國危矣 萬乘之國殺 其君者 必千乘之 家 千乘之國殺其君者 必百乘 之家 萬取千焉 千取百焉 不爲 不多矣 苟爲 後義而先利 不奪 不驪	왕께서 어떻게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 가문을 이롭게 할까 할 것이고, 선비와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상하가 서로 이익만을 취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집이요, 천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집이니, 만에서 천을 취하고, 천에서 백을 취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마는, 진실로 의를 뒤로 하고 利를 앞세우면 빼앗지 아니하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7	此 言仁義未嘗不利 以明上文亦有仁義而已之意也 遺 猶棄也 後 不急也 言 仁者 必愛其親 義者 必急其君 故 人君 躬行仁義而無求利之心 則其下化之 自親戴於己也	01-01-05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어질면서도 그의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아니하였으며, 의로우면서도 그의 임금을 뒤로 한 자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p>重言之 以結上文兩節之意 ♥ 此章 言 仁義 根於人心之固有 天理之公也 利心 生於物我之 相形 人欲之私也 循天理 則不求利而自無不利 循人欲 則求利未得而害已隨之 所謂毫釐之差 千里之繆 此 孟子之書 所以造端託始之深意 學者 所宜精察而明辨也 ♥ 太史公曰 余讀孟子書 至梁惠王問何以利吾國 未嘗不廢書而歎也 曰 噫乎 利 誠亂之始也 夫子罕言利 常防其源也 故曰 放於利而行 多怨 自天子 以至於庶人 好利之弊 何以異哉 程子曰 君子未嘗不欲利 但專以利爲心 則有害 惟仁義則不求利而未嘗不利也 當是之時 天下之人 惟利是求 而不復知有仁義 故 孟子言仁義而不言利 所以拔本塞源而 求其弊 此 聖賢之心也</p>	<p>8</p> <p>01-01-06 王亦曰仁義而已矣 何必曰利</p>	<p>왕께서는 오직 인과 의를 말씀하실 때이지, 하필 利를 말씀하십니까?」</p>
9	<p>01-02 與民偕樂章</p>	<p>01-02 與民偕樂章</p>	<p>◇ 맹자는 양 혜왕의 가벼운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서 詩經과 書經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賢者이어야만 圓·沼등의 鳥獸·魚鼈을 즐길 수 있음을 말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데 있음을 일러 준 것이다. - 無道한 임금은 민중이 원망하고 神이 怨하므로 나라가 멸망하고 제사가 끊어져,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존하여 지켜내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p>
10	<p>沼 池也 鴻 鷺之大者 麋 鹿之大者</p>	<p>01-02-01 孟子見梁惠王 王立 於沼上 顧鴻鷺麋鹿曰賢者亦樂 此乎</p>	<p>맹자께서 양나라 혜왕을 찾아뵈었더니 왕이 연못가에 서 계시다가, 크고 작은 기러기와 크고 작은 사슴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진 사람도 역시 이런 것을 즐겨하십니까?」</p>
11	<p>此 一章之大指</p>	<p>01-02-02 孟子對曰 賢者而後 樂此 不賢者 雖有此 不樂也</p>	<p>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어진 사람이 된 후라야 이런 것을 즐깁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비록 이런 것이 있더라도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p>

12	<p>此引詩而釋之 以明賢者而後樂此之意 詩 大雅靈臺之篇 經量度也 靈臺 文王臺名也 營謀爲也 功治也 不日不終日也 亟速也 言文王戒以勿亟也 子來 如子來趨父事也 靈囿靈沼 臺下有囿 囿中有沼也 麋牝鹿也 伏安其所 不驚動也 灌灌肥澤貌 鶴鶴潔白貌 於歎美辭 物滿也 孟子言文王 雖用民力 而民反歡樂之 既加以美名 而又樂其所有 蓋由文王能愛其民 故 民樂其樂 以文王亦得以享其樂也</p>	<p>01-02-03 詩云 經始靈臺 經之 營之庶民攻之不日成之 經始 勿亟庶民子來 王在靈囿 麋鹿 攸伏 麋鹿灌灌白鳥鶴鶴 王 在靈沼 於物魚躍 文王以民力 爲臺爲沼 而民歡樂之 謂其臺 曰靈臺 謂其沼曰靈沼 樂其有 麋鹿魚鼈 古之人與民偕樂 故 能樂也</p>	<p>시경에 이르기를, '영대의 터를 측량하기 시작하여, 재고서 그 둘레에 표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건축하여 며칠 만에 이룩하여 놓았다. 터를 재며 서둘지 말도록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자식들 같이 모여 왔다. 왕이 영유에 있으면, 암사슴은 가만히 엎드려 있다. 암사슴은 윤이 돌고, 백조는 깨끗하도다. 왕이 영소에 있으면, 아아 물고기들이 그득하게 뛰어오른다.'고 하였으니, 문왕이 백성의 힘으로써 대를 만들고 뜻을 만들었으나,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니 그 대를 일러 영대라 하고, 그 뜻을 일러 영소라 하여, 그곳에 크고 작은 사슴과 물고기와 자라가 있음을 즐겼으니, 옛 사람은 백성과 더불어 같이 즐겼기 때문에 즐길 수 있었습니다.</p>
13	<p>此引書而釋之 以明不賢者雖有此不樂之意也 湯誓 商書篇名 時是也 日指夏桀害 何也 桀嘗自言吾有天下 如天之有日 日亡吾乃亡耳 民怨其虐 故因其自言而目之曰 此日何時亡乎 若亡則我寧與之俱亡 蓋欲其亡之甚也 孟子引此 以明君獨樂而不恤其民 則民怨之 而不能保其樂也</p>	<p>01-02-04 湯誓曰時日害喪予 及女偕亡 民欲與之偕亡 雖有 臺池鳥獸 岳能獨樂哉</p>	<p>탕서에 이르기를, '이 해는 언제 없어질꼬? 내 너와 함께 죽으리라.'고 했으니, 백성이 함께 죽기를 원한다면 대와 뜻과 새와 짐승이 있다 한들 어찌 혼자서 즐길 수 있겠소?'</p>
14	<p>01-03 王無罪歲章</p>	<p>01-03 王無罪歲章</p>	<p>◇이 장은 맹자의 정치사상의 기본이披瀝(피력)되어 있다. 霸道政治(패도정치)를 배격하고 王道政治를 주장하는 맹자는 진정한 정치의 출발을 民生의 安定에 두었다.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爲政者(위정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밝히고 있다. - 위정자가 자기의 無能이나 過誤는反省自責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한 대수롭지 않은 彌縫策(미봉책)을 마치 큰 恩惠를 베푼 것 같이 宣傳하는 착오를 비판하고 있다.</p>

15	<p>寡人 諸侯自稱 言寡德之人也 河內河東 皆魏地 凶 歲不熟也 移民以就食 移粟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p>	<p>01-03-01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 盽心焉耳矣 何內凶 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 凶 亦然 察隣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隣國之民 不加少 寡人之民 不加多何也</p>	<p>양나라 혜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나라를 다스림에 마음을 다할 뿐이니, 하내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을 하동으로 옮기고 그 곡식을 하내로 옮기며, 하동에 흉년이 들면 역시 그렇게 하는데, 이웃나라의 정사를 살펴보면, 과인만큼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이웃나라의 백성이 더 적어지지 아니하며, 과인의 백성이 더 많아지지 아니함은 무엇 때문입니까?」</p>
16	<p>填 鼓音也 兵 以鼓進 以金退 直猶但也 言此 以譬隣國不恤其民惠王能行小惠 然 皆不能行王道以養其民 不可以此而笑彼也 楊氏曰移民 移粟 荒政之所不廢也 然不能行先王之道 而徒以是爲盡心焉則未矣</p>	<p>01-03-02 孟子對曰 王好戰 請而戰喻 填然鼓之 兵刃既接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則何如 曰不可 直不百步耳是亦走也 曰王知如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 也</p>	<p>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컨대 전쟁으로서 비유하겠습니다. 둑둥둥 북을 쳐서 병기를 접해 싸우다가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달아나되, 어떤 자는 백 보를 달아난 후에 멎고, 또 어떤 자는 오십 보를 달아난 후에 멈쳤는데, 오십 보를 달아난 놈이 백 보를 달아난 놈을 비웃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왕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다만 백 보가 아닐 뿐이지 도망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만일 이것을 아신다면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p>
17	<p>農時 謂春耕 夏耘 秋收之時凡有興作 不違此時 至冬乃役之也不可勝食 言多也 數 密也 署 網也洿 窔下之地 水所聚也 古者 網罟必用四寸之目 魚不滿尺 市不得鬻人不得食 山林川澤 與民共之而有厲禁 草木零落然後 斧斤入焉此皆爲治之初 法制未備且因天地自然之利而撙節愛養之事也然 飲食宮室 所以養生 祭祀棺槨所以送死 皆民所急而不可無者今皆有以資之 則人無所恨矣 王道以得民心爲本 故 以此爲王道之始</p>	<p>01-03-03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 不入洿池 漁鼈不可勝食也 斧斤 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穀與漁鼈 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p>	<p>농사철을 어기지 아니하면 곡식을 이루 다 먹지 못할 것이며,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못에 드리우지 아니하면 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지 못할 것이며, 도끼를 제때에 산림 속에 넣는다면 재목을 이루 다 쓰지 못할 것이니, 곡식과 자라와 물고기를 이루 다 먹지 못하며, 재목을 이루 다 쓰지 못하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삶을 영위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데 유감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삶을 영위하고 죽은 이를 장사하는데 유감됨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의 시초입니다.</p>

五畝之宅 一夫所受 二畝半 在田
 二畝半 在邑 田中 不得有木
 恐妨五穀 故 於牆下植桑 以供蠶事
 五十始衰 非帛不煖 未五十者
 不得依也 畜 養也 時 謂孕字之時
 如孟春犧牲母用牝之類也 七十
 非肉不飽 未七十者 不得食也
 百畝之田 亦一夫所受 至此則經界正
 井地均 無不受田之家矣 序
 皆學名也 申 重也 丁寧反覆之意
 善事父母謂孝 善事兄長爲悌 頒
 與斑同 老人頭半白黑者也 負
 任在背 戴 任在首 夫民 衣食不足
 則不暇治禮義 而飽煖無教
 則又近於禽獸 故 既富而教以孝悌
 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
 不使之負戴於道路矣 衣帛食肉
 但言七十 舉重以見輕也 黎 黑也
 黎民 黑髮之人 猶秦言黔首也
 少壯之人 雖不得衣帛食肉 然
 亦不至於飢寒也 此
 言盡法制品節之詳 極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 是 王道之成也

01-03-04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
 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
 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
 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教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
 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
 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未之有
 也

5 무의 택지에 뽕나무를 심으면 오십 대도
 비단옷을 입을 것이며, 닭·새끼 돼지·개·큰
 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
 번식할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면 칠십 대가
 고기를 먹을 것이며, 백 무의 밭에 그 때를
 빼앗지 아니하면 여러 식구의 집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학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효도와 공경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반백된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아니할 것입니다. 칠십 된 노인이 비단옷을
 입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백성이
 굶주리지 아니하며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도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있어본 일이 없습니다.

19	<p>檢制也 莖餓死人也 發 發倉廩以賑貸也 歲謂歲之豐凶也 惠王不能制民之產 又使狗彘得以食人之食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 異矣 至於民飢而死 猶不知發 則其所移 特民間之粟而已 乃以民不加多 歸罪於歲凶 是知刃之殺人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 不罪歲 則必能自反而益修其政 天下之民 至焉 則不但多於隣國而已 ♥ 程子曰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 可謂實矣 又曰 孔子之時 周室雖微 天下猶知尊周之爲義 故 春秋 以尊周爲本 至孟子時 七國爭雄 天下不復知有周 而生民之塗炭 已極 當是時 諸侯能行王道 則可以王矣 此 孟子所以勸齊梁之君也 蓋王者 天下之義主也 聖賢亦何心哉 視天命之改興未改耳</p>	01-03-05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浮而不知發 人死則曰 非我也勢也 是何異於刺人而殺 之曰 非我也兵也 王無罪歲 斯 天下之民至焉	<p>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것을 먹어도 제지할 줄을 모르고, 길에 굶주려 죽은 송장이 있어도 창고의 곡식을 풀어낼 줄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말하기를, '나 때문이 아니라 흉년 때문이다.'고 하니, 이 어찌 사람을 죽이고도 '나 때문이 아니라 병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왕께서 풍년과 흉년을 탓하지 아니하시면 곤천하의 백성들이 모여오게 될 것입니다.」</p>
20	01-04 以刃與政章	01-04 以刃與政章	<p>◇前章(전장)에 이어 정치의 기본은 국민이 살도록 해주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이 고생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칼이나 몽둥이로 살인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극단적으로 暴政(폭정) 내지 虐政(학정)에 대해 告發한 내용이다. - 맹자는 결국 양혜왕에게 백성들을 마치 자기 자식을 돌보아주듯 사랑하라는 뜻을 일러준 것이다.</p>
21	承上章 言願安意以受教	01-04-01 梁惠王曰 寡人願安承教	양나라 혜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원컨대 기꺼이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22	挺杖也	01-04-02 孟子對曰 殺人以政與刃 有以異乎 曰無以異也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와 칼로써 하는 것이 다릅니까?」 (양혜왕이) 말씀하시기를, 「다름이 없습니다.」
23	孟子又問 而王答也	01-04-03 以刃與政有以異乎 曰無以異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칼과 정치로써 하는 것이 다름이 있습니까?」 (양혜왕이) 말씀하시기를, 「다름이 없습니다.」

24	厚斂於民 以養禽獸 而使民飢以死 則無異於驅獸以食人矣	01-04-04 曰庖有肥肉 廐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孚 此率獸而食人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방에 살찐 고기가 있으며, 마구간에 살찐 말이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얼굴에 굶주린 빚이 있고, 들에 굶주려 죽은 송장이 있으면, 이것은 짐승을 거느리고 와서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것입니다.
25	君者 民之父母也 惡在 猶言何在也	01-04-05 獸相食 且人惡之 爲民父母 行政 不免於率獸而食人 惡在其爲民父母也	짐승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조차 사람들은 미워하는데,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사를 행하기를, 짐승을 거느리고 와서 사람을 먹이는 것과 같음을 면치 못하면 어찌 그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26	俑 從葬木偶人也 古之葬者 束草爲人 以爲從衛 謂之芻靈 略似人形而已 中古 亦之似俑 則有面目機發 而太似人矣 故 孔子惡其不仁 而言其必無後也 孟子言 此作俑者 但用象人以葬 孔子猶惡之 況實使民飢而死乎 ♥ 李氏曰 爲人君者 固未嘗有率獸食人之心 然 徇一己之欲 而不恤其民 則其流必之於此 故 以爲民父母告之 夫父母之於子 爲之就利避害 未嘗傾刻而忘于懷 何至視之不如犬馬乎	01-04-06 仲尼曰 始作俑者 其無後乎 爲其象人二用之也 如之何其使斯民 飢而死也	중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용(허수아비)을 만든 자는 그의 자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그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었는데, 어찌 이 백성들을 굶주려서 죽게 한단 말입니까?」
27	01-05 可使制梃章	01-05 可使制梃章	◇虐政(학정)을 버리고 仁政(인정)을 베풀면 결국에 가서는 지난날의 치욕을 씻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어, 양혜왕에게 仁政을 베풀도록 권고한 내용이다.
28	魏 本晉大夫魏斯 與韓氏趙氏 共分晉地 號曰三晉 故 惠王猶自謂晉國 惠王三十年 齊擊魏 破其軍 虜太子申 七十年 秦取魏少梁 後魏又數獻地於秦 又與楚將昭梁戰敗 亡其七邑 此 猶爲也 言欲爲死者 雪其恥也	01-05-01 梁惠王曰晉國天下莫強焉 爾之所知也 及寡人之身 東敗於齊 長子死焉 西喪地於 秦七百里 南辱於楚 寡人恥之 願比死者 一洒之 如之何則可	양나라 혜왕이 말하기를, 「晋나라가 천하에서 제일 강했음은 선생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과인의 대에 이르러서 동으로는 제나라에 패하여 큰 아들이 죽고, 서쪽으로는 秦나라에게 땅을 칠 백리나 빼앗겼고, 남으로는 楚나라에게 육을 보았으니, 과인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원컨대 죽은 사람을 위하여 한바탕 설욕을 하려 하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9	百里 小國也 然 能行仁政 則天下之民歸之矣	01-05-02 孟子對曰 地方百里 而可以王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영토가 사방 백리라도 왕노릇은 할 수 있습니다.

30	<p>省刑罰 薄稅斂此二者 仁政之大目也 易 治也 稜 耘也 盡己之謂忠 以實之謂信 君行仁政 則民得盡力於農畝 而又有暇日以修禮義 是以 尊君親上而樂於效死也</p>	<p>01-05-03 王如施仁政於民 省 刑罰 薄稅斂 深耕易耨 壯者以 暇日 修其孝悌忠信 入以事其 父兄 出以事其長上 可使制梃 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p>	<p>왕이 만일 어진 정치를 백성들에게 베풀어 형벌을 덜고, 세금 징수를 적게 하시면, 백성들은 깊이 밭 갈며 다듬어 김매고, 장정들은 한가한 날에 그 효도와 공경과 충성과 믿음을 닦아 집에 들어가서는 그 부형을 섬기고, 나와서는 그 윗사람과 임금을 섬길 것이니, 그렇게 하면 몽동이 하나만으로도 秦나라와 楚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p>
31	彼 謂敵國也	<p>01-05-04 彼奪其民時 使不得 耕耨 以養其父母 父母凍餓 兄 弟妻子離散</p>	<p>그들이 그 백성의 일할 시기를 빼앗아 밭 갈고 김매어 그 부모를 봉양치 못하게 하면, 부모가 추위에 얼고 굶주리며, 형제와 처자가 헤어져 흩어질 것이니,</p>
32	<p>陷 陷於阱 溺 溺於水 暴虐之意 徵 正也 以彼暴虐其民 以率於吾尊君親上之民 往正其罪 彼民 方怨其上 而樂歸於我 則誰與我爲敵哉</p>	<p>01-05-05 彼陷溺其民 王往而 征之 夫誰與王敵</p>	<p>그들이 그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거든 왕이 가셔서 바로 잡으면 도대체 누가 왕과 대적하겠습니까?</p>
33	<p>仁者無敵 蓋古語也 百里可王 以此而已 恐王疑其迂闊 故 勉使勿疑也 ♥ 孔氏曰 惠王之志 在於報怨 孟子之論 在於求民 所謂惟天吏則可以伐之 蓋孟子之本意</p>	<p>01-05-06 故曰仁者無敵 王請 勿疑</p>	<p>그러므로 말하기를,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왕께서는 의심치 마십시오.」</p>
34	01-06 不嗜殺人章	01-06 不嗜殺人章	<p>◇맹자께서 양혜왕의 아들로 그位를 계승하여 魏나라의 國君이 된 襄王과 만나 이야기한 것을 자신의 입을 통해 말한 내용이다. - 襄王이 國君다운 威儀(위의)가 없는 것과 長者(장자)를 대하여 중요한 일을 묻는데 절차가 없음을 말한 후, 역시 백성을 아끼는 임금이 천하를 통일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 자신 있게 강조한 것</p>
35	襄王 惠王子 名赫	01-06-01 孟子見梁襄王	<p>맹자께서 양나라 양왕을 보시고,</p>
36	<p>語 告也 不似人君 不見所畏 言其無威儀也 卒然 急遽之貌 蓋容貌辭氣 乃德之符 其外如此 則其中之所存者 可知 王問 列國分爭 天下當何所定 孟子對以必合于一然後定也</p>	<p>01-06-02 出語人曰 望之不似 人君 就之而不見所畏焉 卒然 問曰 天下惡乎定 吾對曰 定于 —</p>	<p>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보니 임금 같지 않고, 곁에 가까이 가보아도 두려워할 데가 보이지 않더라. (그 때, 양왕이) 갑자기 물기를, '천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하기에, 내 대답하기를,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p>
37	王問也	01-06-03 孰能一之	<p>(양왕이) '누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기에,</p>

38	嗜甘也	01-06-04 對曰 不嗜殺人者能一之	대답하기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39	王復問也 與猶歸也	01-06-05 索能與之	(또 양왕이) '누가 그의 편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라고 하기에,
40	周七八月 夏五六月也 油然雲盛貌 沛然雨盛貌 涌然興起貌 禦 禁止也 人牧謂牧民之君也 領頸也 蓋好生惡死 人心所同 故 人君不嗜殺人 則天下悅而歸之 ❤ 蘇氏曰 孟子之言 非苟爲大而已 然 不深原其意而詳究其實 未有不以爲迂者矣 自觀孟子以來 自漢高祖及光武及唐太宗及我太祖皇 帝 能一天下者四君 蓋以不嗜殺人致之 其餘 殺人愈多而天下愈亂 秦晉及隋 力能合之 而好殺不已 故 或合而復分 或遂以亡國 孟子之言 豈偶然而已哉	01-06-06 對曰 天下莫不與也 王知夫苗乎 七八月之間 旱則 苗槁矣 天油然作雲 沛然下雨 則 苗淳然興之矣 其如是 索能 禦之 今夫天下之人牧 未有不 嗜殺人者也 如有不嗜殺人者 則天下之民 皆引領而望之矣 誠如是也 民歸之 由水之就下 沛然索能禦之	대답하기를, '천하에 그의 편을 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왕은 저 (곡식의) 쓱을 아십니까? 칠팔월 사이에 가물면 쓱이 마르다가, 하늘에 유연히 구름이 일어나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 쓱이 싱싱하게 돌아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천하의 임금들 중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만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우러러볼 것이니, 진실로 그와 같으면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 세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41	01-07 齊桓晉文章	01-07 齊桓晉文章	◇<이 장은 맹자의 문장 가운데서 가장 긴 것으로 맹자의 왕도정치의 주장을 위한 변론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제 선왕이 천하에 霸(패)를 칭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알고, 선왕은 천하에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고귀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일깨워주려고 유도하는 내용이다. - 선왕이 무력에 호소하여 霸業을 성취시켜보려고 하는 야망을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고 철저히 비판을 가하며, 맹자는 이상적인 王者가 되는 일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王者는 백성들은 恒產이 없으면 恒心을 가지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여, 백성들의 삶의 근거와 생활을 안정시켜 주어야함을 역설하였다.
42	齊宣王 姓田氏 名辟彊 諸侯僭稱王也 齊桓公 晉文公 蓋霸者侯者	01-07-01 齊宣王 問曰 齊桓晉文之事 可得聞乎	제나라 선왕이 묻기를,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을 들려주시겠습니까?」
43	道言也 董子曰 仲尼之門 五尺童子羞稱五伯 為其先詐力而後仁義也 亦此意也 以己通用 無已 必欲言之而不止也 王謂王天下之道	01-07-02 孟子對曰 仲尼之道無道桓文之事者 是以後世無傳焉 臣未之聞也 無以則王乎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중니의 문하생들이 환공과 문공의 업적을 말한 사람이 없으므로 후세에 전해진 것이 없어서 듣지 못하였으니, 마다 않고 들으신다면 왕도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44	保 愛護也	01-07-03 曰德何如 則可以王矣 曰保民而王 莫之能禦也	(선왕이) 말하기를, 「덕이 어떠하면 곧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왕 노릇을 하면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45	胡龁 齊臣也 霽鍾 新鑄鍾成而殺牲取血 以塗其靁郊也 犀軒恐懼貌 孟子述所聞胡龁之語而問王不知果有此事否	01-07-04 曰若寡人者 可以保民乎哉 曰可 曰何由 知吾可也 曰臣聞之胡龁 曰王坐於堂上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牛何之 對曰 將以鳴鐘 王曰舍之 吾不忍其犀軒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鳴鐘與 曰何可廢也 以羊易之 不識 有諸	“과인(寡人)과 같은 자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무슨 이유로 나의 가능함을 아십니까?” “신(臣)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호흘(胡)에게 들었습니다. ‘왕(王)께서 당상(堂上)에 앉아 계시는데, 소를 끌고 당하(堂下)로 지나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왕(王)께서 이를 보시고 「소가 어디로 가는가?」하고 물으시자, 대답하기를 「장차 종(鍾)의 틈을 바르는 데 쓰려고 해서입니다.」 하였습니다. 왕(王)께서 「놓아주어라. 내가 그 두려워 벌벌 떨며 죄없이 사지(死地)로 나아감을 차마 볼 수 없다.」 하시니,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흔종(鍾)을 폐지하오리까?」「어찌 폐지할 수 있겠는가? 양(羊)으로써 바꾸어 쓰라.」 하셨다. 합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46	王見牛之犀軒而不忍殺 卽所謂惻隱之心仁之端也 擴而充之 則可以保四海矣 故 孟子指而言之 欲王察識於此而擴充之也 愛 猶吝也	01-07-05 曰有之 曰是心 足以王矣 百姓皆以王爲愛也 臣固知王之不忍也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족히 왕노릇 하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王)더러 재물을 아꼈다고 하거니와, 신(臣)은 진실로 왕(王)의 차마 못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47	言 以羊易牛 其迹似吝 實有如百姓所譏者 然 我之心不如是也	01-07-06 王曰然誠有百姓者 齊國雖褊小 吾何愛一牛 卽不忍其犀軒若無罪而就死地 故以羊易之也	왕(王)이 말씀하였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백성들이 비난하는 자가 있겠습니다마는 제(齊)나라가 비록 좁고 작으나 내 어찌 한 마리 소를 아끼겠습니까? 이는 그 곡속(하여) 죄 없이 사지(死地)로 나아감을 차마 볼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양(羊)으로써 바꾸게 한 것입니다.”
48	異 怪也 隱 痛也 擇 猶分也 言牛羊皆無罪而死 何所分別而以羊易牛乎 孟子故設此難 欲王反求而得其本心 王不能然 故 卒無以自解於百姓之言也	01-07-07 曰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 以小易大 彼惡知之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則 牛羊何擇焉 王笑曰 是誠何心哉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 宜乎百姓之謂我愛也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왕(王)은 백성들이 왕(王)더러 재물을 아꼈다고 비난함을 괴이하게 여기지 마소서. 작은 양을 가지고 큰 소와 바꾸었으니, 저들이 어찌 이것을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일 그 죄 없이 사지(死地)로 나아감을 측은히 여기셨다면 소와 양을 어찌 구별하셨습니까?” 왕(王)이 웃으며 말씀하였다. “이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던가? 내 재물을 아껴서 양으로써 바꾸게 한 것은 아니건마는 당연히 백성들은 나더러 재물을 아꼈다고 이르겠구나!”

49	<p>無傷 言雖有百姓之言 不爲害也 術謂法之巧仔 蓋殺牛 卽所不忍 驚鍾又不可廢 於此 無以處之 則此心雖發 而終不得施矣 然見牛則此心已發而不可遏未見羊則其理未形而無所妨 故以羊易牛 則二者得以兩全而無害此所以爲仁之術也 聲謂將死而哀鳴也 蓋人之於禽獸同生而異類 故 用之以禮而不忍之心 施於見聞之所及其所以必遠庖廚者亦以豫養是心而廣爲仁之術也</p>	01-07-08 曰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未見羊也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不忍見其死 聞其聲不忍食其肉 是以君子遠庖廚也	<p>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仁)을 하는 방법(方法)이니, 소는 보았고 양은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자(君子)는 금수(禽獸)에 대해서 산 것을 보고 차마 그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며, 죽으면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군자(君子)는 푸주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p>
50	<p>詩 小雅巧言之篇 戚戚 心動貌王因孟子之言 而前日之心復萌乃知此心不從外得 然猶未知所以反其本而推之也</p>	01-07-09 王說曰 詩云 他人有心 予忖度之 夫子之謂也 夫我乃行之 反以求之 不得吾心 夫子言之 於我心有戚戚焉 此心之所以合於王者何也	<p>왕이 기뻐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는 헤아릴 수 있노라.’고 하니 선생을 이름으로소이다. 대저 내가 그 일을 해놓고서도 들이켜 그렇게 한 이유를 알아보아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선생께서 말씀하시자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왕 노릇 하는데 적합함은 무슨 까닭입니까?」</p>
51	<p>復 白也 鈞 三十斤 百鈞至重難舉也 一羽 鳥羽 一羽至輕易舉也 秋毫之末 毛至秋而末銳小而難見也 輿薪 以車載薪大而易見也 許 猶可也 今恩以下又孟子之言也 蓋天地之性 人爲貴故 人之與人 又爲同類而相親 是以惻隱之發 則於民切而於物緩推廣仁術 則仁民易而愛物難今王此心 能及物矣 則其保民而王非不能也 但自不肯爲耳</p>	01-07-10 曰有復於王者曰 吾力足以舉百鈞而不足以舉一羽明足以察秋毫之末而不見輿薪則王許之乎 曰否 今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 獨何與然則一羽之不舉 謂不用力焉輿薪之不見 爲不用明焉 百姓之不見保 爲不用恩焉 故王之不王 不爲也 非不能也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왕께 보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힘은 삼천 근을 들 수 있으나 새털 하나는 들지 못하며, 시력은 가는 털끝은 살필 수 있으나 수레에 가득 실은 섬은 보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왕께서는 정말이라 믿으시겠습니까?」(왕이) 말하기를, 「믿지 않습니다.」(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은혜가 새와 짐승에게까지도 미치지만, 공이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그런즉 새털 하나를 들지 못하는 것은 힘을 쓰지 아니함이고, 수레의 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시력을 쓰지 아니함이며,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니, 그러므로 왕이 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아니할 뿐이지,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p>

52	<p>形 狀也 挾 以腋持物也 超 躍而過也 爲長者折枝 以長者之命 折草木之枝 言不難也 是心固有 不待外求 擴而充之 在我而已 何難之有</p>	<p>01-07-11 曰不爲者與不能者之 形 何以異 曰挾太山以超北海 語人曰 我不能 是誠不能也 爲 長者折枝 語人曰 我不能 是不 爲也 非不能也 故王之不王 非 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 王之不 王 是折枝之類也</p>	<p>왕(王)이 말씀하였다. “하지 않는 자와 불가능한 자의 형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셨다. “태산(太山)을 옆에 끼고 북해(北海)를 뛰어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불가능하다.’ 한다면 이것은 진실로 불가능한 것이거니와, 장자(長者)를 위하여 나뭇가지를 꺾는 것을 남에게 말하기를 ‘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일지언정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王)께서 왕노릇 하지 못하심은 태산(太山)을 끼고 북해(北海)를 뛰어넘는 종류가 아니라, 왕(王)께서 왕노릇 하지 못하심은 바로 나뭇가지를 꺾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p>
53	<p>老 以老事之也 吾老 謂我之父兄 人之老 謂人之父兄 幼 以幼畜之也 吾幼 謂我之子弟 人之幼 謂人之子弟 運於掌 言易也 詩 大雅思齊之篇 刑 法也 寡妻 寡德之妻 謙辭也 御 治也 不能推恩 則衆叛親離 故 無以保妻子 蓋骨肉之親 本同一氣 又非但若人之同類而已 故 古人 必由親親推之然後 及推其餘然後 及於愛物 皆由近以及遠 自易以及難 今王反之 則必有故矣 故 復推本而再問之</p>	<p>01-07-12 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 掌 詩云 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 言舉斯心 加諸彼 而已 故推恩足以保四海 不推 恩無以保妻子 古之人所以大過 人者無他焉 善推其所爲而已矣 今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 姓者 獨何與</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남의 아버이를 공경하며, 나의 어린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어린애들을 사랑한다면 천하를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니, 시경에 이르기를, ‘나의 아내에게 법도를 세워서 형제에까지 이르게 하고 가문과 나라를 다스리도다.’고 하였으니, 이 마음을 가져다가 저 백성들에게 더해 쓸 따름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널리 펴나가면 족히 천하를 보전할 것이고, 은혜를 널리 펴나가지 않으면 처자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예전 사람이 지금 사람보다 크게 월등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바를 잘 펼쳐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은혜가 금수에게까지 미쳤으나 공이 백성에게는 이르지 못하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p>
54	<p>權 稱錘也 度 丈尺也 度之 謂稱量之也 言 物之輕重長短 人所難齊 必以權度度之而後可見 若心之應物 則其輕重長短之難齊 而不可不度以本然之權度 又有甚於物者 今王 恩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 是 其愛物之心 重且長 而仁民之心 輕且短 失其當然之序而不自知也 故 上文 卽發其端 而於此 請王度之也</p>	<p>01-07-13 權然後知輕重 度然 後知長短 物皆然心爲甚 王請 度之</p>	<p>저울질을 한 후에야 가볍고 무거움을 알며, 자로 재어본 후에야 길고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다 이러하거늘 마음이야 더욱 심할 것이니, 왕께서는 깊이 헤아려보십시오.」</p>

55	抑 發語辭 士 戰士也 構 結也 孟子以王愛民之心 所以輕且短者 必其以是三者爲快也 然 三事 實非人心之所快 有甚於殺穀觫之牛者 故 指以問王 欲其以此而度之也	01-07-14 抑王興甲兵 危士臣 構怨於諸侯然後快於心與	왕(王)은 갑병(甲兵)을 일으키며 군사와 신하들을 위태롭게 해서 제후(諸侯)들과 원한을 맺은 뒤에야 마음이 쾌하시겠습니까?"
56	不快於此者 心之正也 而必爲此者 欲誘之也 欲之所誘者獨在於是 是以 其心 尚明於他而獨暗於此 此其愛民之心 所以輕短而功不至於百姓也	01-07-15 王曰否 吾何快於是 將以求吾所大欲也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닙니다. 내 어찌 이것을 쾌하게 여기겠습니까? 장차 나의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하려고 해서입니다."
57	便嬖 近習嬖幸之人也 已 語助辭 辟 開廣也 朝 至其來朝也 秦楚 皆大國 莅臨也 若 如此也 所爲 指興兵結怨之事 緣木求魚 言必不可得	01-07-16 曰王之所大欲 可得 聞與 王笑而不言 曰爲肥甘 不 足於口與 輕煖不足於體與 抑 爲采色不足視於目與 聲音不足 聽於耳與 便嬖不足使令於前與 王之諸臣 皆足以供之 而王豈 爲是哉 曰否吾不爲是也 曰然 則 王之所大欲 可知已 欲辟土 地 朝秦楚 莅中國而撫四夷也 以若所爲 求若所欲 猶緣木而 求魚也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왕(王)께서 크게 하고자 하시는 바를 얻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왕(王)이 웃으면서 말씀하지 않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살지고 단 음식이 입에 부족해서입니까? 가볍고 따뜻한 웃이 몸에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채색(采色)이 눈으로 보기에 부족해서이며, 아름다운 음악이 귀로 듣기에 부족해서이며, 친숙(親熟)하고 총애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사령(使令)함에 부족해서입니까? 왕(王)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충분히 이것을 공급하니, 왕(王)은 어찌 이 때문이시겠습니까?"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이 때문이 아닙니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왕이 크게 하고자 하시는 바를 알 수 있겠습니다. 토지를 개척하며,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에게 조회를 받아 중국(中國)에 임하여 사방의 오랑캐들을 어루만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행으로써 이와 같은 소원을 구하신다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58	殆蓋 皆發語辭 鄭 小國 楚 大國 齊集有其一 言集合齊地 其方千里 是 有天下九分之一也 以一服八 必不能勝 所謂後災也 反本 說見下文	01-07-17 王曰若是其甚與 曰 殆有甚焉 緣木求魚 雖不得魚 無後災 以若所爲 求若所欲 盡 心力而爲之 後必有災 曰可得 聞與 曰鄒人 與楚人戰 則王以 爲孰勝 曰楚人勝 曰然則 小固 不可以敵大 寡固不可以敵衆 弱固不可以敵彊 海內之地 方 千里者九 齊集有其一 以一服	왕이 말씀하기를, 「그렇게나 심하십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있으니,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은 비록 고기는 얻지 못하더라도 뒤에 재앙은 없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소원을 추구하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왕(王)이 "얻어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추(鄒)나라 사람이 초(楚)나라 사람과 싸운다면 왕(王)은 누가 이기리라고 여기십니까?" "초(楚)나라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나라는 진실로 큰 나라를 대적할 수 없으며, 적은 사람은 진실로 많은 사람을 대적할 수 없으며, 약한

		八 何以異於鄒敵楚哉 蓋亦反其本矣	자는 진실로 강한 자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내(海內)의 땅이 방(方) 천리(千里) 되는 것이 아홉인데, 제(齊)나라가 전체를 모음에 그 하나를 소유하였으니, 하나를 가지고 여덟을 복종시키는 것이 어찌 추(鄒)나라가 초(楚)나라를 대적함과 다르겠습니까? 또한 그 근본을 돌이켜야 합니다.”
59	行貨曰商 居貨曰賈 發政施仁 所以王天下之本也 近者悅 遠者來 則大小強弱 非所論矣 蓋力求所欲 則所欲者 反不可得 能反其本 則所欲者不求而至 與首章意同	01-07-18 今王發政施仁 使天下仕者 皆欲立於王之朝 耕者 皆欲耕於王之野 商賈皆欲藏於王之市 行旅 皆欲出於王之塗 天下之欲疾其君者 皆欲赴愬於王 其如是孰能禦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왕께서 정사를 시작하여 인정을 베풀어 천하의 벼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다 왕의 조정에 서고자하게 하며, 천하의 농민들이 모두 다 왕의 땅에서 밭을 갈고자하게 하며, 온천하의 장사치들이 모두 다 왕의 시장에서 장사하고자하게 하며, 여행하는 자들이 모두 다 왕의 길에 나아가고자 하게 하시면, 천하에 자기 왕을 미워하는 자가 모두 다 왕에게 따라와서 호소하려 할 것이니, 이와 같으면 누가 능히 막겠습니까?」
60	恒常也 產生業也 恒產 可常生之業也 恒心 人所常有之善心也 士嘗學問 知義理 故雖無恒產而有常心 民則不能然矣 罔猶羅罔 欺其不見而取之也	01-07-19 王曰吾惛 不能進於是矣 願夫子 輔乎志 明以教我 我雖不敏 請嘗試之 曰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產 因無恒心 苛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왕께서 말하기를, 「내 혼미해서 능히 이에 나아가지 못하오니, 원컨대 선생께서는 나의 뜻을 도와서 밝게 나를 가르쳐주십시오. 내가 비록 민첩하지는 못하나 청컨대 이것을 시험삼아 해보겠습니다.」(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일정한 마음을 가지는 자는 오직 선비라야 할 수 있지만, 만일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게 되니, 진실로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편벽·사악·사치 등을 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죄를 진 뒤에 쫓아가 잡아서 형벌을 가하면 그것은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는 것이니, 어찌하여 어진 사람이 임금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61	輕猶易也 此 言民有常產而有常心也	01-07-20 是故明君制民之產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然後 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	그러므로 훌륭한 임금은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주어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양할 수 있게 하여, 풍년에는 종신토록 배부르게 먹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케 하였으니, 그런 뒤에 힘써서 착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좋아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62	贍足也 此 所謂無常產而無常心者也	01-07-21 今也制民之產 仰不足以事父母 俯不足以畜妻子 樂歲終身苦 凶年不免於死亡此惟救死而恐不贍 奚暇治禮義哉	오늘날 백성들의 생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여, 풍년이 들더라도 종신토록 고생해야 하고, 흉년이 들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니, 이는 오직 죽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도 낙농하지 못할까 두렵거늘 어느 겨울에 예와 의를 닦겠습니까?

63	<p>蓋 何不也 使民有常產者 又發政施仁之本也 說見下文</p>	<p>01-07-22 王欲行之則 蓋反其本矣</p>	<p>왕(王)께서 이것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어찌 그 근본을 돌이키지 않습니까?</p>
64	<p>此 言制民之產之法也 趙氏曰 八口之家 次上農夫也 此 王政之本 常生之道 故 孟子爲齊梁之君 各陳之也 楊氏曰 爲天下者 舉斯心 加諸彼而已 然 雖有仁心仁聞 而民不被其澤者 不行先王之道故也 故 以制民之產告之 ♥ 此章 言 人君 當黜霸功 行王道 而王道之要 不過推其不忍之心 以行不忍之政而已 齊王 非無此心 而奪於功利之私 不能擴充以行仁政 雖以孟子反霸曉告 精切如此 而蔽固已深 終不能悟 是可歎也</p>	<p>01-07-23 吾畝之宅 樹之以桑 吾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八口之家 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教 申 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 道路矣 老者衣帛食肉 黎民不 飢不寒 然而不王者未之有也</p>	<p>5 묘(畝)의 집 가장자리에 뽕나무를 심는다면 50 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과 돼지와 개를 큰 돼지를 기름에 새기칠 때를 잃지 않게 한다면 70 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백묘(百畝)의 토지에 농사철을 빼앗지 않는다면 여덟 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이 없을 수 있으며, 상서(庠序)의 가르침을 삼가서 효제(孝悌)의 의리(義理)로써 거듭한다면 머리가 반백(班白)이 된 자가 도로(道路)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을 것이니, 늙은 자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여민(黎民)이 굶주리지 않고 춤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고서도 왕노릇 하지 못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p>
65	<p>02 梁惠王章句下 - 凡十六章</p>	<p>02 梁惠王章句下 - 凡十六章</p>	<p>[제 2 편. 梁惠王章句(양혜왕장구) 下]</p>
66	<p>02-01 莊暴見孟子章</p>	<p>02-01 莊暴見孟子章</p>	<p>◇장포의 말을 계기로 하여 국왕의 음악애호와 정치와의 관계가 교묘한 변론술로闡明(천명)이 되고, 역시 王道政治의 표현인 與民同樂(여민동락)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다. - 先王의 음악이 아니고 世俗의 그것이라 할지라도 국민과 함께 더불어 즐긴다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효과를 가져와 천하의 王者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王道政治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先王之樂과 世俗之樂은 질적으로 같지는 않으나 백성과 함께 즐김으로써 가져오게 되는 효과라는 면에서 볼 때는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음악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사냥과 같은 歡樂(환락)에 있어서도 與民同樂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이다.</p>
67	<p>莊暴 齊臣也 庶幾 近辭也 言近於治</p>	<p>02-01-01 莊暴見孟子曰 暴見於王 王語暴以好樂 暴未有以對也 曰好樂 何如 孟子曰 王之好樂 甚則齊國 其庶幾乎</p>	<p>장포가 맹자를 뵙고 말하기를, 「제가 왕을 뵒었더니 왕께서 저에게 음악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음악 좋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음악 좋아하심이 지극하면 제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p>

68	變色者 慄其好之不正也	02-01-02 他日見於王曰 王嘗語莊子以好樂 有諸 王變乎色曰 寡人 非能好先王之樂也 直好世俗之樂耳	그 후일에 (맹자가) 왕을 뵙고 말씀하시기를, 「왕께서 일찍이 장자(장포)에게 음악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얼굴빛을 변하며 말하기를, 「과인이 선왕의 음악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속의 음악을 좋아할 따름입니다.」
69	今樂 世俗之樂 古樂 先王之樂	02-01-03 曰王之好樂 甚則齊其庶幾乎 今之樂 由古之樂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께서 그처럼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제나라는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음악은 옛날의 음악이나 같습니다.」
70	獨樂 不若與人 如少樂 不若如衆亦人之常情也	02-01-04 曰可得聞與 曰獨樂樂 與人樂樂孰樂 曰不若與人曰與少樂樂 與衆樂樂孰樂 曰不若與衆	(왕이) 말씀하시기를, 「그 까닭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과 사람들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즐겁습니까?」 (왕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과 함께 함만 같지 못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즐겁습니까?」 (왕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함만 같지 못합니다.」
71	此以下 皆孟子之言也	02-01-05 臣請爲王言樂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이 왕을 위하여 음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	鍾鼓管若 皆樂器也 舉 皆也 疾首頭痛也 犬取也 頸額也 人憂戚側蹙其額 極 窮也 羽旄 羽屬不與民同樂 謂獨樂其身 而不恤其民使之窮困也	02-01-06 今王鼓樂於此 百姓聞王鐘鼓支聲 管籥之音 舉疾首蹙頰而相告曰 吾王之好鼓樂夫何使我至於此極也 父子不相見 兄弟妻子離產 今王田獵於此 百姓聞王車馬之音 見羽旄之美 舉疾首蹙頰而相告曰 吾王之好田獵 夫何使我至於此極也 父子不相見 兄弟妻子離產此無他 不與民同樂也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소리, 생활과 피리소리를 듣고, 골치를 앓고 콧날을 찌푸리면서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은 음악을 좋아하시면서 대체 어찌하여 우리를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건가? 부자간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는 헤어져 흩어져버리니!'라고 하며,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사냥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거마의 소리를 듣고, 깃발의 깃털 장식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들 골치를 앓고 콧날을 찌푸리면서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은 사냥을 좋아하시면서 대체 어찌하여 우리를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건가? 부자간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는 헤어져 흩어져버리니!'라고 하면,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즐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73	與民同樂者 推好樂之心 以行人政使民各得其所也	02-01-07 今王鼓樂於此 百姓聞王鐘鼓之聲 管籥之音 舉欣欣然 有喜色而相告曰 吾王庶幾無疾病與 何以能鼓樂也 今王田獵於此 百姓聞王車馬之音 見羽旄之美 舉欣欣然有喜色而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소리, 생활과 피리소리를 듣고, 다들 기꺼이 기뻐하는 빛을 나타내고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은 아마도 질병이 없으심이로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저토록 연주를 잘 하실 수 있겠는가?'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사냥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거마의 소리를 듣고, 깃발의 깃털 장식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들 기꺼이 기뻐하는 빛을 나타내고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아마도 우리 임금님께서는

		相告曰 吾王庶幾 無疾病與 何以能田獵也 此無他 與民同樂也	질병이 없으심이로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저토록 사냥을 잘 하실 수 있겠는가?'하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74	好樂而能與百姓同之 則天下之民歸之矣 所謂齊其庶幾者如此 ♥ 范氏曰 戰國之時 民窮財盡 人君獨以南面之樂 自奉其身 孟子切於救民 故 因齊王之好樂 開導其善心 深勸其與民同樂 以爲今樂猶古樂 其實 今樂, 古樂 何可同也 但與民同樂 則無古今之異耳 若必欲以禮樂治天下 當如孔子之言 必用韶舞 必放鄭聲 蓋孔子之言 爲邦之正道 孟子之言 救時之急務 所以不同 ♥ 楊氏曰 樂 以和爲主 使人聞鍾鼓管絃之音 而疾首蹙額 則雖秦以咸英韶濩 無補於治也 孟子告齊王以此 姑正其本而已	02-01-08 今王與百姓同樂則王矣	이제 왕께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즐기신다면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5	02-02 文王之園章	02-02 文王之園章	◇제나라 선왕이苑囿를 넓혀 이익을 독점하고, 형벌을 엄중하게 하여 국민을 죽음에 빠뜨리는 것을 讽刺(풍자)한 내용이다. - 앞 장과 마찬가지로 與民同之의 王道政治도 설파하고 있다.
76	園者 蕃育鳥獸之所 古者 四時之田 皆於農隙 以講武事 不欲馳騁於稼穡場圃之中 故 度閒曠之地 以爲園 然 文王七十里之園 其亦三分天下有其二之後也與 傳 謂古書	02-02-01 齊宣王問曰 文王之園 方七十里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제나라 선왕이 묻기를, 「문왕의苑囿(원유)는 사방이 칠십 리였다고 하는데, 그랬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전하는 글에 있습니다.」
77	芻草也 薦薪也	02-02-02 曰若是其大乎 曰民猶以爲小也 曰寡人之園 方四十里 民猶以爲大何也 曰文王之園 方七十里 芟蕘者往焉 雉	(선왕이) 말하기를, 「그렇게나 컸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시기를, 「백성들이 오히려 작다고 했습니다.」 (선왕이) 말하기를, 「과인의 원유는 사방 사십 리이나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하니,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대답하시기를, 「문왕의 원유는

		兎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사방이 칠십 리이지만, 풀을 베고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가고 평과 토끼를 잡는 사냥꾼들이 가는 등 백성들과 함께 썼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하는 것은 역시 당연하지 않습니까?
78	禮 入國而問禁 國外百里爲郊 國外有關 阂 坎地以陷獸者 言陷民於死也	02-02-03 臣始至於境 問國之 大禁然後 敢入 臣聞郊關之內 有圃方四十里 殺其麋鹿者 如 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 爲阱 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신이 처음 국경에 이르러서 나라의 큰 禁令(금령)을 물어본 후에 감히 들어왔습니다. 신이 듣건대 郊外(교외)에서 關門(관문)까지 사이에 원유가 있어 사방 사십 리인데, 그 안에 크고 작은 사슴을 죽이는 자는 사람을 죽인 죄와 마찬가지로 다스린다 하니, 이것은 곧 사방 사십 리나 되는 陷阱(함정)을 나라 안에 파놓은 셈이니, 백성들이 크다고 하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습니까?」
79	02-03 寡人好勇章	02-03 寡人好勇章	◇齊나라 宣王(선왕)이 勇猛(용맹)한 것을 좋아하는 性癖(성벽) 때문에 武力으로 天下를 屈服(굴복)시켜 볼지언정, 以大事小, 以小事大의 近鄰外交(근린외교)는 못하겠다고 하자, 맹자께서 그러한 용맹은 小勇이니, 一怒而安天下之民하는 大勇을 갖도록 당부하신 내용이다. - 맹자는 以大事小하는 仁者의 樂天의인 외교 방법과 以小事大하는 智者의 畏天의인 외교 방법을 제시하며 선왕에게 외교의 適正함을 期하도록 하였다. 이는 맹자의 외교 사상이라 할 수 있다. - 아울러 書經을 인용한 내용에서는 有罪者에 대해서 天命에 따른 討伐(토벌)로써 새로운 君主가 될 수 있다는 맹자의 革命思想을 엿볼 수 있다.
80	仁仁之心 寬洪惻怛 而無較計大小彊弱之私 故 小國 雖或不恭 而吾所以字之之心 自其不能 智者 明義理 識時勢 故 大國 雖見侵陵 而吾所以事之之禮 尤不敢廢 湯事 見後章 文王事 見詩大雅 大王事 見後章 所謂狄人 卽獯鬻也 句踐 越王命 見事國語史記	02-03-01 齊宣王問曰 交隣國 有道乎 孟子對曰 有惟仁者 爲 能以大事小 是故湯事葛 文王 事昆夷 惟智者 爲能以小事大 故大王事獯鬻句踐事吳	제나라 선왕이 묻기를, 「이웃 나라와 사귀는데 道가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있습니다. 오직 仁한 자라야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탕 임금이 갈 나라를 섬겼고, 문왕이 곤이를 섬겼던 것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라야 능히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왕이 훈육을 섬겼고, (월나라의) 구천이 온나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81	天者 理而已矣 大之字小 小之事大 皆理之當然也 自然合理 故 曰樂天 不敢違理 故 曰畏天 包含偏覆 無不周徧 保天下之氣象也 制節謹度 不敢縱逸 保一國之規模也	02-03-02 以大事小者 樂天者 也 以小事大者 畏天者也 樂天 者保天下 畏天者保其國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즐기는 자요,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이니, 하늘의 이치를 즐기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82	詩 周頌我將之篇 時 是也	02-03-03 詩云畏天之威 于時 保之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에 나라를 보전한다.'고 하였습니다.」

83	言以好勇故 不能事大而恤小也	02-03-04 王曰 大哉言矣 寡人有疾 寡人好勇	왕이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말씀이여! 과인에게는 고질적인 벼룩이 있으니, 과인이 용맹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84	疾視 怒目而視也 小勇 血氣所謂 大勇 義理所發	02-03-05 對曰王請無小勇 夫撫劍疾視曰彼惡敢當我哉 此匹夫之勇 敵一人者也 王請大之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청컨대 왕께서는 작은 용맹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대체로 검을 잡고 험상궂은 눈초리를 하고 말하기를, '저자가 어찌 감히 나를 당해내라!' 하거늘, 이것은 필부의 용맹이라 한 사람을 대적하는 자이니, 왕께서는 용기를 크게 가지십시오.」
85	詩 大雅皇矣篇 赫 赫然怒貌 爰於也 旅衆也 渴 詩作按 止也 徒往也 菖 詩作旅 徒旅 謂密人侵阮徒共之衆也 篤厚也 祐 福也 對答也 以答天下仰望之心也 此 文王之大勇也	02-03-06 詩云王赫斯怒 爰整其旅 以遏徂莒 以篤周祜 以對于天下 此文王之勇也 文王一怒而安天下之民	『시경』에 이르기를, '왕이 발끈 노하시어 이에 그 군대를 정비하여菖로 가는 무리를 막아서, 周나라의 복을 두터이 하여 천하에 대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문왕의 용맹이니 문왕이 한번 노하시어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86	書 周書泰誓之篇也 然 所引 與今書文所以 今且依差解之 寵之四方 寵異之於四方也 有罪者 我得而誅之 無罪者 我得而安之 我既在之 則天下何敢有過越其心志而作亂者乎 橫行 謂作亂也 孟子釋書意如此 而言武王亦大勇也	02-03-07 書曰 天降下民 作之君作之師 惟曰其助上帝 寵之四方 有罪無罪 惟我在 天下曷敢有越厥志 一人衡行於天下 武王恥之 此武王之勇也 而武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	『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땅위에) 백성을 내릴 때에, 그들 가운데서 왕을 나게 하고 스승을 나게 하였는데, 오직 말하기를, <그가 상제를 도와 사방의 (백성들을) 사랑하라>하셨으니, 죄가 있건 죄가 없건 간에 오직 내가 있는데, 천하가 어찌 감히 그 뜻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으니, 한 사람이라도 천하를 횡행하는 자가 있으면, 무왕이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무왕의 용맹이며, 또한 무왕이 한번 노하여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음을입니다.
87	王若能如文武之爲 則天下之民 望其一怒以除暴亂 而拯己水化之中 惟恐王之不好勇耳 ❤ 此章 言人君 能懲小忿 則能恤小事大 以交隣國 能養大勇 則能除暴救民 以安天下 張敬夫曰 小勇者 血氣之怒也 大勇者 義理之怒也 血氣之怒 不可有 義理之怒 不可無 知此 則可以見性情之正 而識天理人欲之分矣	02-03-08 今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 民惟恐王之好不勇也	이제 왕께서도 한번 노하시어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신다면, 백성들은 오히려 왕께서 용맹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88	02-04 樂以天下章	02-04 樂以天下章	<p>◇맹자가 齊 宣王에게 또다시 온 천하와 더불어 즐거움과 근심을 같이 하는 君主가 되면, 천하 萬民이 그에게로 귀순해 와서 天下에 王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제나라의 유능했던 景公과 晏子(안자)와의 故事를 들어, 불필요한 군사 행동과 流連荒亡(유연황망)한 일을 그만두도록 완곡하게 타일러 준 내용이다. - 제 선왕에게 설궁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도 마음의 동요가 없이, 王에게 善政(선정)과 貧困(빈곤) 救濟(구제)를 위해 솔선할 것을 일러주는 맹자의 능름하고 여유 있는 長者(장자)의 風貌(풍모)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p>
89	雪宮 離宮名 言 人君 能與民同樂 則人皆有此樂 不然 則下之不得此樂者必有非其君上之心 明人君當與民同樂 不可使人有不得者 非但當與賢者共之而已也	02-04-01 齊宣王 見孟子於雪宮 王曰 賢者亦有此樂乎 孟子 對曰 有人不得則 非其上矣	<p>제나라 선왕이 설궁에서 맹자를 보시고 말하기를, 「어진 사람도 또한 이러한 즐거움을 갖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그 윗사람을 비방할 것입니다.</p>
90	下不安分 上不恤民 皆非理也	02-04-02 不得而非其上者非也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 亦非也	<p>얻지 못하여 그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도 울지 않으며, 백성들의 윗사람이 되어 백성들과 함께 즐기지 않는 사람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p>
91	樂民之樂而民樂其樂 則樂以天下矣 憂民之憂以民憂其憂 則憂以天下衣者 未之有也	02-04-03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樂以天下 憂以天下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p>(윗사람이)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백성도 역시 (윗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윗사람이) 백성의 근심을 걱정해주면 백성도 역시 (윗사람의) 근심을 걱정할 것이니, 천하의 일을 가지고 즐기며, 천하의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그러고서도 천하에 王노릇 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있지 아니합니다.</p>
92	晏子 齊臣 名嬰 轉附朝儻 皆山名也 遵循也 放至也 琅也 齊東南境上邑名 觀游也	02-04-04 昔者 齊景公 問於晏子曰 吾欲觀於轉附朝儻 遵海而南 放於琅邪 吾何修而可以比於先王觀也	<p>옛날에 제나라 경공이 안자에게 묻기를, 「내가 전부산과 조무산을 보고서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낭야에 이르고자 하는데, 내 어떻게 하여야 선왕들의 유람과 비길 수 있을까요?」</p>

93	<p>述陳也 省視也 斂收穫也 紿 亦足也 夏言 夏時之俗語也 豫 樂也 巡所守 巡行諸侯所守之土也 述所職 陳其所守之職也 皆無有無事而空行者 而又春秋循行郊也 察民之所不足而補助之 故 夏言 以爲王者一遊一豫 皆有恩惠以及民 而諸侯皆取法焉 不敢無事慢遊以病其民也</p>	<p>02-04-05 晏子對曰 善哉問也 天子適諸侯曰 巡狩 巡狩者巡 所守也 諸侯朝於天子曰 述職 述職者述所職也 無非事者 春 省耕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及 夏諺曰 吾王不遊 吾何以休 吾 王 不豫 吾何以助 一遊一豫 爲諸侯度</p>	<p>안자가 대답하기를, '좋은 질문입니다.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일컬어 순수라 하는데, 순수라는 것은 지키는 바를 돌아봄이요,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는 것을 술직이라 하는데, 술직이라는 것은 맑은 바 직무를 보고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들은) 일 아닌 것이 없어서, 봄이면 경작하는 것을 살펴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가을이면 거두는 것을 살펴서 모자라는 것을 도와주느니, 하나라 속담에 이르기를, <우리 임금이 봄 농사 때 시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쉬며, 우리 임금이 가을 추수 때 시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겠는가!>라고 하여, 봄에 한번 시찰을 하고, 가을에 추수시찰을 하는 것이 제후들의 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p>
94	<p>今 謂晏子時 師衆也 二千五百人 爲師 春秋傳曰 君行師從 糧 謂糗糒之屬 眇眛 則目貌 胥相也 讷謗也 懸怨惡也 言民不勝其努 而起怨謗也 方亦也 命王命也 若流 如水之流無窮極也 流然荒亡 解見下文 諸侯 謂附庸之國 縣邑之長</p>	<p>02-04-06 今也不然 師行而糧 食 飢者弗食 勞者弗息 眇眛胥 謗 民乃作懸 方命虐民 飲食若 流 流連荒亡 爲諸侯憂</p>	<p>(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임금에게) 호위 군사들이 따르므로 (멀리서부터 식량을 운반하여) 양식이 소비되어, 주린 자가 먹지도 못하고 피로한 자가 쉬지도 못하여, 눈을 서로 훑기고 비방하며 백성들은 마침내 나쁜 짓을 저지르니, (임금은) 선왕의 교훈을 버려버리고 백성들을 학대하며, 음식을 흐르는 물처럼 낭비하고 유연황망하여 제후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p>
95	<p>此 釋上文之義也 從流下 謂放舟隨而下 從流上 謂挽舟逆水而上 從獸 田獵也 荒廢也 樂酒 以飲酒爲樂也 亡猶失也 言廢時失事也</p>	<p>02-04-07 從流下而忘反謂之流 從流上而忘反謂之連 從獸無厭 謂之荒 樂酒無厭謂之亡</p>	<p>흐르는 것을 쫓아 내려가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을 유라 하며, 흐르는 것을 쫓아 올라가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을 연이라 하며, 짐승을 쫓아서 싫증을 느끼지 않음을 황이라 하고, 술을 즐겨서 싫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망이라 하니,</p>
96	<p>言先王之法 今時之弊 二者 惟在君所行耳</p>	<p>02-04-08 先王無流連之樂 荒 亡之行 惟君所行也</p>	<p>선왕께서는 유연하는 즐거움과 황망하는 행함이 없으셨으니, 오직 임금께서 행하심에 달렸습니다.'</p>
97	<p>戒告命也 出舍 自責以生民也 興發 發倉廩也 大師 樂官也 君臣 己與晏子也 樂有五聲 三日角 爲民 四日 徵 爲事 招 舜樂也 其詩 徵招角招之詩也 尤過也 言 晏子能畜止其君之欲 宜爲君之所尤 然 其心則何過哉 孟子釋之 以爲臣能畜止其君之欲 乃是愛其君子也 ♥ 尹氏曰 君之與民 貴賤雖不同 然 其心</p>	<p>02-04-09 景公說 大戒於國 出 舍於郊 於是始興發 補不足 召 太師曰 爲我作君臣相說之樂 蓋徵招角招是也 其詩曰 畜君 何尤 畜君者好君也</p>	<p>경공이 기뻐하여 대대적으로 나라에 포고하여 경계하고, 교외에 나가 이에 비로소 국고를 열어 (백성들의) 부족함(곤궁함)을 돋고 태사를 불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임금과 신하가 서로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라.' 하니, 치소와 각소가 이것입니다. 그 시(가사)에 이르기를, '임금을 거역함이 무슨 허물이리오.'하니, 임금을 거역하는 사람은 임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p>

	未始有異也 孟子之言 可謂深切矣 齊王 不能推而用之 憎哉		
98	02-05 好貨好色章	02-05 好貨好色章	◇맹자께서 제 선왕이 明堂撤去(명당철거)의 可否를 물어온 것을 계기로 그에게 王道政治를 勸誘(권유)한 내용이다. - 선왕이 자기의 好貨 好色의 性癖(성벽)을 내세워 왕도정치의 시행에 난색을 표명했으나, 맹자는 그런 것들이 결코 왕도정치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며, 백성들과 더불어 좋아한다면, 오히려 公劉나 大王(태왕)처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99	趙氏曰 明堂 泰山明堂 周天子東巡守朝諸侯之處 漢時遺址尙在 人欲毀之者 蓋以天子不復巡守 諸侯又不當居之也 曰問 當毀之乎 此止乎	02-05-01 齊宣王問曰 人皆謂 我毀明堂 毀諸已乎	제나라 선왕이 묻기를,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명당을 헐어버리라고 하니, 헐어버릴까요, 헐지 말까요?」
100	明堂 王者所居以出政命之所也 能行王政 則亦可以王矣 何必毀哉	02-05-02 孟子對曰 夫明堂者 王者之堂也 王欲行王政則 勿 毀之矣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무릇 명당이라는 것은 왕자의 당이니, 왕께서 왕도의 정치를 행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헐지 마십시오.」

<p>岐 周之舊國也 九一者 井田之制也 方一里爲一井 其田九百畝 中畫井字 界爲九區 一區之中 爲田百畝 中百畝 爲公田 外八百畝 爲私田 八家各受私田百畝 而同養公田 是九分而稅其一也 世祿者 先王之世 仕者之子孫 皆教之 教之而成材 則官之 如不足以用 亦使之不失其祿 蓋其先世嘗有功德於民 姑 報之如此 忠厚之至也 關 謂道路之關 市 謂都邑之市 譏察也 徵稅也 關市之吏 察異服異言之人 而不徵商賈之稅也 澤 謂瀦水 梁 謂魚梁 與民同利 不設禁也 孥妻子也 惡惡止其身 不及妻子也 先王養民之政 導其妻子 使之養其老而恤其幼 不行而有鰥寡孤獨之人 無父母妻子之養 則尤宜忍恤 故 必以爲先也 詩 小雅正月之篇 哿可也 無困悴貌</p>	<p>02-05-03 王曰 王政可得聞與 對曰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 九一 仕者世祿 關市 譏而不征 澤梁無禁 罪人不孥 老而無妻 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 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 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 仁 必先斯四者 詩云 哇矣富人 哀此勞獨</p>	<p>왕이 말하기를, 「왕도정치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맹자가) 대답하시기를, 「옛날에 문왕이岐땅을 다스릴 때에 경작자에게는 9분의 1의 과세(井田法;정전법)를 하였고, 벼슬한 자에게는 그祿을 세습시켰으며, 관문과 시장에서는 살피기는 하였으나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았고, 물고기를 잡는 보(보)의 설치를 금하지 않았으며, 죄를 주는데는 그 처자에게까지 연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늙고 아내 없는 자를 홀아비라 하고, 늙고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 하며, 늙고 자식이 없는 자를 獨(독)이라 하고, 어리고 아비가 없는 자를 孤(고)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을 먼저 살피셨으니, 『시경』에 이르기를, '괜찮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외로운 사람들이 애처롭다.'라고 하였습니다.」</p>
<p>王自以爲好貨 故 取民無制 而不能行此王政 公劉后稷之曾孫 詩 大雅公劉之篇 積露積也 餘乾糧也 無低日橐 有低日囊 皆所以盛餚糧也 戢安集也 言思安集其民人 以光大其國家也 戒斧也 揚鉞也 爰於也 啓行 言王遷于幽也 何有 言不難也 孟子言 公劉之民 不足如此 是公劉好貨而能推己之心 以及民也 今王好貨 亦能如此 則其於王天下也 何難之有</p>	<p>02-05-04 王曰 善哉言乎 曰王 如善之則何爲不行 王曰 寡人 有疾 寡人好貨 對曰 昔者公劉 好貨 詩云 乃積乃倉 乃裹餚糧 于橐于囊 思戢用光 弓矢斯張 干戈戚揚 爰方啓行 故居者有 積倉 行者有裹糧也然後 可以 爰方啓行 王如好貨 與百姓同 之 於王何有</p>	<p>왕이 말하기를,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왕께서 만약 좋게 여기신다면 무엇 때문에 실행하지 않으십니까?」 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병이 있으니, 과인이 재물을 좋아합니다.」(맹자가) 대답하시기를, 「예전에 公劉가 재물을 좋아하시더니, 『시경』에 이르기를, '露積(노적)가리와 창고에 곡식을 쌓고 마른 양식은 전대와 자루 속에 담았으니,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나서 나라를 빛내려고 생각하여서, 활과 창을 펴들고, 방패·창·도끼·자귀(큰 도끼)를 잡고, 이에 비로소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고 하니, 그러므로 머물러 있는 자들은 노적가리와 창고에 쌓인 곡식이 있으며, 떠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쌓 자루를 가진 연후에야 비로소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왕께서 만일 재물을 좋아하시거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하신다면 왕 노릇을 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p>

<p>王又言此者 好色則心志蠱惑 用度奢侈 而不能行王政也 大王公劉九世孫 詩 大雅綿之篇 古公 大王之本號 後乃追尊大王也 亶父 大王名也 來朝走馬 避狄人之難也 率循也 漢水涯也 岐山之下也 姜女大王之妃也 胤相也 宇居也 曠空也 無怨曠者 是大王好色以能推己之心 以及民也</p> <p>♥ 楊氏曰 孟子與人君言 皆所以擴充其善心 而格其非心 不止就事論事 若使爲人民者論事 每如此 其不能堯舜其君也 愚謂此篇 自首章至此 大意皆同 蓋鍾鼓苑囿游觀之樂 與夫好勇 好貨 好色之心 皆天理之所有 而人情召所不能無者 然天理人欲 同行異情 循理而公於天下者 聖賢之所以盡其性也 縱欲而私於一己者 衆人所以滅其天也 二者之間 不能毫髮 而其是非得失之歸 相去遠矣 故孟子因時君之間 而剖析於幾微之際 皆所以遏人欲而存天理 其法似所以實密 其事似易而實難 學者以身體之 則有以識非曲學阿世之言 而知所以克己復禮之端也</p>	<p>02-05-05 王曰 寡人有疾 寡人 好色 對曰 昔者大王好色 愛厥 妃 詩云 古公亶父 來朝走馬 率西水滸 至于岐下 爰及姜女 聿來胥宇 當是時也 內無怨女 外無曠夫 王如好色 與百姓同 之 於王何有</p>	<p>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병이 있으니, 과인은 색(여자)을 좋아합니다.」 (맹자가) 대답하시기를, 「예전에 大王(태왕)이 색을 좋아하시어 그 부인을 사랑하셨으니, 『시경』에 이르기를, '고공단보가 아침에 말을 달리어 서수 물가를 따라 기산 아래에까지 姜女(태왕의 부인인 太姜)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다.'고 하니, 당시에는 안으로 남편이 없는 여인이 없었고, 밖으로 아내 없는 사내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께서 만약 색을 좋아하시거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하신다면 왕 노릇을 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p>
<p>104</p> <p>02-06 王顧左右章</p>	<p>02-06 王顧左右章</p>	<p>◇맹자께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宣王에게 그 책임을痛切히 느낄 수 있도록 두 가지의 質問으로써 誘導(유도)한 내용이다. - 君臣 上下가 각기 자기의 所任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力說한 내용</p>
<p>105</p> <p>託寄也 比及也 棄絕也</p>	<p>02-06-01 孟子謂齊宣王曰 王 之臣 有託其妻子於其友而之楚 遊者 比其反也 則凍餒其妻子 則如之何 王曰 棄之</p>	<p>맹자께서 제나라 선왕께 일러 말씀하시기를, 「왕의 신하가 그 처자를 그의 벗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그가 돌아와서 보니 그의 처자를 얼리고 굶주리게 하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말하기를, 「그와 절교하지요.」</p>

106	士師玉官也 其屬有鄉士遂士之官 士師皆當治之 已罷去也	02-06-02 曰士師不能治士 則 如之何 王曰已之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士師가 부하인 사람들을 능히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말하기를, 「파면시킬 것입니다.」)
107	孟子將問此而先上二事 以發之 及此而王不能答也 其憚於自責 恥於下問如此 不足與有爲 可知矣 ♥ 趙氏曰 君臣上下 各勤其任 無墮其職 乃安其身	02-06-03 曰四境之內不治 則 如之何 王顧左右而言他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방의 국경 안이 다스려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좌우를 돌아다보고 다른 말을 하였다.)
108	02-07 所謂故國章	02-07 所謂故國章	◇맹자가 제 선왕에게 信賴(신뢰)할만한 신하가 별로 없음을 말하고, 무능하고 부정한 신하를除去하고, 현량한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 그리고 誅殺(주살)의 刑罰(형벌)에서 그 절차를 알려주신 내용이다. - 그러한 모든 일이 民意(민의)에 따라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109	世臣 累世勳舊之臣 與國同休戚者也 親臣 君所親信之臣 與君同休戚者也 此 言 喬木 世臣 皆故國所宜有 然 所以爲故國者 則在此而不在彼也 昨日所進用之人 今日有亡去而不知者 則無親臣矣 況世臣乎	02-07-01 孟子見齊宣王曰 所 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 王無親臣矣 昔 者所進 今日不知其亡也	맹자께서 제나라 선왕을 뵙고 말씀하시기를, 「이른바 고국이라 하는 것은 교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왕은 친근한 신하조차 없습니다. 지난날에 등용된 사람을 오늘날에는 제거해야 할 자임을 모르십니다.」
110	王意以爲此亡去者 皆不才之人 我初不知而誤用之 故 今不以其去爲意耳 因問何以先識其不才而舍之邪	02-07-02 王曰 吾何以識其不 才而舍之	왕이 말하기를, 「내 어떻게 하면 그가 인재가 아님을 구별하여 내치겠습니까?」
111	如不得已 言謹之至也 蓋尊尊 親親 禮之常也 然 或尊者親者未必賢 必進疏遠之賢而用之 是 使卑者踰尊 疎者踰戚 非禮之常 姑 不可不謹也	02-07-03 曰國君進賢 如不得 已 將使卑踰尊 疏踰戚 可不慎 與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임금께서 현량한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같이 할 것이니, 장차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어서게 하며, 친하지 않은 이로 하여금 친척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12	左右近臣 其言 固未可信 諸大夫之言 義可信矣 然 猶恐其蔽於私也 之於國人 則其論 公矣 然 猶必察之者 蓋人有同俗以爲衆所悅者 亦有特立以爲俗所憎者 故 必自察之 而親見其賢否之實然後 從而用舍之 則於賢者 知之深 任之重 理不才者不得已幸進矣	02-07-04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未可也 國人皆曰 賢然後 察之 見賢焉然後用之 左右皆曰 不可勿聽 諸大夫皆 曰 不可勿聽 國人皆曰 不可然 後察之 見不可焉然後去之	좌우가 모두 다 현량하다고 해도 옳지 아니하며, 여러 대부들이 다 현량하다고 해도 또한 옳지 아니하고, 나라 사람이 모두 다 현량하다고 한 연후에야 그 사람을 살펴서 현량함을 보고서 그를 등용하십시오. 좌우가 모두 다 안 된다고 해도 듣지 말며, 여러 대부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또한 듣지 말고, 나라 사람이 모두 안 된다고 한 연후에야 그 사람을 살펴서 불가함을 본 다음 그를 버리십시오.

	所謂進賢如不得已者 如此		
113	此 言非獨以此進退人才 之於用刑 亦以此道 蓋所謂天命天討 皆非人君之所得私也	02-07-05 左右皆曰 可殺勿聽 諸大夫皆曰 可殺勿聽 國人皆 曰 可殺然後察之 見可殺焉然 後殺之 故曰國人殺之也	좌우가 모두 다 죽여야 한다고 해도 듣지 말며, 여러 대부들이 다 죽여야 한다고 해도 또한 듣지 말고, 나라 사람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한 연후에야 그 사람을 살펴서 죽여 마땅하면 죽여야 할 것입니다.
114	傳曰 民之所好 好之 民之所惡 惡之 此之謂民之父母	02-07-06 如此然後 可以爲民 父母	그렇게 하면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죽였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비로소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15	02-08 聞誅一夫章	02-08 聞誅一夫章	◇맹자의 革命思想이라고 할 수 있는 湯武放罰論(탕무방벌론)이다. - 이에 대한 시비가 없지는 않으나, 古來로 중국 혁명사상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관련: <1-3>, <8-3>, <14-14>
116	放置也 書云 成湯放桀于南巢	02-08-01 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 有之	제나라 선왕이 물어 말하기를, 「탕임금이 걸을 쫓아내고, 무왕이紂를 쳤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전하는 글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117	桀紂 天子 湯武 諸侯	02-08-02 曰臣弑其君可乎	(왕이) 말하기를, 「신하가 그 임금을 살해해도 괜찮습니까?」
118	賊害也 殘傷也 害仁者 凶暴淫虐 滅絕天理 故 謂之賊 害義者 顛倒錯亂 傷敗彝倫 故 謂之殘 一夫 言衆叛親離 不復以爲君也 曰 獨夫紂 蓋四海歸之 則爲天子 天下叛之 則爲獨夫 所以深警齊王 垂戒後世也 ♥ 王勉曰 斯言也 惟在下者有湯武之仁 而在上者有桀紂之暴 則可 不然 是未免於篡弑之罪也	02-08-03 曰賊仁者謂之賊 賊 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仁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하고, 義를 해치는 것을 잔이라 하며, 殘賊(잔적)한 사람을 일부(匹夫; 필부)라 하니, 한 필부를 배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119	02-09 爲巨室章	02-09 爲巨室章	◇맹자가 제 선왕의 霸道指向의(패도지향적)인 治國(치국) 태도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다. - 능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각 분야를 맡기는 것이 좋은 治道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120	巨室大宮也 工師匠人之長 匠人衆工人也 姑且也 言賢人所學者大而王欲小之也	02-09 01 孟子見齊宣王曰 爲巨室則 必使工師求大木 工師得大木 則王喜以爲能勝其任也 匠人斲而小之 則王怒以爲不勝其任矣 夫人幼而學之 壯而欲行之 王曰 姑舍女所學而從我則何如	맹자께서 제나라 선왕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큰 궁전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都木手(도목수)로 하여금 큰 나무를 구해오게 할 것이니, 도목수가 큰 나무를 구하면 왕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나무가) 제구실을 해낼 수 있다고 하시고, 목수(장인)가 그 나무를 깎아서 작게 만들어 버리면 왕께서는 화를 내시며, (그 나무가) 제구실을 해낼 수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대저 사람이 어려서 배워가지고 장성하여 그 배운 바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시 네가 배운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121	璞 玉之在石中者 鑑 二十兩也 玉人玉工也 不敢自治而付之能者愛之心也 治國家 則徇私慾而不任賢愛國家不如愛玉也	02-09 02 今有璞玉於此 雖萬鑑 必使玉人彫琢之 至於治國家 則曰姑舍女所學 而從我 則何以異於教玉人彫琢玉哉	지금 여기에 박옥이 있다면, 비록 萬鑑이나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玉人을 시켜 갈고 다듬게 할 것인데, 나라를 다스림에 이르러서, '잠시 네가 배운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옥인에게 옥을 갈고 다듬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22	02-10 避水火也章	02-10 避水火也章	◇맹자께서 다른 나라를 정벌했을 때도 그 나라의 민심을 살펴 服屬(복속) 與否(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다. - 民意 尊重(민의 존중)이 곧 王道政治(왕도정치)임을 말하고 있다.
123	按史其 燕王噲 讓國於其相子之而國大亂 齊因伐之 燕士卒不戰城門不閉 遂大勝燕	02-10 01 齊人伐燕勝之	제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쳐서 이겼거늘,
124	以伐燕爲先王事 與史記諸書不同已見序說	02-10-02 宣王問曰 或謂寡人勿取 或謂寡人取之 以萬乘之國 伐萬乘之國 五旬而舉之 人力不至於此 不取必有天殃 取之何如	선왕이 묻기를, 「어떤 사람은 과인에게 (연나라를) 취하지 말라하고 어떤 사람은 과인에게 그것을 취하라고 하니, 만승의 나라로서 만승의 나라를 쳐서 오십일 만에 이겼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이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취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니, 취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25	商紂之世 文王 三分天下 其有二以服事嘗 至武王三十年乃伐紂而有天下 張子曰 此事間不容髮 一日之間 天命未絕則是君臣 當日命絕 則爲獨夫 然命之絕否 何以知之 人情而已諸侯不期而會者八百 武王安得而止之哉	02-10-03 孟子曰 取之而燕民悅則取之 古之人 有行之者 武王是也 取之而燕民 不悅則勿取 古之人 有行之者 文王是也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취하되 연나라 백성들이 기뻐하면 취하십시오. 옛날 사람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니, 무왕이 그렇습니다. 취하되 연나라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취하지 마십시오. 옛날 사람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니, 문왕이 그렇습니다.」

126	<p>簞竹器 食飯也 運轉也 言 齊若更爲暴虐 則民將轉而望救於他人矣 ♥ 趙氏曰 征伐之道 當順民心 民之悅 則天意得矣</p>	<p>02-10-04 以萬乘之國 伐萬乘 之國 簾食壺漿 以迎王師 豈有 他哉 避水火也 如水益深 如火 益熱 亦運而已矣</p>	<p>만승의 나라로서 만승의 나라를 치는데,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담은 음료를 가지고 왕의 군사를 환영하는 것에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과 불(재난)을 피하려는 것이니, 만약에 물이 더욱 깊어지고 불이 더욱 뜨거워지면 또한 다른 데로 옮겨가버릴 따름입니다.」</p>
127	<p>02-11 諸侯救燕章</p>	<p>02-11 諸侯救燕章</p>	<p>◇ 戰爭에서 勝利(승리)하더라도 王道政治를 行해야만 하며, 占領地域(점령지역)의 民意와 自決權(자결권)을 尊重(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 占領地域(점령지역)에서 仁政을 펴지 않으면 결국 滅亡(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p>
128	<p>千里畏人 指齊王也</p>	<p>02-11-01 齊人伐燕取之 諸侯 將謀救燕 宣王曰諸侯多謀伐寡 人者 何以待之 孟子對曰 臣聞 七十里爲政於天下者 湯是也 未聞以千里畏人者也</p>	<p>제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쳐서 취하니, 제후들이 연나라를 구원하려고 꾀하거늘 선왕이 말하기를, 「제후들 가운데 과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할까요?」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신이 듣기로 칠십리 땅으로 온 천하를 다스렸던 자가 곧 탕임금이니, 천리의 땅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p>
129	<p>兩引書 皆商書仲虺之誥文也 與今書文 亦所以 一征初征也 天下信之 信其志在救民 不爲暴也 奚爲後我 言湯何爲不先來征我之國也 露虹也 雲合則雨 虹見則止 變動也 徒待也 后君也 蘇復生也 他國之民 皆以湯爲我君而待其來 使己得蘇息也 此 言湯之所以七十里以爲政於天下也</p>	<p>02-11-02 書曰 湯一征 自葛始 天下信之 東面而征 西夷怨 南 面而征 北狄怨 曰奚爲後我 民 望之 若大旱之望雲霓也 歸市 者不止 耕者不變 誅其君而吊 其民 若時雨降 民大悅 書曰後 我后 后來其蘇</p>	<p>『서경』에 이르기를, '탕임금이 처음의 정벌을 葛나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천하가 그를 믿어주어 동쪽을 향해 정벌하면 西夷가 원망하였으며, 남쪽을 향해 정벌하면 北狄가 원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뒤로 하는고?>라고 하며, 백성들이 바라기를 마치 큰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비)와 같이 하여, 시장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그치지 않았고, 밭을 가는 자들은 변하지 않고거늘, 그 왕을 베고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 것이 마치 제때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하였고, 또『서경』에 이르기를, '우리 임금을 기다리나니, 임금께서 오셔야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p>
130	<p>拯救也 係累繫縛也 重器寶器也 畏忌也 倍地并燕而增一倍之地也 齊之取燕 若能如湯之征葛 則燕人悅之 而齊可爲政於天下矣 今乃不行仁政 而肆爲殘虐 則無以慰燕民之望而服諸侯之心 是以 不免乎以千里理畏人也</p>	<p>02-11-03 今燕虐其民 王往而 征之 民以爲將拯己於水火之中 也 簾食壺漿 以迎王師 若殺其 父兄 係累其子弟 毀其宗廟 遷 其重器 如之何其可也 天下固 畏齊之彊也 今又倍地而不行仁 政 是動天下之兵也</p>	<p>이제 연나라가 그 백성들에게 포학하여 왕께서 나아가 치시니, 백성들이 장차 자기들을 물과 불의 재앙으로부터 건져주리라 하여,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넣은 음료를 가지고 왕의 군대를 환영하였던 것이거늘, 만약에 그들의 부상을 죽이고, 그들의 자제들을 끓어놓으며, 그들의 종묘를 헐고, 그들의 귀중한 기물을 옮길다면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가 진실로 제나라가 강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제 또 땅을 배로 놀려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하의 병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p>
131	<p>反還也 旄老人也 倪小兒也 所謂虜略之老小也 猶尙也</p>	<p>02-11-04 王速出令 反其旄倪 止其重器 謂於燕衆 置君而後</p>	<p>왕께서 속히 명령을 내리시어 그들의 노약자들을 돌려보내시며, 귀중한 기물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게 하시며, 연나라</p>

	<p>及止及其未發而止之也 ♥ 范氏曰 孟子事齊梁之君 論道德 則必稱堯舜 論征伐 則必稱湯武 皆治民 不法堯舜 則是爲暴 行師 不法湯武 則是爲亂 豈可爲吾君不能而舍所學以徇之哉</p>	去之 則猶可及止也	<p>대중들과 의논하여 임금을 세운 뒤에 돌아가신다면, 그래도 제후들의 공격을 중지시켜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10 장의 내용과 관련된 것임></p>
132	02-12 鄭與魯鬪章	02-12 鄭與魯鬪章	<p>◇평소에 仁政을 베풀지 못해 전쟁에서 패한 穆公에게 出乎爾者 反乎爾者也<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로써 스스로 반성하고, 仁政을 베풀도록 勸勉(권면)한 내용이다. - 이후 목공은 仁政을 베풀어 훌륭한 주자가 되었으며, 그가 죽자 鄭나라 백성들이 慎父(자부)를 잊은 것같이 슬퍼했다고 한다.</p>
133	<p>鬪鬪聲也 穆公鄭君也 不可勝誅 言人衆 不可盡誅也 長上 謂有司也 民怨其上 故 疾視其死而不救也</p>	02-12-01 鄭於魯鬪 穆公問曰 吾有司死者三十三人而民莫之 死也 誅之則不可勝誅不誅 則 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 如之何 則可也	<p>추나라가 노나라와 싸우거늘 목공이 물어 말하기를, 「내 유사(군 지휘관)들은 죽은 자가 33인인데,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를 않았으니, 그들을 죽이고자 하면 이루 다 죽일 수가 없고,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윗사람을 밑에 보아서 죽음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p>
134	<p>轉 餓餓輒輒而死也 充滿也 上 謂君及有司也 尤過也</p>	02-12-02 孟子對曰 凶年饑歲 君之民 老弱轉乎溝壑 壯者散 而之四方者 幾千人矣 而君之 倉廩實 府庫充 有司莫以告 是 上慢而殘下也 曾子曰 戒之戒 之 出乎爾者反乎爾者也 夫民 今而後 得反之也 君何尤焉	<p>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흉년이 들어 주리던 해에 임금의 백성 중에 노약자들은 도량에 굴러들어가 죽고, 건장한 자들은 흘어져 사방으로 가버린 자가 몇 천 명이나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임금의 양곡 창고는 가득 차있었고, 재물 창고 또한 가득하거늘, 상관들은 이러한 사정을 (임금께) 고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윗사람이 고만하고 아랫사람을 잔인하게 다룬 것입니다.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오느니라.'고 하셨으니, 무릇 백성들이 이제야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니, 임금은 허물하지 마소서.」</p>
135	<p>君不仁而求富 是以 有司知重斂而不知恤民 故 君行仁政 則有司皆愛民 而民亦愛之矣 ♥ 范氏曰 書曰 民惟邦本 本固邦寧 有倉廩府庫 所以爲民也 豊年則斂之 凶年則散之 恤其飢寒 救其疾苦 以是 民親愛其上 有危難則赴救之 如子弟之衛父兄 手足之捍頭目也 穆公 不能反己 猶欲歸罪於民 豈不誤哉</p>	02-12-03 君行仁政 斯民親其 上 死其長矣	<p>임금께서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백성들은 윗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며, 또한 윗사람을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p>

136	02-13 間於齊楚章	02-13 間於齊楚章	◇비록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할지라도,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죽을 각오로써 나라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이다.
137	滕國名也	02-13-01 滕文公問曰 滕小國 也 間於齊楚 事齊乎 事楚乎	등나라 문공이 묻기를, 「등나라는 작은 나라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있으니, 제나라를 섬기오리까? 초나라를 섬기오리까?」
138	無已 見前篇 一 爲一說也 效猶致也 國君死社稷 故 致死以守國 之於民亦爲之死守而不去 則非有以深得其心者 不能也 ♥ 此章 言有國者 當守義而愛民 不可僥倖而苟免	02-13-02 孟子對曰 是謀非吾 所能及也 無已則 有一焉 窿斯 池也 築斯城也 與民守之 效死 而民弗去 則是可爲也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한 계책은 내가 어떻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하다면 한 가지 대책이 있으니, 이 연못을 더욱 파고, 이 성벽을 더욱 쌓아서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 죽음에 이르더라도 백성들이 떠나가 버리지 않는다면, 곧 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139	02-14 齊人將築薛章	02-14 齊人將築薛章	◇나라의 存亡은 天命에 달린 것이며, 힘써 善을 행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내용이다.
140	薛國名 近勝 齊取其地而城之 故 文公 以其偏己而恐也	02-14-01 滕文公問曰 齊人 將 築薛 吾甚恐 如之何則可	등나라 문공이 묻기를, 「제나라 사람들이 장차薛땅에다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나는 심히 두려우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141	邠地名 言 大王 非以岐下爲善 擇取而居之也 詳見下章	02-14-02 孟子對曰 昔者大王 居邠 狄人侵之 去之岐山之下 居焉 非擇而取之 不得已也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옛날에 태왕이 빈에서 살 때에狄人们이 침노하거늘, 그곳을 버리고 기산아래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을 택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142	創造也 統緒也 言能爲善 則如大王雖失其地 而其後世遂有天下 乃天理也 然君子造其業於前 而垂統緒後 但能不失其正 令後世可繼續而行耳 若夫成功則其可必乎 彼齊也 君之力 旣無如之何 則但彊於爲善 使其可繼而俟命於天耳 ♥ 此章 言人君 但當竭力於其所當爲 不可僥倖於其所難必	02-14-03 苟爲善 後世子孫 必 有王者矣 君子創業垂統 爲可 繼也 若夫成功則天也 君如彼 何哉 強爲善而已矣	진실로 선한 일을 한다면 후세의 자손 중에서 반드시 王者가 생겨날 것이니, 군자가 나라를 세워서 국통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계승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을 하였다고 해도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니, 왕이 저들(제나라 사람들)을 어찌 하시렵니까? 힘써 선을 행할 따름이지요.」
143	02-15 效死勿去章	02-15 效死勿去章	◇前章(전장)에 이어서 소국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태왕처럼 나라를 버리고 떠나가던지, 아니면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다. - 그러나 그 주된 답은 後者(후자)라고 할 수 있다.

144	<p>皮謂虎豹麋鹿之皮也 幣帛也 屬集會也 土地本生物以養人 今爭地而殺人 是 以其所以養人者 害人也 邑作邑也 歸市人衆而爭先也</p>	<p>02-15-01 滕文公問曰 滕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孟子對曰 昔者 大王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不得免焉 事之以犬馬 不得免焉 事之以珠玉 不得免焉 乃屬其耆老而告之曰 狄人之所欲者吾土地也 吾聞之也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 害人 二三者 何患乎無君 我將去之 去邠踰梁山 邑于岐山之下居焉 邠人曰仁人也 不可失也 從之者 如歸市</p>	<p>등나라 문공이 물기를, 「滕은 작은 나라라 힘을 다하여 큰 나라를 섬기는데도 그 침입을 면치 못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옛날에 태왕이邠에서 살적에 北狄이 침입해 오자, 그들을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으나 그 침입을 면치 못하였으며, 그들을 개와 말로써 섬겼으나 (역시) 침략을 면치 못하였고, (또한) 주옥으로 그들을 섬겼으나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르기를, '오랑캐들이 바라는 바는 우리들의 토지이니, 내가 듣건대 군자는 사람을 기르는 땅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하니, 여러분은 어찌 왕이 없는 것을 근심 하리오? 나는 장차 여기를 떠나겠소.'하고 빈을 떠나 양산을 넘어서 기산 아래에 도읍을 정하고 사는지라, 빈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진 사람이니 잃을 수는 없다.'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시장에 가는 것과 같이 많았습니다.</p>
145	<p>又言 或謂土地 乃先人所受而世守之者 非己所能專 但當致死守之 不可舍去 此國君死社稷之常法 傳所謂國滅君死之正也 正謂此也</p>	<p>02-15-02 或曰 世守也 非身之所能爲也 效死勿去</p>	<p>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대로 지켜온 땅이므로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죽음으로써 지키고 떠나지 말자.'고 하느니,</p>
146	<p>能如大王則避之 不能則謹守常法 蓋遷國以圖存者 權也 守正而俟死者 義也 審己量力 擇而處之 可也 ❤ 楊氏曰 孟子之於文公 始告之以效死而已 禮依正也 至其甚恐 大王之事告之 非不得已也 然 無大王之德而去 則民或不繼 而遂之於亡 則又不若效死之爲愈 故 又請擇於斯二者 又曰 孟子所論 自世俗觀之 則可謂無謀矣 然 理之可爲者 不過如此 舍此則必爲儀秦之爲矣 凡事求可 功求成 取必於智謀之末 而不循天理之正者 非聖賢之道也</p>	<p>02-15-03 君請擇於斯二者</p>	<p>임금께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택하소서.」</p>
147	<p>02-16 壁人臧倉章</p>	<p>02-16 壁人臧倉章</p>	<p>◇讒言(참언)을 하는 사악한 인간이 賢者(현자)를 모함해도 현자는 그것을 하늘에 돌리고 인간을 허물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 맹자의 天命觀(천명관)의 一端(일단)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p>

148	乘輿君車也 駕駕馬也 孟子前喪父後喪母 踏過也 言其厚母薄父也若應辭也	02-16-01 魯平公將出 壁人臧倉者 請曰他日君出則必命有司所之 今乘輿已駕矣 有司未知所之 敢請 公曰將見孟子 曰何哉 君所謂輕身 以善於匹夫者以爲賢乎 禮義由賢者出而孟子之後喪 踏前喪 君無見焉 公曰諾	노나라 평공이 나가려고 하니, 총애하는 신하臧倉이라는 자가 청해서 말하기를, 「다른 날에는 임금께서 나가시려면 반드시 유사에게 가시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수레에 이미 명예를 매었는데, 유사가 가시는 곳을 알지 못하니, 감히 (말씀해 주실 것을) 청하나이다.」 공께서 말하기를, 「장차 맹자를 보려한다.」 (장창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입니까? 임금께서 당신을 가볍게 여기시고 필부에게 먼저 찾아가시게 하는 것은? (그가) 현량하다고 해서 입니까? 예의는 현량한 자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맹자는 뒤의喪(어머니 상)을 앞의喪(아버지 상)보다 지나치게 잘 치렀습니다. 그러니 임금께서는 그를 만나보지 마십시오.」 공이 말하기를, 「그러마.」
149	樂正子 孟子齊子也 仕於魯 三鼎士祭禮 五鼎 大夫祭禮	02-16-02 樂正子入見曰 君奚爲不見孟軻也 曰或告寡人曰孟子之後喪 踏前喪 是以不往見也 曰何哉 君所謂踏者 前以士 後以大夫 前以三鼎而後以五鼎與 曰否 謂棺槨衣衾之美也 曰非所謂踏也 貧富不同也	악정자가 들어와 (공을) 뵙고 말하기를,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맹자를 만나보지 않으십니까?」 (공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과인에게 고하기를, '맹자는 뒤의喪을 앞의喪보다 지나치게 잘 치렀다.'고 하기에 그래서 가보지 않았노라.」 (악정자가) 말하기를, 「무엇입니까? 임금께서 지나친다고 하시는 것은? 전에는 士(士의 예)로써 하였고, 뒤에는 大夫(대부의 예)로써 한 것이며, 전에는 三鼎으로써 했고, 뒤에는 五鼎으로써 하여서 입니까?」 (공이) 말하기를, 「아니오. 관곽과 壽衣(수의)와 이불이 좋은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악정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른바 지나친 것이 아니라 貧富(빈부)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150	克樂正子名 沮 尼 皆止之之意也 言人之行 必有人使之者 非止必有人尼之者 然其所以行所以止 則固有天命 而非此人所能使 亦非此人所能尼也 然則我之不遇 其戚倉之所能爲哉 ♥ 此章 言聖賢之出處 關時運之盛衰 乃天命之所謂 非人力之可及	02-16-03 樂正子見孟子曰 克告於君 君爲來見也 壁人有臧倉者沮君 君是以不果來也 曰行或使之 止或尼之 行止非人所能也 吾之不遇魯侯天也 臨氏之子 焉能使予不遇哉	악정자가 맹자를 뵙고 말하기를, 「제가 임금께 고하여 임금이 와서 뵙려고 하더니, 龕臣(총신) 장창이라는 자가 있어 임금을 가로막은지라, 그래서 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갈 때에는 혹 가게 하는 수가 있고, 멎을 때도 혹 멎게 하는 수가 있으나, 가고 멎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魯侯(노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 장씨의 자식이 어찌 나로 하여금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151	03 公孫丑章句上 - 凡九章	03 公孫丑章句上 - 凡九章	[제 3 편. 公孫丑章句(공손추장구) 上]

152	03-01 管仲晏子章	03-01 管仲晏子章	<p>◇ 맹자께서 제자인 공손추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의 정치에 관한 抱負(포부)와 儒家(유가)의 입장을 밝혔으며, 또 당시 제나라의 여러 조건과 시대적 배경에서는 仁政(인정)만 베풀면 별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천하의 王者로 군림할 수 있을 것임을 역설했다. - 공손추는 霸業(패업)을 목표로 맹자께 정치적 諮問(자문)을 구한 것이었다.</p>
153	<p>公孫丑孟子弟子齊人也 當路居要地也 管仲齊大夫名夷吾 相桓公霸諸侯 許猶期也 孟子未嘗得政 丑蓋設辭以問也</p>	03-01-01 公孫丑問曰 夫子當路於齊 管仲晏子之功 可復許乎	<p>공손추가 묻기를, 「선생님께서 제나라의 요직에 계시면 관중과 안자가 세운 공적을 다시 이룩하실 수 있겠습니까?」</p>
154	<p>齊人但知其國有二子而已 不復知有聖賢之事</p>	03-01-02 孟子曰 子誠齊人也 知管仲晏子而已矣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진실로 제나라 사람일세 그려, 관중과 안자만을 알 따름이니.」</p>
155	<p>孟子引曾西與或人問答如此 曾西曾子之孫 跡不安貌 先子曾子也 艴怒色也 曾之言則也 烈猶光也 桓公獨任管仲四十餘年 是專且久也 管仲不知王道而行霸術 故言功烈之卑也 楊氏曰 孔子言子路之才曰 千乘之國可使治其賦也 使其見於施爲 如是而已 其於九合諸侯 一匡天下 固有所不逮也 然則曾西推尊子路如此 而羞比管仲者何哉 譬之御者 子路則範我馳驅而不獲者也 管仲之功詭遇而獲禽耳 曾西仲尼之徒也 故不道管仲之事</p>	03-01-03 或問乎曾西曰 吾子與子路孰賢 曾西蹴然曰 吾先子之所畏也 曰然則吾子與管仲孰賢 曾西艴然不悅曰 爾何曾比予於管仲 管仲 得君 如彼其專也 行乎國政 如彼其久也 功烈 如彼其卑也 爾何曾比予於是	<p>어떤 사람이 증서에게 묻기를, '선생과 자로 중 누가 현량합니까?' 증서가 펄쩍뛰며 말하기를, '내 조부(증자)께서 두려워하셨던 분일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시면 선생과 관중 중 누가 현량합니까?' 증서가 성난 얼굴로 기분 나빠하면서 말하기를, '자네는 어떻게 나를 관중에게 비하려드는가? 관중은 국군의 신임을 얻어 나라 일을 그토록 전단하였고, 국정을 맡아본 것이 그토록 오래 되었는데도 그의 공적은 그토록 변변치 않은데, 자네는 어떻게 나를 관중에게 비하려드는가?'라고 하였다.'</p>
156	曰孟子言也 願望也	03-01-04 曰管仲 曾西之所不爲也 而子爲我願之乎	<p>(이어) 말씀하시기를, 「관중은 증서도 따라하지 않았거늘, 그대는 내가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단 말인가?」</p>
157	顯顯名也	03-01-05 曰管仲 以其君霸晏子 以其君顯 管仲晏子 猶不足爲與	<p>(공손추가) 말하기를, 「관중은 그 임금이 霸王(패왕)이 되게 하였고, 안자는 그 임금을 유명하게 해주었으니, 관중과 안자는 그래도 (따라)할 만하지 않습니까?」</p>
158	反手言易也	03-01-06 曰以齊王 由反手也	<p>(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제나라를 왕자의 나라로 만들기는 손을 뒤집는 것같이 쉬운 일일세.」</p>

159	<p>滋益也 文王九十七而崩言百年舉成數也 文王三分天下 才有其二 武王克商乃有天下 周公相成王 制禮作樂然後教化大行</p>	<p>03-01-07 曰若是則弟子之惑 滋甚 且以文王之德 百年而後 崩 猶未洽於天下 武王周公 繼 之然後 大行 今言王若易然 則 文王 不足法與</p>	<p>(공손추가) 말하기를, 「그러시다면 저의 의혹은 더 심해집니다. 문왕의 덕으로 백년을 살고 세상을 떠나셨어도 그래도 그 덕이 천하에 흡족하지 못하여, 무왕과 주공이 그 덕을 계승해서 해나간 뒤에야 (그 덕이) 크게 행하여진 것이거늘, 이제 왕자로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문왕은 본받을 게 못됩니다.」</p>
160	<p>當猶敵也 商自成湯至於武丁 中間太甲太戊祖乙盤庚 皆賢聖之君 作起也 自武丁至紂 凡七世 故家舊臣之家也</p>	<p>03-01-08 曰文王 何可當也 由 湯至於武丁 聖賢之君 六七作 天下歸殷久矣 久則難變也 武 丁朝諸侯有天下 猶運之掌也 紂之去武丁未久也 其故家遺俗 流風善政 猶有存者 又有微子 微仲王子比干箕子膠鬲 皆賢人 也 相與輔相之故 久而後失之 也 尺地 莫非其有也 一民 莫 非其臣也 然而文王 猶方百里 起 是以難也</p>	<p>(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문왕이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탕왕부터 무정까지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 육칠 명이나 나왔으니, 온 천하가 은나라로 돌아가 버린 지가 오래 되었고, 오래되면 변하기가 어려운 것일세. 무정이 제후들을 와서 만나게 하여 천하를 차지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에서 움직이는 것같이 쉬웠네.紂는 무정으로부터 떨어짐이 오래지 않으니, 그 옛집의 남아있는 습속과 아름다운 기품과 좋은 정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고, 또 미자와 미중과 왕자 비간과 기자와 교격은 모두 현능한 인물들이었는데, 그들이 서로 함께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랜 뒤에 잊게 된 것일세. 한자의 땅이라도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한 백성이라도 그의 신하 아닌 자가 없었는데, 그러한 처지에서 문왕은 사방 백 리의 땅을 근거로 하여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힘이 들었던 것일세.」</p>
161	<p>磁基田器也 時謂耕鍾之時</p>	<p>03-01-09 齊人 有言曰 雖有智 慧 不如乘勢 雖有磁基 不如待 時 今時 則易然也</p>	<p>제나라 사람들의 말에,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시세에 편승하느니만 못하고, 비록 農具(농구)가 있다하더라도 제 때를 기다려서 경작하느니만 못하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은 그렇게 하기 쉬운 때일세.</p>
162	<p>此言其勢之易也 三代盛時 王畿不過千里 今齊已有之 異於文王之百里 又鷄犬之聲相聞 自國都以至於四境 言居民稠密也</p>	<p>03-01-10 夏后殷周之盛 地未 有過千里者也 而齊有其地矣 鷄鳴狗吠 相聞而達乎四境 而 齊有其民矣 地不改辟矣 民不 改聚矣 行仁政而王 莫之能禦 也</p>	<p>하후와 은과 周가 흥성할 때에도 땅은 천 리 이상을 차지한 경우가 없었는데, 제나라는 그만한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닭의 울음과 개의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어 사방의 국경에 달하는데, 제나라가 그 백성을 얻었으니, 땅을 더 넓힐 것도 없고, 백성들을 더 모을 것도 없이, 仁政을 실시하여 왕 노릇을 한다면 그것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일세.</p>
163	<p>此言其時之易也 自文王至此七百餘年 異於商之賢聖繼作 民苦虐政之甚 異於紂之猶有善政 易爲飲食言飢渴之甚不待甘美也</p>	<p>03-01-11 且王者之不作 未有 疏於此時者也 民之憔悴於虐政 未有甚 於此時者也 飢者 易爲 食 渴者 易爲飲</p>	<p>또 왕자가 나지 않은지가 이때보다 오랜 적이 없었고,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에 시달려 초췌한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마련해 주기가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마련해 주기가 쉽네.</p>
164	<p>置驛也 郵駆也 所以傳命也 孟子引孔子之言如此</p>	<p>03-01-12 孔子曰 德之流行 速</p>	<p>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의 유행함이 역마를 갈아타고 명령을 전달하는 것보다 빠르다.'라고 하셨으니,</p>

		於置郵而傳命	
165	倒懸諭困苦也 所施之事半於古人而功倍於古人 由時勢易而德行遠也	03-01-13 當今之時 萬乘之國 行仁政 民之悅之 猶解倒懸也 故事半古之人 功必倍之 惟此 時爲然	지금 같은 때를 당해서 만승의 나라에서 仁政을 실시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마치 거꾸로 매달린 데서 풀려난 것과 같을지니, 그러므로 일은 옛사람의 반만 하고도 功은 반드시 그 배가 될 것으로, 다만 이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세.」
166	03-02 浩然之氣章	03-02 浩然之氣章	◇맹자의 不動心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내용(제 1-7 장 다음으로 긴 문장) - 修養論(수양론)에 관한 所懷(소회)가 피력되어 있으며, 不動心은 진정한 용기에서 우러난 것임을 알게 하고 있다. - 평소에 義에 따르는 생활을 하여 마음속에 不義로 말미암은 통쾌하지 못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것만이 浩然之氣를 기르는 唯一(유일)한 길임을 밝혔다. - 공자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聖人이고, 그를 본받는 것이 맹자의 소원임을 밝히고 있다.
167	此承上章又設問 孟子若得位而行道 則雖由此而成霸王之業 亦不足怪 任大責重如此 亦有所恐懼疑惑而動其心乎 四十彊仕君子道明德立之時 孔子四十而不惑 亦不動心之謂	03-02-01 公孫丑問曰 夫子加 齊之卿相 得行道焉 雖由此霸 王 不異矣 如此則動心 否乎 孟子曰 否我四十不動心	공손추가 묻기를, 「선생님께서 齊나라의 卿相의 자리에 앉으셔서 道를 행하시게 된다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霸를 칭하거나 왕者가 되게 만드신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니,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음이 동요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 나이 40 이라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168	孟賁勇士 告子名不害 孟賁血氣之勇 丑蓋借之 以贊孟子不動心之難 孟子言告子 未爲知道 乃能先我不動心 則此未足爲難也	03-02-02 曰若是則夫子過孟賁 遠矣 曰是不難 告子 先我不動 心	(공손추가) 말하기를, 「그러시다면 선생님께서는 맹분보다 훨씬 더 지나치십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니, 告子도 나보다 먼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네.」
169	程子曰 心有主則能不動矣	03-02-03 曰不動心 有道乎 曰 有	(공손추가) 말하기를,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있느니라.」
170	北宮姓 黥名 膚撓肌膚被刺而撓屈也 目挑目被刺而轉睛逃避也 挫猶辱也 褐毛布 寬博寬大之衣 賤者之服也 不受者不受其挫也 刺殺也 嚴畏憚也 言無可畏憚之諸侯也 黥蓋刺客之流 以必勝爲主而不動心者也	03-02-04 北宮黝之養勇也 不 膚撓 不目逃 思以一毫挫於人 若撓之於市朝 不受於褐寬博 亦不受於萬乘之君 視刺萬乘之 君 若刺褐夫 無嚴諸侯 惡聲至 必反之	북궁유가 용기를 기르는 데는 살을 (찔린다 해도) 움칠하지 아니하며, 눈을 (찔린다 하여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털 한 올이라도 꺾이는 것을 장터나 조정에서 매 맞는 것같이 여기고, 천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도 (모욕을) 당하지 않으며, 역시 만승의 國君에게도 (모욕을) 당하지 않고, 만승의 國君을 찌르는 것을 보기를 현웃 입은(천한) 사내를 찌르는 것같이 여기고, 무서워하는 제후가 없어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반드시 그것을 되돌려주었네.

171	<p>孟姓施發語聲 舍名也 會合戰也 舍自言其戰雖不勝 亦無所懼 若量敵慮勝而後進戰 則是無勇而畏三軍矣 舍蓋力戰之士 以無懼爲主而不動心者也</p>	<p>03-02-05 孟施舍之所養勇也 曰 視不勝 猶勝也 量敵而後進 慮勝而後會 是畏三軍者也 舍 豈能爲必勝哉 能無懼而已矣</p>	<p>맹시사가 용맹을 기르는 법을 말하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 보기를 이기는 것같이 합니다. 적을 헤아려본 뒤에야 나아가며, 이길 것을 생각한 뒤에야 맞서 싸우면 그것은 三軍을 두려워하는 자니, 제(맹시사)가 어찌 반드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요.'</p>
172	<p>黝務敵人 舍專守己 子夏篤信聖人 曾子反求諸己 故二子之與曾子子夏 雖非等倫 然論其氣象 則各有所似 賢猶勝也 約要也 言論二子之勇 則未知誰勝論其所守 則舍比於黝爲得其要也</p>	<p>03-02-06 孟施舍 似曾子 北宮 黝 似子夏 夫二子之勇 未知其 孰賢 然而孟施舍 守約也</p>	<p>맹시사는 증자와 같고, 북궁유는 자하와 같으니, 무릇 두 사람의 용기는 누가 더 뛰어난지 알 수 없지마는, 그러나 맹시사는 지킴에 있어 要點(요점)이 있네.</p>
173	<p>此言曾子之勇也 子襄曾子弟子也 夫子孔子也 縮直也 檀弓曰古者冠縮縫 今也衡縫 又曰棺束縮二衡三 懈恐懼之也 往往而敵之也</p>	<p>03-02-07 昔者 曾子謂子襄曰 子好勇乎 吾嘗聞大勇於夫子矣 自反而不縮 雖褐寬博 吾不惄 焉 自反而縮 雖千萬人 吾往矣</p>	<p>옛날에 증자께서 자양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네가 용맹을 좋아하는가? 내가 일찍이 큰 용맹을 선생님(공자)께 들으니, 스스로 반성해서 의롭지 않으면 비록 천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스로 반성해서 의로우면 비록 천만인이라도 나는 (겁내지 않고) 갈 것이다.'라고 하셨네.</p>
174	<p>言孟施舍雖似曾子 然其所守乃一身之氣 又不如曾子之反身循理 所守尤得其要也 孟子之不動心 其原蓋出於此 下文詳之</p>	<p>03-02-08 孟施舍之守氣 又不 如曾子之守約也</p>	<p>맹시사가 氣(용기)를 지키는 것은 증자가 (의를) 지키는 것의 요점을 얻은 것만은 못하네..</p>
175	<p>此一節公孫丑之問 孟子誦告子之言 又斷以己意而告之也 告子謂於言 有所不達 則當舍置其言 而不必反求其理於心 於心有所不安 則當力制其心 而不必更求其助於氣 此所以固守其心而不動之速也 孟子既誦其言而斷之曰 彼謂不得於心而勿求諸氣者 急於本而緩其末 猶之可也 謂不得於言而不求諸心 則既失於外而遂遺其內其不可也必矣 然凡曰可者 亦僅可而有所未盡之辭耳 若論其極 則志固心之所之而爲氣之將帥 然氣亦人之所以充滿於身而爲志之卒</p>	<p>03-02-09 曰敢問夫子之不動心 與告子之不動心 可得聞與 告 子曰 不得於言 勿求於心 不得 於心 勿求於氣 不得於心 勿求 於氣 可不得於言 勿求於心 不 可 夫志 氣之帥也 氣體之充也 夫志至焉 氣次焉 故曰 持其志 無暴其氣</p>	<p>(공손추가) 말하기를, 「감히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선생님(맹자)께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신 것과 고자가 마음이 동요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맹자가 말씀하시기를,)「고자가 말하기를, '말에서 얻지 못하거든 마음에서 구하지 말며, 마음에서 얻지 못하거든 氣에서 구하지 말라.'하였으니, 마음에서 얻지 못하거든 氣에서 구하지 말라함은 가하지마는, 말에서 얻지 못하거든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함은 옳지 아니하니, 무릇 志는 氣의 統帥者(통수자)이고, 氣는 몸을 채워주는 것이니, 志가 나타나면 氣가 그 뒤를 따라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자기의 志를 올바로 지키고, 자기의 氣를 자극함이 없도록 하라.'고 한 것일세..」</p>

	<p>徒者也 故志固爲至極而氣卽次之 人固當敬守其志 然亦不可不致養其氣 蓋其內外本末交相培養 此則孟子之心 所以未嘗必其不動而自然不動之大略 也</p>	
176	<p>公孫丑見孟子言志至而氣次 故問如此則專持其志可矣 又言無暴其氣 何也 壹專一也 蹶顛躡也 趕走也 孟子言志之所向專一 則氣固從之 然氣之所以在專一 則志亦反爲之動 如人顛躡趕走 則氣專在是而反動其心焉 所以既持其志而又必無暴其氣也 程子曰 志動氣者什九 氣動志者什一</p>	<p>03-02-10 旣曰 志至焉 氣次焉 又曰 持其志 無暴其氣者 何也 曰志壹 則動氣 氣壹則動志也 今夫 蹶者趨者 是氣也而反動 其心</p> <p>(공손추가 말하기를,)「이미 말씀하시기를, '志가 나타나면 氣가 그 뒤를 따라나선다.'고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志를 올바로 지키고, 자기의 氣를 자극함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志가 한결같으면 氣를 움직이고, 氣가 한결같으면 志를 움직이니, 이제 엎어지고 달리고 하는 것이 氣이기는 하나, 그것이 도리어 마음을 동요시키게 되네.」</p>
177	<p>公孫丑復問孟子之不動心 所以異於告子如此者 有何所長而能然 而孟子又詳告之以其故也 知言者盡心知性於凡天下之言 無不有以究極其理而識其是非得失之 所以然也 浩然盛大流行之貌 氣卽所謂體之充者 本自浩然失養故餒 惟孟子爲善養之 以復其初也 蓋惟知言 則有以明夫道義 而於天下之事 無所疑 養氣則有以配夫道義 而於天下之事 無所懼 此其所以當大任而不動心也 告子之學如此正相反 其不動心殆亦冥然無覺 悍然不顧而已爾</p>	<p>03-02-11 敢問夫子 惡乎長 曰 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p> <p>(공손추가)「감히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선생님께서는 어느 것을 잘 하십니까?」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남이 하는) 말을 알며, 나는 내 호연지기를 잘 기르네.」</p>

178	<p>孟子先言知言 而丑先問養氣者 承上文方論志氣而言也 難言者蓋其心所獨得 而無形聲之驗 有未易以言語言形容者 故程子曰 觀此一言 則孟子之實有是氣可知矣</p>	<p>03-02-12 敢問何爲浩然之氣 曰難言也</p>	<p>(공손추가)「감히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무엇을 호연지기라고 합니까?」(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네.</p>
179	<p>至大初無限量 至剛不可屈撓 蓋天地之正氣而人得以生者 其體段 本如是也 惟其自反而縮 則得其所養 而又無所作爲以害之 則其本體不虧而充塞無間矣 程子曰 天人一也 更不分別 浩然之氣乃吾氣也 養而無害則塞于天地 一爲私意所蔽 則欲然而餒 知其小也 謝氏曰 浩然之氣 須於心得其正時識取 又曰 浩然是無虧欠時</p>	<p>03-02-13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p>	<p>그 氣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센 것아니, 그것을 곧게 길러서 해가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일세.</p>
180	<p>配者合而有助之意 義者人心之裁制 道者天理之自然 餒飢乏而氣不充體也 言人能養成此氣 則其氣合乎道義而爲之助 使其行之勇決 無所疑憚 若無此氣 則其一時所爲 雖未必不出於道義 然其體有所不充 則亦不免於疑懼而不足以有爲矣</p>	<p>03-02-14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p>	<p>그 氣는 義와 道에 병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없으면 허탈하게 되네.</p>
181	<p>集義猶言積善 蓋欲事事皆合於義也 襲掩取也 如諸侯襲莒之襲 言氣雖可以配乎道義 而其養之之始 乃由事皆合義 自反常直 是以無所愧怍 而此氣自然發生於中 非由只行一事偶合於義 便可掩襲於外而得之也 慷快也足也 言所行一有不合於義而自反不直 則不足於心 而其體有所不充矣 然則義豈在外哉 告子不知此理 乃曰仁內義外 而不復以義爲事 則必不能集義以生浩然之氣矣</p>	<p>03-02-15 是集義所生者 非義 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則餒 矣 我故 曰告子未嘗知義 以其 外之也</p>	<p>그것은 모여진 義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義가 (밖에서) 엄습해 와서 그것을 취하는 것은 아니며, 행하는 것이 마음에 통쾌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허탈하게 되는 것이네. 나는 그래서 말하기를, '고자는 일찍이 義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이니, 그것은 그가 義를 외재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세.</p>

	上文不得於言勿求於心 卽外義之意 詳見告子上篇		
182	<p>必有事焉而勿正趙氏程子以七字爲句 近世或并下文心字讀之者亦通</p> <p>必有事焉有所事也</p> <p>如有事於顛臾之有事 正預期也</p> <p>春秋傳曰 戰不正勝是也 如作正心 義亦同 此與大學之所謂正心者</p> <p>語義自不同也 此言養氣者</p> <p>必以集義爲事 而勿預期其效</p> <p>其或未充 則但當勿忘其所有事 而不可作爲以助其長</p> <p>乃集義養氣之節度也 閔憂也 摶拔也</p> <p>芒芒無知之貌 其人家也 病疲倦也 舍之而不耘者忘其所有事</p> <p>揠而助之長者正之不得而妄有作爲者 也 然不耘則失養而已 揠則反以害之 無是二者 則氣得其養而無所害矣</p> <p>如告子不能集義而欲彊制其心 則必不能免於正助之病</p> <p>其於所謂浩然者</p> <p>蓋不惟不善養而又反害之矣</p>	<p>03-02-16 必有事焉而勿正 心 勿忘 勿助長也 無若宋人然 宋 人 有閔其苗 之不長而揠之者 芒芒然歸 謂其人 曰今日 痘矣 予助苗長矣 其子 趨而往視之 苗則槁矣 天下之不助苗長者寡 矣 以爲無益而舍之者 不耘苗 者也 助之長者 揠苗者也 非徒 無益 而又害之</p>	<p>반드시 義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그만두어 버리지 말고, 마음을 망령되어 갖지 말고, 무리하게 자라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아서 송나라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하느니, 송나라 사람이 그 쌍이 자라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 쌍을 뽑아 올린 자가 있었네. (그 사람은) 피곤해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그 집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늘은 피곤하도다. 나는 쌍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노라.' 하거늘, 그의 아들이 뛰어가 보았더니, 쌍은 곧 말라버렸더라고 하네. 천하에는 쌍이 자라나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적으니, 무익하다고 하여 버리는 자는 김매어주지 않는 자요, 자라는 것을 돋는 자는 쌍을 뽑는 자이니, 한갓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치는 것일세.'</p>
183	<p>此公孫丑復問而孟子答之也 詖偏陂也 淫放蕩也 邪邪僻也</p> <p>遁逃避也 四者相因言之病也</p> <p>蔽遮隔也 陷沈溺也 離叛去也</p> <p>窮困屈也 四者亦相因則心之失也</p> <p>人之有言 皆本於心</p> <p>其心明乎正理而無蔽然後</p> <p>其言平正通達而無病 苟爲不然 則心有是四者之病矣</p> <p>卽其言之病而知其心之失</p> <p>又知其害於政事之決然而不可易者如 此 非心通於道而無疑於天下之理</p> <p>其孰能之 彼告子者 不得於言 而不肯求之於心 至爲義外之說 則自不免於四者之病</p>	<p>03-02-17 何謂知言 曰詖辭 知 其所蔽 淫辭 知其所陷 邪辭 知其所離 遁辭 知其所窮 生於 其心 害於其政 發於其政 害於 其事 聖人 復起 必從吾言矣</p>	<p>(공손추가)「(남이 하는) 말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맹자가) 말씀하시기를, 「편파한 말을 들으면 그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을 알며, 度에 지나친 말을 들으면 그의 빠져있는 바를 알며, 사악한 말을 들으면 그가 이간하려는 바를 알고, 도피하는 말을 들으면 그의 궁한 바를 알 수 있으니,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생겨나면 정치를 해치고, 그 정치에 (악한 것이) 나타나면 일을 해치느니, 성인이 나온다하더라도 반드시 내 말에 따를 것일세.」</p>

	<p>其何以知天下之言 而無所疑哉 程子曰 心通乎道然後 能辨是非 如持權衡 以較輕重 孟子所謂知言是也 又曰 孟子知言 正如人在堂上 方能辨堂下人曲直 若猶未免雜於堂下衆人之中 則不能辨決矣</p>	
184	<p>此一節 林氏以爲皆公孫丑之間 是也 說辭言語也 德行得於心而見於行事者也 三者善言德行者 身有之故言之親切而有味也 公孫丑言數子 各有所長而孔子兼之 然猶自謂不能於辭命 今孟子乃自謂我能知言 又善養氣 則是兼言語 德行而有之 然則豈不既聖矣乎 此夫子指孟子也 ♥ 程子曰 孔子自謂不能於辭命者欲使學者務本而已</p>	<p>03-02-18 宰我子貢 善爲說辭 冉牛閔子顏淵 善言德行 孔子 兼之 曰我於辭命則不能也 然 則夫子 既聖矣乎</p> <p>(공손추가)「재아와 자공은 말을 잘하고, 염우와 민자건과 안연은 덕행을 잘 말하였는데, 공자께서는 두 가지를 겸하시고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교辭令(사령)에는 능하지 못하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미 성인이 되신 것인지요?」</p>
185	<p>惡驚歎辭也 昔者以下孟子不敢當丑之言 而引孔子子貢問答之辭 以告之也 此夫子指孔子也 學不厭者智之所以自明 教不倦者仁之所以及物 再言是何言也 以深拒之</p>	<p>03-02-19 曰惡 是何言也 昔者 子貢 問於孔子曰 夫子 聖矣乎 孔子曰 聖則吾不能 我學不厭 而教不倦也 子貢曰 學不厭 智 也 教不倦 仁也 仁且智 夫子 既聖矣 夫聖 孔子 不居 是何 言也</p> <p>(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오! 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자공이 공자께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니까?'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 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 자공이 말하기를,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은 지혜이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仁한 것이니, 仁하고 또 지혜로우시니 선생님께서는 이미 성인이십니다.'라고 하였으니, 성인은 공자께서도 자처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p>
186	<p>此一節 林氏亦以爲皆公孫丑之間 是也 一體猶一脂也 具體而微謂有其全體 但未廣大耳 安處也 公孫丑復問 孟子既不敢比孔子 則於此數子 欲何所處也</p>	<p>03-02-20 昔者 竊聞之 子夏子 游子張 皆有聖人之一體 冉牛 閔子顏淵 則具體而微 敢問所 安</p> <p>(공손추가)「옛날에 남몰래 들으니, 자하와 자유와 자장은 다 성인의 덕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염우와 민자와 안연은 (성인의 덕의) 전체를 갖추고 있었으나 미약했었다고 하니, 감히 여쭈오니 (선생님은) 누구에게 自比하고 계십니까?」</p>
187	<p>孟子言且置是者 不欲以數子所至者 自處也</p>	<p>03-02-21 曰姑舍是</p> <p>(맹자가)「잠시 그 이야기는 그만두세.」</p>

	<p>伯夷孤竹君之長子 兄弟遜國 避紂隱居 聞文王之德而歸之 及武王伐紂去而餓死</p> <p>伊尹有莘之處士 湯聘而用之 使之就桀 桀不能用 復歸於湯 如是者五 乃相湯而伐桀也 三聖人事 詳見此篇之末及萬章下篇</p>	<p>03-02-22 曰伯夷伊尹何如 曰 不同道 非其君不事 非其民不 使 治則進 亂則退 伯夷也 何 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 進 伊尹也 可以仕則仕 可以止 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 皆古聖人也 吾未能有 行焉 乃所願則學孔子也</p>	<p>(공손추가) 말하기를, 「백이와 이윤은 어떠합니까?」(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처세하는) 道(방법)가 같지 않네. 자기가 좋아하는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자기가 정당하게 맡게 된 백성들이 아니면 부리지 않고,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혼란해지면 물러나는 것은 백이였고,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겠는가?'하고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혼란해져도 나아가는 것이 이윤이었고, 벼슬을 살만하면 벼슬살이를 하고,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면 그만두고, 오래 머물러 있을만하면 오래 머물러있고, 빨리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빨리 떠나가는 것이 공자이시니, 모두 옛날의 성인들이네. 나는 여태껏 그처럼 할 수 없었지만, 원하는 바는 공자를 본받는 것일세..」</p>
189	<p>班齊等之貌 公孫丑問而孟子答之以不同也</p>	<p>03-02-23 伯夷伊尹 於孔子 若 是班乎 曰否 自有生民而來 未 有孔子也</p>	<p>(공손추가)「백이와 이윤이 공자와 그토록 비등(비등)합니까?」(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아닐세. (이 세상에) 사람이 생겨난 아래로 공자만한 인물은 아직 없었네.」</p>
190	<p>有言有同也 以百里而王天下 德之盛也 行一不義 殺一不辜而得天下 有所不爲 心之正也 聖人之所以爲聖人 其根本節目之大者惟在於此 於此不同 則亦不足以爲聖人矣</p>	<p>03-02-24 曰然則有同與 曰有 得百里之地而君之 皆能以朝諸 侯有天下 行一不義 殺一不辜 而得天下 皆不爲也 是則同</p>	<p>(공손추가) 말하기를, 「그리면 (세 분들 사이에는) 같은 점이 있습니까?」(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있네. 백 리의 땅을 얻어서 그곳의 임금이 된다면, 다들 제후들이 와서 조회(朝會)를 하고 천하를 얻을 것이나, 한 가지의 불의를 행하며, 무고한 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 것은 다들 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런 점은 같은 것이네.」</p>
191	<p>汚下也 三子智足以知夫子之道 假使汚下 必不阿私所好而空譽之 明其言之可信也</p>	<p>03-02-25 曰敢問其所以異 曰 宰我子貢有若 智足以知聖人 汚不至阿其所好</p>	<p>(공손추가) 말하기를, 「감히 (그분들의) 그 다른 점을 묻습니다.」(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재아와 자공과 유약은 지혜가 성인을 알아보기에 속하니,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아첨하기에까지는 가지 않았을 걸세.」</p>
192	<p>程子曰 語聖則不異 事功則有異 夫子賢於堯舜 語事功也 蓋堯舜治天下 夫子又推其道 以垂教萬世 堯舜之道非得孔子 則後世亦何所據哉</p>	<p>03-02-26 宰我曰 以予觀於夫 子 賢於堯舜遠矣</p>	<p>재아가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공자)을 살펴보기로는 堯 임금이나 舜 임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하였고,</p>
193	<p>言大凡見人之禮則可以知其政 聞人之樂則可以知其德 是以 我從百世之後 差等百世之王 無有能遁其情者 而見其皆莫若夫子之盛也</p>	<p>03-02-27 子貢曰 見其禮而知 其政 聞其樂而知其德 由百世 之後 等百世之王 莫之能違也 自生民以來 未有夫子也</p>	<p>자공은 말하기를, '그의 禮貌(예모)를 보고 그의 정치를 알며, 그의 음악을 듣고 그의 덕을 알 수 있으니, 백 대 후인 오늘날부터 지나간 백 대의 임금을 평가해 보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 (세상에) 사람이 생겨난 아래로 선생님(공자)만한 인물은 아직 없었다.'라고 하였고,</p>

194	<p>麒麟毛蟲之長 鳳凰羽蟲之長 垒蟻封也 行潦道上無源之水也 出高出也 拔特起也 萃聚也 言自古聖人 固皆異於衆人 然未有如孔子之尤盛者也 ♥ 程子曰 孟子此章 擬前聖所未發 學者所宜潛心而玩索也</p>	<p>03-02-28 有若 曰豈惟民哉 麒 麟之於走獸 凤凰之於飛鳥 太 山之於邱垤 河海之於行潦 類 也 聖人之於民 易類也 出於其 類 拔乎其萃 自生民以來 未有 盛乎孔子也</p>	<p>유약은 말하기를, '어찌 오직 백성뿐이겠는가? 기린에서 뛰어다니는 짐승까지, 봉황에서 날아다니는 새까지, 태산에서 언덕까지, 황하와 바다에서 길가의 도량물에 이르기까지 같은 類(유)이니라. 성인에서 백성들까지 역시 같은 유이지만, 그 同類에서 나와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하게 빼어났으니, (세상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공자보다 성했던(훌륭한) 인물은 아직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p>
195	03-03 以力假仁章	03-03 以力假仁章	<p>◇맹자께서 王道와 霸道의 구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p>
196	<p>力謂土地甲兵之力 假仁者本無是心而借其事 以爲功者也 霸若齊桓晉文是也 以德行仁則自吾之得於心者推之 無適而非仁也</p>	<p>03-03-01 孟子曰 以力假仁者 霸 霸必有大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湯以七十里 文王以 百里</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으로써 仁을 假裝(가장)하는 것은 패도이니, 패를 칭하려면 반드시 큰 나라를 지니고 있어야한다. 덕으로써 仁을 행하는 것은 왕도이니, 왕도를 폐는 데는 큰 나라이야 할 것은 없다. 탕임금은 칠십 리로써 그것을 해냈고, 문왕은 백 리로써 그것을 해냈다.</p>
197	<p>瞻足也 詩大雅文王有晟之篇 王霸之心 誠僞不同 故人所以應之者 其不同 亦如此 ♥ 鄒氏曰 以力服人者 有意於服人而人不敢不服 以德服人者無意於服人而人不能不服 從古以來 論王霸者多矣 未有若此章之深切而著名者也</p>	<p>03-03-02 以力服人者 非心服 也 力不贍也 以德服人者 中心 慅而誠服也 如七十子之服孔子 也 詩云自西自東 自南自北 無 思不服 此之謂也</p>	<p>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킨다면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모자라서이다. 덕으로써 남을 복종시킨다면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기뻐서 정말로 복종하는 것으로, 그것은 칠십 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한 것과 같은 것이다.『詩經』에 이르기를, '서쪽으로부터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다.」</p>
198	03-04 仁則榮章	03-04 仁則榮章	<p>◇國君이 仁政을 베풀면 나라는 번영할 것이니, 仁政을 베풀도록 강조한 내용이다. - 仁政의 要諦(요체)는 賢能(현능)한 人才를 適所에 등용하는 데 있고, 그렇게 하여 나라가 한가해지면 政教와 刑罰(형벌)을 分明하게 시행하여 內憂外患(내우외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p>
199	<p>好榮惡辱 人之常情 然徒惡之而不去 其得之之道 不能免也</p>	<p>03-04-01 孟子曰 仁則榮 不仁 則辱 今惡辱而居不仁 是猶惡 濡而居下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仁政을 베풀면 번영하고, 인정을 폐지 않으면 욕될 것이니, 이제 치욕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인정을 폐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은 마치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도 낮은 데에 사는 것과 같다.」</p>
200	<p>此因其惡辱之情 而進之以彊仁之事也 貴德猶尚德也 士則指其人而言之 賢有德者 使之在位 則足以正君而善俗 能有才者 使之在職</p>	<p>03-04-02 如惡之 莫如貴德而 尊士 賢者在位 能者在職 國家 閒暇 及是時 明其政刑 雖大國 必畏之矣</p>	<p>만약에 치욕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德을 귀히 여기며, 선비를 존중함만 같지 못하니, 현량한 인사가 벼슬자리에 있고, 유능한 인재가 직책을 맡게 되면 국가가 한가하게 된다. 그렇게 된 때에 이르러서 그 政事와 刑罰을 밝히면 비록 큰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다.</p>

	則足以修政而立事 國家閒暇 可以有爲之時也 詳味及字 則惟日不足之意可見矣		
201	詩豳忠鴻鵠之篇 周公之所作也 迨及也 徹取也 桑土桑根之皮也 網繆纏綿補葺也 牖戶巢之通氣出入處也 予鳥自謂也 言我之備患 詳密如此 今此在下之人 或敢有侮予者乎 周公以鳥之爲巢如此 比君之爲國 亦當思患而預防之 孔子讀而贊之 以爲知道也	03-04-03 詩云 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網繆牖戶 今此下民 或敢侮予 孔子曰 爲此詩者 其 知道乎 能治其國家 誰敢侮之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에 앞서 저 뽕나무 뿌리를 캐어다가 살창과 지게문을 단단히 얹었나니, 이제 이 백성들이 감히 나를 모욕할 수 있으랴?' 하였거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를 지은 이는 그 道를 아는구나. 능히 그 국가를 다스리면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느냐?'고 하셨다.
202	言其縱欲偷安 亦惟日不足也	03-04-04 今國家閒暇 及是時 般樂怠赦 是自求禍也	이제 국가가 한가한 이때를 맞아 대대적으로 즐기며 태만하고 거만하면, 이것은 스스로 화를 구하는 것이다.
203	結上文之意	03-04-05 禍福無不自己求之者	화와 복이 자신으로부터 구(起因;기인)하지 않는 것이 없다.
204	詩大雅文王之篇 永長也 言猶念也 配合也 命天命也 此言福之自己求者 太甲商書篇名 撃禍也 遭避也 活生也 書作逭 逭猶緩也 此言禍之自己求者	03-04-06 詩云 永言配命 自求 多福 太甲曰 天作孽猶可違 自 作孽不可活 此之謂也	『시경』에 이르기를, '돌아온 천명을 永續(영속)시키기 위해 자진해서 많은 복을 찾을지어다.'라고 말하였고, <태갑>에 이르기를, '하늘이 지은 灾禍(재화)는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마는 스스로 지은 灾禍는 도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모두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205	03-05 信能行此五者章	03-05 信能行此五者章	◇孟子의 仁政을 기본으로 한 王道政治의 다섯 가지 方策(방책)을 提示(제시)한 내용이다.
206	俊傑才德之異於衆者	03-05-01 孟子曰 尊賢使能 俊 傑在位則天下之士 皆悅而願立 於其朝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현량한 이를 존중하고 유능한 인재를 부려 걸출한 인물이 벼슬자리에 있으면, 온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의 조정에 서기를 원할 것이다.
207	廛市宅也 張子曰 或賦其市地之廛 而不征其貨 或治以市官之法 而不賦其廛 蓋逐末者多 則廛而抑之 少則不必廛也	03-05-02 市廛而不征 法而不 廛則天下之商 皆悅而願藏於其 市矣	시장에서 점포세는 징수하나 물품세는 징수하지 않거나, 남은 상품을 사들이고 점포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천하의 상인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나라의 시장에다 물건을 두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208	解見前篇	03-05-03 關譏而不征則天下之 旅 皆悅而願出於其路矣	관문에서는 사정을 살피고서 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천하의 나그네가 다 기뻐하며 그 길에 나서기를 원할 것이다.

209	但使出力以助耕公田而不稅其私田也	03-05-04 耕者助而不稅則天下之農 皆悅而願耕於其野矣	농경자에게는 公田의 경작의무를 과하고서 다른 세를 거두지 않는다면, 천하의 농민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들에서 농사짓기를 원할 것이다.
210	周禮宅不毛者有里布民無職事者出夫家之征鄭氏謂宅不種桑麻者 罷之使出一里二十五家之布 民無常業者罰之 使出一夫百畝之稅一家力役之征也 今戰國時一切取之市宅之民 已賦其廛又令出此夫里之布 非先王之法也氓民也	03-05-05 廛無夫里之布則天下之民 皆悅而願爲之氓矣	거주지에 인구세와 가구세가 없으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고장의 주민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211	呂氏曰 奉行天命 謂之天吏廢興存亡惟天所命 不敢不從若湯武是也 ♥ 此章言能行王政則寇戎爲父子 不行王政則赤子爲仇讐	03-05-06 信能行此五者則隣國之民 仰之若父母矣 率其子弟攻其父母 自生民以來 未有能濟者也 如此則無賊於天下 無賊於天下者 天吏也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진실로 능히 이 다섯 가지를 행하면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우러러보기를 부모와 같이 할 것이니, 그 자제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부모를 공격하는 일은 이 세상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성공해 본 일이 없었으니, 그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적이 없는 것이다. 천하에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일군이니, 그리고서도 왕 노릇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있지 아니하다.」
212	03-06 不忍人之心章	03-06 不忍人之心章	◇孟子의 四端說이 설명되어 있는 문장이다. - 맹자의 性善論의 근거로서 四端과 四德을 설명하고, 그것이 정치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한 내용이다.
213	天地以生物爲心 而所生之物因各得夫天地生物之心 以爲心所以人皆有不忍人之心也	03-06-01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214	言衆人雖有不忍人之心 然物欲害之存焉者寡故不能察識而推之政事之間惟聖人全體此心 隨感而應故其所行無非不忍人之政也	03-06-02 先王有不忍人之心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 可運於掌上	선왕이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이에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가 생겨났으니,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써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사를 행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위에서 움직이는 것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215	乍猶忽也 恄惕驚動貌 恺憫之切也隱痛之深也 此卽所謂不忍人之心也內結 要求 聲名也 言乍見之時便有此心 隨見而發非由此三者而然也 程子曰滿腔子是惻隱之心 謝氏曰人須是識其真心	03-06-03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皆有憃憃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사람이 모두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본다면, 다 놀라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교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도 아니며, 동네 사람들과 벗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아이가 지르는 소리가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方乍見孺子入井之時 其心怵惕 乃真心也 非思而得 非勉而中 天理之自然也 內交要譽惡其聲而然 卽人欲之私矣		
216	羞恥己之不善也 惡憎人之不善也 辭解使去己也 讓推以與人也 是知其善而以爲是也 非知其惡而以爲非也 人之所以爲心 不外乎是四者 故因論惻隱而悉數之 言人若無此 則不得謂之人 所以明其必有也	03-06-04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仁也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며,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다.
217	惻隱羞惡辭讓是非情也 仁義禮知性也 心統性情者也 端緒也 因其情之發 而性之本然 可得而見 猶有物在中而緒見於外也	03-06-05 惴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측은해 하는 마음은 仁의 단서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義의 단서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禮의 단서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智의 단서이다.
218	四體四肢 人之所必有者也 自謂不能者 物欲蔽之耳	03-06-06 人之有是四端也 猶 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自謂不 能者 自賊者也 謂其君不能者 賊其君者也	사람들이 이 사단이 있는 것은 그 四體(사체:四肢)가 있는 것과 같으니, 이 사단이 있으면서 스스로 능히 못한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해치는 자요, 자기 임금이 능히 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자기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219	擴推廣之意 充滿也 四端在我 隨處發見 知皆卽此推廣而充滿其本然之量 則其日新又日新 將有不能自己者矣 能由此而遂充之 則四海雖遠 亦吾度內 無難保者 不能充之 則雖事之至近 而不能矣 ♥ 此章所論人之性情 心之體用 本然全具而各有條理如此 學者於此 反求默識而擴充之 則天之所以與我者 可以無不盡矣 ♥ 程子曰 人皆有是心 惟君子爲能擴而充之 不能然者 皆自棄也 然其充與不充 亦在我而已矣 又曰 四端 不言信者 既有誠心爲四端 則信在其中矣 愚按四端之信 猶五行之土 無定位	03-06-07 凡有四端於我者 知 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 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무릇 사단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알아서 다 확충시킬 줄 알면, 불이 비로소 타고 삼물이 비로소 솟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진실로 그것을 확충시킬 수 있기만 하면 사해를 보전하기에도 충분하고, 진실로 그것을 확충시키지 않는다면 부모를 섬기기에도 부족하다.」

	無成名 無專氣 而水火金木 無不待是以生者 故土於四行 無不在 於四時則寄王焉 其理亦猶是也		
220	03-07 矢人函人章	03-07 矢人函人章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 때문에 본의 아니게 仁의 배반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萬事에 스스로 반성하여 仁을 실천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이미 不仁 不智 無禮 無義한 처지에 놓여있다면, 大悟하여 仁을 실천함으로써 남에게 자신이 부림을 받는 치욕에서 구해내라고 한 말씀이다. - 仁의 실천을 권고한 내용이다.
221	函甲也 慘隱之心 人皆有之 是矢人之心 本非不如函人之仁也 巫者爲人祈祝 利人之生 匠者作爲棺槨 利人之死	03-07-01 孟子曰 矢人豈不仁 於函人哉 矢人惟恐不傷人 函 人惟恐傷人 巫匠亦然 故術不 可不慎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않으랴마는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상하지 않게 될까 두려워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상할까 두려워하는데, 무당과 장인도 역시 그러하니, 그러므로 術業은 삼가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222	里有仁厚之俗者 猶以爲美 人擇所以自處 而不於仁 安得爲智乎 此孔子之言也 仁義禮智 皆天所與之良貴 而仁者天地生物之心 得之最先 而兼統四者 所謂元者善之長也 故曰尊爵 在人則爲本心全體之德 有天理自然之安 無人欲陷溺之危 人當常在其中而不可須臾離者也	03-07-02 孔子曰 里仁爲美 擇 不處仁 焉得智 夫仁天之尊爵 也 人之安宅也 莫之禦而不仁 是不智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이 어진 것이 아름다우니, 가려서 어진 데 처하지 아니하면 어찌 지혜라고 하라.'하시니, 무릇 어진 것은 하늘의 높은 벼슬이며, 사람의 편안한 집이거늘, 막는 것이 없어도 어질지 아니하니,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故曰安宅 此又孟子釋孔子之意 以爲仁道之大如此 而自不爲之 豈非不智之甚乎		
223	以不仁故不智 不智故不知禮義之所在	03-07-03 不仁不智 無禮無義 人役也 人役而恥爲役 由弓人 而恥爲弓 矢人而恥爲矢也	어질지 않고 지혜롭지 않으며, 禮도 없고 義도 없으면 남에게 부림을 받게 될 것이니, 남에게 부림을 받으면서 부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마치 활 만드는 사람이 활 만들기를 부끄러워하고,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 만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
224	此亦因人愧恥之心而引之 使志於仁也 不言智禮義者仁該全體 能爲仁 則三者在其中矣	03-07-04 如恥之 莫如爲仁	만약에 부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무엇보다도 仁을 실천할 일이다.
225	爲仁由己而由人乎哉	03-07-05 仁者如射 射者正己 而後發 發而不中 不怨勝己者 反求諸己而已矣	仁을 실천하는 것은 활 쏘는 것과 같다. 활 쏘는 사람은 자기를 바로잡고 난 연후에 쏜다. 쏘아서 과녁에 맞지 않아도 자기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돌이켜 자기한테서 결점을 찾을 따름이다.」
226	03-08 善與仁同章	03-08 善與仁同章	◇자기의 의견에 固執하지 않고, 널리 남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남들과 함께 善을 행하는 사회를 理想으로 여기는 입장을 밝혔다. - 聖賢(성현)들의 善을 좋아하는 精誠(정성)에는 전연 彼我(피아)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있는 善은 자기에게 보탬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있는 善은 남에게까지 미쳐가게 될을 말한 것이다.
227	喜其得聞而改之 其勇於自修如此 周子曰仲由喜聞過 令名無窮焉 今人有過不喜人規 如諱疾而忌醫 寧滅其身而無悟也 噫 程子曰子路人告之以有過則喜 亦可爲百世之師矣	03-08-01 孟子曰 子路人告之 以有過則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로는 남이 그에게 잘못이 있다고 일러주면 기뻐했고,
228	書曰禹拜昌言 蓋不待有過 而能屈己以受天下之善也	03-08-02 禹聞善言則拜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절을 했다.

229	<p>言舜之所爲 又有大於禹與子路者 善與人同 公天下之善而不爲私也 己未善 則無所繫吝而舍以從人 人有善 則不待勉強而取之於己 此善與人同之目也</p>	<p>03-08-03 大舜有大焉 善與人 同 舍己從人 樂取於人 以爲善</p>	<p>대 순임금은 그보다도 더 위대하시니, 남과 동조하기를 잘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라 남에게서 취해서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했다.</p>
230	<p>舜之側微 耕于歷山 陶于河濱 漁于雷澤</p>	<p>03-08-04 自耕稼陶漁 以至爲 帝 無非取於人者</p>	<p>농사짓고, 그릇을 굽고, 물고기를 잡는 데서부터 황제가 되기까지 남의 의견에서 취해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p>
231	<p>與猶許也 助也 取彼之善而爲之於我 則彼益勤於爲善矣 是我助其爲善也 能使天下之人 皆勸於爲善 君子之善 孰大於此也 ♥ 此章 言聖賢樂善之誠 初無彼此之間 故其在人者 有以裕於己 在己者 有以及於人</p>	<p>03-08-05 取諸人以爲善 是與 人爲善者也 故君子莫大乎與人 爲善</p>	<p>남의 의견에서 취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남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것 아니, 고로 군자에게는 남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다.」</p>
232	<p>03-09 伯夷柳下惠章</p>	<p>03-09 伯夷柳下惠章</p>	<p>◇맹자가 伯夷와 柳下惠 두 사람의 對照(대조적)인 인물에 대해 評한 내용이다. - 두 사람은 다 좋은 점이 있으나, 모두 極端(극단)에 흐르고 있으므로 模範(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p>
233	<p>塗泥也 鄉人鄉里之常人也 望望去而不顧之貌 逸汚也 屢 趙氏曰 潔也 說文曰 動作切切也 不屑就 言不以就之爲潔而切切於是也 已語助辭</p>	<p>03-09-01 孟子曰 伯夷非其君 不事 非其友不友 不立於惡仁 之朝 不與惡人言 立於惡人之 朝 與惡人言 如以朝衣朝冠 坐 於塗炭 推惡惡之心 思與鄉人 立 其冠不正 望望然去之 若將 浼焉 是故諸侯雖有善其辭命而 至者 不受也 不受也者 是亦不 屑就已</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좋은 벗이 아니면 사귀지 않았으며, 악한 사람의 조정에는 서지 않았고, 악한 사람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악한 사람의 조정에 서서 악한 사람과 더불어 말하지 않기를 조정에서 입는 옷을 입고 조정에서 쓰는 관을 쓰고서 진흙과 솟검정에 앓는 것같이 여겼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향리의 사람과 같이 서기를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쓴 관이 바르지 않으면 부끄러운 기색을 하고 가버리는데, 그것에 더럽혀지거나 한 것 같이 여겼다. 그러했기 때문에 제후들이 비록 초빙하는 글을 좋게 써 가지고 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역시 나가는 것을 떳떳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p>
234	<p>柳下惠魯大夫展禽 居柳下而諡惠也 不隱賢 不枉道也 遺佚 放棄也 阨困也 憫憂也 爾爲爾 至焉能浼我哉惠之言也 袒裼露臂也 裸裎露身也 由由自得之貌 偕並處也 不自失不失其正也 援而止之而止者</p>	<p>03-09-02 柳下惠不羞汚君 不 卑小官 進不隱賢 必以其道 遺 佚而不怨 阴窮而不憫 故曰爾 爲爾 我爲我 雖袒裼裸裎於我 側 爾焉能浼我哉 故由由然與 之偕而不自失焉 援而止之而止</p>	<p>유하해는 더러운 임금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작은 벼슬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여, (벼슬하여) 나아가면 (자기의) 우수한 면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자기 이념대로 해 나갔고, 버려져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곤궁에 빠져도 성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비록 내 곁에서 옷을 벗고 알몸을 내놓는다고 해도 네가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고</p>

	言欲去而可留也	援而止之而止者 是亦不屑去已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기꺼운 기색을 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자신 올바름을 잊지 않았던 것이며, 끌어당겨서 머물러있게 하여 머물러있는 것이니, 끌어당겨서 머물러있게 하여 머물러있는 것은 역시 물러나는 것을 멋떳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235	隘狹瘠也 不恭簡慢也 夷惠之行 固皆造乎至極之地 然既有所偏則不能無弊 故不可由也	03-09-03 孟子曰 伯夷隘 柳下 惠不恭 隘與不恭君子不由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이는 사람이 좁고, 유하하는 사람이 불공스럽다. 좁은 것과 불공스러운 것을 군자는 취하지 않는다.」
236	04 公孫丑章句下 - 凡十四章 自第二章以下 記孟子出處行實爲詳	04 公孫丑章句下 - 凡十四章 自第二章以下 記孟子出處行實爲詳	[제 4 편. 公孫丑章句(공손추장구) 下]
237	04-01 得道多助章	04-01 得道多助章	◇人和를 최고로 하는 正道에 따른 정치를 강조한 내용이다.
238	天時謂時日支干虛王相之屬也 地利險阻城池之固也 人和得民心之和也	04-01-01 孟子曰 天時不如地 利 地利不如人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天時は 地利만은 못하고, 지리는 人和만 못하다.」
239	三里七里 城郭之小者 郭外城 環圍也 言四面攻圍 曠日持久 必有值天時之善者	04-01-02 三里之城 七里之郭 環而攻之而不勝 夫環而攻之 必有得天時者矣 然而不勝者 是天時不如地利也	삼 리 되는 성과 칠 리의 외곽을 포위하고 공격하여도 이기지는 못하느니,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은 반드시 天時를 얻게 되는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것은 천시가 地利만 같지 못한 것이다.
240	革甲也 粟穀也 委棄也 言不得民心不爲守也	04-01-03 城非不高也 池非不 深也 兵革非不堅利也 米粟非 不多也 委而去之 是地利不如 人和也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뜯이 깊지 않은 것도 아니며, 병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식량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버리고 가는 것은 地利가 人和만은 못해서이다.
241	域界限也	04-01-04 故曰域民不以封疆之 界 固國不以山谿之險 威天下 不以兵革之利 得道者多助 失 道者寡助 寡助之至 親戚畔之 多助之至 天下順之	그런고로 말하기를, 「백성에게 경계하기를 나라의 경계로써 하지 아니하며, 나라를 굳게 하기를 산과 골짜기의 힘준한 것으로써 하지 아니하며, 천하를 위협하기를, 병기와 갑옷의 예리함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道를 얻은 자는 도운 사람이 많고, 道를 잃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적은 경우에는 친척마저 배반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경우에는 온 천하가 귀순한다.
242	言不戰則已 戰則必勝 尹氏曰 言得天下者 凡以得民心而已	04-01-05 以天下之所順 攻親 戚之所畔 故君子有不戰 戰必 勝矣	온 천하가 순종하는 힘을 가지고 친척에게까지 배반당하는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고로) 군자는 전쟁을 하지 않는 수는 있어도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243	04-02 學焉後臣章	04-02 學焉後臣章	<p>◇맹자가 齊宣王을 찾아가려다가 齊王의 召命을 접하고서는 오히려 그만두어버린 일을 통해 맹자의 뜻과 自負心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 임금은 德을 존중하고 義를 즐기는 것으로써 훌륭해지고,君子는 道를 지키고 물러서지 않는 것을 그 뜻으로 삼는다는 것이다.</p>
244	<p>王齊王也 孟子本將朝王 王不知而託疾 以召孟子 故孟子亦以疾辭也</p>	<p>04-02-01 孟子將朝王 王使人來曰寡人如就見者也 有寒疾不可以風 朝將視朝 不識 可使寡人 得見乎 對曰不幸而有疾 不能造朝</p>	<p>맹자께서 왕에게 조회하려 하시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와서 말하기를, 「과인이 마땅히 나아가서 보려하였으나 감기가 들어서 바람을 쓸 수 없으므로, (내일) 아침 조회에서 보려하니 어떨지 모르겠나이다. 과인으로 하여금 만나뵙게 하겠습니다?」(맹자가)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불행히도 병이 있어서 조정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p>
245	<p>東郭氏 齊大夫家也 昔者 昨日也 或者疑辭 辭疾而出弔 與孔子不見孺悲 取瑟而歌 同意</p>	<p>04-02-02 明日出吊於東郭氏 公孫丑曰 昔者辭以病 今日吊 或者不可乎 曰昔者疾 今日愈 如之何不吊</p>	<p>이튿날 동작씨에게 나아가 조상을 하시니, 공손추가 말하기를, 「어제는 병이라고 사양하시더니, 오늘은 조상하시니 혹시 불가한 것이 아닙니까?」(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어제의 병이 오늘은 나았으니, 어찌 조상하지 않겠는가?」</p>
246	<p>孟仲子 趙氏以爲孟子之從昆弟 學於孟子者也 采薪之憂 言病不能采薪 謙辭也 仲子權辭以對 又使人要孟子 令勿歸而造朝 以實己言</p>	<p>04-02-03 王使人問疾 醫來 孟 仲子對曰 昔者有王命 有采薪 之憂 不能造朝 今病少愈 趨造 於朝 我不識 能至否乎 使數人 要於路曰 請必無歸而造於朝</p>	<p>왕이 사람을 시켜서 문병을 하고 의원을 보냈거늘, 맹중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제는 임금의 분부가 있으셨는데, 채신의 근심이 있는지라 조정에 나아가지 못하셨는데, 이제 병이 조금 나으셔서 조정으로 뛰어가셨는데, 도착하셨는지 여부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여러 사람을 시켜 길에서 맹자를 만나, 「돌아오시지 말고 지금 조정에 꼭 나가십시오.」라고 말하게 하였다.</p>
247	<p>景丑氏 齊大夫家也 景子 景丑也 惡歎辭也 景丑所言 敬之小者也 孟子所言 敬之大者也</p>	<p>04-02-04 不得已而之景丑氏宿 焉 景子曰內則父子 外則君臣 人之大倫也 父子主恩 君臣主 敬 丑見王之敬子也 未見所以 敬王也 曰惡 是何言也 齊人 無以仁義與王言者 岂以仁義爲 不美也 其心曰是何足與言仁義 也云爾 則不敬莫大乎是 我非 堯舜之道 不敢以陳於王前 故 齊人 莫如我敬王也</p>	<p>(맹자는) 마지못해 경추씨에게 가서 주무시는데, 경자가 말하기를, 「집안에서는 父子요, 밖에서는 君臣이 사람의 대륜이니, 부자간에는 은혜를 위주로 하고, 군신 간에는 공경을 위주로 하는데, (경)추는 왕이 선생(맹자)을 공경하는 것은 보았으나, (선생이) 왕을 공경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이 무슨 말인가! 제나라 사람들 중에仁義를 가지고 왕께 말씀할 자가 없는데, 그것이 어찌 인의가 아름답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겠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그가 어찌 함께 인의를 말할 만한 존재가 되려!'고 말하면, 불경이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을 것이니, 나는 堯舜의 道가 아니면 감히 왕의 앞에 늘어놓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제나라 사람들은 내가 왕을 공경하는 것 같이는 못하는 거요.」</p>

248	<p>禮曰 父命呼 唯而不諾 又曰 君命召 在官不俟屢 在外不俟車 言孟子本欲朝王 而聞命中止 似與此禮之意 不同也</p>	<p>04-02-05 景子曰否 非此之謂 也 禮曰父召無諾 君命召不俟 駕 固將朝也 聞王命而遂不果 宜與夫禮 若不相似然</p>	<p>경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에 이르기를, '아비가 부르면 빨리 대답하고, 임금이 명하여 부르면 수레를 기다리지 말라.'하니, 본래 왕을 뵈려 들어가려다가 왕의 명을 들으시고는 마침내 가시지 않고 마셨으니, 아마도 그 예와는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p>
249	<p>慊恨也少也 或作嗛 字書以爲口銜物也 然則慊亦但爲心有所銜之義 其爲快爲足爲恨爲少 則因其事 而所銜有不同耳 孟子言我之意 非如景子之所言者 因引會子之言而云 夫此豈是不義 而會子肯以爲言 是或別有一種道理也 達通也 蓋通天下之所尊 有此三者 會子之說 蓋以德言之也 今齊王 但有爵耳 安得以此 慢於齒德乎</p>	<p>04-02-06 曰豈謂是與 會子曰 晉楚之富不可及也 彼以其富 我以吾仁 彼以其爵 我以吾義 吾何慊乎哉 夫豈不義而會子言 之 是或一道也 天下有達尊三 爵一齒一德一 朝廷莫如爵 鄉 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惡 得有其一 以慢其二哉</p>	<p>(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런 말을 두고 한 말이겠소?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晋나라와 楚나라의 富에는 미치지 못하나, 저들이 그 富한 것으로 하면 나는 나의 仁으로 할 것이며, 저들이 작위를 가지고 하면 나는 나의 義로써 할 것이니, 내 어찌 딸리겠는가?'하시니, 어찌 옳지 아니한 것을 증자께서 말씀하셨겠는가! 그것은 또한 하나의 道이다. 천하에 통하는 높은 것이 셋이 있으니, 작위가 그 하나요, 나이가 그 하나이며, 덕이 그 하나이니, 조정에서는 작위만한 것이 없고, 향리에서는 나이만한 것이 없으며, 세상을 돋고 백성들의 어른 노릇하는 데는 덕망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그 중의 하나를 가지고 그 둘을 소홀히 하겠는가?」</p>
250	<p>大有爲之君 大有作爲 非常之君也 程子曰 古之人 所以必待人君 致敬盡禮而後 往者 非欲自爲尊大也 爲是故耳</p>	<p>04-02-07 故將大有爲之君 必 有所不召之臣 欲有謀焉則就之 其尊德樂道不如是 不足與有爲 也</p>	<p>그러므로 장차 크게 될 임금은 반드시 함부로 부르지 못할 신하를 얻게 된다. (그와 함께) 괴하고자 하면 자기가 나아가니, 덕을 존중하고 도를 즐기기를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함께 큰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거요.</p>
251	<p>先從受學 師之也 後以爲臣 任之也</p>	<p>04-02-08 故湯之於伊尹 學焉 而後 臣之 故不勞而王 桓公之 於觀衆 學焉而後臣之 故不勞 而霸</p>	<p>그러므로 탕임금은 이윤한테서 배운 뒤에 그를 신하로 삼았던 것이니,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王者가 되었던 것이요. 환공은 관중에게서 배운 뒤에 그를 신하로 삼았으니,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霸를 칭하게 된 것이오.</p>
252	<p>醜類也 尚過也 所教 謂聽從於己 可役使者也 所受教 謂己之所從學者也</p>	<p>04-02-09 今天下地醜德齊 莫 能相尙 無他 好臣其所教而不 好臣其所受教</p>	<p>지금은 천하의 임금들이 차지한 땅은 비슷하고 덕도 비등하여 서로 간에 월등하게 뛰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을 신하로 삼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신하로 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오.</p>
253	<p>不爲管仲 孟子自謂也 范氏曰 孟子之於齊 處賓師之位 非當仕有官職者 故其言如此 ♥ 此章 見賓師 不以趨走 承順爲恭 而以責難陳善爲敬 人君 不以崇高富貴爲重</p>	<p>04-02-10 湯之於伊尹 桓公之 於管仲 則不敢召 管仲且猶不 可召 而況不爲管仲者乎</p>	<p>탕임금이 이윤에 대해서, 환공이 관중에 대해서는 감히 불러서 보지 않았으니, 관중조차도 불러서 볼 수 없었는데, 하물며 관중을 대견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소?」</p>

	而以貴德尊士爲賢 則上下交而德業成矣		
254	04-03 是貨之也章	04-03 是貨之也章	◇贈與(증여)된 금품일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주고받음에 반드시 합당한 예를 차려야 하며, 義에 어긋나면 받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255	陳臻孟子弟子 兼金好金也 其價兼倍於常者 一白百鎰也	04-03-01 陳臻問曰 前日於齊王餽兼金一百而不受 於宋餽七十鎰而受 於薛餽五十鎰而受 前日之不受是則 今日之受非也 今日之受是則 前日之不受非也 夫子必居一於此矣	진진이 묻기를, 「지난날에 제나라에서는 좋은 금 백일을 보내와도 받지 않으시고, 송나라에서는 칠십 일 주는 것을 받으셨고, 설나라에서는 오십 일 주는 것을 받으셨으니, 지난날에 받지 않으신 것이 옳으면 오늘의 받은 것이 옳지 않고, 오늘의 받은 것이 옳으면 지난날에 받지 아니한 것이 옳지 않을 것이니,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256	皆適於義也	04-03-02 孟子曰皆是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옳은 것이다.」
257	贐送行者之禮也	04-03-03 當在宋也 予將有遠行 行者必以贐 辭曰餽贐 予何爲不受	송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멀리 갈 일이 있었는데,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는 사람을 보내는 禮가 있는지라, 말하기를, '신으로 준다.'고 하였으니, 내 어찌 받지 아니하겠느냐?'
258	時人 有欲害孟子者 孟子設兵以戒備之 薛君以金饋孟子爲兵備 辭曰聞子之有戒心也	04-03-04 當在薛也 予有戒心 辭曰聞戒 故爲兵餽之 予何爲不受	설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변고를)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경계하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무기를 마련하도록 준다.'고 하였으니, 내 어찌 받지 아니하겠느냐?'
259	無遠行戒心之事 是未有所處也 取猶致也 ♥ 尹氏曰 言君子之辭受取予 唯當於理而已	04-03-05 若於齊則未有處也 無處而餽之 是貨之也 焉有君子而可以貨取乎	제나라에서는 쓸 곳이 있지 아니하니, 쓸 데가 없는데 주는 것은 재물로 환심을 사려는 것이니, 어찌 군자로서 환심을 사려는 재물을 취할 수가 있겠느냐?」
260	04-04 惟孔距心章	04-04 惟孔距心章	◇지방의 행정 책임자가 그 직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去就(거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國君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일깨워준 내용이다.
261	平陸齊下邑也 大夫邑宰也 戟有枝兵也 土戰士也 伍行列也 去之殺之也	04-04-01 孟子之平陸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 則去之 否乎 曰不待三	맹자께서 평륙에 가시어 그곳의 대부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창을 든 병정이 하루에 세 번씩이나 (자기의) 행렬을 잃어버리면 제거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가) 말하기를,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262	<p>子之失伍 言其失職 猶士之失伍也 距心大夫名 對言此乃王之失政使然 非我所得專爲也</p>	<p>04-04-02 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幾千人矣 曰此非距心之所得爲也</p>	<p>(맹자가 말씀하시기를,)「그렇다면 당신은 행렬을 잃은 일이 또한 많습니다. 흉년으로 기근이 든 해에 당신의 백성들 중에 노인과 병약자들은 도량창에 굴러 떨어지고, 장정들은 흩어져 사방으로 떠나버린 자가 몇 천 명입니까?」(대부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 거심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p>
263	<p>牧之養之也 牧牧地也 豺草也 孟子言 若不得自專 何不致其事而去</p>	<p>04-04-03 曰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譖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 曰此則距心之罪也</p>	<p>(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남의 소와 양을 받아서 그것들을 길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소와 양을 위해 목장과 목초를 구할 것이니, 목장과 목초를 구해도 얻지 못하면 그 소와 양을 그 사람에게 돌려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두커니 서서 그 소와 양이 죽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대부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 거심의 죄 옳습니다.」</p>
264	<p>爲都治邑也 邑有先君之廟曰都 孔大夫姓也 爲王誦其語 欲以風曉王也 ♥ 陳氏曰 孟子一言而齊之君臣舉知其罪 固足以興邦矣 然而齊卒不得爲善國者 豈非說而不繹 從而不改故邪</p>	<p>04-04-04 他日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惟孔距心 爲王誦之 王曰此則寡人之罪也</p>	<p>후일에 왕을 뵈옵고 말하기를, 「왕의 도읍을 다스리는 자를 신이 다섯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죄를 아는 자는 오직 공거심입니다.」하고, 왕을 위해 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왕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과인의 죄 옳습니다.」</p>
265	<p>04-05 無官守無言責章</p>	<p>04-05 無官守無言責章</p>	<p>◇완전한 신하가 된 자와 寶客(빈객)의 입장으로 있는 사람과의 進退(진퇴)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 내용이다. - 아울러 자기 직책에 충실해야 하며, 進退 또한 분명해야 함도 역설한 것</p>
266	<p>蟻蠅 齊大夫也 靈丘齊下邑似也言所爲近似有理可以言謂土師近王得以諫刑罰之不中者</p>	<p>04-05-01 孟子謂蟻蠅曰 子之辭靈丘而請土師似也 爲其可以言也 今旣數月矣 未可以言與</p>	<p>맹자께서 지와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영구의 邑宰(읍재)를 그만두고서 土師의 자리를 청한 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소. 그것은 그 자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니, 이제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말할 수 없었던가요?」</p>
267	<p>致猶還也</p>	<p>04-05-02 蟻蠅諫於王而不用致爲臣而去</p>	<p>지와가 왕에게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하됨을 내놓고 물러나 버렸다.</p>
268	<p>譏孟子道不行而不能去也</p>	<p>04-05-03 齊人曰所以爲蟻蠅則善矣 所以自爲則吾不知也</p>	<p>제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맹자가) 지와를 위해서 말해준 것은 좋았으나, 그가 자기를 위해서도 그같이 하는가는 모르겠다.」</p>
269	<p>公都子 孟子弟子也</p>	<p>04-05-04 公都子以告</p>	<p>공도자가 그 이야기를 (맹자에게) 고했더니,</p>

270	<p>官守以官爲守者 言責以言爲責者 綽綽寬貌 裕寬意也 孟子居賓師之位 未嘗受祿 故其進退之際 寬裕如此 尹氏曰 進退久速 當於理而已</p>	<p>04-05-05 曰吾聞之也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我無官守 我無言責也 則吾進退 豈不綽綽然有餘裕哉</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기로는 벼슬자리를 가진 사람은 그 직책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할 책임을 가진 자는 자기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나는 벼슬자리도 없고 말할 책임도 없으니, 내가 나가고 물러나고 하는데 어찌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p>
271	<p>04-06 出弔於滕章</p>	<p>04-06 出弔於滕章</p>	<p>◇ 齊 宣王의 寵愛(총애)를 받고 分數(분수)없이 구는 王驩을 嫌惡(혐오)하는 情이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 - 君子는 道에 맞지 않으면 함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p>
272	<p>蓋齊下邑也 王驩王嬖臣也 輔行 副使也 反往而還也 行事使事也</p>	<p>04-06-01 孟子爲卿於齊 出弔 於滕 王使蓋大夫王驩 為輔行 王驩 朝暮見 反齊滕之路 未嘗 與之言行事也</p>	<p>맹자께서 제나라의 卿相이 되시어 등나라에 나아가 조상하시려 함에, 왕이 蓋邑(합읍)의 대부 왕환을 副使(부사)로 삼았는지라, 왕환이 아침 저녁으로 (맹자를) 만났으나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길을 왕복하는 동안에 그와는 조문사로 가는 일을 말씀하신 일이 없었다.</p>
273	<p>王驩蓋攝卿以行 故曰齊卿 夫既或治之 言有司已治之矣 孟子之待小人 不惡而嚴如此</p>	<p>04-06-02 公孫丑曰 齊卿之位 不爲小矣 齊滕之路 不爲近矣 反之而未嘗與言行事何也 曰夫 既或治之 予何言哉</p>	<p>공손추가 말하기를, 「제나라 卿의 지위가 작은 것이 아니며, 제나라와 등나라의 길이 가깝지 아니하거늘, 그 길을 왕복하시도록 그 사람과 조문사로 가시는 일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 일을 처리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p>
274	<p>04-07 不以天下儉其親章</p>	<p>04-07 不以天下儉其親章</p>	<p>◇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자식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내용이다.</p>
275	<p>孟子仕於齊 喪母 歸葬於魯 嬴齊南邑 充虞孟子弟 嘗董治作棺之事者也 嚴急也 木棺木也 以已通 以美太美也</p>	<p>04-07-01 孟子自齊葬於魯 反 於齊 止於嬴 充虞請日前日 不 知虞之不肖 使虞敦匠事嚴 虞 不敢請 今願竊有請也 木若以 美然</p>	<p>맹자께서 제나라로부터 와서 노나라에서 장례를 치르고 제나라로 돌아가다가 嬴邑에 머무르는데, 충우가 청해 말하기를, 「전일에는 제 못난 것을 알지 못하시고 저에게 관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하셨는데, 일이 다급해서 제가 감히 여쭈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외람되이 청이 있사오니, 棺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p>
276	<p>度厚薄尺寸也 中古周公制禮時也 槨稱之 與棺相稱也 欲其堅厚久遠 非特爲人觀視之美而已</p>	<p>04-07-02 曰古者 棺槨無度 中 古槨七寸 槨稱之 自天子達於 庶人 非直爲觀美也 然後盡而 人心</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관과 곽에 일정한 척도가 없었는데, 中古에는 관은 7 치요, 곽은 그것에 맞춰서 썼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갓 보기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다했다 할 것이다.」</p>

277	不得謂法制所不當得 得之爲有財 言得之而又爲有財也 或曰 爲當作而	04-07-03 不得不可以爲悅 無 財不可以爲悅 得之爲有財 古 之人 皆用之 吾何爲獨不然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자식의 마음이) 기쁠 수 없고, (그걸) 재물이 없어도 (자식의 마음이) 기쁠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럴만한 재물이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러한 관과를 썼던 것이니, 나만 무엇 때문에 惟獨(유독) 그렇게 하지 않을 건가?
278	比猶爲也 化者死者也 懈快也 言爲死者 不使土親近其肌膚 於人子之心 廿不快然無所恨乎	04-07-04 且比化者 無使土親 膚 於人心 獨無憇乎	또 시체가 변화해 버릴 때까지는 흙이 살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그래 좋지 않겠는가?
279	送終之禮 所當得爲而不自盡 是爲天下愛惜此物 而薄於吾親也	04-07-05 吾聞之也 君子不以 天下儉其親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천하 때문에 자기 어버이를 葬事하는데 물건을 아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280	04-08 以燕伐燕章	04-08 以燕伐燕章	◇無道한 나라는 쳐도 괜찮지만, 德治를 하는 진정한 王者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개인에 대한 懲罰(징벌)또한 법에 따라서 만이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281	沈同齊臣 以私問 非王命也 子噲子之事見前篇 諸侯土地人民 受之天子 傳之先君 私以與人 則與者受者皆有罪也 仕爲官也 士卽從仕之人也	04-08-01 沈同以其私問曰 燕 可伐與 孟子曰可 子噲不得與 人燕 子之不得受燕於子噲 有 仕於此 而子悅之 不告於王而 私與之 吾子之祿爵 夫士也亦 無王命而私受之於子 則可乎 何以異於是	심동이 사사롭게 물어 말하기를, 「연나라를 쳐도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쳐도 좋겠지요. 자愧는 남에게 연나라를 내줄 수 없었던 것이고, 자지는 자愧에게 연나라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한 벼슬사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그를 좋아하여서 왕에게 고하지 않고서 사사롭게 당신의 봉록과 작위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 역시 왕의 명령 없이 사사로이 당신에게서 그것을 받는다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이와 다르겠습니까?」
282	天吏解見上篇 言齊無道 與燕無異 如以燕伐燕也 史記亦謂孟子勸齊伐燕 蓋傳聞此說之誤 ♥ 楊氏曰 燕固可伐矣 故孟子曰 可 使齊王 能誅其君弔其民 何不可之有 乃殺其父兄 麾其子弟而後 燕人畔之 乃以是 歸咎孟子之言 則誤矣	04-08-02 齊人伐燕 或問曰 勸 齊伐燕 有諸 曰未也 沈同問燕 可伐與 吾應之曰可 彼然而伐 之也 彼如曰 孰可以伐之 則將 應之曰爲天吏則可以伐之 今有 殺人者 或問之曰 人可殺與 則 將應之曰可 彼如曰 孰可以殺 之 則將應之曰爲士師則可以殺 之 今以燕伐燕 何爲勸之哉	제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치거늘, 어떤 사람이 물어 말하기를, 「(당신이) 제나라에 권해서 연나라를 쳤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심동이 묻기를, '연나라를 쳐도 좋겠습니까?'하여, 내가 대답하기를, '가하다.'했더니, 그가 그렇다고 여겨 친 것이지요. 그가 만약에 묻기를, '누가 칠 수 있을까요?'했으면, 곧 대답하기를, '天吏라면 칠 수 있겠지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살인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묻기를, '그 사람을 죽여도 좋겠지요?'하면, 곧 대답하기를, '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가 만약 묻기를, '누가 죽일 수 있을까요?'하면, 곧 대답하기를, '士師라면 죽일 수 있겠지요.'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연나라로 연나라를 치거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하겠습니까?」
283	04-09 燕人畔章	04-09 燕人畔章	◇反省과 改過(개과)없이 事理를 歪曲(왜곡)하고 過誤를 正當화하거나 合理화시키려는 태도를 비판한 내용이다. -

			주공의 과오는 情理의 溫厚(온후)함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齊 宣王의 과오는 欲望을 충족시키기 위해 燕나라를 합병(합병)한 無道에서 起因(기인)한다는 것이다.
284	齊破燕後二年 燕人共立太子平爲王	04-09-01 燕人畔 王曰吾甚懃於孟子	연나라 사람들이 (제나라에) 叛旗(반기)를 들고, (제나라) 왕이 말하기를, 「내가 심히 맹자에게 부끄럽다.」
285	陳賈齊大夫也 管叔名鮮武王弟周公兄也 武王勝商殺紂 立紂子武庚 而使管叔與弟蔡叔霍叔 監其國 武王崩 成王幼 周公攝政 管叔與武庚畔 周公討而誅之	04-09-02 陳賈曰王無患焉 王自以爲與周公孰仁且智 王曰惡是何言也 曰周公使管叔監殷管叔以殷畔 知而使之 是不仁也 不知而使之 是不智也 仁智周公未之盡也 而況於王乎 賈請見而解之	진고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런 근심을 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周公에 비해서 누가 더 인자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말하기를, 「하! 그게 무슨 말인가!」 (진고가) 말하기를, 「주공이 관숙을 시켜서 殷(백성)을 감독케 하였는데, 관숙은 殷(백성들)과 함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관숙이 그럴 줄) 알고서 시켰다면 그것은 仁하지 못한 것이고, (그럴 줄) 알지 못하고 시켰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仁과 智는 주공조차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하물며 왕께서야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맹자를 만나보고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86	言周公乃管叔之弟 管叔乃周公之兄 然則周公不知管叔之將畔而使之 其過有所不免矣 或曰 周公之處管叔 不如舜之處象 何也 游氏曰 象之惡 已著 而其志不過富貴而已 故舜得以是而全之 若管叔之惡則未著 而其志其才 皆非象比也 周公詎忍逆探其兄之惡而棄之邪 周公愛兄 宜無不盡者 管叔之事 聖人之不幸也 舜誠信而喜象 周公誠信而任管叔 此天理人倫之至 其用心一也	04-09-03 見孟子問曰 周公何人也 曰古聖人也 曰使管叔監殷 管叔以殷畔也 有諸 曰然曰 周公知其將畔而使之與 曰不知也 然則聖人且有過與 曰周公弟也 管叔兄也 周公之過不亦宜乎	(진고가) 맹자를 뵙고 묻기를, 「주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의 성인입니다.」 (진고가) 말하기를, 「관숙을 시켜 殷(백성)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관숙은 殷(백성들)과 함께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었지요.」 (진고가) 말하기를, 「주공이 그가 장차 배반할 것을 알고 그 일을 시켰을까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몰랐을 것입니다.」 (진고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성인에게도 과오가 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공은 동생이었고 관숙은 형이었으니, 주공의 과오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었을까요?」

287	<p>順猶遂也 更改也 辭辯也 更之 則無損於明 故民仰之 順而爲之辭 則其過愈深矣 責賈不能勉其君以遷善改過 而教之以遂非文過也 ♥ 林氏曰 齊王 慙於孟子 蓋羞惡之心 有不能自己者 使其臣有能因是心而將順之 則義不可勝用矣 而陳賈鄙夫 方且爲之曲爲辯說 而沮其遷善改過之心 長其飾非拒諫之惡 故孟子深責之 然此書記事散出而無先後之次 故其說 必參考而後通 若以第二篇十章十一章 置之前章之後 此章之前 則孟子之意 不待論說而自明矣</p>	04-09-04 且古之君子 過則改之 今之君子 過則順之 古之君子 其過也如日月之食 民皆見之 及其更也 民皆仰之 今之君子 岂徒順之 又從而爲之辭	<p>또 옛날의 군자는 과오가 있으면 그것을 고쳤는데, 지금의 군자는 과오가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옛날의 군자는 그 과오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았고, 그 과오를 고치게 되면 백성들이 다 우러러보았는데, 지금의 군자는 어찌 한갓 그대로 땄을 뿐입니까? 또 좋아서 변명까지 하는구려.」</p>
288	04-10 致爲臣而歸章	04-10 致爲臣而歸章	<p>◇맹자가 제나라에서 여러 해 동안 客卿(객경)으로 있다가 宣王과 뜻이 맞지 않아 물러나게 된 이야기로,君子는 富貴만을 좇아서는 안 되며, 義와 道에 어긋나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壟斷(龍斷;농단)이라는 故事의 出處이기도 하다.</p>
289	孟子久於齊而道不行 故去也	04-10-01 孟子致爲臣而歸	<p>맹자께서 신하됨을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시니,</p>
290		04-10-02 王就見孟子曰 前日 願見而不可得 得侍同朝甚喜 今又棄寡人而歸 不識 可以繼 此而得見乎 對曰不敢請耳 固 所願也	<p>왕이 맹자에게 나아가 뵙고 말하기를, 「전날(맹자가 제나라에 가지 않았을 때)에는 만나 뵙기를 원하였으나 뵙지 못하다가, 모시고 조정에 있을 수 있게 되어서 심히 기뻤었는데, 이제 또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신다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뵙 수 있겠습니까?」(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감히 청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본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p>
291	<p>時子齊臣也 中國當國之中也 萬鍾穀祿之數也 鍾量名 受六斛四斗 矜敬也 式法也 蓋何不也</p>	04-10-03 他日王謂時子曰 我 欲中國而授孟子室 養弟子以萬 鍾 使諸大夫國人 皆有所矜式 子盍爲我言之	<p>그 후 어느 날 왕이 시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맹자에게 나라의 중심지에다 집을 마련해주고, 만 종의 녹을 주어 제자들을 기르게 하여, 여러 대부들과 나라 사람들이 다 공경하고 본받게 해주고 싶은데, 그대가 나를 위하여 말해주지 않겠나?」</p>

292	陳子卽陳臻也	04-10-04 時子因陳子而以告孟子 陳子以時子之言 告孟子	시자가 진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맹자에게 전하거늘, 진자가 시자의 말을 맹자에게 고하자,
293	孟子旣以道不行而去 則其義不可以復留 而時子不知 則又有難顯言者 故但言設使我欲富 則我前日爲卿 詧辭十萬之祿 今乃受此萬鍾之饋 是我雖欲富 亦不爲此也	04-10-05 孟子曰 然夫時子惡知其不可也 如使予欲富 辭十萬而受萬 是爲欲富乎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가? 시자야 어떻게 그 불가한 것을 알겠는가? 만약에 나로 하여금 부유해지고 싶게 만들자는 것이라면, 십만 종의 녹을 사퇴하고서 만종을 받는 것이 부유해지고자 하는 것이겠는가?」
294	此孟子引季孫之語也 季孫子叔疑 不知何時人 龍斷岡壘之斷而高也 義見下文 蓋子叔疑者嘗不用而使其子弟爲卿 季孫譏其旣不得於此 而又欲求得於彼 如下文賤丈夫登龍斷者之所爲也 孟子引此 以明道旣不行 復受其祿 則無以異此矣	04-10-06 季孫曰異哉 子叔疑 使己爲政 不用則亦已矣 又使 其子弟爲卿 人亦孰不欲富貴 而獨於富貴之中 有私龍斷焉	계손이 말하기를, '이상하다 자숙의여! 자기가 정치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그만둘 것이거늘, 또 그 자제로 하여금 卿이 되게 하니, 사람이 누군들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려 하지 않겠는가마는 혼자서 부귀를 독차지하는 것이니 농단자이다.'라고 하였다.
295	孟子釋龍斷之說如此 治之謂治其爭訟 左右望者欲得此而又取彼也 罔謂罔羅取之也 從而征之 謂人惡其專利 故就征其稅 後世緣此 遂征商人也 ♥ 程子曰 齊王所以處孟子者未爲不可 孟子亦非不肯爲國人矜式者 但齊王實非欲尊孟子 乃欲以利誘之 故孟子拒而不受	04-10-07 古之爲市者 以其所 有 易其所無者 有司者治之耳 有賤丈夫焉 必求龍斷而登之 以左右望而罔市利 人皆以爲賤 故 從而征之 征商自此賤丈夫 始矣	예전에 시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꾸는 곳으로 유사가 그것을 살필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한 천한 사나이가 나와서 반드시 우뚝한 높은 지점을 찾아 그곳에 올라가서는 좌우로 바라보면서 시장의 이익을 그물질하듯 거두어 가버리고는 하여,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겼었다. 그래서 그런 행위에 따라서 세를 징수하게 된 것이다. 상인에게 세를 징수한 것이 그 천한 사내로부터 비롯하게 되었다.」
296	04-11 孟子去齊宿於晝章	04-11 孟子去齊宿於晝	◇맹자가 자기의 주장이 齊王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또는 성의 있는 노력이 없는 한 제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齊王은 맹자를 공경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주장을 수용할 생각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7	晝齊西南近邑也	04-11-01 孟子去齊宿於晝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 주읍에서 유숙하시니,
298	隱憑也 客坐而言孟子不應而臥也	04-11-02 有欲爲王留行者 坐而言 不應 隱几而臥	왕을 위해 (맹자께서) 가는 것을 만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끌어앉아서 말하려 하거늘, (맹자께서) 응대하지 않으시고 안석에 기대어 누우셨다.

299	<p>齊宿齊戒越宿也 繆公尊禮子思 常使人候伺 道達誠意於其側 乃能安而留之也 泄柳魯人 申詳子張之子也 繆公尊之不如子思 然二子義不苟容 非有賢者在其君之左右 維持調護之 則亦不能安其身矣</p>	<p>04-11-03 客不悅曰 弟子齊宿 而後敢言 夫子臥而不聽 請勿 復敢見矣 曰坐 我明語子 昔者 魯繆公 無人乎子思之側 則不 能安子思 泄柳申詳 無人乎繆 公之側 則不能安其身</p>	<p>객이 불쾌해하며 말하기를, 「이 제자는 齋戒(재계)하고서 (하루를) 묵고 난 다음 감히 말씀드리는데, 선생님께서는 누워버리시고 듣지 않으시니, 다시는 뵙지 않겠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앉으시오. 내가 분명하게 당신에게 말씀하리라. 옛날에 노나라 목공은 자사 곁에 사람이 없으면 자사를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했고, 설유와 신상은 목공 곁에 사람이 없으면 그들의 몸을 편히 할 수 없었소.</p>
300	<p>長者孟子自稱也 言齊王不使子來 而子自欲爲王留我 是所以爲我謀者 不及繆公留子思之事 而先絕我也 我之臥而不應豈爲先絕子乎</p>	<p>04-11-04 子爲長者慮而不及子 思 子絕長者乎 長者絕子乎</p>	<p>당신이 어른(맹자 자신)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목공이) 자사를 대하는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니, 당신이 어른(맹자)을 거절한 것이겠소? 어른(맹자)이 당신을 거절한 것이겠소?」</p>
301	<p>04-12 孟子去齊尹士語人曰章</p>	<p>04-12 孟子去齊尹士語人曰章</p>	<p>◇齊나라에서 당시 맹자의去就(거취)를 비판한 얘기와 그에 대한 맹자의解明 내용이다. - 맹자의大道와大德을 알 수 있다.</p>
302	<p>尹士齊人也 干求也 澤恩澤也 濡滯遲留也</p>	<p>04-12-01 孟子去齊 尹士語人 曰不識王之不可以爲湯武則是 不明也 識其不可 然且至則是 干澤也 千里而見王 不遇故去 三宿而後出晝 是何濡滯也 士 則茲不悅</p>	<p>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시자, 윤사가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맹자가 왕(宣王)이 탕왕이나 무왕과 같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며 이는 밝지 못한 것이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왔었다면 그것은 은택(祿;녹)을 구하려 한 것이다. 천리 길을 와서 왕을 만났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인데, 사흘 저녁을 묵고 난 후에야 주읍을 떠났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지체한단 말인가? 나는 그런 행동에 불쾌하도다.」</p>
303	<p>高子亦齊人 孟子弟子也</p>	<p>04-12-02 高子以告</p>	<p>고자가 그 말을 (맹자께) 고하니,</p>
304	<p>見王欲以行道也 今道不行 故不得已去 非本欲如此也</p>	<p>04-12-03 曰夫尹士 惡知予哉 千里而見王 是予所欲也 不遇 故去 豈予所欲哉 予不得已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윤사가 어찌 나를 알리오? 천리 길을 와서 왕을 만나보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니, (왕과) 뜻이 맞지 않아 떠나는 것이 어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겠는가? 내가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다.</p>
305	<p>所改必指一事而言 然今不可考矣</p>	<p>04-12-04 予三宿而出晝 於予 心 猶以爲速 王庶幾改之 王如 改諸 則必反予</p>	<p>내가 사흘을 묵고 주읍을 떠났으나, 내 마음에는 오히려 빠르다고 생각하였으니, (그것은) 왕께서 혹시 마음을 고치실까, 왕이 만약에 마음을 고치신다면 나를 부르실 것이란 바람 때문이었다.</p>

306	<p>浩然如水之流不可止也 楊氏曰 齊王天資朴實 如好勇 好貨 好色 好世俗之樂 皆以直告而不隱於孟子 故足以爲善 若乃其心不然而謬爲大言以欺人 是人終不可與入堯舜之道矣 何善之能爲</p>	<p>04-12-05 夫出畫而王不予以追也 予然後浩然有歸志 予雖然 豈 舍王哉 王由足用爲善 王如用 予 則豈徒齊民安 天下之民舉 安 王庶幾改之 予日望之</p>	<p>그런데 주읍을 떠나도 왕이 나를 쫓아오지 않으시니, 내가 그런 뒤에야 단연코 돌아가 버릴 뜻을 가졌으니, 내 비록 그러하나 어찌 왕을 버리겠는가? 왕은 그래도 좋은 정치를 해낼 수 있으니, 왕께서 만약에 나를 써주신다면, 어찌 제나라 백성만이 편안해 뿐이겠는가?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편안해 질 것이니, 왕이 혹시라도 마음을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랐었노라.</p>
307	<p>悻悻怒意也 窮盡也</p>	<p>04-12-06 予豈若是小丈夫然哉 諫於其君而不受則怒 悚悻然見 於其面 去則窮日之力而後宿哉</p>	<p>내 어찌 그 같은 소인배처럼 그 임금에게 간하여 듣지 아니한다고 곧 노하여, 노한 빛을 얼굴에 나타내고, 떠나가면 하루 동안의 힘을 다 써서 간 후에 묵고는 하겠는가?」</p>
308	<p>此章見聖賢行道濟時汲汲之本心 愛君澤民惓惓之餘意 李氏曰 於此見君子憂則違之之情 而荷蕡者所以爲果也</p>	<p>04-12-07 尹士聞之曰 士誠小 人也</p>	<p>윤사는 (이 말씀을) 듣고는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소인이로다.」</p>
309	<p>04-13 孟子去齊充虞路章</p>	<p>04-13 孟子去齊充虞路章</p>	<p>◇맹자께서 齊 宣王이 王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알고, 그에게 나아가 王道政治로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서 그것을 天命으로 돌린 것이다. - 맹자의 王道政治에 대한 自負와 抱負(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p>
310	<p>路問於路中問也 豫悅也 尤過也 此二句實孔子之言 蓋孟子嘗稱之以教人耳</p>	<p>04-13-01 孟子去齊 充虞路問 曰 夫子若有不豫色然 前日虞 聞諸夫子 曰君子不怨天 不尤 人</p>	<p>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가실 때, 충우가 途中(도중)에 물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기쁘지 아니한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에 제가 선생님께 듣자오니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허물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p>
311	<p>彼前日 此今日</p>	<p>04-13-02 曰彼一時 此一時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도 한 시기였고, 지금도 한 시기이다.」</p>
312	<p>自堯舜至湯 自湯至文武 皆五百餘年而聖人出 名世謂其人德業聞望 可名於一世者爲之補佐 若臯陶稷契伊尹萊朱太公望散宜生之屬</p>	<p>04-13-03 五百年 必有王者興 其間必有名世者</p>	<p>오백 년이 되면 반드시 왕자가 일어나고, 그러한 무렵에는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다.</p>
313	<p>周謂文武之間 數謂五百年之期 時謂亂極思治 可以有爲之日 於是而不得一有所爲 此孟子所以不能無不豫也</p>	<p>04-13-04 由周而來 七百有餘 世矣 以其數則過矣 以其時考 之則可矣</p>	<p>周나라 아래로 칠백여 년이니, 그 年數로 본다면 (그 시기가) 지났으나, 그 시기를 가지고 본다면 (王者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p>
314	<p>言當此之時 而使我不遇於齊</p>	<p>04-13-05 夫天未欲平治天下也</p>	<p>저 하늘이 아직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려지게 하려들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천하를</p>

	是天未欲平治天下 然天意未可知而其具又在我 我何爲不豫哉 然則孟子雖若有不豫然者 而實未嘗不豫也 蓋聖賢憂世之志 樂天之誠 有並行而不悖者 於此見矣	如欲平治天下 當今之世 舍我 其誰也 吾何爲不豫哉	평화스럽게 다스려지게 하려는다면야 오늘날의 세상에 직면하여서 나를 버리고 그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 내 어찌 불유쾌해 하겠는가?」
315	04-14 孟子去齊居休章	04-14 孟子去齊居休章	◇맹자께서 祿俸을 받을 수 없었던 心境과 제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去就에 대해서 苦悶한 속사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316	休地名	04-14-01 孟子去齊居休 公孫 丑問曰 仕而不受祿 古之道乎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서 休에서 머무르실 때, 공손추가 묻기를, 「벼슬을 살면서 祿을 받지 않는 것이 옛날의 道입니까?」
317	崇亦地名 孟子始見齊王 必有所不合 故有去志 變謂變其去志	04-14-02 曰非也於崇 吾得見 王 退而有去志 不欲變 故不受 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崇에서 내가 왕을 뵙고 나와서 떠나갈 뜻을 가졌는데, (그 뜻을) 고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라.
318	師命師旅之命也 國既被兵 難請去也 ♥ 孔氏曰 仕而受祿禮也 不受齊祿義也 義之所在禮有時而變 公孫丑欲以一端裁之 不亦誤乎	04-14-03 繼而有師命 不可以 請 久於齊 非我志也	계속해서 군대의 동원령이 있는지라, (그만두겠다는) 청을 할 수 없었을 뿐, 제나라에 오래 있었던 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319	05 滕文公章句上 - 凡五章	05 滕文公章句上 - 凡五章	[제 5 편. 滕文公章句(등문공장구) 上]
320	05-01 滕文公爲世子章	05-01 滕文公爲世子章	◇孟子가 性善說을 治國하는 道理와 連繫(연계)하여 滕 世子를 勸勉(권면)한 내용이다. - 信念과 自信을 가지고 遠大한 자기 向上의 목표를 향해 不斷히 노력을 하면 聖人의 境地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21	世子太子也	05-01-01 滕文公爲世子 將之 楚 過宋而見孟子	등나라 문공이 세자였을 때, 초나라로 가는 길에 송나라를 지나면서 맹자를 찾아보았는데,
322	道言也 性者人所稟於天以生之理也 渾然至善 未嘗有惡 人與堯舜初無少異 但衆人 汨於私欲而失之 堯舜則無私欲之蔽而能充其性爾 故孟子與世子言 每道性善 而必稱堯舜以實之 欲其知仁義不假外求 聖人可學而至 而不懈於用力也 門人 不能悉記其辭	05-01-02 孟子 道性善 言必稱 堯舜	맹자께서 性善을 말씀하시면서 말끝마다 요임금과 순임금을 들어서 말씀하셨다.

	<p>而攝其大旨如此 程子曰 性卽理也 天下之理 原其所自 未有不善 喜怒哀樂未發 何嘗不善 發而中節 卽無往而不善 發不中節然後 為不善 故凡言善惡 皆先善而後惡 言吉凶皆先吉而後凶 言是非皆先是而後非</p>		
323	<p>時人不知性之本善 而以聖賢爲不可企及 故世子於孟子之言 不能無疑 而復來求見 蓋恐別有卑近易行之說也 孟子知之 故但告之如此 以明古今聖愚本同一性 前言已盡 無復有他說也</p>	<p>05-01-03 世子自楚反 復見孟子 孟子曰 世子疑吾言乎 夫道一而已矣</p>	<p>세자가 초나라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맹자를 찾아보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자는 내 말을 의심하십니까? 대저 道는 하나일 따름입니다.」</p>
324	<p>成覲人姓名 彼謂聖賢也 有爲者亦若是 言人能有爲 則皆如舜也 公明姓 儀名 魯賢人也 文王我師也 蓋周公之言 公明儀亦以文王爲必可師 故誦周公之言而歎其不我欺也 孟子旣告世子以道無二致 而復引此三言以明之 欲世子篤信力行 以師聖賢 不當復求他說也</p>	<p>05-01-04 成覲謂齊景公曰 彼丈夫也 我丈夫也 吾何畏彼哉 顏淵曰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公明儀曰 文王我師也 周公豈欺我哉</p>	<p>성간이 제나라 경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 사람도 장부이고 나도 장부이니,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하였으며, 안연이 말하기를,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이면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하였고, 공명의가 말하기를, 「문왕은 내 스승이다. 주공이 어찌 나를 속이리오!」 하였습니다.</p>
325	<p>絕猶截也 書商書說命篇 暝眩憤亂 言滕國雖小 猶足爲治 但恐安於卑近 不能自克 則不足以去惡而爲善也 ♥ 愚按孟子之言性善 始見於此 而詳具於告子之篇 然默識而旁通之 則七篇之中 無非此理 其所以擴前聖之未發而有功於聖人之門 程子之言 信矣</p>	<p>05-01-05 今滕絕長補短 將五十里也 猶可以爲善國 書曰若藥不瞑眩 厥疾不瘳</p>	<p>이제 등나라는 긴 것을 끊어서 짧은 것에 합치면 오십 리는 되니, 그래도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경』에 이르기를, '만약에 약이 캄캄하고 어지럽게 만들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p>
326	<p>05-02 滕定公薨章</p>	<p>05-02 滕定公薨章</p>	<p>◇맹자가當時諸侯間에普遍的으로 행해지지 않던 三年喪을 滕文公에게 권하여 그렇게 행하여지자, 크게 反響(반향)하였다다는 이야기. -率先(솔선)이 最善(최선)의 治道임도 알 수 있다.</p>

327	<p>定公 文公父也 然友 世子之傳也 大故 大喪也 事謂喪禮</p>	<p>05-02-01 滕定公薨 世子謂然友曰 昔者 孟子嘗與我言於宋於心終不忘 今也不幸 至於大故 吾欲使子問於孟子然後 行事</p>	<p>등나라 정공이薨去하자 세자가 연우에게 말하기를, 「예전에 맹자가 일찍이 송나라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늘 마음에 잊지 못하였더니 이제 불행하게도 大喪을 당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하여금 맹자에게 물어보게 한 뒤에 장례를 행하고자 하노라.」</p>
328	<p>當時諸侯莫能行古喪禮 而文公獨能以此爲問 故孟子善之 又言父母之喪 固人子之心 所自盡者 蓋非哀之情 痛疾之意 非自外至 宜乎文公於此 有所不能自己也 但所引曾子之言 本孔子告樊遲者 豈曾子嘗誦之 以告其門人歟 三年之喪者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故父母之喪必以三年也 齋衣下縫也 不緝曰 斬衰 緝之日 齋衰 疎 疏也 疏布也 飭糜也 喪禮 三日始食粥 既葬乃疏食 此古今貴賤通行之禮也</p>	<p>05-02-02 然友之鄒 問於孟子 孟子曰 不亦善乎 親喪固所自盡也 曾子曰 生事之以禮 事葬之以禮 祭之以禮 可謂孝矣 諸侯之禮 吾未之學也 雖然吾嘗聞之矣 三年之喪 齋疏之服 飭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 三代共之</p>	<p>연우가 추나라에 가서 맹자께 물으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또한 잘하는 일이 아닌가? 어버이의喪은 본래 스스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예로써 받들고, 돌아가심에 예로써 장사지내며, 예로써 제사를 모시면 효성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후의 예는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하였으나 그렇다고 해도 내가 전에 들은 일이 있는데, 3년 동안의喪期를 거친 옷을 입고 된죽을 먹는 것은 天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삼대(夏·殷·周)이래로 공통되게 지켜온 것입니다.」</p>
329	<p>父兄同姓老臣也 滕與魯 俱文王之後而魯祖周公爲長 兄弟宗之 故滕謂魯爲宗國也 然謂二國不行三年之喪者 乃其後世之失 非周公之法 本然也 志記也 引志之言而釋其意 以爲所以如此者 蓋爲上世以來有所傳受 雖或不同 不可改也 然志所言 本謂先王之世 舊俗所傳禮文小異 而可以通行者耳 不謂後世失禮之甚者也</p>	<p>05-02-03 然友反命 定爲三年之喪 父兄百官 皆不欲曰 吾宗國魯先君 莫之行 吾先君亦莫之行也 至於子之身而反之不可且志曰喪祭從先祖 曰吾有所受之也</p>	<p>연우가 돌아와서 復命하여 3년 상을 정하려고 하니, 부형과 백관들이 모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우리들의 종국인 노나라의 先君들도 그것을 하지 않았고, 우리의 先君들도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代에 와서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안 됩니다. 또 기록에 이르되, '상례와 제사는 선조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세자가) 말하기를, 「내가 배운 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오.」</p>

330

不我足 謂不以我滿足其意也 然者
 然其不我足之言 不可他求者
 言當責之於己 墓宰 六卿之長也
 飲也 深墨甚黑色也 卽就也
 尚加也 論語作上 古字通也 僵伏也
 孟子言但在世子 自盡其衰而已

05-02-04 謂然友曰 吾他日未
 嘗學問 好馳馬試劍 今也父兄
 百官不我足也 恐其不能盡於大
 事 子爲我問孟子 然友復之鄒
 問孟子 孟子曰 然不可以他求
 者也 孔子曰 君薨 聽於冢宰
 飮粥 面深墨 卽位而哭 百官有
 司 莫敢不哀 先之也 上有好者
 下必有甚焉者矣 君子之德風也
 小人之德草也 草上之風必僵
 是在世子

(세자가) 연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옛날에 일찍이 학문을 하지 않고 말 달리고 칼 쓰기를 좋아하여, 지금에 와서는 부형들과 모든 관원들이 나(의견)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아大事를 제대로 다 치러낼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위해 맹자에게 물어봐주십시오.」 연우가 다시 추나라로 가서 맹자께 물었는데,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합니다. 다른 데서 해결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돌아가시면 國政은 총재에게 맡겨버리고, 죽을 마시고 얼굴을 시커멓게 하여位에 나아가 곡을 하면, 모든 관원들과 유사들이 감히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은 그들에 앞서 먼저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들은 반드시 그보다 더 좋아하게 되니,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라, 풀은 바람이 그 위에 불어오면 반드시 늘게 마련이다.'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세자 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331

諸侯五月而葬
 未葬居倚廬於中門之外 居喪不言
 故未有命令教戒也 可謂曰 知
 疑有闕誤 或曰 皆謂世子之知禮也
 林氏曰 孟子之時 喪禮既壞
 然三年之喪 憐隱之心 痛疾之意
 出於人心之所固有者 初未嘗亡也
 惟其溺於流俗之幣 是以 喪其良心
 而不自知耳
 文公見孟子而聞性善堯舜之說
 則固有以啓發其良心矣 是以至此
 而哀痛之誠心發焉 及其父兄百官
 皆不欲行 則亦反躬自責
 悼其前行之不足以取信
 而不敢有非其父兄百官之心
 雖其資質 有過人者而學問之力
 亦不可誣也 及其斷然行之
 而遠近見聞 無不悅服
 則以人心之所同然者 自我發之
 而彼之心 悅誠服
 亦有所不期然而然者 人性之善
 豈不信哉

05-02-05 沿友反命 世子曰然
 是誠在我 五月居廬 未有命戒
 百官族人 可謂曰知 及至葬 四
 方 來觀之 顏色之戚 哭泣之哀
 吊者大悅

연우가 돌아와 복명하자, 세자가 말하기를, 「그러하다. 이것은 진실로 나에게 달려있다.」라 하시고, 5 개월 동안 여막에 거처하면서 명령과 훈계를 하지 않으시니, 모든 관원들과 족친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일컬으며, (세자가 예를) 안다고 하였다. 葬事함에 이르자 사방에서 와보더니, (세자의) 얼굴빛의 슬퍼함과 곡하고 우는 것이 애절함에 조문객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332	05-03 滕文公問爲國章	05-03 滕文公問爲國章	<p>◇齊·宋같은 大國에서 王道政治의 抱負(포부)를 실현하지 못한 맹자께서 小國인 滕나라의 문공에게 그의 王道政治를 권한 내용이다. - 백성들의 생활근거를 공평하게 확립시켜주고 그와 함께 租稅를 확보한 다음, 백성들을 교육하여 道義心을 길러주어야 한다. - 井田法과 什一租(십일조)를 실시하여야 한다.</p>
333	文公以禮聘孟子 故孟子至滕而文公問之	05-03-01 滕文公 問爲國	등나라 문공이 나라 다스리는 것을 물으니,
334	民事謂農事 詩幽風七月之篇 于往取也 緺綾也 亟急也 乘升也 播布也 言農事至重 人君 不可以爲緩而忽之 故引詩 言治屋之急 如此者 蓋以來春 將復始播百穀 而不暇爲此也	05-03-02 孟子曰 民事不可緩 也 詩云 畫爾于茅 宵爾索緝 亟其乘屋 其始播百穀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의 일은 늦추지 못할 것이니, 『시경』이르기를, '낮에는 너 가서 땅풀을 하고, 밤에는 너 새끼를 꼬아서 빨리 지붕을 덮어야만 비로소 온갖 곡식의 씨를 뿐릴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p>
335	恭則能以禮接下 儉則能取民以制	05-03-03 民之爲道也 有恒產 者 有恒心 無恒產者 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乎罪然後 從而刑之 是罔 民也 焉有仁人在位罔民而可爲 也	<p>백성들의 사는 방도란 일정한 생업이 있으면 일정한 마음이 있고,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을 것이니, 진실로 일정한 마음이 없게 되면 放蕩(방탕)- 偏僻(편僻)- 邪惡(사악)- 奢侈(사치) 등에 빠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죄에 빠진 연후에 좇아서 형벌을 하면 이것은 백성들을 그물로 잡는 것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물로 백성들을 잡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p>
336		05-03-04 是故賢君必恭儉 禮 下 取於民 有制	<p>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임금은 반드시 공손하고 검약하게 굴며, 아랫사람을 예우하고, 백성들에게 취하는 데는 制度가 있는 것입니다.</p>
337	陽虎陽貨 魯季氏家臣也 天理人欲 不容竝立 虎之言此 恐爲仁之害於富也 孟子引之 恐爲富之害於仁也 君子小人 每相反而已矣	05-03-05 陽虎曰 爲富不仁也 爲仁不富矣	<p>양호가 말하기를, '財富를 영위하면 仁하지 않게 되고, 인자하게 살면 부유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p>

<p>此以下 乃言制民常產 與其取之之制也 夏時 一夫受田五十畝 而每夫計其五畝之入 以爲貢 商人始爲井田之制 以六百三十畝之地 劃爲九區 區七十畝中爲公田 其外八家各授一區 但借其力 以助耕公田 而不復稅其私田 周時 一夫受田百畝 鄕遂用貢法 十夫有溝 都鄙用助法 八家同井 耕則通力而作 收則計畝而分 故謂之徹 其實皆什一者 貢法 皆以十分之一 爲常數 惟助法 乃是九一 而商制 不可考 周制則公田百畝中 以二十畝 爲廬舍 一夫所耕公田 實計十畝 通私田百畝 爲十一分而取其一 蓋又輕於十一矣 竊料商制 亦當似此 而以十四畝 爲廬舍 一夫實耕公田七畝 是亦不過十一也 徹通也 均也 藉借也</p>	<p>338</p> <p>05-03-06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奠者徹也 助者藉也</p>	<p>하후씨는 50 무를 경작시키고서 貢法을 실시하였고, 은나라 사람들은 70 무를 경작시키고서 助法을 실시하였으며, 주나라 사람들은 100 무를 경작시키고서 �徹法을 실시하였는데, 그 실상은 모두 십일조였으니, �徹이라는 것은 받아간다는 뜻이고, 助라는 것은 빌린다는 뜻입니다.</p>
<p>龍子古賢人 狼戾猶狼籍 言多也 糞壅也 盈滿也 眇恨視也 勤動勞苦也 稱舉也 貸借也 取物於人 而出息以償之也 益之以足取盈之數也 稚幼子也</p>	<p>339</p> <p>05-03-07 龍子曰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貢者校數歲之中 以爲常 樂歲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 爲民父母 使民盼盼然將終歲勤動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使老稚轉乎丘壑 惡在其爲民父母也</p>	<p>용자가 말하기를, '땅(농지)을 다스리는 데는 助法보다 좋은 것이 없고, 貢法보다 좋지 않은 것이 없으니, 貢法은 여러 해를 비교해서 표준(일정한 납부기준)을 삼으니, 풍년에는 날알이 마구 흩어져서(넘쳐나서) 많이 받아내어도 포학한 것이 되지 않는데 그럴 때에는 적게 받아가고, 흉년에는 밭에다 거름을 할 비용에도 부족한데 그럴 때는 반드시 정한 액수대로 채워서 받아가니,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쉬지도 않고 거의 일 년 내내 일을 하여도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하고, 또 꾸어준 것(미납한 조세)에 이자를 더 받아가 늙은이와 어린애가 개천과 골짜기에 굴러 떨어지게(죽게) 한다면, 어찌 그 백성들의 부모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p>

340	<p>孟子嘗言文王治岐 耕者九一 仕者世祿 二者王政之本也 今世祿 滕已行之 惟助法未行 故取於民者 無制耳 蓋世祿者 授之土田 使之食其公田之入 實與助法 相爲表裏 所以使君子 小人 各有定業 而上下相安者也 故下文遂言助法</p>	05-03-08 夫世祿 滕固行之矣	<p>세습하는 봉록은 滕나라가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p>
341	<p>詩小雅大田之篇 雨降雨也 言願天雨於公田 而遂及私田 先公而後私也 當時助法盡廢 典籍不存 惟有此詩可見 周亦用助故 引之也</p>	05-03-09 詩云 雨我公田 遂及 我私 惟助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亦助也	<p>『詩』에 일컫기를, ‘우리 公田에 비가 와서 드디어 우리 私田에 미친다.’하니, 오직 助法에만 公田이 있다고 하지마는 이 시를 가지고 본다면 주나라 때에도 역시 助法이 있었습니다.</p>
342	<p>庠以養老爲義 校以教民爲義 序以習射爲義 皆鄉學也 學國學也 共之無異名也 倫序也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朋友有信 此人之大倫也 庠序學校 皆以明此而已</p>	05-03-10 設爲庠序學校 以敎 之 庠者養也 校者敎也 序者射 也 夏曰敎 殷曰序 周曰庠 學 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	<p>庠·序·學·校를 세워서 백성을 가르칠 것이니, 庠은 기른다는 뜻이고, 校는 가르친다는 뜻이고, 序는 활을 쏜다는 뜻입니다. 夏나라에서는 校라고 하였고, 殷나라에서는 序라고 하였으며, 周나라에서는 庠이라고 하였으며, 배우는 것은 곧 三代가 같았으니 모두 人倫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人倫은 위에서 밝히면 일반 백성들은 아래에서 친밀할 것입니다.</p>
343	<p>滕國褊小 雖行仁政 未必能興王業 然爲王者師 則雖不有天下 而其澤亦足以及天下矣 聖賢 至公無我之心 於此可見</p>	05-03-11 有王者起 必來取法 是爲王者師也	<p>왕者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와서 본받아 갈 것이니, 그렇게 되면 王者的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p>
344	<p>詩大雅文王之篇 言周雖后稷以來 舊爲諸侯 其受天命 而有天下 則自文王始也 子指文公 諸侯未踰年之稱也</p>	05-03-12 詩云 周雖舊邦 其命 維新 文王之謂也 子力行之 亦 以新子之國	<p>『詩』에 이르되,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나 그 천명이 새롭다.’하였으니, 그것은 문왕을 이르는 것이다. 선생께서 힘써 행하시면 역시 선생의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p>
345	<p>畢戰滕臣 文公因孟子之言 而使畢戰 主爲井地之事 故又使之來問其詳也 井地 卽井田也 經界 謂治地分田 經畫其溝塗封植之界也 此法不脩 則田無定分 而豪強 得以兼并 故井地有不均 賦無定法 而貪暴 得以多取 故穀祿有不平 此欲行仁政者之所以必從此始 而暴君 汗吏 則必欲慢而廢之也</p>	05-03-13 使畢戰 問井地 孟子 曰 子之君 將行仁政 選擇而使 子 子必勉之 夫仁政 必自經界 始 經界 不正 井地不均 穀祿 不平 是故 暴君污吏 必慢其經 界 經界既正 分田制祿 可坐而 定也	<p>(등 문공이) 필전에게 井田法에 대해 물어보게 하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의 임금께서 仁政을 실시하시려고 사람을 골라서 선생을 보내셨으니, 선생은 반드시 노력하셔야 합니다. 무릇 仁政은 반드시 경계를 잡아 놓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경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정전이 고르지 않고 곡록이 공평하지 않을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폭군과 탐관오리들은 반드시 경계를 정하는 것을 태만히 하게 되니, 경계를 정하는 것이 이미 바르면 밭을 나누고 祿을 제정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정할 수 있습니다.</p>

	有以正之 則分田制祿 可不勞而定矣		
346	言滕地雖小 然其間亦必有爲君子而仕者 亦必有爲野人而耕者 是以分田制祿之法 不可偏廢也	05-03-14 夫滕壤地褊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 無君子 莫治野人 無野人 莫養君子	滕나라가 땅이 좁고 작으나 군자도 있고 야인도 있을 것이니, 군자가 없으면 야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인들이 없으면 군자들을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347	此分田制祿之常法 所以治野人 使養君子也 野郊外都鄙之地也 九一而助 爲公田而行助法也 國中郊門之內 鄉遂之地也 田不井授 但爲溝洫使什而自賦其一 蓋用貢法也 周所謂徹法者 蓋如此 以此推之 當時非惟助法不行 其貢亦不止什一矣	05-03-15 請野九一而助 國中 什一 使自賦	청컨대 野(교외)에는 九分의 一로 하여 조세하고, 國中(근교)의 농지에서는十分의 一로 조세하여 스스로 납부하게 하십시오.
348	此世祿常制之外 又有圭田 所以厚君子也 圭潔也 所以奉祭祀也 不言世祿者 滕已行之 但此未備耳	05-03-16 卿以下 必有圭田 圭 田 五十畝	卿이하는 반드시 규전이 있으니 규전은 50 무이고,
349	程子曰 一夫上父母 下妻子 以五口八口爲率 受田百畝 如有弟 是餘夫也 年十六 別受田二十五畝 俟其壯而有室然後 更受百畝之田 愚按 此百畝 常制之外 又有餘夫之田 以厚野人也	05-03-17 餘夫 二十五畝	餘夫(한 집안의 壯丁이외의 다른 남자)는 25 무씩입니다.
350	死謂葬也 徒謂徙其居也 同井者 八家也 友猶伴也 守望 防寇盜也	05-03-18 死徙 無出鄉 鄉田同 井 出入 相友 守望 相助 疾病 相扶持 則百姓 親睦	(그렇게 하면) 葬事 지내고 移徙(이사)함에 향리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같은 고장의 밭을 경작하면 井田을 같이 하게 되므로 드나들면서 서로 친밀하여지고, (도둑을) 지킴에 서로 도우며, 질병을 서로 구원해 하면 백성들은 서로 친근하고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351	<p>此詳言井田形體之制 乃周之助法也 公田 以爲君子之祿 而私田 野人之所受 先公後私 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 不言君子 據野人而言 省文耳 上言野及國中二法 此獨詳於治野者 國中貢法 當世已行 但取之 過於什一爾</p>	<p>05-03-19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 為公田 八家皆私百畝 同 養公田 公事畢然後 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p>	<p>사방 一里에 한 정전을 두는데 한 정전은 900 무입니다. 그 가운데를 公田으로 하고 8 家口가 모두 각기 100 무씩을 私有하며 함께 공전을 가꿉니다. 공전의 일이 끝난 뒤에야 감히 사유지를 돌보는데, 이는 야인들을 (군자와)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p>
352	<p>井地之法 諸侯皆去其籍 此特其大略而已 潤澤謂因時制宜 使合於人情 宜於土俗 而不失乎先王之意也 呂氏曰 子張子 慨然有意三代之治 論治人先務 未始不以經界爲急 講求法制 粩然備具 要之 可以行於今 如有用我者 舉而措之耳 詈曰 仁政必自經界始 貧富不均 教養無法 雖欲言治 皆苟而已 世之病難行者 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 為辭 然茲法之行 悅之者衆 苟處之有術 期以數年 不刑一人 而可復 所病者 特上之未行耳 乃言曰 縱不能行之 天下猶可驗之 一鄉方與學者 議古之法 買田一方 畵爲數井 上不失公家之賦役 退以其私 正經界 分宅里 立斂法 廣儲蓄 興學校 成禮俗救貧恤 患 厚本抑末 足以推先王之遺法 明當今之可行 有志未就而卒 愚按 喪禮經界兩章 見孟子之學識其大者 是以 雖當禮法廢壞之後 制度節文 不可復考 而能因略以致詳 推舊而爲新 不屑屑於既往之迹 而能合乎先王之意 真可謂命世亞聖之才矣</p>	<p>05-03-20 此其大略也 若夫潤澤之則在君與子矣</p>	<p>이것이 그 대략이니, 만약에 윤택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임금과 그대에게 달려있습니다.」</p>

353	05-04 神農之言者許行章	05-04 神農之言者許行章	<p>◇맹자께서 당시에 流行하던 農家學派의 說을 철저히 비판한 내용. - 王道政治와 師弟之道의 例들을 설명하고, 五倫의 要點을 紹介(소개)하였다.</p>
354	神農炎帝神農氏 始爲耒耜 教民稼穡者也 爲其言者 史遷所謂農家者流也 許姓名也 踵門 足至門也 仁政上章所言井地之法也 廢民所居也 岌野人之稱 褐毛布 賤者之服也 捆扣啄(原:才豕)之 欲其堅也 以爲食 賣以供食也 程子曰 許行所謂神農之言 乃後世 稱述上古之事 失其義理者耳 猶陰陽醫方 稱黃帝之說也	05-04-01 有爲神農之言者 許行 自楚之滕 踵門而告文公曰 遠方之人 聞君行仁政 願受一 廢而爲岷 文公 與之處 其徒數 十人 皆衣褐 捆屨織席 以爲食	<p>신농의 말을 실천하는 허행이란 자가 있었는데, 초나라로부터 등나라로 가서 국君의 門에 이르러 문공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먼 곳의 사람이 임금께서 어진 정치를 펴신다는 말을 듣고 원컨대 집 한 채를 얻어서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문공이 거처할 곳을 주시니, 그의 무리 수십 인이 모두 갈옷을 입고 삼신을 삼고 자리를 짜서 먹고 살았다.</p>
355	陳良楚之儒者 稳所以起土 未其柄也	05-04-02 陳良之徒陳相 與其弟辛 負耒耜而自宋之滕 曰聞君行聖人之政 是亦聖人也 願爲聖人岷	<p>진량의 제자인 진상이 그의 동생 신과 함께 쟁기와 보습을 지고 송나라로부터 등나라로 가서 말하기를, 「임금께서 성인의 정사를 펴신다고 들었는데, 이 또한 성인이시니 성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p>
356	養殮 熟食也 朝日養 夕日殮 言當自炊爨 以爲食而兼治民事也 厥病也 許行此言 蓋欲陰壞孟子 分別君子小人之法	05-04-03 陳相 見許行而大悅 盡棄其學而學焉 陳相 見孟子 道許行之言曰 滕君則誠賢君也 雖然 未聞道也 賢者 與民竝耕 而食 養殮而治今也 滕有倉廩 府庫 則是厥民而以自養也 惡 得賢	<p>진상이 허행을 만나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학문을 다 버리고 그에게서 배우더니, 진상이 맹자를 뵈옵고 허행의 말을 일러 말하기를, 「등나라 임금은 진실로 어진 임금이지마는 그러나 (성왕의) 도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어진 자는 백성과 더불어 밭을 갈아 먹고 살며 朝夕을 지어 먹고서 다스리는데, 지금의 등나라에는 양곡 창고와 재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니, 어찌 어질다고 하겠습니까?」</p>

357

釜所以煮 銚所以炊爨 然火也
鐵柜屬也 此語八反
皆孟子問而陳相對也

05-04-04 孟子曰 許子 必種粟而後 食乎 曰然許子 必織布而後 衣乎 曰否 許子 衣褐 許子 冠乎 曰冠 曰奚冠 曰冠素 曰自織之與 曰否 以粟易之 曰許子 奚爲不自織 曰害於耕 曰許子 以釜甑爨 以鐵耕乎 曰然自爲之與 曰否 以粟易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허자는 반드시 곡식 농사를 지은 다음에 먹는가?」(진상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맹자께서)「허자는 반드시 베를 짠 뒤에 옷을 입는가?」(진상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허자는 갈옷을 입습니다.」(맹자께서)「허자는 관을 쓰는가?」(진상이) 대답하기를, 「관을 씁니다.」(맹자께서)「무슨 관을 쓰는가?」(진상이) 대답하기를, 「맨관(흰관)을 씁니다.」(맹자께서)「스스로 짜는가?」(진상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곡식과 바꿉니다.」(맹자께서)「허자는 어찌 스스로 짜지 않는가?」(진상이) 대답하기를, 「농사짓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맹자께서)「허자는 솔과 시루에 불을 때며 쇠쟁기로 밭을 가는가?」(진상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맹자께서)「스스로 그것을 만듭니까?」(진상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곡식으로 그것을 바꿉니다.」

358

此孟子言而陳相對也 械器
釜甑之屬也 陶爲甑者 冶爲釜鐵者
舍止也 或讀屬上句
舍謂作陶冶之處也

05-04-05 以粟易械器者 不爲厲陶冶 陶冶亦以其械器易粟者
豈爲厲農夫哉 且許子 何不爲陶冶 舍皆取諸其宮中而用之
何爲紛紛然與百工交易 何許子之不憚煩 曰百工之事 固不可耕且爲也

(맹자께서)「곡식을 가지고 쟁기와 기물을 바꾸는 것은 陶工과冶工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도공과 야공 역시 그들의 쟁기와 기물을 가지고 곡식을 바꾸는 것이니, 어찌 농부를 괴롭힌다고 하겠는가? 또 허자는 왜 도공과 야공의 일을 하지 아니하여, 모든 것을 자기 집안에서 내다가 쓰는 일을 하지 않고 무엇 하러 귀찮게 여러 장인들과 교역을 하는가? 어떻게 허자는 그렇게 번거로운 것을 거리지 않는가?」(진상이) 대답하기를, 「여러 장인들의 하는 일은 본래 밭을 갈면서(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359

此以下 皆孟子言也 路謂奔走道路無時休息也 治於人者 見治於人也
食人者 出賦稅以給公上也 食於人者見食於人也 此四句
皆古語而孟子引之也
君子無小人則飢 小人無君子則亂
以此相易 正猶農夫 陶冶
以粟與械器相易 乃所以相濟
而非所以相病也 治天下者
豈必耕且爲哉

05-04-06 然則治天下 獨可耕且爲與 有大人之事 有小人之事 且一人之身而百工之所爲備如必自爲而後 用之 是率天下而路也 故曰 或勞心 或勞力 労心者 治人 勞力者 治於人 治於人者 食人 治人者 食於人 天下之通義也

(맹자께서)「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유독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건가? 대인의 할 일이 있고, 소인의 할 일이 있느니, 또한 한 사람의 몸으로 모든 장인들이 하는 기술을 고루 지녀도 만약에 반드시 스스로 만든 이후에야 쓴다면 그것은 온 천하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쳐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이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이는 몸을 수고롭게 한다는 것이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하였으니,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서 먹는 것이 천하에 통용되는 義이니라.

360	<p>天下猶未平者 洪荒之世 生民之害多矣 聖人迭興 漸次除治 至此尙未盡平也 洪大也 橫流不由其道 而散溢妄行也 氾濫 橫流之貌 暢茂長盛也 繁殖衆多也 五穀 稻黍稷麥菽也 登成熟也 道路也 獸蹄鳥跡 交於中國 言禽獸多也 敷布也 益舜臣名烈熾也 禽獸逃匿然後禹得施治水之功 疏通也分也 九河曰徒駭 曰太史 曰馬頰 曰覆釜 曰胡蘇 曰簡 曰潔 曰鉤盤 曰鬲津 淪亦疏通之意 濟漯二水名 決排皆去其壅塞也 汝漢淮泗亦皆水名也 據禹貢 及今水路 惟漢水入江耳 汝泗則入淮而淮自入海 此謂四水 皆入于江記者之誤也</p>	<p>05-04-07 當堯之時 天下猶未平 洪水橫流 氾濫於天下 草木暢茂 禽獸繁殖 五穀不登 禽獸傷人 獸蹄鳥跡之道 交於中國堯獨憂之 舉舜而敷治焉 舜使益掌火 益烈山澤而焚之 禽獸逃匿 禹疏九河 濬濟漯而注諸海 決汝漢 排淮泗而注之江然後 中國可得而食也 當是時也禹八年於外 三過其門而不入雖欲耕得乎</p>	<p>요임금 때에는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고, 흥수가 마구 흘러서 천하가 범람하고, 초목이 무성하며 금수가 변성하고, 오곡은 여물지 않으며 금수가 사람을 핍박하고, 짐승의 발굽과 새의 발자국이 나라 안에 흩어졌거늘, 요임금은 혼자서 그것을 근심하다가舜을 등용해서 다스리게 하였느니라.舜이 益을 시켜서 불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益이 산과 물에 불을 질러서 태우자 새와 짐승이 도망하여 숨었고, 禹는 아홉 강물을 뚫고 제하와 탑하를 끌어다가 바다로 잊고, 여수와 한수를 터놓으며, 회수와 사수를 밀어내서 그물을 장강으로 뽑아냈으니, 그렇게 한 뒤에야 나라 안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느니, 그 당시에 禹는 외지에서 8년 동안을 살면서, 세 차례나 자기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농사를 짓고자 했다하더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p>
361	<p>言水土平然後 得以教稼穡 衣食足然後 得以施教化 后稷官名 棄爲之 然言教民則亦非竝耕矣 樹亦種也 藝殖也 契亦舜臣名也 司徒官名也 人之有道 言其皆有秉彝之性也 然無教則亦放逸怠惰而失之 故聖人設官而教以人倫 亦因其固有者而道之耳 書曰天叙有典 勅我五典 五惇哉 此之謂也 放勲 本史臣贊堯之辭 孟子因以爲堯號也 德猶惠也 堯言勞者 勞之 來者來之 邪者正之枉者直之 輔以立之 翼以行之 使自得其性矣 又從而提撕警覺以加惠焉 不使其放逸怠惰而或失之 蓋命契之辭也</p>	<p>05-04-08 后稷教民稼穡 樹藝五穀 五穀熟而民人育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放勲 曰勞之來之 匡之直之 輔之翼之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 聖人之憂民如此而暇耕乎</p>	<p>후작은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서 오곡을 심고 가꾸었는데, 오곡이 여물어 백성들을 기르게(살게) 되었는지라, 사람에게 道가 있음에 먹는 것을 배불리 하며 입는 것을 따뜻하게 하여 편안히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곧 짐승에 가까우므로 성인이 또 그 점을 근심하시어 契로 하여금 사도를 삼아 인륜을 가르쳤으니,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하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며, 벗 사이에는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느니라. 방훈(요임금)이 말하기를, '수고로운 자를 위로하고 오는 자를 오게 하며, 간사한 자를 바르게 하고 굽은 자를 곧게 하며, 도와서 세우고 부축하여 행하게 하며, 스스로 알게 하고 또 좋아 나아가서 덕이 있게 하라.'고 하였으니, 성인이 백성을 근심함이 이와 같으시니 농사지을 겨를이 있었겠는가?</p>
362	易治也 堯舜之憂民 非事事而憂之也	05-04-09 堯以不得舜爲己憂	요임금은 순을 얻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근심거리로 삼았고, 순임금은 우와

	急先務而已 所以憂民者其大如此 則不惟不暇耕 而亦不必-耕矣	舜以不得禹臯陶爲己憂 夫以百 畝之不易爲己憂者 農夫也	고요를 얻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근심거리로 삼았으니, 사내가 백무의 밭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근심거리로 삼는 자는 농부이니라.
363	分人以財 小惠而已 教人以善 雖有愛民之實 然 其所及 亦有限而難久 惟若堯之得舜 舜之得禹臯陶 乃所謂爲天下得人者而其恩惠廣大 教化無窮矣 此所以爲仁也	05-04-10 分人以財 謂之惠 教 人以善 謂之忠 爲天下得人者 謂之仁 是故以天下與人易 爲 天下得人難	남에게 재물을 나누어주는 것을 일컬어 惠라 하고, 남에게 선을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忠이라 하고, 천하를 위하여 인물을 얻는 것을 仁이라고 하니, 그런 까닭으로 천하를 남에게 주기는 쉽고, 천하를 위하여 인물을 얻기는 어려우니라.
364	則法也 蘩蕩廣大之貌 君哉言盡君道也 巍巍高大之貌 不與猶言不相關 言其不以位爲樂也	05-04-11 孔子曰 大哉 堯之爲 君也 惟天爲大 惟堯則之 蘩蕩 乎民無能名焉 君哉舜也 巍巍 乎 有天下而不與焉 堯舜之治 天下 豈無所用心哉 亦不用於 耕耳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대하도다! 壽의 임금됨이여! 오직 하늘이 위대하거늘, 요임금께서 그것을 본받으셨으니 광대하여 백성이 이름 할 수가 없도다. 임금답도다! 순이여! (德이) 높고 크도다! 천하를 차지하고도 그것에 간여하지 아니 하셨도다.'라고 하셨으니,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어찌 그들이 마음을 쓰지 않았겠는가마는, 역시 농사짓는 데에 마음을 쓰지 않았을 뿐이니라.
365	此以下 資陳相倍師而學許行也 夏諸夏禮義之教也 變夷 變化蠻夷之人也 變於夷 反見變化於蠻夷之人也 產生也 陳良 生於楚 在中國之南 故北遊而學於中國也 先過也 豪傑才德出衆之稱 言其能自拔於流俗也 倍與背同 言陳良 用夏變夷 陳相變於夷也	05-04-12 吾聞用夏變夷者 未 聞變於夷者也 陳良 楚產也 慢 周公仲尼之道 北學於中國 北 方之學者 未能或之先也 彼所 謂豪傑之士也 子之兄弟事之數 十年 師死而遂倍之	나는 夏의 禮를 써서 오랑캐를 감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으나, 오랑캐에게 감화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노라. 진량은 초나라 태생이면서 주공과 증니의 道를 기뻐하여 북으로 와서 중국에서 배웠는데, 북방에서 배우는 자들도 그보다 앞서지 못했으니, 그 사람은 이른 바 호걸지사였소. (그런데) 당신의 형제들이 그를 수십 년 동안 섬기다가, 스승이 죽자 마침내 그를 배반하였소.
366	三年古者 爲師心喪三年 若喪父而無服也 任擔也 場冢上之壇場也 有若似聖人 蓋其言行氣象 有似之者 如檀弓所記 子游謂有子之言 似夫子之類是也 所事孔子 所以事夫子之禮也 江漢 水多 言濯之潔也 秋日燥燥烈 言暴之乾也 矷瘕潔白貌 尚加也 言夫子道德明著 光輝潔白 非有若所能彷彿也 或曰此三語者 孟子贊美曾子之辭也	05-04-13 昔者 孔子沒 三年之 外門人 治任將歸 入揖於子貢 相嚮而哭 皆失聲然後 歸子貢 反築室於場 獨居三年然後 歸 他日 子夏子張子游 以有若似 聖人 欲以所事 孔子 事之 疊 曾子 曾子曰 不可 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 矷瘕乎不可尚已	옛날에 공자께서 돌아가시자, 3년이 지난 후 제자들이 짐을 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할 때, 자공에게 들어가서 읍을 하고 서로 마주 보고서 울었는데, 다들 목이 쉬어버린 뒤에야 돌아갔거늘, 자공은 되돌아와 제단 있는 터에 여막을 짓고, 훌로 3년을 지낸 다음에 돌아갔느니라. 그 후에 자하·자장· 자유가 유약이 성인(공자)을 닮았다고 해서, 공자를 섬기던 것 같이 그를 섬기려고 하여 증자께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였는데, 증자가 말하기를, '옳지 않다. (공자께서는) 양자강과 한수의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 같고, 가을 햇볕이 쬐는 것 같고, 태양이 결백하고 또 결백한 것 같아서 더 보탤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느니라.

367	獻博勞也 惡聲之鳥 南蠻之聲 似之指許行也	05-04-14 今也 南蠻獻舌之人 非先王之道 子倍子之師而學之 亦異於曾子矣	이제 남만의 야만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선왕의 道를 비난하거늘, 당신이 당신의 스승을 배반하고서 그 사람에게 배우니, 역시 증자와는 다르도다.
368	小雅伐木之詩云伐木丁丁 鳴嚶嚶 出自幽谷 遷于喬木	05-04-15 吾聞出於幽谷 遷于 喬木者 未聞下喬木而 入於幽 谷者	나는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서 높은 나무로 옮겼다는 말은 들었거니와,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노라.
369	魯頌閟宮之篇也 膚擊也 荊楚本號也 舒國名 近楚者也 懲艾也 今按此詩 爲僖公之頌 而孟子以周公言之 亦斷章取義也	05-04-16 魯頌 曰戎狄是膚 荊 舒是憲 周公 方且膚之 子是之 學 亦爲不善變矣	<노송>에 이르기를, '용적일랑 치고, 형서일랑 징계하자.'하였으니, 주공조차도 치려고 하셨거늘, 그대가 그것(허행의 도)을 배우니 역시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로다.
370	陳相又言許子之道如此 蓋神農 始爲市井 故許行 又託於神農而有是說也 五尺之童 言幼小無知也 許行欲使市中所鬻之物 皆不論精粗美惡 但以長短輕重多寡大小 爲價也	05-04-17 從許子之道則市賈不 貳 國中 無僞 雖使五尺之童適 市 莫之或欺 布帛長短 同則賈 相若 麻縷絲絮輕重 同則賈相 若 五穀多寡同則賈相若 屢大 小同則賈相若	허자의 이론을 따르면, 시장의 물건 값에 二重이 없고 국내에는 거짓이 없으니, 5척의 동자를 시장에 보내어도 아무도 그 아이를 속이지 않을 것이니, 베와 비단은 길이가 같으면 값이 서로 같고, 삼·가는 실·비단· 면솜은 무게가 같으면 값이 같고, 오곡은 양이 같으면 값이 같고, 신은 크기가 같으면 값이 서로 같습니다.」
371	倍一倍也 繕五倍也 什伯千萬 皆倍數也 比次也 孟子言物之不齊 乃其自然之理 其有精粗 猶其有大小也 若大履 小履同價 則人豈肯爲其大者哉 今不論精粗 使之同價 是使天下之人 皆不肯爲其精者 而競爲濫惡之物 以相欺耳	05-04-18 曰夫物之不齊 物之 情也 或相倍蓰 或相什伯 或相 千萬 子比而同之 是亂天下也 巨履小履同賈 人豈爲之哉 從 許子之道 相率而爲僞者也 惡 能治國家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물품의 질이 같지 않다는 것은 물품의 실태이니, 서로 배나 5 배, 혹은 10 배나 100 배, 혹은 천배나 만배의 차이가 있는데, 당신은 양만 맞춰서 값을 같게 하니, 그것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로다. 굵은 실로 만든 신발과 가는 실로 만든 신발의 값이 같으면 사람들이 어찌 그런 것들을 만들겠는가? 허자의 이론에 따른다는 것은 서로 이끌어서 거짓을 하는 것이니, 어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372	05-05 墨子夷之章	05-05 墨子夷之章	◇맹자께서 儒家의 입장에서 墨家인 夷之의 주장을 批判 攻駁(공박)한 내용이다. - 차별 없는 사랑이란 人情에 비취 있을 수 없는 일이고, 父母喪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자식 된 道理라는 것이다.
373	墨者 治墨翟之道者 夷姓 之名 徐辟孟子弟子 孟子稱疾 疑亦託辭以觀其意之誠否	05-05-01 墨者夷之 因徐辟而 求見孟子 孟子曰 吾固願見 今 吾尙病 病愈我且往見 夷子不 來	墨家인 이지가 서벽을 통해서 맹자를 만나기를 요청해오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물론 만나기를 원하지만, 지금 나는 아직 병중인지라 병이 나으면 내가 가서 만나겠으니 이자를 오지 않게 하라.」

374 <p>又求見則其意已誠矣 故因徐辟以質之如此 直盡言以相正也 莊子曰 墨子 生不歌 死無服 桐棺三寸而無槨 是墨之治喪 以薄爲道也 易天下 謂移易天下之風俗也 夷子學於墨氏 而不從其教 其心 必有所不安者 故孟子因以詰之</p>	05-05-02 他日又求見孟子 孟子曰 吾今則可以見矣 不直則道不見 我且直之 吾聞夷子墨者 墨之治喪也 以薄爲其道也 夷子思以易天下 豈以爲非是而不貴也 然而夷子葬其親厚 則是以所賤事親也	훗날 (이자가) 또 맹자 만나기를 청해오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볼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道가 나타나지 않으니, 나는 직접적으로 나가겠다(말하겠다). 내가 듣기에 이자는 墨家이다. 묵가는喪을 치르는 데에는 엷은 것(簡單 儉約한 것)을 道로 삼는지라, 이자는 천하를(풍습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니,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이자는 그의 아버이의喪을 후하게 치렀으니, 곧 그것은 천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아버이를 섬긴 것이다.」
375 <p>若保赤子 周書康誥篇文 此儒者之言也 夷子引之 蓋欲援儒而入於墨 以拒孟子之非己 又曰 愛無差等 施由親始 則推墨而附於儒 以釋己所以厚葬其親之意 皆所謂遁辭也 孟子言 人之愛其兄子與隣之子 本有差等 書之取譬 本爲小民無知而犯法 如赤子無知而入井耳 且人物之生 必各本於父母而無二 乃自然之理 若天使之然也 故其愛由此立而推以及人 自有差等 今如夷子之言 則是視其父母本無異於路人 但其施之之序姑自此始耳 非二本而何哉 然於先後之間 猶知所擇 則又本心之明 有終不得而息者 此其所以卒能受命而自覺其非也</p>	05-05-03 徐子以告夷子 夷子曰 儒者之道 古之人 若保赤子此言何謂也 之則以爲愛無差等施由親始 徐子以告孟子 孟子曰 夫夷子信以爲人之親其兄之子 爲若親其隣之赤子乎 彼有取爾也 赤子匍匐將入井 非赤子之罪也 且天之生物也 使之一本 而夷子二本故也	서자가 이 말씀을 이자에게 알려주니, 이자가 말하기를, 「儒家의 道에는 옛날 사람은 '아기를 보호함과 같다.'고 했으니, 이 말은 무엇을 일컫는 말이겠는가? 나는 그것이 사랑에는 차이가 없고, (사랑을) 베풀에는 아버이로부터 비롯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자가 이 말을 맹자께 고하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이자는 사람이 자기 형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이웃의 아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믿는단 말인가? 그 사람은 (따로) 취하는 점이 있어서 그려는 것이니, 아기가 기어서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은 아기의 죄가 아니다. 또 하늘이 만물을 생성하는 데는 한 가지 근본에 따르게 하는데, 이자는 두 가지 근본에 따르기 때문이다.」

<p>因夷子厚葬其親而言此 以深明一本之意 上世謂太古也 委棄也 壽山水所趨也 蚂蚁屬 姑語助聲 或曰 蠻蛄也 最攢 共食之也 頸額也 淩然汗出之貌 睨邪視也 視正視也 不能不視 而又不忍正視 哀痛迫切 不能爲心之甚也 非爲人泚 言非爲他人見之而然也 所謂一本者 於此見之 尤爲親切 蓋惟至親 故如此 在他人 則雖有不忍之心 而其哀痛迫切 不至若此之甚矣 反覆也 蓄土籠也 梗土聾也 於是 歸而掩覆其親之尸 此葬埋之禮所由起也 此掩其親者 若所當然 則孝子仁人所以掩其親者 必有其道而不以薄爲貴矣</p>	<p>376</p> <p>05-05-04 蓋上世嘗有不葬其親者 其親死則舉而委之於壑 他日過之 狐狸食之 蟬蚋姑嘬之 其頸有泚 睨而不視 夫泚也 非爲人泚 中心達於面目 蓋歸反慕裡而掩之 掩之誠是也 則孝子仁人之掩其親 亦必有道矣</p>	<p>먼 옛날에 일찍이 자기 아버이를埋葬(매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이가 죽자 들어다가 골짜기에 버리고, (그가) 훗날 그곳을 지나갈 때, 여우와 너구리가 그 시체를 뜯어먹고 파리와 모기가 시체를 빨아먹거늘, 그의 이마에 진땀이 솟으며 시선을 돌리고 바로 보지 못하였다. 무릇 진땀이 나는 것은 남 때문에 땀이 나는 것이 아니고, 속마음이 얼굴에까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삼태기와 삽(가래)을 가지고 되돌아와 그 시체를 덮었다. (흙으로) 덮는 것이 정말로 옳다면 효자와 인자한 사람이 그 아버이를 덮는 데에도 반드시 道(방법)가 있어야 할 것이다.」</p>
<p>377</p> <p>憮研 茫然自失之貌 爲間者 有頃之間也 命猶教也 言孟子已教我矣 蓋因其本心之明 以攻其所學之蔽 是以 吾之言易入 而彼之惑易解也</p>	<p>05-05-05 徐子以告夷子 夷子 憮然爲間曰命之矣</p>	<p>서자가 이 말씀을 이자에게 알려주니, 이자는 명하니 한참동안이나 있다가 말하기를, 「잘 알았습니다.」</p>
<p>378</p> <p>06 滕文公章句下 - 凡十章</p>	<p>06 滕文公章句下 - 凡十章</p>	<p>[제 6 편. 滕文公章句(등문공장구) 下]</p>
<p>379</p> <p>06-01 杠尺直尋章</p>	<p>06-01 杠尺直尋章</p>	<p>◇陳代의 功利의인 사고방식에 대해 맹자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正道를 굽힐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내용이다.</p>
<p>380</p> <p>陳代 孟子弟也 小謂小節也 杠屈 直伸也 八尺曰尋 杠尺直尋 猶屈已一見諸侯而可以致王霸 所屈者小 所伸者大也</p>	<p>06-01-01 陳代曰 不見諸侯 宜 若小然 今一見之 大則以王 小 則以霸 且志 曰杠尺而直尋 宜 若可爲也</p>	<p>진대가 말하기를, 「제후를 만나지 않으시니 아마도 협소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 제후를 만나신다면, 크면 (그를) 왕자로 만드시고 작으면 (그를) 패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또 志에 이르기를, '한 자를 굽히고서 여덟 자를 곧게 한다.'하였으니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p>

381	<p>田獵也 虞人守苑囿之吏也 招大夫以旌招虞人以皮冠 元首也 志士固窮 常念死無棺槨 棄溝壑而不恨 勇士輕生 常念戰鬪而死 喪其首而不顧也 此二句 乃孔子歎美虞人之言 夫虞人招之不以其物 尚守死而不往 况君子豈可不待其招而自往見之邪 此以上 告之以不可往見之意</p>	<p>06-01-02 孟子曰 昔齊景公 田招虞人以旌 不至 將殺之 志士不忘在溝壑 勇士 不忘喪其元 孔子 奚取焉 取非其招不往也 如不待其招而往 何哉</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제 경공이 사냥을 할 때, 깃발로 우인을 불렀더니 오지 않아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에 공자께서) '志士(뜻이 있는 선비)는 개천과 골짜기에 던져질 것을 잊지 말고, 용사(용맹이 있는 선비)는 자기 머리를 잊을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공자께서는 그 우인의 무엇을 취하였겠는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른 것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을 취하신 것이다. 만약에 (정당한 방법으로) 부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서 갔다면 어떻겠는가?」</p>
382	<p>此以下 正其所稱枉尺直尋之非 夫所謂枉小而所伸者大則爲之者 計其利耳 一有計利之心 則雖枉多伸少而有利 亦將爲之邪 甚言其不可也</p>	<p>06-01-03 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 如以利則枉尋直尺而 利 亦可爲與</p>	<p>또 그 한 자를 굽히고서 여덟 자를 곧게 한다는 것은 이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니, 만약에 이익을 가지고 하자면 여덟 자를 굽히고 한 자를 곧게 하여서 이롭다면 그래도 할 것인가?</p>
383	<p>趙簡子 晉大夫趙鞅也 王良善御者也 嬖奚簡子幸臣 與之乘爲之御也 復之再乘也 疊而後可 嫔奚不肯 疊之而後肯也 一朝自晨至食時也 掌專主也 範法度也 詭遇 不正而與禽遇也 言奚不善射 以法馳驅 則不獲 瘦法詭遇而後中也 詩小雅車攻之篇 言御者不失其馳驅之法 而射者發矢皆中而力 今嬖奚不能也 貫習也</p>	<p>06-01-04 昔者 趙簡子使王良 與嬖奚乘 終日而不獲一禽 嫔奚反命曰 千下之賤工也 或以 告王良 良曰 請復之 疊而後 可一朝而獲十禽 嫔奚反命曰 天下之良工也 簡子曰 我使掌 與女乘 謂王良 良不可曰 吾爲 之範我馳驅 終日不獲一 爲之 詭遇 一朝而獲十 詩云 不失其 馳 舍矢如破 我不貫與小人乘 請辭</p>	<p>옛날에 조간자가 왕량을 시켜서 총애하는 신하 奚의 수레를 몰아주게 하였는데, 종일토록 한 마리의 새도 잡지 못하고서, 龕臣 奚가 복명하여 말하기를, '천하에 몹쓸 수레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왕량에게 일러주었는데, 왕량이 말하기를, '다시 하기를 청하나이다.' 억지로 간신히 승낙을 받더니, 하루아침에 열 마리의 새를 잡고서, 龕臣 奚가 복명하여 말하기를, '천하에 훌륭한 수레꾼이었습니다.' 간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네 수레를 맡아서 몰아주도록 하여주마.'하고 왕량에게 말했더니, 양이 거절하고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해서 법도대로 몰아주니 종일토록 한 마리의 새도 잡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법도에 어긋나게 (새를) 만나게 하니, 하루아침에 열 마리를 잡았습니다.『시경』에 일컫기를, <달리는 법도를 잊지 않아 화살을 쏘아 (새를) 터뜨리는 것 같다.(꿰는 듯이 맞추네)>고 하였으니, 나는 소인의 수레를 몰아주는 데는 익숙하지 않으니, 사양을 청하나이다.'</p>
384	<p>比阿黨也 若丘陵言多也 ♥ 或曰 居今之世 出處去就 不必一一中節 欲其一一中節 則道不得行矣 楊氏曰 何其不自重也 杠已 其能直人乎 古之人 寧道之不行 而不輕其去就 是以 孔孟 雖在春秋戰國之時 而進必以正 以至終不得行而死也 使不恤其去就而可以行道 孔孟</p>	<p>06-01-05 御者 且羞與射者比 比而得禽獸 雖若丘陵 弗爲也 如枉道而從彼 何也 且子過矣 枉己者 未有能直人者也</p>	<p>수레를 모는 사람조차도 활 쏘는 사람에게 아부하기를 부끄러워하여, 아부해서 새와 짐승을 산더미같이 잡는다하더라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道를 굽혀서 그런 제후를 따라간다면 어찌 되겠는가? 또 자네가 잘못일세. 자기를 굽히는 사람 중에서는 아직 남을 곧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네.」</p>

	當先爲之矣 孔孟 廿不欲道之行哉		
385	06-02 公孫衍·張儀章	06-02 公孫衍·張儀章	◇맹자께서 縱橫家에 대해 批判하신 내용이다. - 아울러 맹자의 大丈夫에 대한 견해가 蘭明(천명)되어 있음
386	景春 人姓名 公孫衍 張儀 皆魏人 怒則說諸侯 使相攻伐 故諸侯懼也	06-02-01 景春曰公孫衍張儀 豈不誠大丈夫哉 一怒而諸侯懼 安居而天下熄	경춘이 말하기를, 「공손연과 장의는 어찌 진정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번 노하면 제후들이 두려워하고, 편안히 들어앉아 있으면 천하가 조용해집니다.」
387	加冠於首曰冠 女家夫家也 婦人 內夫家 以嫁爲歸也 夫子夫也 女子從人 以順爲正道也 蓋言二子阿諛苟容 竊取權勢 乃妾婦順從之道耳 非丈夫之事也	06-02-02 孟子曰 是焉得爲大 丈夫乎 子未學禮乎 丈夫之冠 也 父命之 女子之嫁也 母命之 往送之門 戒之曰 往之女家 必 敬 必戒 無違夫子 以順爲正者 妾婦之道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겠소? 당신은 禮를 배우지 않았소? 장부가 관례를 할 때에는 아버지가 당부의 말을 일러주고, 여자가 출가를 할 때에는 어머니가 당부의 말을 일러주니, 시집을 갈 때에 문에서 보내며 훈계하여 말하기를, '네 시집에 가서는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조심하여서 남편의 뜻을 어기지 말라.'고 하나니, 순종하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는 것은 부인네가 따르는 도리입니다.」
388	廣居仁也 正位禮也 大道義也 與民由之推其所得於人也 獨行其道 守其所得於己也 淫蕩其心也 移變其節也 屈挫其志也 ♥ 何叔京曰 戰國之時 聖賢道否 天下不復見其德業之盛 但見姦巧之徒得志橫行 氣焰可畏 遂以爲大丈夫 不知由君子觀之 是乃妾婦之道耳 何足道哉	06-02-03 居天下之廣居 立天 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 與 民由之 不得志 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 不能屈 此之謂大丈夫	천하라는 넓은 집에 살고,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고, 천하의 큰 道를 실천하여, 뜻을 이루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해나가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혼자서 자기의 道를 실천하여, 부귀도 (그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 못하고, 빈천이 (그의) 마음을 變改(변개)시키지 못하며, 위엄과 무력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게 되어야, 그것을 일컬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요.」
389	06-03 孔子三月無君章	06-03 孔子三月無君章	◇맹자의 進仕論으로 벼슬살이에 나아가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표명한 내용이다. -君子는 벼슬살이에 힘쓰되 禮에 맞춰서 나아가고, 그 進退 또한 정당한 방법과 절차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390	<p>周霄魏人 無君 謂不得仕而事君也 皇皇如有求而不得之意 出疆謂失位而去國也 質所執以見人者 如士則執雉也 出疆載之者 將以見所適國之君而事之也</p>	<p>06-03-01 周霄問曰 古之君子 仕乎 孟子曰 仕傳曰 孔子三月 無君 則皇皇如也 出疆 必載質 公明儀曰 古之人 三月無君則 吊</p>	<p>주소가 물어 말하기를, 「옛날의 군자는 벼슬살이를 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벼슬살이를 하였소. 전해 내려오는 글에 이르기를, '공자는 석 달 동안 섬길 임금이 생기지 않으면 안타깝고 불안해하며 국경을 나갈 때에는 반드시 質(지)를 싣고 갔다.'고 하였고, 공명의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석 달 동안 섬길 임금이 생기지 않으면慰问하였다.'고 말했소.」</p>
391	<p>周霄問也 以已通 太也 後章放此</p>	<p>06-03-02 三月無君則吊 不以 急乎</p>	<p>(주소가 묻기를,)「석 달 동안 섬길 임금이 생기지 않으면 위문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닙니까?」</p>
392	<p>禮曰 諸侯爲籍百畝 冕而青紱 躬秉耒耕 而庶人助以終畝 收而藏之御廩 以供宗廟之粢盛 使世婦 爐于公桑蠶室 奉繭以示于君 遂獻于夫人 夫人副禕受之 繢三盆手 遂布于三宮世婦 使繢以爲黼黻文章 而服以祀先王先公 又曰 士有田則祭 無田則薦 泰稷曰粢 在器曰盛 牲殺牲必特殺也 皿所以覆器者</p>	<p>06-03-03 曰士之失位也 猶諸 侯之失國家也 禮曰 諸侯耕助 以供粢盛 夫人 爐繢 以爲衣服 犧牲不成 糜盛不潔 衣服不備 不敢以祭 惟士無田則亦不祭 牲殺器皿衣服 不備 不敢以祭 則不敢以宴 亦不足吊乎</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가 벼슬을 잃은 것은 제후가 그의 나라를 잃은 것과 같으니, 『예기』에 이르기를, '제후는 藉田(자전)을 경작함에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 제사에 쓸 곡식을 대고, (제후의) 부인은 누에를 쳐 실을 뽑아서 의복을 만든다.' 하니, 희생에 쓸 가축이 잘 자라지 않고, 제사에 쓸 곡식이 깨끗하지 않고, 의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감히 제사를 올리지 못하고, 선비가 규전이 없으면 역시 제사를 모시지 않으니, 희생과 그릇과 의복이 갖추어지지 않아 감히 제사를 올리지 못하면, 감히 연회를 베풀지 못할 것이니, 이 또한 위문할 만한 일이 아니겠소?」</p>
393	<p>周霄問也</p>	<p>06-03-04 出疆 必載質何也</p>	<p>(주소가 묻기를,)「국경을 나갈 때 質(지)를 싣고 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p>
394	<p>晉國解見首篇 仕國謂君子遊宦之國 霽意以孟子不見諸侯爲難仕 故先問古之君子仕否然後 言此 以風切之也 男以女爲室 女以男爲家 約亦媒也 言爲父母者非不願其男女之有室家 而亦惡其不由道 蓋君子雖不潔身以亂倫 而亦不徇利而忘義也</p>	<p>06-03-05 曰士之仕也 猶農夫 之耕也 農夫豈爲出疆 舍其耒 耘哉 曰晉國 亦仕國也 未嘗聞 仕 如此其急 仕如此其急也 君 子之難仕 何也 曰丈夫生而願 爲之有室 女子生而願爲之有家 父母之心 人皆有之 不待父母 之命 媒妁之言 鑽穴隙相窺 跖 牆相從則父母國人 皆賤之 古 之人 未嘗不欲仕也 又惡不由 其道 不由其道而往者 與鑽穴 隙之類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가 벼슬살이 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니, 농부가 국경을 나가기 위해서 어찌 농기구를 버리겠는가?」 (주소가) 말하기를, 「진나라도 벼슬살이 할만한 나라입니다마는 벼슬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다급한 일이라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벼슬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다급한 일인데, 군자가 벼슬살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내가 나면 아내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여자가 나면 남편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다. 사람마다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마는 부모의 명령과 중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구멍을 뚫고서 서로 들여다보고 담을 넘어서 서로 만난다면, 부모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길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벼슬살이를 하고자 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는 또한 정당한 방법에 따르지 않는 것을 싫어하였으니, 정당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서 (벼슬하러) 가는 것은 구멍을 뚫은 (서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따위의 짓이니라.」</p>

395	06-04 食志乎食功乎章	06-04 食志乎食功乎章	◇맹자께서 諸侯들로부터 물질적인待遇(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그 正當性을 설명하신 내용이다.
396	彭更孟子弟子也 泰侈也	06-04-01 彭更問曰 後車數十乘 從者數百人 以傳食於諸侯不以泰乎 孟子曰 非其道則一簞食 不可受於人 如其道則舜受堯之天下 不以爲泰 子以爲泰乎	(팽경이) 묻기를, 「후거 수십 량과 隨從(수종) 인원 수백 명을 거느리고 제후에게로 옮겨 다니면서 (녹을) 먹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한 대그릇의 밥이라도 남에게서 받아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순임금이 요임금의 천하를 받은 것도 지나치다고 하지 않는데, 자네는 (그것을) 지나치다고 하는가?」
397	言不以舜爲泰 但謂今之士無功而食人之食 則不可也	06-04-02 曰否 士無事而食 不可也	(팽경이) 말하기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선비가 하는 일 없이 (녹을)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398	通功易事 謂通人之功而交易其事 羨餘也 有餘言無所貿易而積於無用也 梓人匠人 木工也 輪人與人 車工也	06-04-03 曰 子不通功易事 以羨補不足 則農有餘粟 女有餘布 子如通之 則梓匠輪輿 皆得食於子 於此有人焉 入則孝 出則悌 守先王之道 以待後之學者 而不得食於子 子何尊梓匠輪輿而輕爲仁義者哉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가 만들어진 물건을 융통하고 일을 바꿔서 남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농부에게는 곡식이 남게 되고, 여인에게는 남는 베가 있을 것이니, 자네가 만약에 그것들을 융통한다면 목수와 수레 만드는 사람은 모두 자네에게서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일세.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어른을 공경하며, 선왕의 道를 지켜서 뒤에 배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도 자네에게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니, 자네는 어찌 목수와 수레 만드는 사람은 존중하면서 仁과 義를 실천하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가?」
399	孟子言 自我而言 固不求食 自彼而言 凡有功者 則當食之	06-04-04 曰梓匠輪輿 其志將以求食也 君子之爲道也 其志亦將以求食與 曰子何以其志爲哉 其有功於子 可食而食之矣且子 食志乎 食功乎 曰食志	(팽경이) 말하기를, 「목수와 수레 만드는 사람은 그들의 志(기술)를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거니와, 군자가 正道를 실천하는 것도 그 志(목적)가 역시 장차 먹을 것을 구하자는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어찌 그 志(목적)만 가지고 따지는가? 자네에게 功(해준 일)이 있으면 먹여줄만하고 그리고 먹여주는 것일세. 또 자네는 志(목적)에 의해서 먹여주는 것인가, 功(해준 일)에 의해서 먹여주는 것인가?」 (팽경이) 말하기를, 「志(목적)에 의해서 먹여줍니다.」
400	墁牆壁之飾也 毀瓦畫墁 言無功而有害也 既曰食功 則以士爲無事而食者 真尊梓匠輪輿而輕爲仁義者矣	06-04-05 曰有人於此 毀瓦畫墁 其志將以求食也 則子食之乎 曰否 曰然則子非食志也 食功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 기왓장을 부수고 담벽에 낙서를 하는데, 그 志(목적)가 먹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네는 그를 먹여주겠는가?」 (팽경이) 말하기를, 「먹여주지 않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자네는 志(목적)에 의해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功(해준 일)에 의해서 먹여주는 것일세.」

401	06-05 宋小國也章	06-05 宋小國也章	◇王者의 정치를 행하면 天下에 無敵이라는 맹자의 주장이 端的으로表明된 내용이다. - 殷나라의 湯임금과 周나라의 武王이 王道政治를 행하여 天下萬民이 慨服(열복)해온 것을 그 예로 들었다.
402	萬章孟子弟子 宋王偃 詈滅滕伐薛 敗齊楚魏之兵 欲霸天下 疑卽此時也	06-05-01 萬章問曰 宋小國也 今將行王政 齊楚惡而伐之則如 之何	만장이 묻기를, 「宋나라는 작은 나라라 이제 王者의 정치를 행하려 하는데, 제나라와 초나라가 미워서 송나라를 치게 된다면 어찌합니까?」
403	葛國名 伯爵也 放而不祀 放縱無道 不祀先祖也 毫衆 湯之民 其民 葛民也 授與也 餉亦饋也 書商書仲虺之誥也 仇餉言與餉者爲仇也	06-05-02 孟子曰 湯居毫 與葛 爲隣 葛伯放而不祀 湯使人問 之曰 何爲不祀 曰無以供犧牲 也 湯使遣之牛羊 葛伯食之 又 不以祀 湯又使人問之曰 何爲 不祀 曰無以供粢盛也 湯使毫 衆 往爲之耕 老弱饋食 葛伯帥 其民 要其有酒食黍稻者 奪之 不授者殺之 有童子以黍肉餉 殺而奪之 書曰葛伯仇餉 此之 謂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탕임금이 박에 거하실 때 갈나라와 이웃이 되었는데, 갈나라의 제후가 放縱無道(방종무도)하여 제사를 모시지 않거늘, 탕임금이 사람을 시켜 묻기를, '왜 제사를 모시지 않는 거요?'하니, (갈백이) 말하기를, '희생을 탭 수가 없어서요.'라고 하니라. 탕임금이 사람을 시켜 소와 양을 보내주었더니, 갈백이 그것을 먹어버리고 또 제사를 모시지 않은지라, 탕이 또 사람을 시켜 묻기를, '왜 제사를 모시지 않는 거요?'하니, (갈백이) 말하기를, '제물로 올릴 곡식이 없어서요.'라고 하였다. 탕이 박의 민중들을 시켜서 갈백을 위해 농사를 짓어주게 하고, 노약자들이 먹을 것을 날마다 주게 하였는데, 갈백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술·밥·수수·쌀을 가진 자를 불러다가 빼앗고, 주지 않은 자는 죽였다. 한 어린아이가 수수와 고기를 날라 갔었는데, (그 아이를) 죽이고서 가진 것을 빼앗았으니, 『서경』에 이르기를, '갈백이 먹을 것을 가져간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니, 이를 두고 한 말이로다.
404	非富天下 言湯之心 非以天下爲富而欲得之也	06-05-03 為其殺是童子而征之 四海之內 皆曰非富天下也 為 匹夫匹婦 復讐也	(갈백이) 그 어린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탕이) 그를 토벌했는데, 사해 안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천하의 富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필부필부를 위해 원수를 갚아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405	載亦始也 十一征 所征十一國也 餘已見前篇	06-05-04 湯始征 自葛載 十一 征而無敵於天下 東面而征 西 夷怨 南面而征 北狄怨 曰奚爲 後我 民之望之 若大旱之望雨 也 歸市者弗止 荟者不變 誅其 君而弔其民 如時雨降 民大悅 書曰溪我后 後來其無罰	탕이 최초의 정벌을 갈나라로부터 시작하여 11 차의 토벌을 하였는데, 천하에 그를 상대할 적이 없었다. 동으로 향하여 정벌하면 서이(서쪽 오랑캐)가 원망하며, 남쪽을 향하여 정벌하면 북적(북쪽 오랑캐)이 원망하여 말하기를, '어찌 우리에게는 나중에 오시는가?'하여, 백성들이 그를 바라기를 마치 큰 가뭄에 비를 바라는 것같이 하였고, 시장에 돌아오는 자가 그치지 않으며, 밭 매는 자가 변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나라의 임금을 베고 그 백성을 위로해 주는 것이 제때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서경』에 이르기를, '우리 임금을 기다리노니 임금이 오시면 형벌이

			없어질 것이다.'라 하였고,
406	<p>按周書武成篇 載武王之言 孟子約其文如此 然其辭時與今書文不類 今姑依此文解之 有所不爲臣 謂助紂爲惡 而不爲周臣者 匪與<small>비</small>同 玄黃幣也 紹繼也 猶言事也 言其士女以匪盛玄黃之幣 迎武王而事之也 商人而曰我周王 猶商書所謂我后也 休美也 言武王能順天休命 而事之者皆見休也 臣附 歸服也 孟子又釋其意 言商人聞周師之來 各以其類相迎者 以武王能救民於水火之中 取其殘民者 誅之 而不爲暴虐耳 君子謂在位之人 小人謂細民也</p>	06-05-05 有攸不爲臣 東征綏 厥士女 匪厥玄黃紹我周王見休 惟臣附于大邑周 其君子 實玄 黃於匪 以迎其君子 其小人簞 食壺漿 以迎其小人 救民於水 火之中 取其殘而已矣	'臣服하지 않는 곳이 있어 동으로 정벌하여 그곳의 남녀들을 편안하게 하여주니, 그곳의 玄三纁二(현삼훈이)의 폐백을 상자에 넣어 가지고 우리 주왕에게 안내받아 그 훌륭하심을 바라보고 큰 나라인 주나라에 예속되기를 바랐다.'고 하였다. 그곳의 군사들은 현삼훈이의 폐백을 상자에 채워 가지고서 정벌군의 군사들을 맞이하였고, 그곳의 소인들은 대그릇의 밥과 병의 음료를 가지고서 정벌군의 소인을 맞이하니, 백성들을 火災와 水災로부터 구해주어, (그들 가운데) 잔학한 이를 제거하였을 따름이었다.
407	<p>太誓周書也 今書文亦小異 言武王威武奮揚 侵彼紂之疆界 取其殘賊 而殺伐之功 因以張大 比於湯之伐桀 又有光焉 引此 以證上文取其殘之義</p>	06-05-06 太誓 曰我武惟揚 傳 宇之疆 則取于殘 殺伐用張 于 湯有光	「태서」에 이르기를, '(무왕께서) 우리의 武威를 선양하여 이 땅을 침공하고, 잔학한 자를 제거하여 殘伐한 武功을 발휘하였나니, 탕임금보다도 더 빛나더라.'고 하였다.
408	<p>宋實不能行王政 後果爲齊所滅 王偃走死 ❤ 尹氏曰 爲國者能自治而得民心 則天下皆將歸往之 恨其征伐之不早也 尙何彊國之足畏哉 苟不自治 而以彊弱之勢言之 是可畏而已矣</p>	06-05-07 不行王政云爾 苟行 王政 四海之內 皆舉首而望之 欲以爲君 齊楚雖大 何畏焉	왕자의 정치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실로 왕자의 정치를 실시하면 사해 안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고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것인데, 제나라와 초나라가 크다고는 하지만 무엇이 두렵겠는가?」
409	06-06 戴不勝章	06-06 戴不勝章	◇語學教育의例를 比喻(비유)로 들어 國王을 善導(선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410	<p>戴不勝 宋臣也 齊語言齊人語言也 傳教也咻讐也 齊齊語言也 莊嶽齊街里名也 楚楚語言也 此先設譬以曉之也</p>	<p>06-06-01 孟子謂戴不勝曰 子欲子之王之善與 我明告子 有楚大夫於此 欲其子之齊語言也則使齊人傳諸 使楚人傳諸 曰使齊人傳之 曰一齊人 傳之 衆楚人咻之 雖日撻而求其齊也不可得矣 引而置之莊嶽之間數年 雖日撻而求其楚 亦不可得矣</p>	<p>맹자가 대불승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당신의 왕이 선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소? 내가 당신께 똑똑하게 일러드리리라. 여기에 초나라의 대부가 있어 그의 아들이 제나라의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제나라 사람을 시켜서 그를 가르치게 하겠소?」(대불승이)말하기를, 「제나라 사람을 시켜서 그를 가르칠 것입니다.」(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나라 사람 하나가 그를 가르치고 뜻 초나라 사람들이 그에게 떠들어댄다면, 비록 매일처럼 때리면서 그가 제나라 말을 하기를 요구하더라도 하지 못할 것이거니와, 그를 끌어다가 수년 동안 장악어귀에 놔두면, 비록 매일처럼 때리면서 그가 초나라 말을 하기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역시 하지 못할 것이요.</p>
411	<p>居州亦宋臣 言小人衆而君子獨無以成正君之功</p>	<p>06-06-02 子謂薛居州善士也使之居於王所 在於王所者 長幼卑尊 皆薛居州也 王誰與爲不善 在王所者 長幼卑尊 皆非薛居州也 王誰與爲善 一薛居州 獨如宋王 何</p>	<p>당신은 설거주를 선한 선비라고 하여 그를 왕이 계신 곳에 거처하게 하였으니, 왕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아이·낮은 사람·높은 사람이 모두 설거주와 같다면 왕이 누구와 더불어 선하지 않은 일을 하며, 왕이 계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아이·낮은 사람·높은 사람이 모두 설거주와 같지 않다면 왕이 누구와 더불어 선한 일을 하겠소? 설거주 한 사람으로 송나라 왕을 어떻게 하겠소?」</p>
412	<p>06-07 不見諸侯何義章</p>	<p>06-07 不見諸侯何義章</p>	<p>◇맹자께서君子가自己의 利益을 위해서 禮에 벗어나거나 阿諂(아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다.</p>
413	<p>不爲臣 謂未仕於其國者也 此不見諸侯之義也</p>	<p>06-07-01 公孫丑問曰 不見諸侯 何義 孟子曰 古者 不爲臣不見</p>	<p>공손추가 묻기를, 「제후를 만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뜻에서 이십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그 신하가 되지 않으면 (가서) 만나지는 않았다.</p>
414	<p>段干木 魏文侯時人 泄柳魯繆公時人文侯繆公 欲見此二人 而二人不肯見之 蓋未爲臣也 已甚過甚也 迫謂求見之切也</p>	<p>06-07-02 段干木 踰垣而辟之泄柳 閉門而不納 是皆已甚 迫斯可以見矣</p>	<p>단간목은 담을 넘어서 피했고, 설류는 문을 닫고서 들어지 않았는데, 그것은 모두 너무 심하니, 간절하게 보고자 하면 만나볼 일이니라.</p>
415	<p>此又引孔子之事 以明可見之節也 欲見孔子 欲召孔子 來見己也 惡無禮 畏人以己爲無禮也 受於其家對使人 拜受於家也 其門 大夫之門也 瞴窺也 陽貨於魯爲大夫 孔子爲士 故以此物及其不在而饋之 欲其來拜而見之也</p>	<p>06-07-03 陽貨 欲見孔子而惡無禮 大夫有賜於士 不得受於其家 則往拜其門 陽貨矙孔子之亡也 而饋孔子蒸豚 孔子亦矙其亡也 而往拜之 當是時 陽貨先 豈得不見</p>	<p>양화가 공자를 만나고 싶어 하였으나 예가 없다할까 두려워하였으니, 대부가 士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자기 집에서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대부의) 문에 가서 절을 하게 되어 있었다. 양화는 공자가 (집에) 없을 때를 엿보아 찐 새끼돼지를 보냈는데, 공자도 역시 그(양화)가 없는 때를 엿보아 가서 절을 하셨으니, 그러한 때에는 양화가先手를 썼으니 어찌 가서 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p>

	先謂先來加禮也		
416	<p>脅肩竦體 詔笑彊笑 皆小人側媚之態也 痘勞也 夏畦夏月治畦之人也 言爲此者其勞過於夏畦之人也 未同而言 與人未合而彊與之言也 裝裝慙而面赤之貌 由子路名 言非已所知 甚惡之之辭也 孟子言由此二言觀之 則二子之所養可知 必不肯不俟其禮之至而輒往見之也 ♥ 此章 言聖人禮義之中正 過之者傷於迫切而不洪 不及者淪於汚賤而不恥</p>	<p>06-07-04 曾子曰 脅肩詔笑 痘于夏畦 子路曰 未同而言 觀其色 裝裝然 非由之所知也 由是觀之 則君子之所養 可知矣</p>	<p>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어깨를 움츠리고 아첨하여 웃는 것은 여름에 밭을 매는 것보다 힘들다.'하였으며, 자로가 말씀하시기를, '생각이 같지 않으면서 어울려서 말하는 것은 그 얼굴빛을 보면 부끄러워 붉어지는지라, 나(由)는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하였으니,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군자가 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p>
417	06-08 月攘一鷄章	06-08 月攘一鷄章	<p>◇맹자께서 옳지 않은 것을 알았으면躊躇(주저)하지 말고 즉각施行(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다.</p>
418	盈之 亦宋大夫也 什一 井田之法也 關市之征 商賈之稅也 已止也	06-08-01 戴盈之曰 什一 去關市之征 今茲未能 請輕之 以待來年然後已 何如	<p>대영지가 말하기를, 「십일조를 실시하고, 관문과 시장에서의 徵稅(징세)를 철폐하는 것을 금년에는 시행할 수 없으니, 청컨대 징세를 가볍게 해서 내년까지 기다린 후에 끝내는 것이 어떠합니까?」</p>
419	攘物自來而取之也 損減也	06-08-02 孟子曰 今有人 日攘其隣之鷄者 或告之曰 是非君子之道 曰請損之 月攘一鷄 以待來年然後已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날마다 그 이웃의 닭을 훔치거늘, 어떤 사람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군자의 道가 아니요.'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줄여서 한 달에 닭 한 마리씩을 훔치고, 내년까지 기다린 후에 그만두도록 하리다.'하였으니,</p>
420	知義理之不可而不能速改 與月攘一雞 何以異哉	06-08-03 如知其非義 斯速已矣 何待來年	<p>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이에 속히 그만둘 것이지, 어찌 내년까지 기다리겠는가?」</p>
421	06-09 夫子好辯章	06-09 夫子好辯章	<p>◇맹자께서 聖人の 大道를闡明(천명)하며 세상에 仁義가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他家와의 논쟁까지도 不辭해야 함을 밝힌 내용이다.</p>

422	生謂生民也 一治一亂 氣化盛衰 人事得失 反覆相尋 理之常也	06-09-01 公都子曰 外人 皆稱 夫子好辯 敢問何也 孟子曰 予 豈好辯哉 予不得已也 天下之 生 久矣一治一亂	공도자가 말하기를, 「외부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께서 논쟁하시기를 좋아하신다고 일컫는데, 감히 묻자옵건대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논쟁하기를 좋아하겠는가?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천하에 사람이 생겨난 지는 오래 되었으나, 한번 잘 다스려지면 한번은 혼란해지곤 하였느니라.
423	水逆行 下流雍塞 故水倒流而旁溢也 下下地 上高地也 營窟穴處也 書虞書大禹謨也 洚水洚洞無涯之水也 警戒也 此一亂也	06-09-02 當堯之時 水逆行 汗 濫於中國 蛇龍居之 民無所定 下者爲巢 上者爲營窟 書曰 濘 水警余 濘水者洪水也	요임금 때에는 물이 역행하여 중국에 범람해서 뱀과 용이 살게 되니, 백성들이 정착할 곳이 없어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나뭇가지에 집을 짓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굴을 파서 살았으니, 『書經』에 이르기를, '洚수(강수)가 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니, 강수는洪水이다.
424	掘地屈去壅塞也 菖澤生草者也 地中 兩涯之間也 險阻謂水之汗濫也 遠去也 消除也 此一治也	06-09-03 使禹治之 禹掘地而 注之海 驅蛇龍而放之菹 水由 地中行 江淮河漢是也 險阻既 遠 鳥獸之害人者 消然後 人得 平土而居之	禹를 시켜서 흥수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우가 땅을 파서 바다에 대고 뱀과 용을 몰아서 풀이 난 높으로 쫓아내니, 물이 땅의 양 언덕 안에서 흐르게 되었으니, 장강·회수·황하·한수가 그것이다. 험하고 막힌 것이 이미 없어지고 새와 짐승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제거된 후에 사람이 평坦한 땅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
425	暴君謂夏太康 孔甲 履癸商武乙之類也 宮室民居也 沛草木之所生也 濤水所鐘也 自堯舜沒 至此 治亂非一 及紂而又一大亂也	06-09-04 堯舜既沒聖人之道衰 暴君代作 壞宮室以爲汚池 民 無所安息 舍田以爲園囿 使民 不得衣食 邪說暴行又作 園囿 汚池沛澤 多而禽獸至 及紂之 身 天下又大亂	요와 순이 죽으니 성인의 도가 쇠하여 포악한 임금이 대신 일어나, 궁실을 훼어서 뜻을 만들어 백성들이 편히 쉴 곳이 없어졌으며, 밭을 버려 원유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의식을 얻지 못하게 하였고, 간사한 말과 사나운 행실이 또 일어나서 원유와 농작물이 많아져 새와 짐승이 오니,紂의 대에 와서 천하가 또 크게 혼란하여졌다.
426	奄東方之國 助紂爲虐者也 飛廉紂幸臣也 五十國皆紂黨虐民者也 書周書君牙之篇 丕大也 顯明也 謨謀也 承繼也 烈光也 佑助也 啓開也 缺壞也 此一治也	06-09-05 周公相武王 誅紂 伐 奄三年 討其君 驅飛廉於海隅 而戮之 滅國者五十 驅虎豹犀 象而遠之 天下大悅 書曰 丕顯 哉 文王謨 丕承哉 武王烈 佑 啓我後人 咸以正無缺	주공이 무왕을 도와서紂를 베고 염나라를 친 지 3년에 그 임금을 치고 비렴을 바닷가로 몰아내어 죽였으니,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50개국이요, 호랑이·표범·코뿔소·코끼리를 몰아다가 멀리 쫓아버리자 천하가 크게 기뻐했으니, 『書經』에 이르기를, '위대하게 뚜렷하도다. 문왕의 책모여! 위대하게 (하늘의 뜻을) 계승한 것이로다. 무왕의 빛남이여! 우리들 후인을 도와 길을 열어주어 모두 정도를 행하고 결함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427	此周室東遷之後 又一亂也	06-09-06 世衰道微 邪說暴行 有作 臣弑其君者 有之 子弑其 父者 有之	세상이 쇠해지자 道가 隱微하여 져 간사한 말과 포악한 행실이 또 일어나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는 자가 생겨나고, 자식으로서 아비를 죽이는 자가 생겨났다.

428	<p>胡氏曰 中尼作春秋 以寓王法 厚典庸禮 命德討罪 其大要皆天子之事也 知孔子者 謂此書之作 遏人欲於橫流 存天理於既滅 為後世慮 至深遠也 罪孔子者 以謂無其位而託二百四十二年南面之 權 使亂臣賊子 禁其欲而不得肆 則威矣 愚謂 孔子作春秋 以討亂賊 則致治之法 垂於萬世 是亦一治也</p>	<p>06-09-07 孔子懼作春秋 春秋 天子之事也 是故 孔子曰 知我 者 其惟春秋乎 罪我者 其惟春 秋乎</p>	<p>공자께서는 (이를) 두려워하여『春秋』를 저작하셨으니,『春秋』는 천자의 일을 다룬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게 되는 것도 오직『春秋』를 통해서 일 것이며, 나를 罪주는 것도 오직『春秋』를 통해서 일 것이다.'라고 하셨다.</p>
429	<p>楊朱但知愛身而不復知有致身之義 故無君 墨子愛無差等 而視其至親 無異衆人 故無父 無父無君 則人道滅絕 是亦禽獸而已 公明儀之言 義見首篇 充塞仁義 謂邪說 雖滿 妨於仁義也 孟子引儀之言 以明楊墨道行 則人皆無父無君 以陷於禽獸而大亂將起 是亦率獸食人而人又相食也 此又一亂也</p>	<p>06-09-08 聖王不作 諸侯放恣 處士橫議 楊朱墨翟之言 盈天下 天下之言 不歸楊則歸墨 楊 氏 為我 是無君也 墨氏 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公明儀曰 庵有肥肉 廕有肥馬 民有飢色野有餓莩 此率獸而食 人也 楊墨之道 不息孔子之道 不著 是邪說 謠民 充塞仁義也 仁義充塞 則率獸食人 人將相 食</p>	<p>성왕이 나오지 않아 제후는 방자하며 처사는 멋대로 의론을 내세워 양주와 목적의 언론이 천하에 가득 차서, 천하의 언론이 양주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적에게로 돌아간다. 양씨는 나만을 위하니 그것은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요, 목씨는 무차별하게 사랑하는 것이니 그것은 아비를 무시하는 것이니, 자기 아비를 무시하고 임금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금수이다. 공명의가 말하기를, '푸줏간에 살찐 고기가 있으며 마구간에 살찐 말이 있거늘, 백성이 주린 기색이 있으며 들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는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양·목의 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그것은 간사한 말이 백성들을 속이고 仁義를 꽉 막아버리는 것이니, 仁義가 꽉 막혀버리면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라.</p>
430	<p>閑衛也 放驅而遠之也 作起也 事所行 政大體也 孟子雖不得志於時 然 楊墨之害自是滅息 而君臣父子之道賴以不墮 是亦一治也 程子曰 楊墨之害 甚於申韓 佛老之害 甚於楊墨 蓋楊氏 為我 疑於義 墨氏 兼愛 疑於仁 申韓則淺陋易見 故孟子止闢楊墨 為其或世之甚也 佛氏之言 近理 又非楊墨之比 所以爲害尤甚</p>	<p>06-09-09 吾爲此懼 閑先聖之道 距楊墨 放淫辭 邪說者不得 作 作於其心 害於其事 作於其 事 害於其政 聖人復起 不易吾 言矣</p>	<p>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돌아가신 성인들의 도를 지키고, 양주와 목적을 막으며 방자한 말을 물아내서 邪說을 내세우는 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사설이) 마음에 작용하게 되면 일에 해롭게 되고, (사설이) 일에 작용하게 되면 정치에 해롭게 되는 것이니, 성인이 다시 살아난다하더라도 내 말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p>

431	抑止也 兼并之也 總結上文也	06-09-10 昔者禹抑洪水而天下平 周公兼夷狄驅猛獸而百姓寧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	옛날에 禹는 홍수를 막아서 천하가 화평해졌고, 주공은 夷狄을 회유하고 맹수를 몰아내서 백성들이 편안해졌고, 공자께서『春秋』를 완성시켜서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432	說見上篇 承當也	06-09-11 詩云 戎狄是膺 荊舒 是懲 則莫我敢承 無父無君 是 周公所膺也	『詩經』에 이르기를, '용적일랑 치고 형서일랑 징계해 주자, 그러면 우리를 감히 저지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으니, 자기 아비를 무시하고 임금을 무시하는 것은 주공의 정벌 대상이었다.
433	詖淫解見前篇 辭者說之詳也 承繼也 三聖 禹周公孔子也 蓋邪說橫流 壞人心術 甚於洪水猛獸之災 慘於夷狄篡弑之禍 故孟子深懼而力救之 再言豈好辯哉 予不得已也 所以深致意焉 然 非知道之君子 孰能真知其所以不得已之故哉	06-09-12 我亦欲正人心 息邪 說 距詖行 放淫辭 以承三聖者 豈好辯哉 予不得已也	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邪說을 없애며, 치우친 행실을 막고, 방자한 말을 몰아내서 세 분의 聖者(禹·周公·孔子)를 계승하려 하니, (내가) 어찌 논쟁하기를 좋아하겠느냐?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434	言苟有能爲此距楊墨之說者 則其所趨正矣 雖未必知道 是亦聖人之徒也 孟子既答公都子之間而意有未盡 故復言此 蓋邪說害正 人人得而攻之 不必聖賢 如春秋之法 亂臣賊子 人人得而誅之 不必士師也 聖人救世立法之意 其切如此 若以此意推之 則不能攻討 而又唱爲不必攻討之說者 其爲邪 之徒 亂賊之黨 加知矣 ♥ 尹氏曰 學者於是非之原 毫釐有差 則害流於生民 禍及於後世 故孟子辯邪說 如是之嚴 而自以爲承三聖之功也 當是時 方且以好辯目之 是以常人之心 而度聖賢之心也	06-09-13 能言距楊墨者 聖人 之徒也	말로써 양주와 목적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聖人의 무리인 것이다.」
435	06-10 陳仲子章	06-10 陳仲子章	◇맹자께서 清廉潔白(청렴결백)한 것의 限界(한계)를 밝힌 내용이다. - 맹자는 陳仲子와 같이 人倫의 大道에서 벗어난 경우의 志操(지조)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436	匡章 陳仲子 皆齊人 廉有分辨 不苟取也 於陵地名 蟑螬螬蟲也 匍匐言無力不能行也 咽吞也	06-10-01 匡章曰陳仲子 豈不誠廉士哉 居於陵 三日不食 耳無聞 目無見也 井上有李 蟑食實者過半矣 匍匐往將食之 三咽然後 耳有聞 目有見	광장이 말하기를, 「진중자는 어찌 참다운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릉에 살 때에 사흘 동안 먹지 않아서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더니, 우물 위에 오얏나무가 있어 (거기서 떨어진 오얏을) 굽벵이가 파먹은 것이 태반이었는데, 기어가서 그것을 집어먹어 세 번을 삼킨 후에야 귀가 들리고 눈이 보였다고 합니다.」
437	巨擘大指也 言齊人中 有仲子 如衆小指中 有大指也 充推而滿之也 操所守也 蝦丘蝦也 言中子未得爲廉也 必若滿其所守之志 則惟丘蝦之無求於世然後 可以爲廉耳	06-10-02 孟子曰 於齊國之士 吾必以仲子 為巨擘焉雖然 仲 子 惡能廉 充仲子之操 則蝦而 後可者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나라의 선비(인물) 중에서는 내 반드시 중자를 제일(거벽)로 꼽으려니와 그러나 중자가 어찌 청렴하다 하리오? 중자의 지조를 충족시키려면 지렁이가 된 후에야 가능할 거요.」
438	槁壞乾土也 黃泉濁水也 抑發語辭也 言蝦無求於人而自足 而仲子不免居室食粟 若所從來 或有非義 則是未能如蝦之廉也	06-10-03 夫蝦上食槁壤 下飲 黃泉 仲子所居之室 伯夷之所築與 抑亦盜跖之所築與 所食之粟 伯夷之所樹與 抑亦盜跖之所樹與 是未可知也	무릇 지렁이는 위에서는 메마른 흙을 먹고, 아래에서는 흐린 물을 마시나니, 중자가 사는 집은 백이가 지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지은 집인가요? 먹는 곡식은 백이가 심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심은 것인가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로다.」
439	辟縕也 繡練麻也	06-10-04 曰是何傷哉 彼身織 履 妻辟縕 以易之也	(광장이) 말하기를,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몸소 신을 삼고, 그의 처는 삼실을 뽑아서 바꿔 쓰는데요.」
440	世家世卿之家 兄名戴 食采於蓋 其入萬鐘也 歸自於陵歸也 已仲子也 鵠鵠鵠聲也 頻頤 而言 以其兄受饋爲不義也 哇吐之也	06-10-05 曰仲子 齊之世家也 兄戴 蓋祿萬鐘 以兄之祿 為不 義之祿而不食也 以兄之室 為 不義之室而 不居也 辟兄離母 處於於陵 他日 歸則有饋其 兄 生鵠者 己頻頤曰 惡用是鵠鵠 者爲哉 他日其母殺是鵠也 與 之食之 其兄 自外至曰 是鵠鵠 之肉也 出而哇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자는 제나라의 대대로 세도가의 사람이고. 그의 형 戴가 합의 녹이 만종인데, 형의 녹을 불의의 녹이라 하여 먹지 아니하며, 형의 집이 의롭지 않은 집이라 하여 살지 않고,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서 오릉에 거처하더니, 훗날 그가 (형의 집에) 돌아가니, 그의 형에게 산 거위를 선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맛살을 짜푸리고서, '이 꽉꽉거리는 것을 무엇에다 쓰자는 거야'라고 했다. 훗날 그의 모친이 그 거위를 잡아서 그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는데, 그의 형이 밖에서 들어와서 말하기를, '그것은 꽉꽉거리는 것의 고기다.'라고 하니, 나가서 그것을 토해버렸다.」
441	言仲子以母之食 兄之室 為不義 而不食不居 其操守如此 至於妻所易之粟 於陵所居之室 既未必伯夷之所爲 則亦不義之類耳 今仲子於此則不食不居	06-10-06 以母則不食 以妻則 食之 以兄之室則弗居 以於陵 則居之 是尙爲能充其類乎 若仲子者 蝦而後 充其操者也	모친이 주면 먹지 않고 처가 주면 먹으며, 형의 집이면 살지 않고 오릉이면 사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유(지조)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중자와 같은 자는 지렁이가 되어야 그 지조를 충족시킬 것이라.」

	<p>於彼則食之居之 豈爲能充滿其操守之類者乎 必其無求自足 如丘蚓然 乃爲能滿其志而得爲廉耳 然豈人之所可爲哉 ♥ 范氏曰 天之所生 地之所養 惟人爲大 人之所以爲大者 以其有人倫也 仲子避兄離母 無親戚君臣上下 是無人倫也 豈有無人伦而可以爲廉哉</p>		
442	07 離婁章句上 - 凡二十八章	07 離婁章句上 - 凡二十八章	[제 7 편. 離婁章句(이루장구) 上]
443	07-01 徒善不足以爲政章	07-01 徒善不足以爲政章	◇ 맹자께서 어진 마음(仁心)이나 어질다는 소문(仁聞)이 있더라도 先王의 道(聖君의 治道)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徒善(도선)과 徒法에 불과하다고 하신 말씀이다. - 先王의 道를 따르면 過誤(과오)도 적고 일을 이룩하기도 쉽다는 맹자의 確信(확신)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444	<p>離婁 古之明目者 公輸子 名 班 魯之巧人也 規 所以爲員之器也 矩 所以爲方之器也 師曠 晉之樂師 知音者也 六律 截竹爲箒 陰陽各六 以節五音之上下 黃鍾 大簇 姑洗 蕤賓 夷則 無射 爲陽 大呂 夾鍾 仲呂 林鍾 南呂 應鍾 爲陰也 五音 宮商角徵羽也 范氏曰 此言治天下 不可無法度 仁政者 治天下之法度也</p>	07-01-01 孟子曰 離婁之明 公 輸子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 員 師曠之聰 不以六律 不能正 五音 堯舜之道 不以仁政 不能 平治天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의 밝은 시력과 공수자의 교묘한 기술로도 규구(컴퍼스와 曲尺)를 쓰지 않으면 모지고 둥근 것을 만들지 못하고, 사광의 예민한 청력으로도 六律을 쓰지 않으면 五音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요와 순의 道로도 어진 정사를 펴지 아니하면 능히 천하를 평안하게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445	<p>仁心 愛人之心也 仁聞者 有愛人之聲 聞於人也 先王之道 仁政 是也 范氏曰 齊宣王 不忍一牛之死 以羊易之 可謂有忍心 梁武帝 終日一食蔬素 宗廟 以麪爲犧牲 斷刑死 必爲之涕泣 天下 知其慈仁 可謂有仁聞 然而宣王之時 齊國 不治 武帝之末 江南 大亂 其故何哉 有仁心仁聞 而不行先王之道故也</p>	07-01-02 今有仁心仁聞而民不 被其澤 不可法於後世者 不行 先王之道也	이제 인자한 마음과 인자한 소문이 있으면서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해서 후세에 법도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선왕의 道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446	<p>徒 猶空也 有其心 無其政 是謂徒善 有其政 無其心 是謂徒法 程子嘗言爲政 須要有綱記文章 謹權 審量 讀法 平價 皆不可闕 而又曰 必有關雎麟趾之意然後 可以行周官之法度 正謂此也</p>	07-01-03 故曰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	<p>그래서 말하기를, '한갓 착한 것만으로는 정치를 하기에 부족하고, 한갓 법도만으로는 그것이 저절로 행하여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p>
447	<p>詩 大雅假樂之篇 懿 過也 率 循也 章 典法也 所行 不過差不遺忘者 以其循用舊典故也</p>	07-01-04 詩云不愆不忘 率由 舊章 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 有也	<p>시에 이르기를, '틀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舊來(구래)의 典章(전장)에 따라 하는구나.'라고 하였다. 선왕의 법도를 遵行(준행)하고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p>
448	<p>準 所以爲平 繩 所以爲直 覆 被也 此 言古之聖人 既竭耳目心思之力 然 猶以爲未足以徧天下及後世 故 制爲法度 以繼續之 則其用 不窮而仁之所被者 廣矣</p>	07-01-05 聖人旣竭目力焉 繼 之以規矩準繩 以爲方員平直 不可勝用也 旣竭耳力焉 繼之 以六律 正五音 不可勝用也 旣 竭心思焉 繼之以不忍人之政而 仁覆天下矣	<p>성인이 이미 시력을 다하고 그것에 이어 규규준승을 써서 모지고 둥글고 평평하고 곧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이루 다 써낼 수 없었으며, 이미 청력을 다하고 그것에 이어 六律(육률)을 써서 五音(오음)을 바로 잡았으니 그것을 이루 다 써낼 수 없었으며, 이미 마음과 생각을 다하고 그것에 이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사를 펴니 인자함이 친하를 덮은 것이다.</p>
449	<p>丘陵 本高 川澤 本下 爲高下者 因之則用力少 而成功多矣 鄒氏曰 自首章至此 論以仁心仁聞 行先王之道</p>	07-01-06 故曰爲高必因丘陵 爲下 必因川澤 爲政 不因先王 之道 可謂智乎	<p>그래서 말하기를, '높아지려면 반드시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고, 낮아지려면 반드시 개울과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였으니, 정치를 하는데 선왕의 道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p>
450	<p>仁者 有仁心仁聞 而能擴而充之 以行先王之道者也 播惡於衆 爲貽患於下也</p>	07-01-07 是以惟仁者 宜在高 位 不仁而在高位 是播其惡於 衆也	<p>그러한 까닭으로 오직 인자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 마땅하니, 인자하지 않으면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것은 그의 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다.</p>
451	<p>此 言不仁而在高位之禍也 道 義理也 撥 度也 法 制度也 道撋 謂以義理 度量事物 而制其宜 法守 謂以法度 自守工官也 度 卽法也 君子小人 以位而言也 由上無道撋故 下無法守 無道撋則朝不信道 而君子 犯義 無法守則工不信度 而小人 犯刑 有此六者 其國 必亡 其不亡者 僥倖而已</p>	07-01-08 上無道撋也 下無法 守也 朝不信道 工不信度 君子 犯義 小人犯刑 國之所存者幸 也	<p>위의 國君이 道로써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을 하지 않으며, 아래의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조정에서는 道를 믿지 아니하며 工匠들은 척도를 믿지 않고, 군자가 義를 범하고 소인이 형법을 어기면서 그 나라가 존속되는 것은 유행이다.</p>
452	<p>上不知禮 則無以教民 下不知學 則易與爲亂 鄒氏曰 者是以惟仁者 至此 所以責其君</p>	07-01-09 故曰城郭不完 兵甲 不多 非國之災也 田野不辟 貨 財不聚 非國之害也 上無禮下	<p>그래서 말하기를, '성곽이 완전치 아니하며 武備(무비)가 많지 않은 것은 나라의 재앙이 아니고, 밭과 들이 개간되지 않고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이 나라의 害는 아니다. 위의 國君이 無禮하고 아래의 백성들이 배움이</p>

		無學 賊民興 喪無日矣	없으면 사람을 해치는 백성들이 나오고, 나라의 멸망이 곧 닥쳐온다.'고 하였다.
453	詩 大雅板之篇 瞵顛覆之意 泄泄怠緩之貌 言天欲顛覆周室 群臣 無得泄泄然 不急救正之	07-01-10 詩曰天之方 瞵 無然 泄泄	시에 일컫기를, '하늘이 바야흐로 움직이려는데 그렇게 예예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454	沓沓 卽泄泄之意 蓋孟子時人語如此	07-01-11 泄泄猶沓沓也	예예 한다는 것은 시끄럽게 군다는 것과 같다.
455	非詆毀也	07-01-12 事君無義 進退無禮 言則非先王之道者猶沓沓也	임금 섬기는데 의가 없으며, 나아가고 물러옴에 禮가 없고, 말하면 곧 선왕의 道를 그르다고 하는 것이 시끄럽게 군다는 것과 같다.
456	堯氏曰 人臣 以難事 責於君 使其君 爲堯舜之君者 尊君之大也 開陣善道 以禁閉君之邪心 唯恐其君 或陷於有過之地者 敬君之至也 謂其君 不能行善道 而不以告者 賊害其君之甚也 鄒氏曰 自詩云天之方 瞵 至此 所以責其臣君 ♥ 鄒氏曰 此章 言爲治者 當有仁心仁聞 以行先王之政 而君臣 又當各任其責也	07-01-13 故曰責難於君謂之恭 陳善閉邪謂之敬 吾君不能謂之 賊	그래서 말하기를, '어려움으로 임금을 책하는 것을 공손이라 하고, 착한 것을 펴서 간사함을 막는 것을 공경이라 하고, 우리 임금은 능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賊이라 한다.'고 하였다.」
457	07-02 聖人人倫之至也章	07-02 聖人人倫之至也章	◇맹자께서 堯·舜을 정치의 理想으로 하여,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기를 강조하신 내용이다. - 謂(시)가 한번 정해지면 千年을 두고도 그것을 고칠 수 없으니, 그 만큼 삼가 하여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
458	至 極也 人倫 說見前篇 規矩 盡所以爲方員之理 猶聖人 盡所以爲人之道	07-02-01 孟子曰 規矩方圓之 至也 聖人人倫之至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규와 구는 직각과 원의 궁극적인 표준이고, 성인은 인간사의 궁극적인 표준이다.
459	法堯舜 以盡君臣之道 猶用規矩 以盡方員之極 此 孟子所以道性善而稱堯舜也	07-02-02 欲爲君 畫君道 欲爲 臣 畫臣道 二者 皆法堯舜而已 矣 不以舜之所以事堯事君 不 敬其君者也 不以堯之所以治民 治民 賊其民者也	임금노릇을 하고자 하면 임금의 도리를 다할 것이고, 신하노릇을 하고자 하면 신하의 도리를 다할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요순을 법으로 할 뿐으로, 순이 요를 섬기던 방법으로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요가 백성 다스리던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460	法堯舜 則盡君臣之道而仁矣 不法堯舜 則慢君賊民而不仁矣 二端之外 更無他道 出乎此則入乎彼矣 可不謹哉	07-02-03 孔子曰 道二 仁與不 仁而已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道가 둘이니 인자함과 인자하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하셨으니,

461	<p>幽 暗 厲 虐 皆惡謚也 苟得其實 則雖有孝子慈孫 愛其祖考之甚者 亦不得廢公義而改之 言不仁之禍 必至於此 可懼之甚也</p>	<p>07-02-04 暴其民甚則身殺亡國 不甚則身危國削 名之曰幽厲 雖孝子慈孫 百世不能改之</p>	<p>자기 백성에게 暴虐(포학)하게 굴면, 심할 경우에는 몸이 시해되고 나라가 망하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몸이 위험해지고 나라가 깎일 것이니, 幽(유) 또는 厲(여)라 이름 지어지면 비록 효성 있는 자식이나 자애로운 손자라 할지라도 백대를 두고도 그 이름을 고치지 못하게 된다.</p>
462	<p>詩 大雅蕩之篇 言商紂之所當鑒者 近在夏桀之世 而孟子 引之 又欲後人 以幽厲爲鑒也</p>	<p>07-02-05 詩云殷鑒不遠 在夏 后之世 此之謂也</p>	<p>시에 이르기를, '은나라의 거울은 멀리 있지 않나니, 하후의 시대에 있도다.'하였는데, 곧 이 점을 두고 한 말이다.'</p>
463	<p>07-03 惡醉強酒章</p>	<p>07-03 惡醉強酒章</p>	<p>◇前章에 이어 仁하면 興盛(흥성)하고 不仁하면 廢亡(폐망)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다.</p>
464	<p>三代 爲夏商周也 禹湯文武 以仁得之 桀紂幽厲 以不仁失之</p>	<p>07-03-01 孟子曰 三代之得天 下也以仁 其失天下也以不仁</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어진 것으로써 한 것이요, 그 천하를 잃은 것은 어질지 않은 것으로써 된 것이다.</p>
465	<p>國 爲諸侯之國</p>	<p>07-03-02 國之所以廢興存亡者 亦然</p>	<p>나라가 피폐하고 흥성하며 존속하고 멸망하는 것이 또한 그러하다.</p>
466	<p>言必死亡</p>	<p>07-03-03 天子不仁不保四海 諸侯不仁 不保社稷 卿大夫不 仁 不保宗廟 土庶人不仁 不保 四體</p>	<p>천자가 어질지 않으면 사해를 보존치 못하고, 제후가 어질지 않으면 사직을 보존치 못하고, 경·대부가 어질지 않으면 종묘를 보존치 못하고, 사·서인이 어질지 않으면 四肢(사지)를 보존치 못할 것이다.</p>
467	<p>此 承上章之意 而推言之也</p>	<p>07-03-04 今惡死亡而樂不仁 是猶惡醉而強酒</p>	<p>이제 죽고 망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어질지 않은 것을 즐겨하니, 그것은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술을 억지로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p>
468	<p>07-04 反求諸己章</p>	<p>07-04 反求諸己章</p>	<p>◇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을 怨望(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여 스스로를 바로잡아 나아갈 것을 당부한 말씀이다. - 인간 道義에 있어서의 誠實性(성실성)을 강조한 내용이다.</p>
469	<p>我愛人而人不親我 則反求諸己 恐我之仁 未至也 智敬 放此</p>	<p>07-04-01 孟子曰 愛人不親 反 其仁 治人不治 反其智 禮人不 答 反其敬</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사랑하는데 친해지지 아니하거든 자기의 인자함을 반성하고, 남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않거든 자기의 지혜를 반성하고, 남을 예로 대하는데 그렇다 할 반응이 없거든 자기의 공경함을 반성할 것이다.</p>
470	<p>不得 謂不得其所欲 如不親 不治不答 是也 反求諸己 謂反其仁 反其智 反其敬也 如此則自治益詳 而身無不正矣 天下歸之 極言其效也</p>	<p>07-04-02 行有不得者 皆反求 諸己 其身正而天下歸之</p>	<p>행하여도 얻지 못하거든 모두 자기 자신에게 반성하여 구할 것이니, 자기 몸이 올바르면 온 천하가 귀순해온다.</p>
471	<p>辭見前篇 ♥ 亦承上章而言</p>	<p>07-04-03 詩云永言配命 自求</p>	<p>『시경』에 이르기를, '영원히 천명을 받드는 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함이로다.'라고 하였느니라.」</p>

		多福	
472	07-05 天下之本在國章	07-05 天下之本在國章	◇맹자의 修己治人 사상의 基本構造(기본구조)가 나타난 문장이다. - <『大學』經文 참조>
473	恒 常也 雖常言之 而未必知其言之有序也 故 推言之 而又以家 本乎身也 此 亦承上章而推言之 大學所謂自天子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爲是故也	07-05-01 孟子曰 人有恒言 皆 曰天下國家 天下之本在國 國 之本在家 家之本在身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다들 천하 국가라고 하니,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에 있고, 가의 근본은 자신(개인)에 있는 것이니라.」
474	07-06 不得罪於巨室章	07-06 不得罪於巨室章	◇온 천하가 사모하여 善으로 향하고, 巨室이 허물하지 않고 모두 모범으로 살게 되면, 德이 四海에 넘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 前章에 이어 修己治人の 道理를 표명한 것이다.
475	巨室 世臣大家也 得罪 謂身不正而取怨怒也 麥丘邑人 祝齊桓公曰 願主君 無得罪於群臣百姓 意蓋如此 慕向也 心悅誠服之謂也 沛然 盛大流行之貌 溢 充滿也 蓋居室之心 難以力服 而國人 素所取信 今既悅服 則國人 皆服 而吾德教之所施 可以無遠而不至矣 此亦承上章而言 蓋君子 不患人心之不服 而患吾身之不脩 吾身 既脩 則人心之難服者 先服 而無一人之不服矣 ♥ 林氏曰 戰國之世 諸侯 失德 居室 擅權 爲患 甚矣 然 或者 不脩其本 而遽欲勝之則未必能勝 而適以取禍 故 孟子 推本而言 惟務脩德 以服其心 彼既悅服 則吾之德教 無所留礙 可以及乎天下矣 襄度所謂韓洪 輿疾討賊 承宗 斂手削地 非朝廷之力 能制其死命 特以處置得宜 能服其心故爾 政此類也	07-06-01 孟子曰 爲政不難 不 得罪於巨室 巨室之所慕 一國 慕之 一國所慕 天下慕之 故沛 然德教 溢乎四海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니, 世臣 大家에게 죄를 얻지 않는 것이다. 세신대가가 열복하는 것을 한 나라가 열복하고, 한 나라가 열복하는 것을 천하가 열복하나니, 고로 은덕과 교화가 사해에 벽차게 넘쳐흐르게 되는 것이라.」

476	07-07 小國師大國章	07-07 小國師大國章	<p>◇맹자의 정치철학의 中樞(중추)를 이루고 있는 天命靡常(천명미상) 사상이 표현된 내용이다. - 天下의 大權은 恩德를 갖추고 仁을 行하는 者에게로 돌아감으로, 大權을 잡았다고 해서 安心하고 傲慢放縱(오만방종)하게 굴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德을 닦고 仁을 行하면 天下의 大權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 - 一面, 天下의 大權은 實力者라면 누구나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취할 수도 있다.</p>
477	<p>有道之世 人皆脩德 而位必稱其德之大小 天下無道 人不脩德 則但以力相役而已 天者 理勢之當然也</p>	<p>07-07-01 孟子曰 天下有道 小 德役大德 小賢役大賢 天下無 道 小役大 弱役強 斯二者天也 順天者存逆天者亡</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道가 행하여지면 덕이 작은 사람이 덕이 큰 사람한테 부림을 받고, 현량한 度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부림을 받으며, 천하에 道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부림을 받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부림을 받으니, 이 두 가지는 하늘의 뜻으로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자는 생존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멸망한다.」</p>
478	<p>引此 以言小役大 弱役強之事也 令 出令以使人也 受命 聽命於人也 物 猶人也 女 以女與人也 吳蠻夷之國也 景公 羞與爲昏 而畏其強 故 涕泣而以女與之</p>	<p>07-07-02 齊景公曰 既不能令 又不受命 是絕物也 淚出而女 於吳</p>	<p>제나라 경공이 말하기를, '(제후에게) 명령하지도 못하는데다가 또 教命까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오나라로 딸을 보냈다.</p>
479	<p>言小國 不脩德以自強 其般樂怠敖 皆若效大國之所爲者 而獨耻受其教命 不可得也</p>	<p>07-07-03 今也小國師大國而恥 受命焉 是猶弟子而恥受命於先 師也</p>	<p>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스승으로 받들면서 그 教命 받기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마치 제자이면서 스승에게 교명 받기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으니라.</p>
480	<p>此 因其愧恥之心 而勉以脩德也 文王之政 布在方策 舉而行之 所謂師文王也 五年七年 以其所乘之勢 不同 爲差 蓋天下 雖無道 然 脩德之至 則道自我行 而大國 反爲吾役矣 程子曰 五年七年 聖人 度其時則可矣 然 凡此類 學者 皆當思其作爲如何 乃有益耳</p>	<p>07-07-04 如恥之莫若師文王 師文王 大國五年 小國七年 必 爲政於天下矣</p>	<p>만약에 그런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문왕을 스승으로 받드는 것이 上策(상책)이니, 문왕을 스승으로 받들면 큰 나라는 5년, 작은 나라는 7년이면 반드시 온 천하에 정치를 펴게 될 것이다.</p>

481	<p>詩 大雅文王之篇 孟子 引此詩 及孔子之言 以言文王之事 麗 數也 十萬曰億 侯 維也 商士 商孫子之臣也 膚 大也 敏 達也 裸宗廟之祭 以鬱鬯之酒 灌地而降神也 將 助也 言商之孫子 衆多 其數 不但十萬而已 上帝既命周以天下 則凡此商之孫子 皆臣服于周矣 所以然者 以天命不常 歸于有德故也 是以 商士之膚大而敏達者 皆執裸獻之禮 助王祭事于周之京師也 孔子 因讀此詩而言 有仁者 則雖有十萬之衆 不能當之 故 國君 好仁則必無敵於天下也 不可爲衆 猶於謂難爲兄難爲弟云爾</p>	07-07-05 詩云商之孫子 其麗 不億 上帝既命 侯于周服 侯服 于周 天命靡常 殷士膚敏 裸將 于京 孔子曰 仁不可爲衆也 夫 國君好仁 天下無敵	<p>『詩經』에 이르기를, '商의 자손들은 그 數爻(수효)가 십만으로 그치지 않으나, 上帝가 이미 그들에게 명하여 주나라에 복종하게 하였도다. 주나라에 복종하게 한 것은 天命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로다. 은나라의 인물들은 훌륭하고 활달하나, (주나라의) 수도에서 鬱鬯酒(율창주)를 봇고 제사 지내는 것을 돋는다.'라고 하였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仁政에는 많은 수효로도 당할 수 없는 것이다. 國君이 仁政을 좋아하면 천하에 對敵할 만한 상대가 없게 된다.'고 하셨다.</p>
482	<p>恥受命於大國 是 欲無敵於天下也 乃師大國而不師文王 是 不以仁也 詩 大雅桑柔之篇 逝 語辭也 言誰能執持熱物 而不以水 自濯其手乎 ♥ 此章 言不能自強 則聽天所命 脩德行仁 則天命 在我</p>	07-07-06 今也欲無敵於天下而 不以仁 猶執熱而不以濯也 詩 云誰能執熱 逝不以濯	<p>이제 천하에 無敵하기를 원하면서도 仁政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뜨거운 것을 잡고서도 물에 담그지 않는 것과 같으니, 『시경』에 이르기를, '그 누가 뜨거운 것을 잡고서도 물에 담그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p>
483	07-08 自侮人侮章	07-08 自侮人侮章	<p>◇ 맹자께서 仁하냐 不仁하냐에 따라 興亡이 결정되어지고, 또 그 興亡은 곧 自取(스스로 그렇게 갖는 것)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신 내용. - 不仁者는 도저히 善導할 방법이 없으며, 그가 身死 家敗 國亡을 招來(초래)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그런 길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484	<p>安其危 利其蓄者 不知其爲危蓄 而反以爲安利也 所以亡者 謂荒暴淫虐 所以致亡之道也 不仁之人 私欲固蔽 失其本心故 其顛倒錯亂 至於如此 所以不可告以忠言 而卒至於敗亡也</p>	07-08-01 孟子曰 不仁者可與 言哉 安其危而利其蓄 樂其所 以亡者 不仁而可與言 則何亡 國敗家之有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하지 않은 자와 함께 이야기할 수야 있겠는가? 자기가 위태로워질 일을 편안하게 여기며 자기에게 재앙이 될 것을 이롭게 여겨 자기가 망하게 될 일을 즐겨하니, 인자하지 않은데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나라를 멸망시키고 가문을 패망하게 하는 일이 생기겠는가?」</p>
485	滄浪 水名 纓 冠系也	07-08-02 有孺子歌曰 滄浪之 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 濁兮 可以濯我足	<p>어떤 어린이가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나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였거늘,</p>

486	言水之清濁 有以自取之也 聖人聲入心通 無非至理 此類 可見	07-08-03 孔子曰 小子聽之 清斯濁纓 灌斯灌足矣 自取之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들으라. 맑으면 갓끈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을 것이니, 스스로 그런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487	所謂自取之者	07-08-04 夫人必自侮然後 人侮之 家必自毀而後 人毀之 國必自伐而後 人伐之	무릇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을 모욕한 후에야 남이 그를 모욕하게 마련이며, 한 가문은 반드시 그 스스로를 파괴한 후에야 남이 그 가문을 파괴하며, 나라는 반드시 그 자체를 친 후에야 남이 그 나라를 치느니라.
488	解見前篇 ♥ 此章 言心存則有以審夫得失之幾 不存則無以辨於存亡之著 禍福之來 皆其自取	07-08-05 太甲曰 天作孽猶可 違 自作孽不可活 此之謂也	태갑에 이르기를, '하늘이 지어낸 재앙은 그래도 피할 수 있으나, 자기가 지어낸 재앙은 모면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런 점을 두고 한 말이니라.'
489	07-09 為淵歐魚章	07-09 為淵歐魚章	◇맹자께서 天下를 얻거나 잃는 큰일도 仁과 不仁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신 말씀이다.
490	民之所欲 皆爲致之 如聚斂然 民之所惡 則勿施於民 銁錯所謂人情 莫不欲壽 三王生之而不傷 人情莫不欲富 三王厚之而不困 人情 莫不欲安 三王扶之不危 人情 莫不欲逸 三王節其力而不盡 此類之謂也	07-09-01 孟子曰 桀紂之失天 下也失其民也 失其民者失其心 也 得天下有道 得其民斯得天 下矣 得其民有道 得其心斯得 民矣 得其心有道 所欲與之聚 之 所惡勿施爾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과 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그들의 백성을 잃은 것이니, 그 백성을 잃은 것은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잃은 것이다. 천하를 얻는 것에 道가 있으니,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얻으면 곧 천하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백성들을 얻는데 道가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곧 그 백성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 道가 있으니, 원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모아주고 싫어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491	壤 廣野也 言民之所以歸乎此 以其欲之在乎此也	07-09-02 民之歸仁也猶水之就 下 獸之走壤也	백성들이 인자한 데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짐승이 넓은 들로 달려 나가는 것과도 같다.
492	淵 深水也 獭 食魚者也 叢 茂林也 鷗 食雀也 言民之所以去此 以其所欲 在彼而所惡 在此也	07-09-03 故爲淵歐魚者 獭也 爲叢歐爵者 鷗也 為湯武歐民 者 桀與紂也	그래서 뭇으로 물고기를 물어주는 것은 수달이고, 총림 속으로 새를 물어주는 것은 새매이고, 탕과 무왕에게 백성들을 몰아다 준 것은 걸과 주이다.
493		07-09-04 今天下之君 有好仁 者 則諸侯皆爲之歐矣 雖欲無 王不可得已	이제 온 천하의 國君들 가운데 仁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후들이 모두 그를 위해 백성들을 몰아다 줄 것이니, (그렇게 되면) 王者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494	艾 草名 所以灸者 乾久益善 夫病已深 而欲救乾久之艾 固難卒辨 然自今畜之 則猶或可及 不然則病日益深 死日益迫 而艾終不可得矣	07-09-05 今之欲王者猶七年之 病 求三年之艾也 苟爲不畜 終 身不得 苟不志於仁 終身憂辱 以陷於死亡	지금의 왕자가 되려는 자들은 마치 7년 묵은 병을 고치려고 3년 말린 쑥을 구하는 것과도 같다. 진실로 쑥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니, 진실로 仁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근심하고 육을 보다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495	詩 大雅桑柔之篇 淑 善也 輽 則也 胥 相也 言今之所爲 其何能善 則相引以陷於亂亡而已	07-09-06 詩云其何能淑 輽胥 及溺 此之謂也	『詩經』에 이르기를,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는가? 서로들 모두 멸망 속에 빠져버리리라.'하였으니, 이점을 두고 한 말일 것이라..』
496	07-10 自暴自棄章	07-10 自暴自棄章	◇自暴自棄한 사람들을 嚴重(엄중)히 경계(경계)한 내용이다. - 仁과 義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것을 抛棄(포기)한 자에게 自尊心(자존심)을 가지고 仁義를 따르고자 노력하도록 劍告(권고)한 내용.
497	暴 猶害也 非 猶毀也 自害其身者 不知禮義之爲美 而非毀之 雖與之言 必不見信也 自棄其身者 猶知仁義之爲美 但溺於怠惰 自謂必不能行 與之有爲 必不能勉也 程子曰 人苟以善自治 則無不可移者 雖昏愚之至 皆可漸磨而進也 惟自暴者 拒之以不信 自棄者 絕之以不爲 雖聖人與居 不能化而入也 此所謂下愚之不移也	07-10-01 孟子曰 自暴者不可 與有言也 自棄者不可與有爲也 言非禮義 謂之自暴也 吾身不 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이야기할 게 못되고,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게 못되니, 말로 예의를 비난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를 해친다 하고, 내 몸은 仁에 살거나 義에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
498	仁宅 已見前篇 義者 宜也 乃天理之當行 無人欲之邪曲 故曰正路	07-10-02 仁人之安宅也 義人 之安路也	仁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義는 사람의 올바른 길이다.
499	曠 空也 由行也 ♥ 此章言道本固有 而人自絕之 是可哀也 此聖賢之深戒 學者 所當猛省也	07-10-03 曠安宅而弗居 舍正 路而不由哀哉	편안한 집을 비워 버려두고 거처하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으니 슬프다..』
500	07-11 道在邇章	07-11 道在邇章	◇道는 卑近(비근)한 日常生活 가운데 있으니, 親親 長長으로 나타낼 수 있는 孝悌(효제)가 바로 그것임을 말하고 있다.
501	親長 在人 爲甚邇 親之長之 在人 爲甚易而道初不外是也 舍此而他求 則遠且難 而反失之 但人人 各親其親 各長其長 則天下 自平矣	07-11-01 孟子曰 道在爾而求 諸遠 事在易而求諸難 人人親 其親長其長而天下平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道는 가까운 데에 있는데 그것을 먼 데서 찾으면, 일은 쉬운 데에 있는데 그것을 어려운 데서 찾는다. 사람마다 자기 아버이를 아버이로 섬기고, (자기보다) 연장자를 연장자로 받들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이라..」
502	07-12 居下位章	07-12 居下位章	◇맹자의 誠의 思想이 表明된 글로 맹자께서 至誠感動(지성감동)의 理論을 主唱(주창)하고 있는 내용이다. - 맹자의 誠의 哲學은 修己治人(수기치인)을 기본으로 하는 儒家思想의 主軸(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本章은『中庸(중용)』제 20 장에 나타난 誠(성)의 철학과 상통된다.

503	<p>獲於上 得其上之信任也 誠 實也 反身不誠 反求諸身 而其所以爲善之心 有不實也 不明乎善 不能卽事窮理 無以真知善之所在也 游氏曰 欲誠其意 先致其知 不明乎善 不誠乎身矣 學至於誠身 則安往而不致其極哉 以內則順乎親 以外則信乎友 以上則可以得君 以下則可以得民矣</p>	<p>07-12-01 孟子曰 居下位而不 獲乎上 民不可得而治也 獲於 上有道 不信於友 弗獲於上矣 信於友有道 事親弗悅 弗信於 友矣 悅親有道 反身不誠 不悅 於親矣 誠身有道 不明乎善 不 誠其身矣</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리라. 윗사람의 (신임을) 얻는 데에 道(방법)가 있으니, 벗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리라. 벗에게 신임을 얻는 데에 道(방법)가 있으니, 어버이를 섬겨서 기뻐하지 않으면 벗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리라. 어버이를 기뻐하게 하는 데에 道(방법)가 있으니, 자신을 반성하여서 성실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어버이에게 기뻐함을 받지 못하리라.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데에 道(방법)가 있으니, 善을 밝히어 알지 못하면 자신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리라.</p>
504	<p>誠者 理之在我者 皆實而無僞 天道之本然也 思誠者 欲此理之在我者皆實而無僞 人道之當然也</p>	<p>07-12-02 是故誠者天之道也 思誠者人之道也</p>	<p>이러한 까닭으로 성실 그 자체는 하늘의 도리이고, 성실해지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p>
505	<p>至 極也 楊氏曰 動便是驗處 若獲乎上 信乎友 悅於親之類 是也 ♥ 此章 術中庸孔子之言 見思誠爲修身之本 而明善 又爲思誠之本 乃子思 所聞於曾子 而孟子所受乎子思者 亦與大學 相表裏 學者 宜潛心焉</p>	<p>07-12-03 至誠而不動者未之有 也 不誠未有能動者也</p>	<p>지극히 성실한데도 그것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있지 않았으니, 성실하지 않으면서 능히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p>
506	<p>07-13 西伯善養老者章</p>	<p>07-13 西伯善養老者章</p>	<p>◇老人을 잘 섬기는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나이 많고 德望높은 父老들이 의지해 오고, 그렇게 되면 그런 父老들을 존경하는 모든 백성들이 悅服(열복)해와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p>
507	<p>作興皆起也 蓋 何不也 西伯卽文王也 紂 命爲西方諸侯之長 得專征伐 故稱西伯 太公姜姓呂氏 名尙 文王發政 必先鰥寡孤獨 庶人之老皆無凍餒 故伯夷太公 來就其養 非求仕也</p>	<p>07-13-01 孟子曰 伯夷避紂 居 北海之濱 聞文王作興 曰盍歸 乎來 吾聞西伯善養老者 太公 避紂 居東海之濱 聞文王作興 曰盍歸乎來 吾聞西伯 善養老 者</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이가 紂(주)를 피해 북해 가에서 살더니, 문왕이 일어나 仁政을 편다는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왜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내 듣기에 서백은 노인을 잘 섬긴다고 하던데.'라 하고, 태공이 紂를 피해 동해 가에서 살더니, 문왕이 일어나 仁政을 편다는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왜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내 듣기에 서백은 노인을 잘 섬긴다고 하던데.'라고 하였다.</p>

508	<p>二老伯夷太公也 大老 言非常人之老者 天下之父 言齒德皆尊 如衆父然 既得其心 則天下之心 不能外矣 蕭何所謂養民致賢 以圖天下者 其意 暗如此合 但其意 則有公私之辨 學者 又不可不察也</p>	<p>07-13-02 二老者天下之大老也 而歸之 是天下之父歸之也</p>	<p>두 늙은이는 천하의 훌륭한 늙은이였는데 그에게로 돌아갔으니, 그것은 온 천하의 부모들이 그에게로 돌아간 것이니, 그들의 자제들이 어디로 가겠는가?</p>
509	<p>七年 以小國而言也 大國五年 在其中矣</p>	<p>07-13-03 諸侯有行文王之政者 七年之內 必爲政於天下矣</p>	<p>제후들 중에서 문왕의 (王道)정치를 행하는 자가 나온다면, 7년 안에 반드시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p>
510	<p>07-14 率土地而食人肉章</p>	<p>07-14 率土地而食人肉章</p>	<p>◇國君에게 仁政을 펴도록 誘導(유도)하지 않고 도리어 무리한 收奪(수탈)을 감행하여 백성들을 괴롭하고, 또 전쟁을强行하여 無數한 人命을 犠牲(희생)시키는 罪惡을 痛論(통론)한 내용이다.</p>
511	<p>求 孔子弟子冉求 季氏 魯卿宰家臣 賦 猶取也 取民之粟 倍於他日也 小子弟子也 鳴鼓而攻之 聲其罪而責之也</p>	<p>07-14-01 孟子曰 求也爲季氏 宰 無能改於其德而賦粟倍他日 孔子曰 求非我徒也 小子鳴鼓 而攻之可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求는 계씨의 총재 노릇을 하면서 계씨의 不德함을 고쳐주지는 못하고, 곡식을 賦稅(부세)함이 다른 때의 갑질로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求는 내 제자가 아니니, 너희들은 복을 올리어 그를 성토하여도 좋다.'고 하셨다.</p>
512	<p>林氏曰 富其君者 奪民之財耳 而夫子猶惡之 況爲土地之故而殺人 使其肝腦塗地 則是率土地而食人之肉 其罪之大 雖至於死 猶不足以容之也</p>	<p>07-14-02 由此觀之 君不行仁 政而富之 皆棄於孔子者也 況 於爲之強戰 爭地以戰 殺人盈 野 爭城以戰 殺人盈城 此所謂 率土地而食人肉 罪不容於死</p>	<p>이것을 가지고 보자면, 國君이 仁政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부유하게 되는 것은 모두 공자에게 벼림을 받은 바가 되었는데, 하물며 그것을 위하여 무리하게 전쟁을 하여 땅을 쟁탈하느라고 싸우면서 사람을 죽이어들에 가득 차게 하고, 성을 쟁탈하느라고 싸우며 사람을 죽여서 성에 가득 차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른 바 토지를 가지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니, 그 죄는 죽어도 용서받지 못한다.</p>
513	<p>善戰 如孫臏吳起之徒 連結諸侯 如消盡張儀之類 辟開墾也 任土地 謂分土授民 使任耕稼之責 如李悝 盡地力 商鞅 開阡陌之類也</p>	<p>07-14-03 故善戰者服上刑 連 諸侯者次之 辟草萊任土地者次 之</p>	<p>그러므로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극형으로 다스리고, 제후들을 연합시키는 자는 그 다음의 형을 받도록 할 것이고, 황폐한 땅을 개간하여 토지를 맡기는 자가 그 다음이다.」</p>
514	<p>07-15 莫良於眸子章</p>	<p>07-15 莫良於眸子章</p>	<p>◇人物觀察法(인물관찰법)을 論한 내용이다. - 心中이 바르고 善한 사람은 눈동자가 밝고 맑으며, 그렇지 않고 邪惡(사악)한 사람은 눈동자가 어둡고 흐리다는 것이다.</p>
515	<p>良 善也 眇子 目瞳子也 瞭 明也 眊者 蒙蒙 目不明之貌 蓋人與物接之時 其神在目 故胸中 正則神精而明 不正則神散而昏</p>	<p>07-15-01 孟子曰 存乎人者 莫 良於眸子 眇子不能掩其惡 胸 中正則眸子瞭焉 胸中不正則眸</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살피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자기의 惡을 掩蔽(엄폐)하지 못하느니, 마음속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속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릴 것이다.</p>

		子眊焉	
516	廩匿也 言亦心之所發 故并此以觀 則人之邪正 不可匿矣 然言猶可以偽爲 眇子則有不容偽者	07-15-02 聽其言也 觀其眸子 人焉廩哉	그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보면 사람이 어찌(자기의 본마음을) 숨길 수 있겠느냐?」
517	07-16 恭儉章	07-16 恭儉章	◇真正으로 恭儉(공검)한 君主가 되어야만 또한 恭儉한 臣下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다.
518	惟恐不順 言恐人之不順己 聲暗笑貌 偽爲於外也	07-16-01 孟子曰 恭者不侮人 儉者不奪人 傀奪人之君 惟恐 不順焉 惡得爲恭儉 恭儉豈可 以聲音笑貌爲哉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恭遜(공손)한 사람은 남을侮辱(모욕)하지 않고, 儉素(검소)한 사람은 남한테서 빼앗지 않으니, 남을 모욕하고 남한테서 빼앗는 임금은 오직 자기에게 順從(순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공손하고 검소하게 굴 수 있겠는가? 공손과 검소함이 어떻게 목소리와 웃는 모습으로써 해낼 수 있겠는가?」
519	07-17 嫂溺援之以手章	07-17 嫂溺援之以手章	◇천하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리 危急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節操(절조)나 威信(위신)을 굽히지 않고서, 자신을 곧게 갖고 正道로써 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다.
520	淳于姓髡名齊之辯士授與也 受取也古禮男女不親授受 以遠別也援救之也權稱錘也 稱物輕重而往來以取中者也 權而得中是乃禮也	07-17-01 淳于髡曰 男女授受 不親禮與 孟子曰 禮也 曰嫂溺 則援之以手乎 曰嫂溺不援 是 豺狼也 男女授受不親禮也 嫂 溺援之以手者權也	순우곤이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이 禮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禮입니다.」 (순우곤이) 말하기를, 「兄嫂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원하오리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수가 물에 빠진 것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豺狼(이리)이니, 남녀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은 禮요, 형수가 물에 빠져 구원하는 것은 權道(임시방편)입니다.」
521	言今天下大亂民遭陷溺 亦當從權以援之 不可守先王之正道也	07-17-02 曰今天下溺矣夫子 之不援何也	(순우곤이) 말하기를, 「지금 온 천하가 물에 빠졌는데, 선생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근 까닭입니까?」
522	言天下溺惟道可以拯之非若嫂溺 可手援也今子欲援天下 乃欲使我枉枉道求合 則先失其所以援之之具矣是欲使我 以手援天下乎 ♥ 此章言直己守道 所以濟時枉道徇人徒爲失己	07-17-03 曰天下溺援之以道 嫂溺援之以手子欲手援天下乎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가 물에 빠지거든 道로써 구원하고, 형수가 물에 빠지거든 손으로 구원할 것이니, 당신은 천하를 손으로 구원하고자 합니까?」
523	07-18 古者易子而教章	07-18 古者易子而教章	◇자식을 서로 바꾸어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다. - 父子는 至親한 사이이므로 서로 책망하게 되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524	不親教也	07-18-01 公孫丑曰 君子之不教子何也	공손추가 말하기를, 「군자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525	夷傷也 教子者 本爲愛其子也 繼之以怒 則反傷其子矣 父旣傷其子 子之心 又責其父曰 夫子教我以正道 而夫子之身 未必自行正道 則是子又傷其父也	07-18-02 孟子曰 勢不行也 教者必以正 以正不行 繼之以怒 繼之以怒則反夷矣 夫子教我以正 夫子未出於正也 則是父子相夷也 父子相夷則惡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올바른 것을 가지고 하니, 바른 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이어 성을 내게 되고, 이어서 성을 내게 되면 도리어 해치게 되니, '어른(아버지)께서 올바른 것으로써 나를 가르치시지만, 어른도 올바른 데로 나가지 않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父子가 서로 해치는 것이니,父子가 서로 해치게 되면 나쁜 것이라.
526	易子而教 所以全父子之恩 而易不失其爲教	07-18-03 古者易子而教之	옛날에는 자식을 바꿔서 가르쳤고,
527	責善 朋友之道也 ♥ 王氏曰 父有爭子 何也 所謂爭子 非責善也 當不義 則爭之而已矣 父之於子也 如何 曰當不義 則易戒之而已矣	07-18-04 父子之間不責善 責善則離 離則不祥莫大焉	父子간에는 잘 되라고 책하지 않았으니, 잘 되라고 책하면 멀어지게 된다. 멀어지게 되면 祥瑞(상서)롭지 아니함이 이보다 더 큰 것 없다.」
528	07-19 曾子養曾晳章	07-19 曾子養曾晳章	◇자기 몸을 올바로 지키고서 어버이를 섬기는 일을 말씀하신 내용. - 어버이의 口體를 받드는奉養보다 그 뜻을 받드는 養志가 더욱 중요한 것
529	守身 持守其身 使不陷於不義也 一失其身 則虧體辱親 雖日用三牲之養 亦不足以爲孝矣	07-19-01 孟子曰 事孰爲大事 親爲大 守孰爲大 守身爲大 不失其身而能事其親者 吾聞之 失其身而能事其親者 吾未之聞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섬기는 일이 중대한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중대하다. 누구를 지키는 일이 중대한가? 몸을 지키는 일이 중대하다. 자기 몸을 不義에 빠뜨리지 않고서 자기 어버이를 섬길 수 있었다는 사람의 말은 내 들었으나, 자기 몸을 불의에 빠뜨리고서 자기 어버이를 섬길 수 있었다는 사람의 말은 내 아직 듣지 못했다.
530	事親孝 則忠可移於君 順可移於長 身正 則家齊國治而天下平	07-19-02 勤不爲事 事親事之本也 勤不爲守 守身守之本也	그 뉘라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는가마는 어버이를 섬김이 섬기는 일의 근본이요, 그 뉘라서 지키는 일을 하지 않겠는가마는 몸을 지킴이 지키는 일의 근본이니라.

531	<p>此承上文事親言之 曾晳 名點 曾子父也 曾元 曾子子也 曾子 養其父 每食 必有酒肉 食畢 將撤去 必請於父曰 此餘者 與雖 或父問此物尙有餘否 必曰有 恐親意更 更欲與人也 曾元 不請所與 雖有 言無 其意 將以復進於親 不欲其與人也 此但能養父母之口體而已 曾子則能承順父母之志 而不忍傷之也</p>	<p>07-19-03 曾子養曾晳 必有酒 肉 將徹 必請所與 問有餘 必 曰有 曾晳死 曾元養曾子 必有 酒肉 将徹 不請所與 問有餘 曰亡矣 将以復進也 此所謂養 口體者也 若曾子則可謂養志也</p>	<p>증자가 증석을 봉양하시는데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추셨는데, 床을 치울 때는 반드시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물으셨으며, 남은 게 있느냐고 물으시면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증석이 죽고 증원이 증자를 봉양하였는데,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추었지만, 床을 치울 때는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묻지 않았으며, 남은 게 있느냐고 물으시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니, 남은 것을 또 차려드리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른 바 입과 몸을 봉양하는 것이니, 증자 같으신 분은 어버이의 마음을 봉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p>
532	<p>言當如曾子之養志 不可如曾元 但養口體 程子曰 子之身 所能爲者 皆所當爲 無過分之事也 故事親 若曾子 可謂至矣 而孟子 止曰可也 豈以曾子之孝爲有餘哉</p>	<p>07-19-04 事親若曾子者可也</p>	<p>어버이 섬기는 일을 증자와 같이 하는 자라야 옳은 것이라.」</p>
533	<p>07-20 一正君而國定矣章</p>	<p>07-20 一正君而國定矣章</p>	<p>◇임금의 마음이 바르면 나라가 바로잡혀 안정을 얻게 되는데, 임금의 마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有德한 大人이라는 말씀</p>
534	<p>趙氏曰 適 過也 間 非也 格 正也 徐氏曰 格者 物之所取正也 書曰 格其非心 愚 謂間字上 易當有與字 言人君用人之非 不足過謫 行政之失 不足非間 惟有大人之德 則能格君心之不正 以歸于正 而國無不治矣 大人者 大德之人 正己而物正者也 ❤ 程子曰 天下之治亂 繫乎人君之仁與不仁耳 心之非 卽害於政 不待乎發之於外也 昔者 孟子三見齊王 而不言事 門人 疑之 孟子曰 我先攻其邪心 心既正而後 天下之事 可從而理也 夫政事之失 用人之非 知者能更之 直者 能諫之 然非心存焉 則事事而更之 後復有其事 將不勝其更矣 人人而去之 後復用其人 將不勝其去矣 是以 輔相之職 必在乎格君心之非然後</p>	<p>07-20-01 孟子曰 人不足與適 也 政不足間也 惟大人爲能格 君心之非 君仁莫不仁 君義莫 不義 君正莫不正 一正君而國 正矣</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상대하여 허물할 것이 못되며, 政事는 비난할 게 못되느니라. 오직 大人이라야 능히 임금의 마음이 그릇됨을 바로잡을 것이니, 임금이 어질면 어질지 아니한 것이 없을 것이요, 임금이 義로우면 義롭지 아니한 것이 없을 것이요, 임금이 올바르면 바르지 아니한 것이 없을 것이니, 한번 임금을 올바르게 만들기만 하면 나라는 안정될 것이다.」</p>

	無所不正 而欲格君心之非者 非有大人之德 則亦莫之能也		
535	07-21 不虞之譽章	07-21 不虞之譽章	◇세상의 毁譽(훼예)는 종잡을 수 없는 것이므로, 오직 자신의 행실을 바로 하여 毀譽褒貶(훼예포贬)에 動搖(동요)할 것이 없다는 말씀
536	虞 度也 呂氏曰 行不足以致譽 而偶得譽 是謂不虞之譽 求免於毀 而反致毀 是謂求全之毀 言毀譽之言 未必皆實 脩己者 不可以是 遽爲憂喜 觀人者 不可以是 輕爲進退	07-21-01 孟子曰 有不虞之譽 有求全之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지도 않던 명예가 있을 수도 있으며, 온전하기를 바라다가 謹謗(비방)을 당하는 수도 있느니라.」
537	07-22 易其言也章	07-22 易其言也章	◇단 한 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그 責任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透徹(투철)하다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538	人之所以經易其言者 以其未遭失言之責故耳 蓋常人之情 無所懲於前 則無所警於後 非以爲君子之學 必似有責而後 不敢易其言也 然此豈亦有爲而言之與	07-22-01 孟子曰 人之易其言 也 無責耳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그 말을 쉽게(輕率하게)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 뿐이다.」

539	07-23 人之患章	07-23 人之患章	◇자기 자신이 모자라는 인간임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痘弊임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아는 체하고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 말을 많이 하는 근본임
540	王勉曰 學問有餘 人資漁己 不得而已應之 可也 若好爲人師 則自足而不復有進矣 此人之大患也	07-23-01 孟子曰 人之患在好 爲人師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痘弊(병폐)는 남의 스승노릇하기를 좋아하는 데 있다.」
541	07-24 樂正子見孟子章	07-24 樂正子見孟子章	◇자기 스승이 계신 곳에 가면 宿所에 들기 전에 먼저 스승을 찾아뵙는 것이 제자로서의 禮인데, 그 禮를 차리지 못한 樂正子를 責望한 내용이다. - 한편 악정자가 매우 無禮한 왕환을 따르는 것을 책망한 뜻도 담겨있다.
542	子敖 王驩 字	07-24-01 樂正子從於子敖之齊	악정자가 자오를 따라 제나라에 가서
543	昔者 前日也 館 客舍也 王驩 孟子所不與言者則其人 可知矣 樂正子乃從之行 其失身之罪 大矣 又不早見長者 則其罪 又有甚者焉 故孟子姑以此責之	07-24-02 樂正子見孟子 孟子 曰 子亦來見我乎 曰先生何爲 出此言也 曰子來幾日矣 曰昔 者 曰昔者則我出此言也 不亦 宜乎 曰舍館未定 曰子聞之也 舍館定然後 求見長者乎	악정자가 맹자를 찾아뵙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 역시 나를 보려고 왔는가?」 (악정자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 (여기에) 온지 며칠이나 되었나?」 (악정자가) 말하기를, 「며칠 되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며칠 되었다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또한 마땅치 아니한가?」 (악정자가) 말하기를, 「숙소가 정해지지 않아서였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가 듣기로는 숙소가 정해진 후에야 어른을 찾아뵌다고 하던가?」
544	陳氏曰 樂正子 固不能無罪矣 然其勇於受責 如此 非好善而篤信之 其能若是乎 世有強辯飾非 聞諫愈甚者 又樂正子之罪人也	07-24-03 曰克有罪	(악정자가) 말하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545	07-25 徒餉啜也章	07-25 徒餉啜也章	◇樂正子가 子敖를 따라 아무 意義없이 齊나라에 와 있는 것을 責望한 내용이다.
546	徒 但也 餉 食也 啜 飲也 言其不擇所從 但求食耳 此乃正其罪而切責之	07-25-01 孟子謂樂正子曰 子 之從於子敖來 徒餉啜也 我不 意子學古之道而以餉啜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가 자오를 따라 여기에 온 것은 한갓 먹고 마시는 것이로다. 나는 자네가 옛道를 배워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데 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노라.」
547	07-26 不孝有三章	07-26 不孝有三章	◇맹자께서 權道의 一例로써 舜임금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다.
548	趙氏曰 於禮 有不孝者三事 謂阿意曲從 陷親不義 一也 家貧親老 不爲祿仕 二也 不娶無子 絕先祖祀 三也 三者之中 無後 爲大	07-26-01 孟子曰 不孝有三 無 後爲大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서 뒤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

549	<p>舜告焉則不得娶 而終於無後矣 告者禮也 不告者權也 猶告 言與告同也 盖權而得中 則不離於正矣 ♥ 范氏曰 天下之道 有正有權 正者 萬世之常 權者 一時之用 常道 人皆可守 權 非體道者 不能用也 盖權 出於不得已者也 若父非瞽瞍 子非大舜 而欲不告而娶 則天下之罪人也</p>	07-26-02 舜不告而娶 爲無後 也 君子以爲猶告也	<p>순임금이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고서 아내를 맞이한 것은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니, 군자는 그것을 어버이에게 고한 것과 같다고 여기느니라.」</p>
550	07-27 事親從兄章	07-27 事親從兄章	<p>◇仁과 義의 근본은 孝(事親;사친)와 恕(從兄;종형)에 있음을 밝히고, 智·禮·樂은 모두 이 仁과 義를 자키고 調節文飾(문식)하며 즐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p>
551	<p>仁主於愛 而愛莫切於事親 義主於敬 而敬莫先於從兄 故仁義之道 其用 至廣而其實 不越於事親從兄之間 蓋良心之發 最爲切近而精實者 有子 以孝弟 爲爲仁之本 其意 亦猶此也</p>	07-27-01 孟子曰 仁之實事親 是也 義之實從兄是也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仁의 실질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요, 義의 실질은 형을 따르는 것이라.」</p>
552	<p>斯二者 持事親從兄而言 知而弗去 則見之明而守之固矣 節文 謂品節文章 樂則生矣 謂和順從容 無所勉強 事親從兄之意 油然自生 如草木之有生意也 既有生意 則其暢茂條達 自有不可遏者 所謂惡可已也 其又盛 則至於手舞足蹈 而不自知矣 ♥ 此章 言事親從兄 良心真切 天下之道 皆原於此 然 必知之明 而守之固然後 節之密而樂之深也</p>	07-27-02 智之實知斯二者弗去 是也 禮之實節文斯二者是也 樂之實樂斯二者 樂則生矣 生 則惡可已也 惡可已則不知足之 蹈之手之舞之	<p>智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알고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요, 禮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調節文飾하는 것이요, 樂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즐거워하는 것이니, 즐거워하면 곧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느니, (그 마음이) 생기면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는가?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는가 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모르는 사이에 발이 깅충거리고, 손이 춤을 추게 되는 것이라.」</p>
553	07-28 聽瞍底豫章	07-28 聽瞍底豫章	<p>◇맹자께서舜임금은 온 천하가 자기를 위대하다고 推戴(추대)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頑惡(완악)했던 그의 부친을 극진한 효도로써 感化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감화되고, 父子간의 倫常의 基本이 確定(확정)되기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p>

554	<p>言舜視天下之歸己 如草芥 而惟欲得其親而順之也 得者 曲爲承順 以得其心之悅而已 順則有以諭之於道 心與之一 而未始有違 尤人所難也 爲人 蓋泛言之 爲子 則愈密矣</p>	<p>07-28-01 孟子曰 天下大悅而 將歸己 視天下悅而歸己 猶草 芥也 惟舜爲然 不得乎親 不可 以爲人 不順乎親 不可以爲子</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가 크게 기뻐하여 자기에게 돌아오려 하거늘, 온 천하가 기뻐하여 자기에게 돌아오려 하는 것 보기를 마치 草芥(초개: 지푸라기)같이 여긴 것은 오직 순임금이 그렇게 하였을 뿐이니라. 어버이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사람노릇을 할 수 없고, 어버이를 따르게 하지 못하면 자식노릇을 할 수 없다.」</p>
555	<p>瞽瞍 舜父名 底 致也 豫 樂也 瞽瞍至頑 試欲殺舜 至是而底豫焉 書所謂不格姦 亦允若 是也 蓋舜 至此而有以順乎親矣 是以 天下之爲子者 知天下 無不可事之親 顧吾所以事之者 未若舜耳 於是 莫不勉而爲孝 至於其親 亦底豫焉 則天下之爲父者 亦莫不慈 所謂化也 子孝父慈 各止其所 而無不安其位之意 所謂定也 爲法於天下 可傳於後世 非止一身一家之孝而已 此所以爲大孝也 ♥ 李氏曰 舜之所以能使瞽瞍底豫者 盡事親之道 共爲子職 不見父母之非而已 昔 羅仲素 語此云只爲天下 無不是底父母 了翁 聞而善之曰 唯如此而後 天下之爲父子者 定 彼臣弑其君 子弑其父者 常始於見其有不是處耳</p>	<p>07-28-02 舜盡事親之道而瞽瞍 底豫 睽瞍底豫而天下化 睽瞍 底豫而天下之爲父子者定 此之 謂大孝</p>	<p>순임금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다하여 고수가 기뻐하기에 이르렀으니, 고수가 기뻐하기에 이르러서 온 천하가 교화되었고, 고수가 기뻐하기에 이르러서 아버와 자식된 자들이 안정되었으니, 이런 것을 일컬어 큰 효도라고 하니라.」</p>
556	08 離婁章句下 - 凡三十三章	08 離婁章句下 - 凡三十三章	[제 8 편. 離婁章句(이루장구) 下]
557	08-01 舜生於諸馮章	08-01 舜生於諸馮章	◇聖人們은 生地와 世代의 差異는 있어도 그들이 받들어 行한 道는 같다는 말씀이다.
558	<p>諸馮 負夏 鳴條 皆地名 在東方夷服之地</p>	<p>08-01-01 孟子曰 舜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 東夷之人 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은 저풍에서 태어나서 부하로 옮겨갔다가 명조에서 돌아가시니 동쪽 미개민족의 사람이니라.」</p>
559	<p>岐周 岐山下 周舊邑 近畎夷 畢郢 近豐鎬 今有文王墓</p>	<p>08-01-02 文王生於岐周 卒於 畢郢 西夷之人也</p>	<p>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서 필영에서 돌아가시니 서쪽 미개민족의 사람이니라.</p>

560	<p>得志行乎中國 謂舜爲天子 文王爲方伯 得行其道於天下也 符節 以玉爲之 篆刻文字 而中分之 彼此各藏其平 有故則左右相合 以爲信也 若合符節 言其同也</p>	<p>08-01-03 地之相去也 千有餘里 世之相後也 千有餘歲 得志行乎中國 若合符節</p>	<p>(이들은) 피차간의 땅의 거리가 천여 리나 되고 피차의 세대 차이가 천여 년이나 되는데, 뜻을 이루어 중국에서 (왕자의 정치를) 행한 것은 符節을 맞춘 것과 같으니,</p>
561	<p>揆 度也 其揆一者 言度之而其道無不同也 ♥ 范氏曰 言聖人之生 雖有先後遠近之不同 然其道則一也</p>	<p>08-01-04 先聖後聖 其揆一也</p>	<p>선대의 성인과 후대의 성인은 (그 행한) 법도가 같으니라.」</p>
562	<p>08-02 惠而不知爲政章</p>	<p>08-02 惠而不知爲政章</p>	<p>◇정치인은 백성들을 하나하나 돌볼 생각을 하지 말고, 원칙을 세우고 근본적인 해결책을講究(강구)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푼 다음, 백성을 위에 君臨(군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다.</p>
563	<p>子產 鄭大夫 公孫僑濤 濤洧 二水名也 子產 見人有徒涉此水者 以其所乘之車 載而渡之</p>	<p>08-02-01 子產聽鄭國之政 以其乘輿 濤人於溱洧</p>	<p>자산이 정나라의 정치를 맡아볼 때, 자기가 타는 수레에다 사람들을 태워서 진수와 유수를 건너주었다 하니,</p>
564	<p>惠 謂私恩小利 政則有公平正大之體 綱紀法度之施焉</p>	<p>08-02-02 孟子曰 惠而不知爲政</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로우나 정치하는 것을 모르는구나.</p>
565	<p>杠 方橋也 徒杠 可通徒行者 梁 亦橋也 與梁 可通車輿者 周十一月 夏九月也 周十二月 夏十月也 夏令曰 十月成梁 蓋農功已畢 可用民力 又時將寒沴 水有橋梁 則民不患於徒涉 亦王政之一事也</p>	<p>08-02-03 歲十一月 徒杠成 十二月輿梁成 民未病涉也</p>	<p>11월에 걸어 다니는 다리가 완성되고, 12월에 수레 다니는 다리가 완성되면 백성들이 물 건너기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p>
566	<p>辟 辟除也 如周禮閭人 爲之辟之辟 言能平其政 則出行之際 辟除行人 使之避已 亦不爲過 况國中之水 當涉者衆 岳能悉以乘輿濟之哉</p>	<p>08-02-04 君子平其政 行辟人可也 焉得人人而濟之</p>	<p>군자가 그의 정치를 공평하게 하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피하게 하여도 좋을 것이니, 어떻게 사람마다 모두 건너 줄 수 있겠는가?</p>
567	<p>言每人 皆欲致私恩 以悅其意 則人多日少 亦不足於用矣 諸葛武侯嘗言治世 以大德 不以小惠 得孟子之意矣</p>	<p>08-02-05 故爲政者 每人而悅之 日亦不足矣</p>	<p>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모두 기뻐하게 해주려든다면 날도 또한 부족할 것이다.」</p>
568	<p>08-03 君之視臣如手足章</p>	<p>08-03 君之視臣如手足章</p>	<p>◇君主로서의 신하에 대한 道理를 일러주신 내용이다. - 君臣은 본래 義로써 맺어진 것이니, 君主가 臣下를 禮로써 待遇(대우)해야 하고, 臣下의 君主에 대한 禮는 君主의 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p>

569	<p>孔氏曰 宣王之遇臣下 恩禮衰薄 至於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 則其於群臣 可謂邈然無敬矣 故孟子告之以此 手足腹心 相待一體 恩義之至也 如犬馬則輕賤之 然猶有豢養之恩焉 國人 猶言路人 言無怨無德也 土芥則賤踏之而已矣 斬艾之而已矣 其惡惡之 又甚矣 寇讐之報 不亦宜乎</p>	<p>08-03-01 孟子告齊宣王曰 君 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 人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 如寇讐</p>	<p>맹자께서 제나라 선왕에게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신하 보기를 손발과 같이 여기면 신하는 임금 보기를 몸(배)과 가슴(심장)과 같이 여기고, 임금이 신하 보기를 개나 말과 같이 여기면 신하는 임금 보기를 일반국민(길 가는 사람)과 같이 여기고, 임금이 신하 보기를 흙과 지푸라기 같이 여기면 신하는 임금 보기를 원수와 같이 여길 것입니다.」</p>
570	<p>儀禮曰 以道去君 而未絕者 服齊衰三月 王疑孟子之言 太甚故 以此禮 為問</p>	<p>08-03-02 王曰 禮爲舊君有服 何如 斯可爲服矣</p>	<p>왕이 말하기를, 「禮에는 전에 섬긴 임금을 위해 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입어주게 됩니까?」</p>
571	<p>導之出疆 防剽掠也 先於其所往 稱道其賢 欲其收用之也 三年而後 收其田祿里居 前此 猶望其歸也</p>	<p>08-03-03 曰諫行言聽 膏澤下 於民 有故而去 則君使人導之 出疆 又先於其所往 去三年不 反然後 收其田里 此之謂三有 禮焉 如此則爲輯服矣</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간한 것이 행하여지고 말이 받아들여져서 혜택이 백성들에게 내려가고, 연고가 있어서 떠나가게 되면 임금이 사람을 시켜 그를 인도하여 국경을 내보내 주고, 또 그가 가는 곳에 그가 가기 전에 먼저 그를 잘 말해 주고, 떠나가서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후에야 그에게 주었던 토지와 거처를 회수합니다. 이것을 '삼유례'라고 일컫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그 임금을 위해 복을 입습니다.」</p>
572	<p>極 窮也 窮之於其所往之國 如晉錮欒盈也 ❤️ 潘興嗣曰 孟子告齊王之言 猶孔子 對定公之意也 而其言有迹 不若孔子之渾然也 蓋聖賢之別 如此 楊氏曰 君臣以義合者也 故孟子爲齊王 深言報施之道 使知爲君者 不可不以禮遇其臣耳 若君子之自處則豈處其薄乎 孟子曰 王庶幾改之 予日望之 君子之言 蓋如此</p>	<p>08-03-04 今也爲臣 諫則不行 言則不聽 膏澤不下於民 有故 而去 則君搏執之 又極之於其 所往 去之日 遂取其田里 此之 謂寇讐 寇讐何服之有</p>	<p>지금은 신하가 되어서 간하면 그것이 행하여지지 않고, 말을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혜택이 백성들에게 내려가지 않고, 연고가 있어서 떠나가게 되면 임금은 (그 식구를) 때리고 잡아놓고, 또 그가 가는 곳에서 극도로 고통을 받게 하고, 떠나가는 날에 그에게 주었던 토지와 거처를 회수해 버리니, 이것은 원수라고 이르게 되는데, 원수에게 무슨 복을 입겠습니까?」</p>
573	<p>08-04 無罪而殺士章</p>	<p>08-04 無罪而殺士章</p>	<p>◇無道한 임금 밑에서는 자신에게禍가 돌아오기 전에 피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p>
574	<p>言君子 當見幾而作 禍已迫 則不能去矣</p>	<p>08-04-01 孟子曰 無罪而殺士 則大夫可以去 無罪而戮民 則 士可以徙</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이 士를 죽이면大夫가 (그 나라를) 떠나가게 될 것이요, 죄가 없이 백성을 죽이면 士가 (그 나라를) 떠나가게 될 것이라.」</p>

575	08-05 君仁莫不仁章	08-05 君仁莫不仁章	◇君主의 絶對的(절대적)인 影響力(영향력)과 模範(모범)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576	張氏曰 此章 重出 然上編主言人臣當以正君委急 此章 直戒人君 義亦小異耳	08-05-01 孟子曰 君仁莫不仁 君義莫不義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인자하면 인자하지 아니할 자가 없고, 임금이 義로우면 義롭지 아니할 자가 없다.」
577	08-06 非禮之禮章	08-06 非禮之禮章	◇大人은 非禮 非義한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578	察理不精 故有二者之蔽 大人則隨事而順理 因時而處宜 豈爲是哉	08-06-01 孟子曰 非禮之禮 非 義之義 大人不義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禮가 아닌 禮와 義가 아닌 義를 大人은 하지 아니한다.」
579	08-07 中也養不中章	08-07 中也養不中章	◇어진(조화로운 인격과 재능이 있는) 인물들은 後進을 교육하고 薰陶(훈도)하는 데 힘써야 함을 역설한 내용이다.
580	無過不及之謂中 足以有爲之謂才 養謂涵育薰陶 俟其自此也 賢謂中而才者也 樂有賢父兄者 樂其終能成己也 爲父兄者 若以子弟之不賢 遂遽絕之而不能教 則吾亦過中而不才矣 其相去之間 能幾何哉	08-07-01 孟子曰 中也養不中 才也養不才 故人樂有賢父兄也 如中也棄不中 才也棄不才 則 賢不肖之相去其間 不能以寸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사람은 조화로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길러주며,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을 길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진(조화로운 인격과 재능이 있는) 부형이 있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니, 만약에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 조화로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버리며, 재능 있는 사람이 재능이 없는 사람을 버린다면 어진(조화로운 인격과 재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한 치도 못될 것이라.」
581	08-08 人有不爲章	08-08 人有不爲章	◇不仁 不義를 안 할 수 있는 勇氣를 갖춘 연후에야 仁義를 실천할 수 있는 實力이 생긴다는 말씀이다.
582	程子曰 有不爲 知所擇也 惟能有不爲 是以 可以有爲 無所不爲者 安能有所爲耶	08-08-01 孟子曰 人有不爲也 而後 可以有爲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는 후에야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라.」
583	08-09 言人之不善章	08-09 言人之不善章	◇必要 없이 남의 좋지 않은 점을 말하고 다니는 것을 警戒하신 말씀이다.
584	此亦有爲而言	08-09-01 孟子曰 言人之不善 當如後患何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좋지 않은 일을 말하면, 거기에 따라올 後患을 어떻게 할 것인가?」
585	08-10 不爲已甚章	08-10 不爲已甚章	◇공자의 調和(조화)로움과 中庸(중용)의 德을 말씀하시어, 偏頗的(편파적)이고 極端的(극단적)인 言動을 警戒(경계)하신 내용이다.
586	己 猶太也 楊氏曰 言聖人所爲 本分之外 不如毫末 非孟子 眞知孔子 不能以是稱之	08-10-01 孟子曰 仲尼不爲已 甚者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니(공자)께서는 지나치게 심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

587	08-11 有義所在章	08-11 有義所在章	◇言信과 行果는 美德이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不德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 義의 所在 與否가 言信과 行果를 결정짓는 基準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88	必 猶期也 大人言行 不先期於信果 但義之所在 則必從之 卒亦未嘗不信果也 ♥ 尹氏曰 主於義 則信果 在其中矣 主於信果 則未必合義 王勉曰 若不合於義 而不信不果則妄人爾	08-11-01 孟子曰 大人者言不必信 行不必果 惟義所在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인이란 말을 한다고 반드시 그 신용을 지키지는 않고, 행동한다고 반드시 처음 목표했던 데까지 해내지는 않으며, 오직 義가 있는 곳에 따라갈 뿐이니라.」
589	08-12 不失其赤子之心章	08-12 不失其赤子之心章	◇純真無垢(순진무구)한 마음의 소지자가大人이라는 말씀이다.
590	大人之心 通達萬變 赤子之心 則純一無僞而已 然大人之所以爲大人 正以其不爲物誘 而有以全其純一無僞之本然 是以 擴而充之 則無所不知 無所不能 而極其大也	08-12-01 孟子曰 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者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인이란 그의 어린아이 때의 마음을 잊지 않은 사람이라.」
591	08-13 當大事章	08-13 當大事章	◇親喪(친상)을 치르는 것이야말로 大事라고 강조한 내용이다.
592	事生 固當愛敬 然亦人道之常耳 至於送死 則人道之大變 孝子之事親 舍是 無以用其力矣 故尤以爲大事而必誠必信 不使少有後日之悔也	08-13-01 孟子曰 養生者不足以當大事 惟送死可以當大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봉양하는 것은 큰일이라 할 수 없고, 오직 죽어서 보내는 일이 큰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593	08-14 居安資深章	08-14 居安資深章	◇學問을 하는데 있어 올바른 방법으로 徹底(철저)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은 결국 자기가 모르는 일을 探究(탐구)해서 그것을 本來부터 아는 것과 다름없는 段階(단계)에까지 到達하여, 그 根源을 把握(파악)하고 卑近(비근)한 데에서도 自由自在로 活用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라는 말씀이다.

594	<p>造詣也 深造之者 進而不已之意 道則其進爲之方也 資猶藉也 左右身之兩旁 言之近而非一處也 峰猶值也 原本也 水之來處也 言君子務於深造而必以其道者 欲其有所持循 以俟夫默識心通 自然而得之於己也 自得於己 則所以處之者安固而不搖 處之安固 則所藉者深遠而無盡 所藉者深 則日用之間 取之至近 無所往而不值其所資之本也 ♥ 程子曰 學不言而自得者 乃自得也 有安排布置者 皆非自得也 然必潛心積慮 優遊厭於其間然後 可以有得 若急迫求之 則是私己而已 終不足以得之也</p>	08-14-01 孟子曰 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自得之則居之安 居之安則資之深 資之深則取之左右逢其原 故君子欲其自得之也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깊이 탐구하는 것은 자신이 자연스럽게 체득하고자 함이니, 자연스럽게 체득되면 그 일에 대처하는 것이 안정되고, 그 일에 대처하는 것이 안정되면 그 일에서 취하는 것이 깊이가 있게 되고, 그 일에서 취하는 것이 깊이가 있게 되면 자기 가까이서 취해 쓰고 그 근원을 파악하게 되니, 고로 군자는 자신이 자연스럽게 체득하고자 하는 것이라.」</p>
595	08-15 博學詳說章	08-15 博學詳說章	<p>◇學問을 하는데 있어 널리 배우고 詳細(상세)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그 자체에 意義(의의)가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博學(박학)에 대한 自誇(자과)를 排除(배제)하고, 理致(이치)의 要點(요점)을 터득하여 融會貫通(융회관통)하기에 이르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신 내용. <前章과 함께 학문하는 목적을 설명한 것></p>
596	<p>言所以博學於文而詳說其理者 非欲以誇多而鬪靡也 欲其融會貫通 有以反而設到至約之地耳 蓋上章之意而言 學非欲其徒博 而亦不可以徑約也</p>	08-15-02 孟子曰 博學而詳說之 將以反說約也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넓리 배워서 상세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되돌아가 要點을 풀려는 것이라.」</p>
597	08-16 以善服人章	08-16 以善服人章	<p>◇스스로 善을 실천하여 남이 善을 指向(지향)하도록 길러줄 수 있어야 비로소 천하에 王 노릇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다. - 以善服人은 霸者(때자)의 道이고, 以善養人은 王者(왕자)의 道라는 것이다.</p>
598	<p>服人者 欲以取勝於人 養人者 欲其同歸於善 盖心之公私 小異而人之嚮背頓殊 學者 於此 不可以不審也</p>	08-16-01 孟子曰 以善服人者未有能服人者也 以善養人然後能服天下 天下不心服而王者未之有也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善으로써 남을 굴복시키는 사람은 아직 완전히 굴복시켜낸 사람이 있지 않으니, 善으로써 사람을 기른 연후에야 능히 천하를 慶服케 할 것이니, 천하가 마음으로 慶服하지 아니하고서 王 노릇을 한 자는 아직 있지 아니하였느니라.」</p>
599	08-17 言無實不祥章	08-17 言無實不祥章	<p>◇賢良함을 가리는 妄言(망언)이 세상을 해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p>

600	<p>或曰 天下之言 無有實不詳者 惟蔽賢 爲不詳之實 或曰 言而無實者不詳 故蔽賢 爲不祥之實 二說 不同 未知孰是 疑或有闕文焉</p>	<p>08-17-01 孟子曰 言無實不祥 不祥之實 蔽賢者當之</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에는 실제로 상서롭지 못한 것은 없으니, 상서롭지 못한 것의 실상은 賢良한 것을 가리는 것이 이에 해당되느니라.」</p>
601	<p>08-18 聲聞過情章</p>	<p>08-18 聲聞過情章</p>	<p>◇本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對照(대조)시켜, 名聲(명성)은 있으나 그에 附合(부합)하는 學問이나 德性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다.</p>
602	<p>亟 數也 水哉水哉 歎美之辭</p>	<p>08-18-01 徐子曰 仲尼亟稱於 水曰 水哉水哉 何取於水也</p>	<p>서자가 말하기를, 「중니께서 자주 물을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물이여! 물이여!'하셨는데, 물에서 무엇을 취하신 것입니까?」</p>
603	<p>原泉 有原之水也 混混 涌出之貌 不舍晝夜 言常出不竭也 盈 滿也 科坎也 言其進以漸也 放 至也 言水有原本 不已而漸進 以至于海 如人有實行 則亦不已而漸進 以至于極也</p>	<p>08-18-02 孟子曰 原泉混混 不 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원의 샘이 솟아올라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여, 구덩이에 찬 뒤에 나아가서 사해에 이르나니, 근본이 있는 자가 이와 같은지라, 그 점을 취하신 것이니라.」</p>
604	<p>集 聚也 滉田間水道也 潤 乾也 如人無實行而暴得虛譽 不能長久也 聲聞 名譽也 情 實也 恥者 恥其無實而將不繼也 林氏曰 徐子之爲人 必有躡等干譽之病 故孟子 以是答之 ♥ 鄭氏曰 孔子之稱水 其旨微矣 孟子 獨取此者 自徐子之所急者 言之也 孔子 詧以聞達 告子張矣 達者 有本之謂也 聞則無本之謂也 然則學者 其可以務本乎</p>	<p>08-18-03 苟爲無本 七八月之 間雨集 溝澗皆盈 其涸也 可立 而待也 故聲聞過情 君子恥之</p>	<p>진실로 근본이 없으면 칠·팔월 간에 빗물이 모여서 크고 작은 도랑들이 모두 차지마는 그 물이 말라버리는 것은 서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니, 그래서 名聲이 실제보다 지나치는 것을 군자는 부끄러워하는 것이니라.」</p>
605	<p>08-19 由仁義行章</p>	<p>08-19 由仁義行章</p>	<p>◇사람이 禽獸(금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仁義를 保存하여 仁義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뿐이니, 그 점을 重要視(중요시)하라고 하신 말씀이다.</p>

606	<p>幾希 少也 庶 衆也 人物之生 同得天地之理 以爲性 同得天地之氣 以爲形 其不同者 獨人於其間 得形氣之正 而能有以全其性 爲少異耳 雖曰少異 然人物之所以分 實在於此 衆人 不知此而去之 則名雖爲人 而實無以異於禽獸 君子 知此而存之 是以 戰競惕厲 而卒能有以全其所受之正也</p>	08-19-01 孟子曰 人之所以異 於禽獸者 幾希 庶民去之 君子 存之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매우 적을 것이니, 서민은 그것을(仁義를) 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니라.」</p>
607	<p>物 事物也 明則有以識其理也 人倫 說見前篇 察則有以盡其理之祥也 物理固非度外 而人倫 尤切於身 故其知之 有詳畧之異 在舜則皆生而知之也 由仁義行 非行仁義 則仁義已根於心 而所行 皆從此出 非以仁義爲美而後 勉强行之 所謂安而行之也 此則聖人之事 不待存之而無不存矣 ♥ 尹氏曰 存之者 君子也 存者 聖人也 君子所存 存天理也 由仁義行 存者 能之</p>	08-19-02 舜明於庶物 察於人 倫 由仁義行 非行仁義也	<p>순임금은 모든 사물의 道를 밝히며 인륜을 살피셨으니 仁과 義에 따라 행하신 것이지, (억지로) 仁義를 행하신 것은 아니니라.」</p>
608	08-20 周公思兼三王章	08-20 周公思兼三王章	<p>◇周公이 夏·殷·周 三代의 政治理念과 그 方法을 理想의 으로 集大成하기에 온갖 精力(정력)을 기울였음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周公이 三王의 道를 생각하여 成王을 도와 太平과 隆盛(영성)을 이루할 수 있었으니, 禮樂이 갖추어진 것은 대체로 이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p>
609	<p>戰國策曰 儀狄 作酒 禹 飲而甘之曰後世 必有以酒 亡其國者 遂疏儀狄 而絕旨酒 書曰 禹拜昌言</p>	08-20-01 孟子曰 禹惡旨酒而 好善言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임금은 맛있는 술을 싫어하시고, 착한 말을 좋아하셨다.」</p>
610	<p>執 謂守而不失 中者 無過不及之名 方 猶類也 立賢無方 惟賢則立之於位 不問其類也</p>	08-20-02 湯執中 立賢無方	<p>탕임금은 중용을 취하시며, 현량한 인재를 벼슬에 세우시되 그 출신을 따지지 않으셨다.</p>
611	<p>民 已安矣 而視之 猶若有傷 道已至矣 而望之 猶若未見 聖人之愛民深而求道切 如此 不自滿足終日乾乾之心也</p>	08-20-03 文王 視民如傷 望道 而未之見	<p>문왕은 백성을 보기를 다친 사람을 보듯 하셨고, 道를 바라기를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같이 하셨다.</p>

612	泄 狎也 遷者 人所易狎而不泄 遠者 人所易忘而不忘 德之盛 仁之至也	08-20-04 武王 不泄遷 不忘遠	무왕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친숙하게 대하지는 않으셨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잊지 않으셨다.
613	三王 禹也湯也文武也 四事 上四條之事也 時異勢殊 故其事 或有所不合 思而得之 則其理 初不異矣 坐以待旦 急於行也 ♥ 此 承上章言舜 因歷叙羣聖以繼之 而各舉其一事 而見其憂勤惕厲之意 蓋天理之所以常存 而人心之所以不死也 程子曰 孟子所稱 各因其一事而言 非謂武王 不能執中立賢 湯 却泄遷忘遠也 人謂各舉其盛 亦非也 聖人 亦無不盛	08-20-05 周公 思兼三王 以施 四事 其有不合者 仰而思之 夜 以繼日 幸而得之 坐以待旦	주공은 (위의) 삼왕(실제로는 사왕)의 좋은 점을 겸해서 네 가지의 일에 적용하려고 생각하셨다. 그 중에 (실제에) 맞지 않은 점이 있으면 (삼왕의 事蹟; 사적을) 우러러 생각하는데 밤을 도와서 하셨고, 다행이 그 도리를 터득하게 되면 애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셨다.」
614	08-21 王者之迹熄章	08-21 王者之迹熄章	◇孔子가 春秋를 지은 經緯(경위)와 그 내용 및 春秋라는 歷史書의 名稱(명칭)에 관해서 簡單(간단)한 설명을 하신 것이다.
615	王者之跡熄 謂平王 東遷而政教號令 不及於天下也 詩亡 謂黍離 降爲國風而雅 亡也 春秋 魯史記之名 孔子因而筆削之 姑於魯隱公之元年 實平王之四十九年也	08-21-01 孟子曰 王者之迹熄 而詩亡 詩亡然後 春秋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王者의 자취가 없어지고 나서 詩가 없어졌고, 시가 없어진 뒤에 춘추가 지어졌다.」
616	乘 義未詳 趙氏 以爲興於田賦乘馬之事 或曰取記載當時行事 而名之也 橋杌 惡獸名 古者 因以爲凶人之號 取記惡垂戒之義也 春秋者 記事者 必表年 以首事 年有四時 故錯舉以爲所記之名也 古者列國皆有史官 掌記時事 此三者 皆其所記冊書之名也	08-21-02 晉之乘楚之檮杌 魯 之春秋一也	진나라의 乘과 초나라의 도울과 노나라의 춘추는 같은 것이라.

617	<p>春秋之時 五霸迭興而桓文 爲盛 史 史官也 竊取者 謙辭也 公羊傳 作其辭則丘 有罪焉爾 意亦如此 蓋言斷之在己 所謂筆則筆 削則削 游夏 不能贊一辭者也 尹氏曰 言孔子作春秋 亦以史之文 在當時之事也 而其義 則定天下之邪正 爲百王之大法 ♥ 此 又承上章 歷叙羣聖 因以孔子之事 繼之而孔子之事 莫大於春秋 故特言之</p>	08-21-03 其事則齊桓晉文 其 文則史 孔子曰其義則丘竊取之 矣	<p>그 일은 곧 제 환공·진 문공 등에 관한 것이고, 그 글은 역사이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뜻은 내가 외람되어 취해서 썼다.'고 하셨다.」</p>
618	08-22 君子之澤章	08-22 君子之澤章	<p>◇맹자는孔子의 제자가 되어서 直接 공자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면서, 그래도 공자가 세상을 떠난 지 五世代가 지나지 않아 공자의 道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偉德(위덕)과 敎訓을 배울 수 있어 多幸이라는 의미의 말씀이다.</p>
619	<p>澤 猶言流風餘韻也 父子相繼爲一世 三十年 亦爲一世 斬 絶也 大約君子小人之澤 五世而絕也 楊氏曰 四世而總服之窮也 五世 袒免殺同姓也 六世 親屬竭矣 服窮則遺澤 寢微故 五世而斬</p>	08-22-01 孟子曰 君子之澤五 世而斬 小人之澤五世而斬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의 은택도 5세대면 끊어지고, 소인의 은택도 5세대면 끊어진다.」</p>
620	<p>私 猶竊也 淑 善也 李氏 以爲方言 是也 人 爲子」思之徒也 自孔子卒 至孟子游梁時 方百四十餘年 而孟子 已老 然則孟子之生 去孔子未百年也 故孟子言 予雖未得親受業於孔子之門 然聖人之澤 尚存 猶有能傳其學者故 我 得聞孔子之道於心 而私竊以善其身 蓋推尊孔子 而自謙之辭也 ♥ 此 又承上三章 歷叙舜禹 至於周孔 而以是終之 其辭 雖謙 然其所以自任之重 亦有不得而辭者矣</p>	08-22-02 予未得爲孔子徒也 予私淑諸人也	<p>나는 공자의 門徒가 되지 못하였으나,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을 私淑하였다.」</p>
621	08-23 取傷廉章	08-23 取傷廉章	<p>◇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處身을 分別있게 하여 真正한 清廉·恩惠· 勇氣를 損傷(손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다.</p>

622	<p>先言可以者 略見而自許之辭也 後言可以無者 深察而自疑之辭也 過取 固害於廉 然 過與 亦反害其惠過死 亦反害其勇 盖過猶不及之意也 林氏曰 公西華 受五秉之粟 是 傷廉也 冉子 與之 是傷惠也 子路之死於衛 是傷勇也</p>	<p>08-23-01 孟子曰 可以取 可以 無取 取傷廉 可以與 可以無與 與傷惠 可以死 可以無死 死傷 勇</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을 만도 하고 받지 않을 만도 한데 받으면 청렴을 해치는 것이요, 줄 만도 하고 주지 않을 만도 한데 주면 은혜를 해치는 것이요, 죽을 만도 하고 죽지 않을 만도 한데 죽으면 용기를 해치는 것이라.」</p>
623	<p>08-24 逢蒙學射於羿章</p>	<p>08-24 逢蒙學射於羿章</p>	<p>◇울바르지 못한 사람과 交友하거나 弟子로 教導하여서 그 결과로 禍害(화해)를 입게 되면, 거기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罪責(죄책)이 있음을 말씀하신 내용이다.</p>
624	<p>羿 有窮后羿也 逢蒙 羿之家衆也 羿 善射 篡夏自立 後爲家衆所殺 愈 猶勝也 薄 言其罪差薄耳</p>	<p>08-24-01 逢蒙學射於羿 盡羿 之道 思天下 惟羿爲愈己 於是 殺羿 孟子曰 是亦羿有罪焉 公 明儀曰 宜若無罪焉 曰薄乎云 爾 惡得無罪</p>	<p>방동이 羿한테서 활쏘기를 배워 羿의 (활쏘는) 방법을 모두 익히고 나서, 천하에 오직 羿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이에 羿를 죽여 버렸는데,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된 데는 羿에게도 죄가 있느니라.」 공명의가 말하기를, 「그에게는 마땅히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적다는 것뿐이지 어찌 죄가 없을 수야 있겠는가?」</p>
625	<p>之 語助也 僕 御也 尹公他 亦衛人也 端 正也 學子 以尹公 正人 知其取友必正故 度庾公 必不害己 小人庾孔子稱也 金鏃也 扣輪出鏃 令不害人 乃以射也 乘矢 四矢也 孟子 言使羿 如子濯孺子 得尹公他而教之 則必無逢蒙之禍 然 夷羿 篡弑之賊 蒙乃逆僞 庾斯 雖全私恩 亦廢公義 其事皆無足論者 孟子 蓋特以取友而言耳</p>	<p>08-24-02 鄭人使子濯孺子侵衛 衛使庾公之斯追之 子濯孺子曰 今日我疾作 不可以執弓 吾死 矣夫 問其僕曰 追我者誰也 其 僕曰庾公之斯也 曰吾生矣 其 僕曰庾公之斯 衛之善射者也 夫子曰吾生何謂也 曰庾公之斯 學射於尹公之他 尹公之他 學 射於我 夫尹公之他端人也 其 取友必端矣 庾公之斯至曰 夫 子何爲不執弓 曰今日我疾作 不可以執弓 曰小人學射於尹公 之他 尹公之他學射於夫子 我 不忍以夫子之道 反害夫子 雖 然今日之事君事也 我不敢廢 抽矢扣輪 去其金 發乘矢而後 反</p>	<p>鄭나라 사람이 자탁유자로 하여금 衛나라를 침략케 하니, 위나라에서는 유공지사로 하여금 그를 쫓게 하였는데, 자탁유자가 말하기를, '오늘 내가 병이 나서 활을 잡지 못하겠으니, 나는 죽었구나!'하고, 그의 종에게 물어 말하기를, '나를 쫓는 자가 누구인고?'하였다. 그 종이 말하기를, '유공지사입니다.' (자탁유자가) 말하기를, '나는 살았도다!' 그 종이 말하기를, '유공지사는 위나라의 활 잘 쏘는 자이거늘, 선생님께서 <나는 살았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탁유자가) 말하기를, '유공지사는 활쏘기를 윤공지타에게서 배웠고, 윤공지타는 활쏘기를 나에게서 배웠으니, 윤공지타는 단정한 사람이라 그 벗을 취함이 반드시 단정하리라.' 유공지사가 이르러서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왜 활을 잡지 않으십니까?' (자탁유자가) 말하기를, '오늘 나는 병이 나서 활을 잡지 못하오.'(유공지사가) 말하기를, '소인은 활쏘기를 윤공지타에게서 배웠고, 윤공지타는 활쏘기를 선생님께 배웠으니, 저는 차마 선생님의 재주로써 선생님을 해치지는 못하겠습니다. 비록 그러나, 오늘의 일은 國君의 일이어서 제가 감히 그만두어 버릴 수도 없습니다.'하고는, 화살을 뽑아서 바퀴에 두드려서 그 화살촉을 빼버리고, 화살 네 개를 쓴 뒤에 돌아갔느니라.」</p>

626	08-25 西子蒙不潔章	08-25 西子蒙不潔章	◇ 타고난 外貌(외모)보다는 자기를 얼마나 잘修養(수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627	西子 美婦人 蒙 猶冒也 不潔 汗穢之物也 掩鼻 惡其臭也	08-25-01 孟子曰 西子蒙不潔 則 人皆掩鼻而過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자라도 불결한 것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모두 코를 가지고 지나갈 것이라.」
628	惡人 醜貌者也 ♥ 尹氏曰 此章 戒人之喪善 而勉人以自新也	08-25-02 雖有惡人 齊戒沐浴 則可以祀上帝	비록 못생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목욕재계하면 하늘에도 제사할 수 있을 것이라.」
629	08-26 所惡於智者章	08-26 所惡於智者章	◇ 사물의 理致가 자연의 順理에 따르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것이 큰 지혜가 될 것이다 만일 작은 지혜를 써서 穿鑿(천착)하여 사사롭게 하면 성품에 해로와 도리어 지혜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 當時 맹자의 性善說에 대해 無理한 穿鑿을 통해 反駁(반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다.
630	性者 人物所得以生之理也 故者 其已然之跡 若所謂天下之故者也 利 猶順也 語其自然之勢也 言事物之理 雖若無形而難知 然 其發見之已然 則必有跡而易見 故 天下之言性者 但言其故 而理自明 猶所謂善言天者 必有驗於人也 然 其所謂故者 又必本其自然之勢 如人之善 水之下 非有所稿揉造作而然者也 若人之爲惡 水之在山 則非自然之故矣	08-26-01 孟子曰 天下之言性 也 則故而已矣 故者以利爲本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본성을 논하는 것은 된 일을 법칙으로 따르는 것뿐이니, 된 일은 順理를 근본으로 하느라.」
631	天下之理 本皆利順 小智之人 務爲穿鑿 所以失之 禹之行水 則因其自然之勢 而導之 未嘗以私智穿鑿 而有所事 是以 水得其潤下之性 而不爲害也	08-26-02 所惡於智者 爲其鑿 也 如智者 若禹之行水也 則無 惡於智矣 禹之行水也 行其所 無事也 如智者 亦行其所無事 也 則智亦大矣	지혜로움을 미워하는 것은 穿鑿(천착)하기 때문이니,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 禹의 금이 물을 다스리는 것같이 한다면 지혜로움을 미워함이 없으리라. 우임금이 물을 다스림에는 물이 막히는 일이 없는 곳으로 향하게 했으니,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 또한 막히는 일이 없는 곳으로運用한다면 그 지혜로움 역시 偉大할 것이라.

632	<p>天雖高 星辰雖遠 然 求其已然之跡 則其運有常 雖千歲之久 其日至之度 可坐而得 况於事物之近 若因其故而求之 岳有不得其理者 而何以穿鑿爲哉 必言日至者 造歷者 以上古十二月甲子朔夜半冬至 爲曆元也 ♥ 程子曰 此章 專爲智而發 愚 謂事物之理 莫非自然 順而循之 則爲大智 若用小智 而鑿以自私 則害於性 而反爲不智 程子之言 可謂深得此章之旨矣</p>	08-26-03 天之高也 星辰之遠 也 苛求其故 千歲之日至 可坐 而致也	<p>하늘은 높고 별은 멀지만 진실로 그 되어진 일을 추구한다면 千歲의 날이 이르는 것을 앉아서 알 것이니라.」</p>
633	08-27 孟子不與右師言章	08-27 孟子不與右師言章	<p>◇齊나라의 權臣인 王驩(왕환)의 權威(권위)에 屈하지 않는 맹자의 面貌(면모)를 生生하게 그린 내용이다.</p>
634	公行子 齊大夫 右師 王驩也	08-27-01 公行子 有子之喪 右 師往吊 入門 有進而與右師言 者 有就右師之位而與右師言者	<p>공행자가 아들의 喪을 당하자 우사가 가서弔喪할 때, 문을 들어서자 나아가서 우사와 말하는 자가 있으며, 우사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사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p>
635	簡略也	08-27-02 孟子不與右師言 右 師不悅曰 諸君子皆與驩言 孟 子獨不與驩言 是簡驩也	<p>맹자는 우사와 말씀하지 않으시자, 우사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모든 군자가 다 나와 말하거늘, 맹자는 훌로 나와 말을 하지 않으니, 이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p>
636	<p>是時 齊卿大夫 以君命 吊 各有位次 若周禮 凡有爵者之喪禮 則職喪 泣其禁令 序其事故 云朝廷也 歷 更涉也 位 他人之位也 右師 未就位 而進與之言則右師 歷己之位矣 右師 已就位而就與之言 則己歷右師之位矣 孟子右師之位 又不同階 孟子 不敢失此禮故 不與右師言也</p>	08-27-03 孟子聞之曰 禮朝廷 不歷位而相與言 不踰階而相揖 也 我欲行禮 子敖以我爲簡 不 亦異乎	<p>맹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예에 조정에서는 (국군의) 자리를 지나가서 서로 말하지 아니하고, 충계를 넘어서 서로 읍하지는 아니하느니, 나는 예를 행하려고 하거늘, 자오는 내가 무시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p>
637	08-28 無一朝之患章	08-28 無一朝之患章	<p>◇本心을 仁과 禮로써 잘 지켜 나갈 것을 力說한 내용이다. - 남이 橫逆(횡역)하게 굴면 먼저 자신을 반성하여 自我를 비판하고, 그래도 自己에게 잘못이 없을 경우 無道한 자는 자기가 상대할 對象이 아니므로 맞서지 않는 것이 君子다운 態度라고 하였다.</p>

638	以仁禮存心 言以是 存於心而不忘也	08-28-01 孟子曰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일반사람들과 다른 까닭은 그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 군자는 仁을 마음에 두고 禮를 마음에 두고 있느니라.」
639	此 仁禮之施	08-28-02 仁者愛人 有禮者敬人	인자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사람은 남을 공경하느니,
640	此仁禮之驗	08-28-03 愛人者人恒愛之 敬人者人恒敬之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 늘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이 늘 그를 공경하느니라.
641	橫逆 謂強暴 不順理也 物 事也	08-28-04 有人於此 其待我以橫逆 則君子必自反也 我必不仁也 必無禮也 此物奚宜至哉	여기애 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자기를 횡포하게 대하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반성하여, '내가 틀림없이 인자하지 않은 것이며 예가 없는 것이로다. 이런 일이 어떻게 닥쳐온 것인가?' 하느니라.
642	忠者 盡氣之謂 我必不忠 恐所以愛敬人者 有所不盡其心也	08-28-05 其自反而仁矣 自反而有禮矣 其橫逆由是也 君子必自反也 我必不忠	그렇게 스스로 반성하여도 인자하며 스스로 반성하여도 예가 있으되 그 횡포함이 여전하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반성하여, '내가 틀림없이 성실하지 않은 것이로다.' 하느니라.
643	奚擇 何異也 又何難焉 言不足與之校也	08-28-06 自反而忠矣 其橫逆由是也 君子曰 此亦妄人也已矣 如此則與禽獸奚擇哉 於禽獸又何難焉	스스로 반성하여도 성실한데 그 횡포함이 여전하거든, 군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역시 망령된 사람일 뿐이다.' 할 것이니, 이와 같다면 금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금수에게 어떻게 詰難(힐난)하겠는가?
644	鄉人 鄉里之常人也 君子 存心不苟 故無後憂	08-28-07 是故君子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也 乃若所憂則有之 舜人也 我亦人也 舜爲法於天下 可傳於後世 我由未免爲鄉人也 是則可憂也 憂之如何 如舜而已矣 若夫君子所患則亡矣 非仁無爲也 非禮無行也 如有一朝之患 則君子不患矣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終身의 근심은 있으나, 하루아침의 근심은 없는 것이라. 만약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순임금도 사람이며 나도 역시 사람인데, 순임금은 천하에 법이 되어 후세에 전하셨거늘, 나는 여전히 鄉里의 평범한 사람노릇을 면치 못하였다.'하니, 이것이 근심할 것이니라. 그것을 근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순임금과 같아지도록 할 뿐이니라. 군자로 말하면 근심할 바가 없느니라. 仁이 아니면 하지 않고, 禮가 아니면 행하지 않으니라. 만일 하루아침의 근심이 있더라도 군자는 근심하지 아니하느니라.」
645	08-29 禹·稷·顏回同道章	08-29 禹·稷·顏回同道章	◇古來의 聖賢들은 각자의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 行動이나 表現은 달랐으나, 그들이 따른 根本이 되는 精神인 道는 같았다는 말씀. - 따라서 입장이나 처지를 不問하고 固定된 形式에만 執着(집착)하면 妄發(망발)이 될 憂慮(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646	事見前篇	08-29-01 禹稷當平世 三過其門而不入 孔子賢之	禹와 稷이 세상을 평안하게 하려는 때에 자기 집 문 앞을 세 번이나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으셨는데, 공자께서 그것을 칭찬하셨다.
647		08-29-02 顏子當難世 居於陋巷 一簞食 一瓢飲 人不堪其憂 顏子不改其樂 孔子賢之	안자는 난세에 누추한 골목에서 거처하며 한 대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살았는데, 남들은 그러한 근심을 견디지 못하지만, 안자는 그러한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으니, 공자께서 그것을 칭찬하셨다.
648	聖賢之道 進則救民 退則修己 其心一而已矣	08-29-03 孟子曰禹稷顏回同道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와 직과 안회는 道가 같았느니라.
649	禹稷 身任其職故 以爲己責而救之急也	08-29-04 禹思天下有溺者 由己溺之也 稷思天下有餓者 由己餓之也 是以 如是其急也	우는 천하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물에 빠진 것같이 생각하셨으며, 직은 천하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굶긴 것같이 생각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하시었느니라.
650	聖賢之心 無所偏倚 隨感而應各盡其道 故 使禹稷 居顏子之地則亦能樂顏子之樂 使顏子居禹稷之任 亦能憂禹稷之憂也	08-29-05 禹稷顏子 易地則皆然	우와 직과 안자는 처지를 바꾼다면 모두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651	不暇束髮 而結纓往救 言急也以喻禹稷	08-29-06 今有同室之人 斫者救之 雖被髮縗冠而救之 可也	이제 한 집의 사람이 싸우면 구해주되, 머리털이 흩어진 채 갓끈을 매고 구원하더라도 가할 것이니라.
652	喻顏子也 ❤ 此章 言聖賢 心無不同事則所遭或異 然 處之 各當其理是乃所以爲同也 尹氏曰當其可之謂時 前聖後聖 其心 一也故 所遇 皆盡善	08-29-07 鄉鄰 有斬者 被髮縗冠而往救之則惑也 雖閉戶 可也	(그러나) 동네 사람이 싸우는 자가 있어 머리털이 흩어진 채 갓끈을 매고 가서 구한다면迷惑한 것이니, (그런 경우에는) 비록 문을 닫고 있다 하더라도 慄장을 것이다.)
653	08-30 匡章章	08-30 匡章章	◇맹자가 交遊(교유)를 택하고 사람을 보는 태도가 表明된 내용이다. - 王驥은 權臣이었지만 그 傲慢(오만)함을 미워하여 가까이 하지 않았고, 匡章은 온 나라가 不孝子라고 꺼렸지만 그의 心情을 이해하여 禮貌(예모)를 갖추어 交遊(교유)한 것이다.
654	匡章 齊人 通國 盡一國之人也 禮貌敬之也	08-30-01 公都子曰 匡章通國皆稱不孝焉 夫子與之遊 又從而禮貌之 敢問何也	공도자가 말하기를, 「광장은 온 나라가 다 불효하다고들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交遊하시고, 또 相從하고 예모하시니, 감히 물자오니 왜 그러시는지요?」

655	戮 羞辱也 狠忿戾也	08-30-02 孟子曰 世俗所謂不孝者五 憒其四肢 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奕好飲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私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不孝也 好勇鬪狠 以危父母 五不孝也 章子有一於是乎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에서 말하는 불효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그 사자를 게을리 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첫째 불효요, 장기와 바둑을 두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둘째 불효요,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의 사랑에 빠져 부모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셋째 불효이며, 귀와 눈의 욕구를 쫓느라고 부모를 육되게 하는 것이 넷째 불효이며, 용맹을 좋아하여 싸우고 화내어서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섯째 불효인데, 장자는 이중에서 한 가지라도 저질렀는가?」
656	遇 合也 相責以善 而不相合故 爲父母所逐也	08-30-03 夫章子子父責善而不相遇也	장자의 경우는 아들과 아버지가 善을 책하다가 서로 맞지 않게 된 것이라.
657	賊 害也 朋友 當相責以善 父子 行之 則害天性之恩也	08-30-04 賁善朋友之道也 父子責善 賊恩之大者	善을 책하는 것은 벗들 사이의 도리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善을 책하는 것은 恩義의 큰 도리를 해치느니라.
658	言章子 非不欲身有夫妻之配 子有子母之屬 但爲身不得根於父故 不敢受妻子之養 以自責罰其心 以爲不如此 則其罪益大也 ♥ 此章之旨 於衆所惡而必察焉 可以見聖賢至公至仁之心矣 ♥ 楊氏曰 章子之行 孟子 非敢之也 特哀其志 而不與之絕耳	08-30-05 夫章子豈不欲有夫妻子母之屬哉 爲得罪於父 不得近 出妻屏子 終身不養焉 其設心以爲不若是 是則罪之大者 是則章子已矣	장자라고 어찌 부부와 자모의 倉屬(권속)을 두고 싶지 않았겠는가마는 부친에게 잘못하여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내보내고 아들을 물리치고서 종신토록 그들의 봉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가 마음먹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장자일 뿐이니라.」
659	08-31 曾子居武城章	08-31 曾子居武城章	◇立場이나 處地에 따라 행실도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 - <제 8-29 장과 같은 의미>
660	武城 魯邑名 盍 何不也 左右 曾子之門人也 忠敬 言武城之大夫 事曾子忠誠恭敬也 爲民望 言使望而效之 沈猶行 弟子姓名也 言曾子嘗舍於沈猶氏 時有負芻者 作亂 來攻沈猶氏 曾子 率其弟子去之 不與其難 言師賓 不與臣同	08-31-01 曾子居武城 有越寇 或曰寇至 盍去諸 曰無寓人於 我室 毀傷其薪木 寇退則曰 倏 我牆屋 我將反 寇退 曾子反 左右曰 待先生如此之忠且敬也 寇至則先去 以爲民望 寇退則 反 殆於不可 沈猶行 曰是非汝 所知也 昔沈猶有負芻之禍 從 先生者七十人 未有與焉	증자께서 무성에 계실 때에 월나라의 침략군이 들어오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침략군이 이르렀는데 어찌 이곳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내 집에 들여서 풀과 나무를 망가뜨리지 말라.」 침략군이 물러가자 곧 말씀하시기를, 「내 담과 집을 고쳐라. 내 장자 돌아가리라.」 침략군이 물러가자 증자가 돌아오셨는데, 측근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대우하는 것이 이처럼 성실하고 또 공경스러웠는데, 침략군이 이르자 먼저 물러가셔서 백성들이 본뜨게 하시고, 침략군이 물러가자 곧 되돌아오시니 가까이 할 수가 없겠습니다.」 심유행이 말하기를, 「이는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니라. 옛날에 심유가 부추의 화를 당하였는데, 선생을 따라다닌 70 인은 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661	言所以不去之意 如此	08-31-02 子思居於衛 有齊寇或曰寇至 盍去諸 子思曰 如伋去 君誰與守	자사가 위나라에 사실 때에 제나라의 침략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침략군이 이르렀는데 어찌 이곳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자사가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물려가면 임금은 누구와 함께 (나라를) 지키겠는가?」
662	微 猶賤也 尹氏曰 或遠害 或死難 其事不同者 所處之地 不同也 君子之心 不繫於利害 性其是而已 故 易地則皆能爲之 ♥ 孔氏曰 古之聖賢 言行不同 事業亦異 而其道 未始不同也 學者知此 則因所遇而應之 若權衡之稱物 低昂屢變 而不害其爲同也	08-31-03 孟子曰 曾子子思同道 曾子師也父兄也 子思臣也微也 曾子子思易地則皆然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자와 자사의 道가 같으시니, 증자는 스승이며 부형이고, 자사는 신하이며 미천한 사람입니다, 증자와 자사는 처지를 바꾼다면 모두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663	08-32 王使人瞷夫子章	08-32 王使人瞷夫子章	◇聖賢이라도 外貌로 보아서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말씀. - 外貌가 아니라 얼마큼 學問과 修道를 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664	儲子 齊人也 瞷 竊視也 聖人 亦人耳 廿有異於人哉	08-32-01 儲子曰 王使人瞷夫子 果有異於人乎 孟子曰 何以異於人哉 堯舜與人同耳	저자가 말하기를, 「왕이 사람을 시켜 선생님을 몰래 엿보게 하셨는데, 과연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겠습니까? 요 임금과 순임금도 일반 사람들과 같을 뿐입니다.」
665	08-33 齊人有一妻一妾章	08-33 齊人有一妻一妾章	◇富와 貴와 利益과 榮達(영달)을追求(추구)하는데 餘念(여념)이 없어 低劣(저열)하고 醜雜(추잡)한 짓을 하면서도 남이 모르는 줄 알고 으스대는 사람들을諷刺(풍자)한 내용이다.
666	章首 當有孟子曰字 闕文也 良人夫也 饜 飽也 顯者 富貴人也 施邪施而行 不使良人知也 播 害也 顧 望也 訴 怨詈也 施施 喜悅自得之貌	08-33-01 齊人有一妻一妾而處室者 其良人出則必饜酒肉而後反 其妻問所與飲食者則盡富貴也 其妻告其妾曰 良人出則必饜酒肉而後反 問其與飲食者盡富貴也 而未嘗有顯者來 吾將瞷良人之所之也 蚊起施從良人之所之 偏國中 無與立談者卒之東郭播間之祭者 乞其餘不足 又顧而之他 此其謂饜足之道也 其妻歸告其妾曰 良人者所仰望而終身也 今若此 與其妾訣其良人而相泣於中庭 而良	제나라 사람으로 아내와 첨을 한 집에 두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남편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뒤에 돌아오거늘, 그의 아내가 함께 먹고 마신 사람을 물으면 다 부자이고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그의 아내가 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남편이 나가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물리도록 먹고 나서 돌아오는데, 함께 먹고 마신 자를 물으면 다 부자이고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직 유명한 이가 온 적이 없으니, 나는 남편이 가는 곳을 몰래 따라가 보겠네.」하고 일찍이 일어나 몰래 남편이 가는 곳을 따라갔는데, 나라 안을 두루 다녀도 같이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동쪽 성밖의 무덤에서 제사지내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구걸하고, 모자라면 또 돌아보아 다른 곳으로 가니, 이것이 그가 물리도록 족하게 먹는 방법이었다. 그의 아내가 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남편이란 우러러보고 평생을 살

		人未之知也 施施從外來 騠其妻妾	사람인데 지금 이와 같네.」하고, 그 첨과 함께 그들의 남편을 비방하면서 마당 가운데에서 울거늘, 그들의 남편이 아직 그것을 모르고 으스대며 밖에서 들어와 그의 아내와 첨에게 뽐냈던 것이다.
667	孟子 言自君子而觀今之求富貴者皆若此人耳 使其妻妾見之不羞而泣者少矣 言可羞之甚也 ♥ 趙氏曰 言今之求富貴者皆以枉曲之道 昏夜乞哀以求之而以驕人於白日 與斯人以何異哉	08-33-02 由君子觀之 則人之所以求富貴利達者 其妻妾不羞也 而不相泣者幾希矣	군자의 눈으로 볼 적에는 사람들이 부와 귀와 이익과 영달을 구하는 방법을 그 처첩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울지 아니할 자가 매우 드물 것이다.
668	09 萬章章句上 - 凡九章	09 萬章章句上 - 凡九章	[제 9 편. 萬章章句(만장장구) 上]
669	09-01 大孝終身慕父母章	09-01 大孝終身慕父母章	◇舜임금의 지극한 孝誠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 舜임금이 衆人們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았음을 말한 것이다.
670	舜往于田 耕歷山時也 仁覆閔下 謂之昊天 號泣于昊天 呼天而泣也 事見虞書大禹謨篇 怨慕 怨己之不得其親而思慕也	09-01-01 萬章問曰 舜往于田 號泣于旻天 何爲其號泣也 孟子曰怨慕也	만장이 묻기를, 「순임금이 밭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소리쳐 울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리쳐 울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망하면서도 오히려 사모하여서이다.」
671	長息公明高弟子 公明高曾子弟子于父母 亦書辭 言呼父母而泣也 憇無愁之貌 於我何哉 自責不己有何罪耳 非怨父母也 楊氏曰 非孟子深知舜之心 不能爲此言 蓋舜惟恐不順於父母 未嘗自以爲孝也 若自以爲孝 則非孝矣	09-01-02 萬章曰 父母愛之 喜而不忘 父母惡之 勞而不怨 然則舜怨乎 曰長息 問於公明高曰 舜往于田則吾旣曰聞命矣 號泣于旻天 于父母則吾不知也 公明高曰 是非爾所知也 夫公明高 以孝子之心爲不若是憇 我竭力耕田 共爲子職而已矣 父母之不我愛 於我何哉	만장이 말하기를, 「부모가 사랑하시면 기뻐하여 잊지 아니하고, 부모가 미워하시면 애쓰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니, 그렇다면 순임금은 원망하신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식이 공명고에게 묻기를, '순임금이 밭에 가신 것은 내 이미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늘을 우러러, 또 부모에게 부르짖어 우신 것은 내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하니, 공명고가 말하기를, '그것은 네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공명고는 효자의 마음이란 그토록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여긴 것으로, '나는 힘을 다하여 밭을 갈아 자식된 직분을 하였을 때름이니,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하며 근심)하였느니라.
672	帝堯也 史記云二女妻之 以觀其內 九男事之 以觀其外 又言 一年所居成聚 二年成邑 三年成都 是天下之士就之也 胥相視也 遷之移以與之也 如窮人之無所歸 言其怨慕迫切之甚也	09-01-03 帝使其子九男二女 百官牛羊倉廩備 以事舜於畎畝之中 天下之士 多就之者 帝將胥天下而遷之焉 爲不順於父母 如窮人無所歸	요임금이 그의 자녀 9남 2녀를 시켜 모든 관원들과 소와 양과 양곡 창고를 갖추어 농사짓는 곳에서舜을 섬기게 하였는데, 천하의 선비들이 그에게로 많이 따라가거늘, 堯임금은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기다려서 그에게 천자의 위를 옮겨주려고 하였는데,舜은 부모에게 순종치(사랑을 받지) 못하여 궁한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과 같았다.

673	<p>孟子推舜之心如此 以解上文之意 極天下之欲 不足以解憂 而惟順於父母 可以解憂 孟子真知舜之心哉</p>	<p>09-01-04 天下之士悅之 人之所欲也 而不足而解憂 好色人之所欲 妻帝之二女 而不足而解憂 富人之所欲 富有天下 而不足而解憂 貴人之所欲 貴爲天子 而不足而解憂 人悅之 好色 富貴 無足而解憂者 惟順於父母 可以解憂</p>	<p>천하의 선비들이 기뻐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거늘 그것으로는 (그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하였으며, 아름다운 여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이거늘 요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하였는데도 (그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하였으며, 富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거늘 富가 천하를 차지하였으나 (그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하였으며, 貴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거늘 貴하기로는 천자가 되었으나 (그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것, 아름다운 여인, 富貴에는 그의 근심을 풀어줄 만한 것이 없는 것이요, 오직 부모에게 순응하는(사랑을 받는) 것만이 그의 근심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었다.</p>
674	<p>言常人之情 因物有遷 惟聖人爲能不失其本心也 艾美好也 楚辭 戰國策 所謂幼艾義與此同 不得 失意也 熱中躁急心熱也 言五十者 舜攝政時年五十也 五十而慕 則其終身慕 可知矣 ❤ 此章 言舜不以得衆人之所欲 爲己樂 而以不順乎親之心 爲己憂 非聖人之盡性 其孰能之</p>	<p>09-01-05 人少則慕父母 知好色則慕少艾 有妻子則慕妻子 仕則慕君 不得於君則熱中 大孝 終身慕父母 五十而慕者 予於大舜見之矣</p>	<p>사람이란 어려서는 부모를 사모하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알게 되면 젊은 美女를 사모하고, 妻子가 있으면 妻子를 사모하고, 벼슬을 살면 임금을 사모하고, 임금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속이 달아오르느니, 큰 孝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모하는 것이니, (나이) 오십에 (부모를) 사모하는 자를 나는 위대한 舜에게서 보았노라!」</p>
675	<p>09-02 娶妻如之何章</p>	<p>09-02 娶妻如之何章</p>	<p>◇舜이 부모에게 告하지 않고 娶妻(취처)한 것은 이른 바 權道(권도)를 행사한 것이나, 그것 역시 大孝의 一端을 發揮(발휘)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 아울러 權道는 舜같은 大人物에 의해서 취해져야만 그 大體(대체)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것도 前提(전제)되어 있다.</p>
676	<p>詩齊國風南山之篇也 信誠也 誠如此詩之言也 故讐怨也 舜父頑母嚚 常欲害舜 告則不廳其娶 是廢人之大倫 以讐怨於父母也</p>	<p>09-02-01 萬章問曰 詩云娶妻如之何 必告父母 信斯言也 宜莫如舜 舜之不告而娶 何也 孟子曰 告則不得娶 男女居室 人之大倫也 如告則廢人之大倫 以讐父母 是以不告也</p>	<p>만장이 묻기를, 「詩經에 이르기를, '아내를 얻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부모에게 고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을 믿는다면 마땅히 舜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인데, 舜이 고하지 않고서 아내를 얻은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하면 아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니라.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은 사람의 중대한 인륜이니, 만약에 고하면 중대한 인륜을 폐하게 되어 부모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하지 않은 것이라.」</p>

677	<p>以女爲人妻曰妻 程子曰 堯妻舜而不告者 以君治之而已 如今之官府 治民之私者亦多</p>	<p>09-02-02 萬章曰 舜之不告而 娶則吾旣得聞命矣 帝之妻舜而 不告 何也 曰帝亦知告焉則不 得妻也</p>	<p>만장이 말하기를, 「舜이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아내를 맞은 이유는 알았습니다마는, 요임금이舜에게 아내를 얻게 하여 주면서도 고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임금 역시 고하면 아내를 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p>
678	<p>完治也 捐去也 階梯也 掩蓋也 按史記曰 使舜上塗廩 肅瞍從下 縱火焚廩 舜乃以兩笠 自捍而下去 得不死 後又使舜穿井 舜穿井 爲匿空旁出 舜既入深 肅瞍與象 共下土實井 舜從匿空中出去 卽其事也 象舜異母弟也 謨謨也 蓋蓋井也 舜所居三年成都 故謂之都君 咸皆也 繢功也 舜既入井 象不知舜已出 欲以殺舜爲己功也 干盾也 戈戟也 琴舜所彈五弦琴也 弇矟弓也 象欲以舜之牛羊倉廩 與父母而自取此物也 二嫂堯二女也 棲牀也 象欲使爲己妻也 象往舜宮 欲分取所有 見舜生在牀彈琴 蓋旣出 卽潛歸其宮也 鬱陶 思之甚而氣不得伸也 象言己思君之甚 故來見爾 忸怩慙色也 臣庶謂其百官也 象素憎舜 不至其宮 故舜見其來而喜 使之治其臣庶也 孟子言舜非不知其將殺己 但見其憂則憂 見其喜則喜 兄弟之情 自有所不能已耳 萬章所言 其有無 不可知 然舜之心則孟子有以知之矣 他亦不足辨也 程子曰 象憂亦憂 象喜亦喜 人情天理於是爲至</p>	<p>09-02-03 萬章曰 父母使舜完 廩捐階 肅瞍焚廩 使浚井出 從 而擣之 象曰 謨蓋都君 咸我繢 牛羊父母 倉廩父母 干戈朕 琴 朕 弇朕 二嫂 使治朕棲 象往 入舜宮 舜在牀琴 象曰鬱陶思 君爾 忸怩 舜曰惟茲臣庶 汝其 于予治 不識 舜不知象之將殺 己與 曰奚而不知也 象憂亦憂 象喜亦喜</p>	<p>만장이 말하기를, 「부모가舜을 시켜 양곡창고의 지붕을 고치라 하고서 사다리를 치우고 고수가 창고에 불을 질렀으며, (또) 우물을 파내게 하고서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대로 묻어버리고, 象이 말하기를, '도군(舜)을 덮어버릴 꾀를 낸 것은 다 내 공적이니, (舜의) 소와 양은 부모의 것이고 양곡창고도 부모의 것이요, 방패와 창은 내 것이고 거문고도 내 것이며 활도 내 것이요, 두 형수는 내 잠자리를 돌보게 하리라.'하고, 象이 가서舜의 집에 들어가니舜이 평상위에서 거문고를 타고 있거늘, 象이 말하기를, '답답해하며 형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며 부끄러워하였는데,舜이 말하기를,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여 네가 나를 위해서 돌봐주도록 하여라.'라고 하였으니, 알지 못하겠습니다.舜은 象이 장차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물렀겠는가? 象이 근심하면 자기도 근심하고, 象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한 것이니라.」</p>

679	<p>校人主池沼小吏也 圉圉困而未舒之貌 洋洋則稍縱矣 悠然而逝者 自得而遠去也 方亦道也 罔蒙蔽也 欺以其方 謂誑之以理之所有 罔以非其道 謂昧之以理之所無 象以愛兄之道來 所謂欺之以其方也 舜本不知其僞 故 實喜之 何僞之有 ♥ 此章 又言舜遭人倫之變而不失天理之常也</p>	<p>09-02-04 曰然則舜僞喜者與 曰否 昔者有饋生魚於鄭子產 子產使校人 畜之池 校人 烹之 反命曰始舍之 圉圉焉 少則洋洋 焉 倏然而逝 子產曰得其所哉 得其所哉 校人出曰孰謂子 產智 予既烹而食之 曰得其所哉 得其所哉 故君子可欺以其方 難罔以非其道 彼以愛兄之道來 故誠信而喜之 奚僞焉</p>	<p>(만장이) 말하기를, 「그렇다면舜은 거짓으로 기뻐한 것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정나라 자산에게 산 물고기를 선물하였는데, 자산이 연못지기를 시켜 그것을 연못에다 기르게 하였다. (그런데) 연못지기는 그 물고기를 삶아먹고는 돌아와서 복명하기를, '처음에 놓아주니 어릿어릿하더니, 조금 있다가 힘차게 헤엄쳐 멀리 가버렸습니다.' 자산이 말하기를, '살 곳을 얻었음이로다! 살 곳을 얻었음이로다!' 하거늘, 연못지기가 물러 나와서 말하기를, '누가 자산을 지혜롭다고 하였는가? 내가 이미 삶아서 먹어버렸는데, 말하기를, <살 곳을 얻었음이로다! 살 곳을 얻었음이로다!> 하던데.' 그러므로 군자란 실제에 어울리는 일을 가지고 속일 수는 있어도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가지고는 속이기가 힘든 것이다. 그(象)가 형을 사랑하는 道를 가지고서 왔으므로 정말로 믿고서 기뻐한 것이지, 어찌 거짓으로 그랬겠는가?」</p>
680	09-03 封之有庳章	09-03 封之有庳章	<p>◇舜임금의 형제간의 至極(지극)한 友愛를 설명한 내용이다. - 동생을 親愛(친애)하여 그를 富貴하게 해주는 恩惠(은혜)를 베풀면서도 公義는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였던 것이다. -舜임금의 象에 대한 親愛는 仁의 極致(극치)이고 義의 極盡(극진)함이라고 할 수 있다.</p>
681	<p>放猶置也 置之於此 使不得去也 萬章疑舜何不誅之 孟子言 舜實封之 而或者誤以爲放也</p>	<p>09-03-01 萬章問曰 象日以殺舜爲事 立爲天子則放之 何也 孟子曰封之也 或曰放焉</p>	<p>만장이 묻기를, 「象은 날마다舜을 죽이는 것을 일로 삼고 있었는데, (舜이) 천자가 되어서는 그를 내치셨는데 어째서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봉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내쳤다고 한 것이라.」</p>
682	<p>流徙也 共工官名 驩兜人名 二人比周 相與爲黨 三苗國名 負固不服 殺殺其君也 殒誅也 鯀禹父名 方命圮族 治水無功 皆不仁之人也 幽州 崇山 三危 羽山 有庳 皆地名也 或曰 今道州鼻亭 卽有庳之地也 未知是否 萬章 疑舜不當封象 使彼有庳之民 無罪而遭象之虐 非仁人之心也 藏怒 謂藏匿其怒 宿怨 謂留畜其怨</p>	<p>09-03-02 萬章曰 舜流共工于幽州 放驩兜于崇山 殺三苗于三危 殒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 誅不仁我 象至不仁 封之有庳 有庳之人 奚罪焉 仁人固如是乎 在他人則誅之 在弟則封之 曰仁人之於弟也 不藏怒焉 不宿怨焉 親愛之而已矣 親之 欲其責也 愛之欲其富也 封之有庳 富貴之也 身爲天子弟爲匹夫 可謂親愛之乎</p>	<p>만장이 말하기를, 「舜이 공공을 유주에 유배하고, 환두를 송산으로 쫓아내고, 삼묘를 삼위에서 죽이고, 곤을 우산에서 베어죽여, 넷을 罪주니 천하가 다 항복한 것은 不仁한 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象은 지극히 不仁한 사람인데 유비에 봉하였으니 유비의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仁한 사람은 본래 그리합니까? 다른 사람이면 죽이고 동생이면 봉해주는 것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仁한 사람은 동생에게는 분노를 감춰두지 않으며, 원한을 묵혀두지도 않고 (그를) 친하게 하고 사랑할 따름이니라. 친하게 하는 것은 귀하게 하고자 함이요, 사랑하는 것은 富하게 하고자 함이니, 유비를 봉한 것은 그를 富하고 귀하게 한 것이니, 자신은 천자인데 동생은 필부라면, (동생을) 친하게 대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p>

683	<p>孟子言 象雖封爲有庫之君 然不得治其國 天子使吏代之治 而納其所攸之貢稅於象 有似於放 故或者以爲放也 蓋象至不仁 處之如此 則既不失吾親愛之心而彼亦不得虐有 庫之民也 源源若水之相繼也 來 謂來朝覲也 不及貢以政接于有庫 謂不待及諸侯朝貢之期 而以政事 接見有庫之君 蓋古書之辭 而孟子引以證源源而來之意 見其親愛之無已如此也 ♥ 吳氏曰 言聖人不以 公義廢私恩 亦不以私恩害公義 舜之於象 仁之至 義之盡也</p>	<p>09-03-03 敢問或曰 放者何謂 也 曰象不得有爲於其國 天子 使吏治其國而納其貢稅焉 故謂 之放 岂得暴彼民哉 雖然 欲常 常而見之 故源源而來 不及貢 以政接于有庫 此之謂也</p>	<p>(만장이 말하기를,)「감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象은 그 나라에서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천자가 관원들을 시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세금만을 받게 하였기 때문에 쫓아냈다고 하는 것인지, 어찌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악하게 대할 수야 있었겠는가? 비록 그렇기는 하지마는 항상 보고 싶어 하였으므로 끊임없이 찾아왔던 것이니, 租貢할 시기가 되지 않아도 政事로써 유비의 (國君을) 만나보았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p>
684	<p>09-04 舜之不臣堯章</p>	<p>09-04 舜之不臣堯章</p>	<p>◇맹자께서 舜은 堯임금을 臣下로 여기지 않았고, 아버지인 褒瞍(고수) 또한 신하로 여기지 않았으며,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음을 말하고, 舜이 지극한 孝子였음을 설명한 내용이다. - 이 篇에 들어있는 맹자의 詩論은 中國 文學批評史(문학비평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孝는 父親을 권위 있게 하여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으며, 行實은 한결같이 자식 된 道理를 지켜나가는 것보다 더 큰 게 없다.</p>
685	<p>咸丘蒙孟子弟子也 語者古語也 蹙顰蹙不自安也 岌岌不安之貌也 言人倫乖亂 天下將危也 齊東 齊國之東鄙也 孟子言 堯但老不治事 而舜攝天子之事耳 堯在時 舜未嘗卽天子位 堯何由北面而朝乎 又引書及孔子之言 以明之 堯典 虞書篇名 今此文 乃見於堯典 蓋古書 二篇 或合爲一耳 言堯攝位二十八年而堯死也 徒升也 落降也 人死則魂升而魄降 故古者 謂死爲徒落 遏止也 密精也 八音金石絲竹匏土革木 樂器之音也</p>	<p>09-04-01 咸丘蒙問曰 語云盛 德之士 君不得而臣 父不得而 子 舜南面而立 堯帥諸侯 北面 而朝之 褒瞍亦北面而朝之 舜 見褒瞍 其容有蹙 孔子曰於斯 時也 天下殆哉岌岌乎 不識 此 語誠然乎哉 孟子曰否 此非君 子之言 齊東野人之語也 堯老 而舜攝也 堯典曰 二十有八載 放勲乃徂落 百姓如喪考妣三年 四海遏密八音 孔子曰 天無二 日 民無二王 舜旣爲天子矣 又 帥天下諸侯 以爲堯三年喪 是</p>	<p>함구몽이 묻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德이 높은 사람은 임금이 신하로 삼을 수 없으며, 아버지가 아들로 여기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舜이 남으로 향하여 서니(천자가 되니), 堯는 제후들을 거느리고 북으로 향하여 조회를 하고, 고수 역시 북으로 향하여 조회를 하였는데, 순임금은 고수를 보고 그 얼굴에 불안한 빛이 있었다고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에는 천하의 위태로움이 심하였노라.>라고 하셨으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고 제나라 동쪽의 야인의 말이니라. 堯임금이 늙으셔서 舜이 섭정을 한 것이라.『서경』요전편에 이르기를, '(舜이 섭정한 지) 28년에 방훈(요)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3년상을 치루고 온 천하는 음악을 멈추고 조용하였다.'고 했으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는 두 해가 없으며, 백성들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고 하셨으니,舜이 이미 천자가 되셨는데 또</p>

		二天子矣	천하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요임금의 3년상을 치른다면, 이는 천자가 둘이 있는 것이니라.」
686	<p>不臣堯 不以堯爲臣 使北面而朝也 詩小雅北山之篇也 普偏也 率循也 此詩今毛氏序云 役使不均 己勞於王事而不得養其父母焉 其時下文 亦云大夫不均 我從事獨賢 乃作詩者自言 天下皆王臣 何爲獨使我以賢才而勞苦乎 非謂天子可臣其父也 文字也 辭語也 逆迎也 雲漢大雅篇名也 子獨立之貌 遺脫也 言說詩之法 不可以一字而害一句之義 不可以一句而害設辭之志 當以己意 迎取作者之志 乃可得之 若但以其辭而已 則如雲漢所言 是周之民 真無遺種矣 惟以意逆之 則知作詩者之志 在於憂旱而非真無遺民也</p>	<p>09-04-02 咸丘蒙曰 舜之不臣 堯則吾既得聞命矣 詩云 普天 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 王臣 而舜既爲天子矣 敢問瞽 瞍之非臣如何 曰是詩也 非是 之謂也 勞於王事而不得養父母 也 曰此莫非王事 我獨賢勞也 故說詩者不以文害辭 不以辭害 志 以意逆志 是爲得之 如以辭 而已矣 雲漢之詩 曰周餘黎民 靡有子遺 信斯言也 是周無遺 民也</p>	<p>함구몽이 말하기를, 「순임금이 요임금을 신하로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詩經』에 이르기를, '넓은 천하가 임금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육지에서 바닷가까지 임금의 신하 아닌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舜이 이미 천자가 되었으니, 감히 문자옵건대 고수가 신하가 아니라 함은 무엇 때문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는 그런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니라. 왕의 일에 애쓰느라고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여) 다룬 것이니, 말하기를, '이는 왕의 일이 아닌 것이 없는데, 나 혼자 너무 많이 애쓴다.'고 한 것이니, 그러므로 시를 해설하는 사람은 글자로써 말을 해치지는 않고, 말로써 뜻을 해치지는 않아 자기의 뜻으로써 지은이의 뜻을 탐지하는 것이 시를 안다고 할 것이니라. 만약에 말로써 말할 뿐이라면, 운한시에 이르기를, '주나라의 남은 백성, 하나도 남김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는 주나라에는 남은 백성이이라고는 없다는 뜻이 되느니라.</p>
687	<p>言瞽瞍既爲天子之父 則當享天下之養 此舜之所以爲尊親養親之至也 豈有使之北面而朝之理乎 詩大雅下武之篇 言人能長言孝思而不忘 則可以爲天下法則也</p>	<p>09-04-03 孝子之至 莫大乎尊 親 尊親之至 莫大乎以天下養 爲天子父 尊之至也 以天下養 養之至也 詩曰永言孝思 孝思 維則 此之謂也</p>	<p>효자의 지극한 것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높이는 지극한 것은 천하를 가지고 봉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고수가)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높임은 지극하고, 천하로써 봉양하니 봉양은 지극한 것인なり라.『시경』에 이르기를, '늘 효도하기를 생각하노니, 효도할 생각을 법도로써 받드는구나.'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인なり.</p>
688	<p>書大禹謨篇也 祇敬也 載事也 夔夔齊栗 敬謹恐懼之貌 允信也 若順也 言舜敬事瞽瞍 往而見之 敬謹如此 睽瞍亦信而順之也 孟子引此而言瞽瞍不能以不善及其子 而反見化於其子 則是所謂父不得而子者 而非如咸丘蒙之說也</p>	<p>09-04-04 書曰祇載見瞽瞍 羑 夔齊栗 睽瞍亦允若 是爲父不 得而子也</p>	<p>『書經』에 이르기를, '일을 공경하여 다루고 고수를 만나는데 조심스럽고 두려운 듯이 하였는데, 고수 또한 믿고 따랐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아버가 (그를) 아들로 여기지 못한 것인なり..</p>
689	09-05 堯以天下與舜章	09-05 堯以天下與舜章	◇天子의 位는 하늘이 주는 것임을 말하고,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다. - 民意가 곧 天意임을 말하며, 民意 尊重論(존중론)을 전개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690	天下者 天下之天下 非一人之私有故也	09-05-01 萬章曰 堯以天下與舜 有諸 孟子曰否 天子不能以天下與人	만장이 묻기를, 「요임금이 천하를舜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주지는 못한다.」
691	萬章問而孟子答也	09-05-02 然則舜有天下也 熟與之乎 曰天與之	(만장이 묻기를,)「그러면舜이 천하를 가졌는데, 누가 준 것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준 것이니라.」
692	萬章問也 聰諳詳語之貌	09-05-03 天與之者 聰諳然命之乎	(만장이 묻기를,)「하늘이 주었다고 함은 소리를 내어 자세히 명령한 것입니까?」
693	行之於身 謂之行 措諸天下 謂之事 言但因舜之行事 而示以與之之意耳	09-05-04 曰否 天不言 以行與事 示之而已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舜의) 행위와政事하는 일을 가지고 그 뜻을 보여주었을 따름이니라.」
694	暴顯也 言下能薦人於上 不能令上必用之 舜爲天人所受 是因舜之行與事而示之以與之之意也	09-05-05 曰以行與事 示之者如之何 曰天子能薦人於天 不能使天 與之天下 諸侯能薦人於天子 不能使天子 與之諸侯大夫能薦人於諸侯 不能使諸侯與之大夫 昔者堯薦舜於天而天受之 暴之於民而民受之 故曰天不言 以行與事 示之而已矣	(만장이) 묻기를, 「행위와 일을 가지고 그 뜻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자는 사람을 하늘에 천거할 수는 있으나 하늘이 그에게 천하를 주도록 할 수는 없으며, 제후는 천자에게 사람을 천거할 수는 있으나 천자가 그에게 제후를 시켜주도록 할 수는 없으며,大夫는 사람을 제후에게 천거할 수는 있으나 제후가 그에게 대부를 시켜주도록 할 수는 없느니라. 옛날에 요임금이舜을 하늘에 천거하였는데 하늘이 그를 받아들였고, 그를 백성들 앞에 내놓았는데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였으니, 고로 말하기를,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행위와 정사를 가지고 그 뜻을 보여줄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695	南河在冀州之南 其南 卽豫州也 訟獄謂獄不決而訟之也	09-05-06 曰敢問薦之於天而天受之 暴之於民而民受之 如何 曰使之主祭而百神享之 是天受之 使之主事而事治 百姓安之 是民受之也 天與之人與之 故曰天子不能以天下與人 舜相堯二十有八載 非人之所能爲也 天也 堯崩 三年之喪畢 舜避堯之子於南河之南 天下諸侯朝覲者 不之堯之子而之舜 訟獄者不之堯之子而之舜 謳歌者不謳歌堯之子而謳歌舜 故曰天也夫然後之中國 践天子位焉 而	(만장이) 묻기를, 「감히 묻자옵건대, 하늘에 천거하니 하늘이 그를 받아들이고, 백성들 앞에 내놓으니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舜)를 시켜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모든 신이 그 제사를 흠향하였으니 그것은 하늘이 그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를 시켜 나랏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잘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그를 편안하게 여겼으니 그것은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하늘이 (그에게) 천하를 주었으며, 사람들이 (그에게) 천하를 주었는지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자는 천하를 남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라.舜이 요임금을 도운 지 28년이니,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하늘(의 일)인 것이다. 요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삼년상이 끝나자,舜이 요임금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남하의 남쪽으로 피하니, 천하의 제후들이 조회하되 요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居堯之宮 逼堯之子 是篡也 非天與也	않고 舜에게로 갔으며, 試하려는 사람들도 요임금의 아들에게는 가지 않고 舜에게로 갔으며, 공덕을 찬송하는 이들도 요임금의 아들을 찬송하지 않고 舜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늘이 시킨 일이라.'하는 것이니, 무릇 그런 뒤에 중국으로 가서 천자의 位에 올랐다. 그런데 요임금의 궁전에 거처하면서 요임금의 아들을 팍박하였다면, 이는 찬탈이지 하늘이 준 것이 아닐 것이라.
696	自從也 天無形 其視聽 皆從於民之視聽 民之歸舜 如此 則天與之可知矣	09-05-07 太瞽曰 天視自我民 視 天聽 自我民聽 此之謂也	태서편에 일컬기를,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듣는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이것을 일컬음이니라.]
697	09-06 至於禹而德衰章	09-06 至於禹而德衰章	◇孟子의 天命思想이 구체적으로 論評(논평)되어 있는 내용이다. - 舜과 禹는 推薦(추천)이 되어 天子가 되었고, 益은 추천은 되었으나 民心이 따르지 않아 天子가 되지 못하였다. - 孔子는 德은 있었으나 推薦(추천)이 되지 않아 天子가 되지 못하였다. - 禪讓(선양)과 繼位(계위)는 天命과 民心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同一하다.
698	陽城箕山之陰 皆嵩山下深谷中可藏處 啓禹之子也 楊氏曰 此語孟子必有所受 然不可考矣 但云天與賢則與賢 天與子則與子 可以見堯舜禹之心 皆無一毫私意也	09-06-01 萬章問曰 人有言 至 於禹而德衰 不傳於賢而傳於子 有諸 孟子曰不 不然也 天與賢 則與賢 天與子則與子 昔者舜 薦禹於天十有七年 舜崩 三年 之喪畢 禹避舜之子於陽城 天 下之民 從之 若堯崩之後 不從 堯之子而從舜也 禹薦益於天七 年 禹崩 三年之喪畢 益避禹之 子於箕山之陰 朝覲訟獄者 不 之益而之啓曰吾君之子也 謳歌 者 不謳歌益而謳歌啓曰吾君之 子也	만장이 묻기를, 「사람들 사이에 말이 있기를, '禹에 이르러 德이 쇠해져 현자에 전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늘이 현자에게 주고자하면 현자에게 주어지고, 하늘이 아들에게 주고자하면 아들에게 주어지느니라. 옛날에舜이禹를 하늘에 천거한 지 17년 만에舜이 돌아가시고, 삼년상을 마친 후에禹는舜의 아들을 피해서 양성으로 갔는데, 천하의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를 堯가 세상을 떠난 후에 堯의 아들을 따르지 않고舜을 따르는 것과 같았느니라.禹가益을 하늘에 천거한 지 7년 만에禹가 세상을 떠나고, 삼년상을 마친 후에益이禹의 아들을 피해 기산의 북쪽으로 갔는데, 조근하고 소송하는 사람들이益에게로 가지 않고 啓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였으며, 공덕을 찬송하는 이들도益을 찬송하지 않고 啓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였느니라.

699	<p>堯舜之子 皆不肖 而舜禹之爲相久 此堯舜之子所以不有天下而舜禹有天 下也 禹之子賢 而益相不久 此啓所以有天下而益不有天下也 然此皆非人力所爲而自爲 非人力所致而自至者 蓋以理言之 謂之天 自人言之 謂之命 其實則一而已</p>	<p>09-06-02 丹朱之不肖 舜之子 亦不肖 舜之相堯 禹之相舜也 歷年多 施澤於民久 啓賢能敬 承繼禹之道 益之相禹也 歷年 少 施澤於民未久 舜禹益相去 久遠 其子之賢不肖 皆天也 非 人之所能爲也 莫之爲而爲者 天也 莫之致而至者 命也</p>	<p>丹朱가 不肖하고 舜의 아들 역시 불肖하였으며, 舜이 堯를 도운 것과 �禹가 舜을 도운 것은 햇수가 많아서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준 지가 오래였고, 啓는 현명하여 禹의 道를 이을 수 있게 공경하였으며, 益이 �禹를 도운 것은 햇수가 적어서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준 지가 오래지 않으니, 舜과 禹와 益이 도운 것이 오래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고, 그 아들이 현명한가 不肖한가 하는 것은 다 하늘의 뜻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느니,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은 하늘의 뜻이요, 부르지 않았는데도 닥쳐오는 것은 운명이니라.</p>
700	<p>孟子因禹益之事 歷舉此下兩條 以推明之 言仲尼之德 雖無媿於舜禹 而無天子薦之者 故不有天下</p>	<p>09-06-03 匹夫而有天下者 德 必若舜禹而又有天子薦之者 故 仲尼不有天下</p>	<p>필부로서 천하를 차지할 자는 반드시 德이 舜과禹같아야 하고, 또 천자의 천거가 있어야 하였으니, 그러므로 공자는 천하를 얻을 수가 없었느니라.</p>
701	<p>繼世而有天下者 其先世皆有大功德於民 故必有大惡如桀紂 則天乃廢之 如啓及太甲成王 雖不及益伊尹周公之賢聖 但能嗣守先業 則天亦不廢之 故益伊尹周公 雖有舜禹之德 而亦不有天下</p>	<p>09-06-04 繼世而有天下 天之所廢 必若桀紂者也 故益伊尹 周公 不有天下</p>	<p>代를 이어서 천하를 차지함에 하늘이 폐해버리는 자는 반드시 桀과 紂같은 자이니, 그러므로 益과 伊尹과 周公이 천하를 얻지 못한 것이라.</p>
702	<p>此承上文 言伊尹不有天下之事 趙氏曰 太丁湯之大子 未立而死 外丙立二年 仲壬立四年 皆太丁弟也 太甲太丁子也 程子曰 古人謂歲爲年 湯崩時 外丙方二歲 仲壬方四歲 惟太甲差長 故立之也 二說 未知孰是 頽覆壞亂也 典刑 常法也 桐湯墓所在 艾治也 說文云 艾草也 蓋斬絕自新之意 毫商所都也</p>	<p>09-06-05 伊尹相湯 以王於天 下 湯崩 太丁未立 外丙二年 仲壬四年 太甲顛覆湯之典刑 伊尹放之於桐三年 太甲悔過 自怨自艾 於桐處仁遷義三年 以聽伊尹之訓已也 復歸于毫</p>	<p>이윤이 湯을 도와서 천하에 王 노릇을 하였는데, 湯이 세상을 떠나자 (맏아들) 태정은 位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고, (그의 아우) 외병은 位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었으며, (또 그의 아우) 중임은 位에 오른 지 4년 만에 죽었다. 태갑(태정의 아들)이 湯의 법도를 뒤집어엎거늘, 이윤이 그를 桐땅으로 내쫓아버려 3년이 되었는데, 태갑이 과오를 회개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바른 길을 닦아서, 桐땅에서 仁을 행하고 義를 따라감에 3년을 하여 이윤이 몸소 교훈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다시 毫으로 돌아갔느니라.</p>
703	<p>此復言周公所以不有天下之意</p>	<p>09-06-06 周公之不有天下 猶 益之於夏 伊尹之於殷也</p>	<p>주공이 천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益이 夏나라에서의 경우와 이윤이 은나라에서의 경우와 같았느니라.</p>

704	<p>禪受也 或禪或繼皆天命也 聖人 豈有私意於其間哉 ♥ 尹氏曰 孔子曰 唐虞禪 夏后殷周繼 其義一也 孟子曰 天與賢則與賢 天與子則與子 知前聖之心者 無如孔子 繼孔子者 孟子而已矣</p>	<p>09-06-07 孔子 唐虞禪 夏后殷 周繼 其義一也</p>	<p>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陶唐(도당: 堯)과 有虞(유우: 舜)는 禪讓(선양)하였고, 하후와 은과 주는 (그 아들이) 계승하였으니, 그 뜻은 한가지이다.'라고 하셨느니라.」</p>
705	<p>09-07 伊尹以割烹要湯章</p>	<p>09-07 伊尹以割烹要湯章</p>	<p>◇맹자께서 伊尹의 인물을 論하면서 자기를 辱되게 하여서 천하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 이윤의 인물평을 통해 맹자 자신의 인물됨과 自任한 使命을 披瀝(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706	<p>要求也 按史記 伊尹欲行道以致君而無由 乃爲有薪氏之媵臣 負鼎俎 以滋味說湯 致於王道 蓋戰國時 有爲此說者</p>	<p>09-07-01 萬章問曰 人有言 伊 尹以割烹要湯 有諸</p>	<p>만장이 묻기를, 「사람들 사이에 말이 있기를, '이윤이 요리로써 湯에게 벼슬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p>
707	<p>薪國名 樂堯舜之道者 詩其詩 讀其書 而欣慕愛樂之也 駟四匹也 介與草芥之芥 同 言其辭受取與 無大無細 一以道義而不苟也</p>	<p>09-07-02 孟子曰否 不然 伊尹 耕於有莘之野而樂堯舜之道焉 非其義也 非其道也 祿之以天 下 弗顧也 繫馬千駟 弗視也 非其義也 非其道也 一介 不以 與人 一介 不以取諸人</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으니라. 이윤이 유신의 들에서 밭을 갈며 壽·순의 도를 즐겨하여, 義가 아니고 道가 아니면 천하를 그에게 녹으로 주더라도 돌아보지 않으며, 말 4 천 필을 매어놓아도 보지 않고, 義가 아니고 道가 아니면 한 오라기의 풀도 남에게 주지 않고, 한 오라기의 풀도 남에게서 취하지 않았느니라.」</p>
708	<p>囂囂無欲自得之貌</p>	<p>09-07-03 湯使人以幣聘之 囂 囂然曰我何以湯之聘幣爲哉 我 豈若處畎畝之中 由是以樂堯舜 之道哉</p>	<p>湯이 사람을 시켜 폐백을 보내 그를 초빙하였으나 태연하게 말하기를, '내가 湯이 초빙하는 폐백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밭 가운데 살면서 그로 말미암아 壽·순의 道를 즐기는 것만 어찌 같으랴?'</p>
709	<p>幡然變動之貌 於吾身親見之言於我之身 親見其道之行 不徒誦說向慕之而已也</p>	<p>09-07-04 湯三使往聘之 既而 幡然改曰 與我處畎畝之中 由 是以樂堯舜之道 吾豈若使是君 爲堯舜之君哉 吾豈若使是民 爲堯舜之民哉 吾豈若於吾身 親見之哉</p>	<p>湯이 세 번 사람을 보내 그를 초빙하니 그제야 마음을 바꾸고서 말하기를, '내가 밭 가운데에 살면서 그로 말미암아 壽·순의 道를 즐기는 것이, 내가 이 임금으로 하여금 壽·순과 같은 임금으로 만드는 것과 어찌 같으며, 내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壽·순의 백성들과 같은 백성들로 만드는 것과 어찌 같으며, 내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보는 것과 같기야 하겠는가?'</p>

710	<p>此亦伊尹之言也 知謂識其事之所當然 覺謂悟其理之所以然 覺後知後覺 如呼寐者而使之寤也 言天使者天理當然 若使之也 程子曰 予天民之先覺 謂我乃天生此民中 盡得民道而先覺者也 既爲先覺之民 豈可不覺其未覺者 及彼之覺 亦非分我所有以予之也 皆彼自有此理 我但能覺之而已</p>	<p>09-07-05 天之生此民也 使先 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也 予 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斯道覺 斯民也 非予覺之而誰也</p>	<p>하늘이 백성들을 이 세상에 낸 것은 먼저 아는 이로 하여금 뒤에 아는 이를 일깨우게 하며, 먼저 깨달은 이로 하여금 뒤에 깨닫는 이를 일깨워주게 한 것일 게다. 나는 하늘이 낸 백성들 중의 먼저 깨달은 자일 테니, 나는 이 道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할 것이니 내가 깨닫게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p>
711	<p>書曰 昔先正保衡 作我先王 曰予弗克俾厥后爲堯舜 其心愧恥若撻于市 一夫不獲 則曰時予之辜 孟子之言 蓋取諸此 是時夏桀無道 暴虐其民 故欲使湯伐夏以救之 徐氏曰 伊尹樂堯舜之道 堯舜揖遜 而伊尹說湯以伐夏者 時之不同 義則一也</p>	<p>09-07-06 思天下之民 匹夫匹 婦 有不被堯舜之澤者 若己推 而內之溝中 其自任以天下之重 如此 故就湯而說之 以伐夏救 民</p>	<p>(그는) 생각하기를 천하의 백성을 중에 비친한 일반남녀일지라도 요·순의 은택을 입지 못한 자가 있거든 자기가 마치 그들을 도량에 밀어 넣은 것같이 여겼으니, 그가 천하의 중대한 사명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 이와 같았다. 그리하여 湯에게로 나아가 (그를) 설득하여 夏나라를 치고 백성을 구제하게 하였느니라.</p>
712	<p>辱己甚於枉己 正天下 難於正人 若伊尹 以割烹要湯 辱己甚矣 何以正天下乎 遠謂隱遁也 近謂使近君也 言聖人之行 雖不必同 然其要歸 在潔其身而已 伊尹豈肯以割烹堯湯哉</p>	<p>09-07-07 吾未聞枉己而正人者 也 況辱己以正天下者乎 聖人 之行不同也 或遠或近 或去或 不去 歸潔其身而已矣</p>	<p>나는 아직 자기를 굽히고서 남을 바르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니, 하물며 자기를 욕되게 하여 천하를 바르게 한 자가 있겠는가? 성인의 행동은 한결같지가 않다. 혹은 멀리 숨어 살고 혹은 임금의 곁에서 벼슬을 하며, 혹은 나라를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혹은 떠나버리지 않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한다는 데로 귀결될 따름이니라.</p>
713	<p>林氏曰 以堯舜之道要湯者 非實以是要之也 道在此而湯之聘自來耳 猶子貢言夫子之求之 異乎人之求之也 愚謂 此語亦猶前章所論父不得而子之意</p>	<p>09-07-08 吾聞其以堯舜之道要 湯 未聞以割烹也</p>	<p>나는 요·순의 道를 가지고 湯에게 벼슬을 구하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요리로써 벼슬을 구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느니라.</p>
714	<p>伊訓商書篇名 孟子引以證伐夏救民之事也 今書牧宮作鳴條 造載皆始也 伊尹言始攻桀無道 由我始其事於毫也</p>	<p>09-07-09 伊訓曰 天誅造攻 自 牧宮 朕載自毫</p>	<p>이훈에 이르기를, '하늘이 징벌하였거니와 공격을 받을 원인을 만든 것은 목궁으로부터이니, 내가毫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니라.'고 하였다.'</p>

715	09-08 孔子主癰疽章	09-08 孔子主癰疽章	<p>◇孔子는 出處進退(출처진퇴)에 있어서는 禮와 義에 따랐고, 苛且(구차)한 짓은 하지 않았으며, 危難(위난)한 경우를 당해도主人을 정하는데 疏忽(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언제나 사람을 가려서 상대하였다는 말씀이다. - 맹자는 공자의 品行(품행)을 통해 자신의 뜻을 辨論(변론)한 것이다.</p>
716	<p>主謂舍於其家 以之爲主人也 癰疽瘍醫也 傳人奄人也 瘡姓 環名 皆時君所近狎之人也 好事謂喜造言生事之人也</p>	<p>09-08-01 萬章問曰 或謂孔子 於衛 主癰疽 於齊主侍人瘠環 有諸乎 孟子曰 否不然也 好事 者爲之也</p>	<p>만장이 묻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공자께서 위나라에서는 옹저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고, 제나라에서는 內侍 척환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일을 잘 꾸미는 자가 그렇게 말한 것이라.</p>
717	<p>顏讐由 衛之賢大夫也 史記作顏濁鄒 彌子衛靈公幸臣彌子瑕也 徐氏曰 禮主於辭遜 故進以禮 義主於斷制 故退以義 難進而易退者也 在我者 有禮義而已 得之不得則有命存焉</p>	<p>09-08-02 於衛主顏讐由 彌子 之妻 與子路之妻 兄弟也 彌子 謂子路曰 孔子主我 衛卿可得 也 子路以告 孔子曰 有命 孔 子進以禮 退以義 得之不得 曰 有命 而主癰疽與侍人瘠環 是 無義無命也</p>	<p>위나라에서 안수유의 집에 머무르셨을 때, 미자의 처와 자로의 처는 姉妹간이었는데, 미자가 자로에게 말하기를, '공자께서 우리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신다면 위나라의 鄭자리는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자, 자로가 이를 (공자께) 고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天命이 있다.'고 하셨느니라. 공자께서는 나아가심에 예로써 하셨고, 물러나심에 義에 따라 하시며, 벼슬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을 일러, '천명이 있다.'고 하셨으니, 옹저와 내시 척환에게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면, 그것은 義도 없고 천명도 없는 일이니라.</p>
718	<p>不悅不樂居其國也 桓司馬 宋大夫向魋也 司城貞子 亦宋大夫之賢者也 陳侯名周 按史記 孔子爲魯司寇 齊人饋女樂以間之 孔子遂行 適衛月餘 去衛適宋 司馬魋欲殺孔子 孔子去至陳 主於司城貞子 孟子言孔子雖當阨難 然猶擇所主 况在齊衛無事之時 豈有主癰疽侍人之事乎</p>	<p>09-08-03 孔子不悅於魯衛 遭 宋桓司馬 將要而殺之 微服而 過宋 是時孔子當액 主司城貞 子 爲陳侯周臣</p>	<p>공자는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좋아하지 않아서 (송나라로) 가는데, 송나라의 환사마가 길 끝에서 기다리다가 죽이려고 하여 변복하시고 송나라를 지나가셨으니, 그 때에 공자께서 흉액을 당하시어 진나라 임금 周의 신하인 사성정자의 집에 머무르셨느니라.</p>
719	<p>近臣在朝之臣 遠臣遠方來仕者 君子小人 各從其類 故觀其所爲主與其所主者 而其人可知</p>	<p>09-08-04 吾聞觀近臣 以其所 爲主 觀遠臣 以其所主 若孔子 主癰疽與侍人瘠環 何以爲孔子</p>	<p>내가 들으니, 조정에 있는 신하를 (군자인가 소인인가를) 보려면 그(신하)가 주인이 되어 숙박하는 사람을 (군자인가 소인인가를) 보고, 먼 곳에서 온 신하를 (군자인가 소인인가를) 보려면 그(신하)가 숙박하는 집의 주인을 (군자인가 소인인가를) 본다고 했으니, 만약에 공자께서 옹저와 내시 척환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면 무엇을 가지고 공자라고 하겠는가?」</p>

720	09-09 百里奚自鬻於秦章	09-09 百里奚自鬻於秦章	<p>◇百里奚에 대한 世俗의 評을 打破(타파)하고, 賢者의 出處進退의 正當함을 밝힌 내용이다.</p> <p>-君子는 때가 맞으면 行하고, 때가 맞지 않으면 내버려둔다. -君子는 君主의 이름을 드러내주고 正道를 밝히되, 苟且(구차)하게 몸을 굽혀 正道를 어기는 짓은 하지 않는다.</p>
721	<p>百里奚虞之賢臣 人言其自賣於秦養牲者之家 得五羊之皮而爲之食牛 因以干秦穆公也</p>	<p>09-09-01 萬章問曰 或曰百里奚 自鬻於秦養牲者 五羊之皮食牛 以要秦穆公 信乎 孟子曰否不然 好事者爲之也</p>	<p>만장이 묻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백리해가 秦나라의 희생을 기르는 자에게 5 마리의 양가죽을 받고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 소를 먹이는 기회를 얻어 秦나라 목공에게 벼슬을 구하였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일을 조작해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그런 것이라.</p>
722	<p>虞虢皆國名 垂棘之地所出之璧也 屈產之乘 屈地所生之良馬也 乘四匹也 秦欲伐虢 道經於虞 故以此物借道 其實欲并取虞 宮之奇亦虞之賢臣 諫虞公 令勿許 虞公不用 遂爲晉所滅 百里奚知其不可諫 故不諫而去之秦</p>	<p>09-09-02 百里奚虞人也 晉人以垂棘之璧 與屈產之乘 假道於虞 以伐虢 宮之奇諫 百里奚不諫</p>	<p>백리해는 虞나라 사람인데, 晉나라 사람들이 수국에서 난 벽옥과 굴읍에서 난 말을 선사하고 虞나라에 길을 빌려虢나라를 치고자 하거늘, 궁지기는 (그에 반대를) 간하였고, 백리해는 간하지 않았느니라.</p>
723	<p>自好自愛其身之人也 孟子言百里奚之智如此 必知食牛以干主之爲汚 其賢又如此 必不肯自鬻以成其君也 然此事當孟子時 已無所據 孟子直以事理 反覆推之而知其必不然耳 ❤ 范氏曰 古之聖賢 未遇之時 鄙賤之事 不恥爲之 如百里奚爲人養牛 無足怪也 惟是人君 不致敬盡禮 則不可得而見 岂有先自污辱 以要其君哉 莊周曰 百里奚 爵祿不入於心 故飯牛而牛肥 使穆公 忘其賤而與之政 亦可謂知百里奚矣 伊尹 百里奚之事 皆聖賢出處之大節 故孟子不得不辨 尹氏曰 當時好事者之論 大率類此 蓋以其不正之心 度聖賢也</p>	<p>09-09-03 知虞公之不可諫而去之秦 年已七十矣 曾不知以食牛 干秦穆公之爲汚也 可謂智乎 不可諫而不諫 可謂不智乎 知虞公之將亡而先去之 不可謂不智也 時舉於秦 知穆公之可與有行也而相之 可謂不智乎 相秦而顯其君於天下 可傳於後世 不賢而能之乎 自鬻以成其君 鄉黨自好者不爲 而謂賢者爲之乎</p>	<p>虞公에게는 간할 수 없음을 알고 秦나라로 갔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이미 70 세였다. 그런데 소를 기르면서까지 秦의 목공에게 벼슬을 하는 것이 더러운 짓임을 몰랐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간할 수가 없어서 간하지 않았으니 지혜롭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虞公이 장차 망할 것을 알고서 먼저 떠나갔는데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 그때에 秦나라에 등용되어 목공은 함께 일할 만함을 알고서 그(목공)를 도왔으니, 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秦나라를 도와서 그 국군을 천하에 드러내어 후세에 전하게 하였으니, 현명하지 않고서야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임금에게 벼슬을 구하는 짓은 향당(시골)의 명성을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하지 않거늘, 현명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였다고 하겠는가?」</p>
724	10 萬章章句下 - 凡九章	10 萬章章句下 - 凡九章	[제 10 편. 萬章章句(만장장구) 下]

725	10-01 孔子聖之時者也章	10-01 孔子聖之時者也章	<p>◇伯夷의 潔癖(결벽), 伊尹의 使命感(사명감), 柳下惠의 寬厚(관후), 孔子의 適時性(적시성)을 論하고, 孔子야말로 세聖人의 偏頗的(편파적)인 德을 集大成한真正한 聖人임을 力說한 내용이다.</p>
726	<p>橫謂不循法度 穎者無知覺 廉者有分辯 懈柔弱也 餘並見前篇</p>	<p>10-01-01 孟子曰 伯夷 目不視惡色 耳不聽惡聲 非其君不事 非其民不使 治則進 亂則退 橫政之所出 橫民之所止 不忍居也 思與鄉人處 如以朝衣朝冠坐於塗災也 當紂之時 居北海之濱 以待天下之清也 故聞伯夷之風者 穎夫廉 懈夫有立志</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이는 눈으로는 악한 빛을 보지 않았으며, 귀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런(자기애에 맞는)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으며, 그런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아니하였다. 다스려면(벼슬에) 나아갔으며 혼란해지면 물러났다. 횡포한 정치가 나오는 곳과 횡포한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차마 살지 못하였으며, 향리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생각하기를 조복과 조관을 차리고 진흙과 속에 앉는 것같이 여기더니,紂代를 당하여 북해의 변두리에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백이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탐하는 자는 청렴해지고, 나약한 자는 뜻을 세우게 되었느니라.</p>
727	<p>何事非君 言所事卽君 何使非民 言所使卽民 無不可事之君 無不可使之民也 餘見前篇</p>	<p>10-01-02 伊尹 曰何事非君 何使非民 治亦進 亂亦進 曰天之生斯民也 使先知 覺後知 使先覺 覺後覺 予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此道 覺此民也 思天下之民 匹夫匹婦 有不與被堯舜之澤者 若己推而內之溝中 其自任以天下之重也</p>	<p>이윤이 말하기를,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으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겠는가?'하고, 다스려져도 (벼슬에) 나아갔고 혼란해도 나아가서 말하기를, '하늘이 이 백성을 세상에 낸 것은 먼저 아는 이로 하여금 뒤에 아는 이를 일깨우게 하며, 먼저 깨달은 이로 하여금 뒤에 깨닫는 이를 일깨워주게 한 것일 게다. 나는 하늘이 낸 백성들 중의 먼저 깨달은 자일 테니, 나는 이 道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라고 하며, (그는) 생각하기를 천하의 백성을 중에 비천한 일반남녀일지라도 요·순의 은택을 입지 못한 자가 있거든 자기가 마치 그들을 도량에 밀어 넣은 것같이 여겼으니, 그가 천하의 중대한 사명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니라.</p>
728	<p>鄙狹陋也 敦厚也 餘見前篇</p>	<p>10-01-03 柳下惠 不羞汗君 不辭小官 進不隱賢 必以其道 遺佚而不怨 액窮而不憫 與鄉人處 由由然不忍去也 爾爲爾 我爲我 雖袒裼裸裎於我側 爾焉能浼我哉 故聞柳下惠之風者 鄙夫寬 薄夫敦</p>	<p>유하혜는 더러운 임금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작은 벼슬을 사양하지 않았으며, (벼슬에) 나아가서는 (자기의) 현명함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그 道로써 하였으며, 버려져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곤궁해져도 근심하지 않았으며, 향리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너그럽게 대하고 차마 떠나가지 못하여,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인데, 비록 내 곁에서 팔을 드러내며 몸을 드러낸들 네가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그래서 유하혜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鄙陋(비루)한 자는 관대해지고, 輕薄(경박)한 자는 敦厚(돈후)해 졌느니라.</p>

729	<p>接猶承也 淢漬米水也 漱米將炊而欲去之速 故以手承水取米而行 不及炊也 舉此一端 以見其久速仕止 各當其可也 或曰孔子去魯 不稅冕而行 壹得爲遲 楊氏曰 孔子欲去之意久矣 不欲苟去 故遲遲其行也 腻肉不至 則得以微罪行矣 故不稅冕而行 非速也</p>	<p>10-01-04 孔子之去齊 接漬而行 去魯 曰遲遲 吾行也 去父母國之道也 可以速則速 可以久則久 可以處則處 可以仕則仕 孔子也</p>	<p>공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실 때에는 밥을 지으려고 물에 담갔던 쌀을 건져가지고 가셨는데, 노나라를 떠나실 때에는 말씀하시기를, '내 밭이 잘 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하셨으니,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도리였느니라. 속히 할만하면 속히 하며,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고, 머무를 만하면 머무르며, 벼슬을 할 만하면 벼슬을 한 것이 공자이시니라.」</p>
730	<p>張子曰 無所雜者 清之極 無所異者 和之極 勉而清 非聖人之清 勉而和 非聖人之和 所謂聖者 不勉不思而至焉者也 孔氏曰 任者 以天下爲己責也 愚謂孔子仕止久速各當其可 蓋兼三子之所以聖者而時出之 非如三子之可以一德名也 或疑伊尹出處合乎孔子而不得爲聖之時 何也 程子曰 終是任底意思在</p>	<p>10-01-05 孟子曰 伯夷 聖之清者也 伊尹 聖之任者也 柳下惠 聖之和者也 孔子 聖之時者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이는 성인으로서 결백한 사람이고, 이윤은 성인으로서 사명을 자임한 사람이고, 유하혜는 성인으로서 조화를 이룬 사람이고, 공자는 성인으로서 때를 따라 알맞게 하신 분이니라.」</p>

此言孔子集三聖之事而爲一大聖之事 猶作樂者集衆音之小成而爲一大成也 成者樂之一終 書所謂簫韶九成 是也 金鍾屬 聲宣也 如聲罪致討之聲 玉磬也 振收也 如振河海而不洩之振 始始之也 終終之也 條理猶言脈絡 指衆音而言也 智者知之所及 聖者德之所就也 蓋樂有八音 金石絲竹匏土革木 若獨奏一音 則其一音 自爲始終而爲一小成 猶三子之所知偏於一 而其所就亦偏於一也 八音之中 金石爲重 故特爲衆音之綱紀 又金始震而玉終謳然也 故並奏八音 則於其未作 而先擊鑄鐘 以宣其聲 俟其既闋而後 擊特磬 以收其韻 宣以始之 收以終之 二者之間 脈絡通貫 無所不備 則合衆小成而爲一大成 猶孔子之知無不盡而德無不全也 金聲玉振 始終條理 疑古樂經之言 故兒寬云唯天子建中和之極 兼總條貫 金聲而玉振之 亦此意也	10-01-06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始條理也 玉振之也者終條理也 始條理者 智之事也終條理者 聖之事也	공자를 일컬어 집대성하셨다고 하니, 집대성했다는 것은 금속소리에다가 옥소리를 떨쳐낸 것이라. 금속소리라는 것은 조리 있게 시작하는 것이고, 옥소리를 떨쳐낸다는 것은 조리 있게 끝맺는다는 것이니, 조리 있게 시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조리 있게 끝맺는다는 것은 聖德을 지닌 사람이 하는 일이라.
此復以射之巧力 發明聖智二字之義 見孔子 巧力俱全而聖智兼備 三子則力有餘而巧不足 是以一節 雖至於聖 而智不足以乎時中也 ❤ 此章言三子之行 各極其一偏 孔子之道 兼全於衆理 所以偏者 由其蔽於始 是以缺於終 所以全者 由其知之至 是以行之盡 三子 猶春夏秋冬之各一其時 孔子則太和元氣之流行於四時也	10-01-07 智譬則巧也 聖譬則力也 由射於百步之外也 其至爾力也 其中 非爾力也	지혜는 비유컨대 기교이고, 성덕은 비유컨대 힘이니, 백보 밖에서 활을 쏘는데, 그것(화살이)이 (목표물에) 이르는 것은 너의 힘이거니와 그것이 적중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니라. (기교이다.)
733 10-02 周室班爵祿章	10-02 周室班爵祿章	◇周 王室의 爵祿(작록)의 差等을 詳細(상세)히 설명한 내용이다. - 그러나 본 내용이 事實과 穩全(온전)히 附合(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
734 北宮姓 鑄名 衛人 班列也	10-02-01 北宮鎬問曰 周室班	복궁기가 묻기를, 「주나라의 벼슬과 녹봉의 등급은 어떠했습니까?」

		爵祿也 如之何	
735	當時諸侯兼并僭竊 故惡周制妨害己之所爲也	10-02-02 孟子曰 其詳不可得而聞也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然而軻也嘗聞其略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세한 것은 듣지 못하였도다. 제후들이 그 제도가 자기들을 해칠까 두려워하여 그 典籍을 모두 없애버렸는데, 그럼에도 나는 일찍이 그 大略을 들은 일이 있도다. 천자가 한 자리요, 공이 한 등급이요, 후가 한 등급이요, 백이 한 등급이요, 자와 남이 같이 한 등급이니, 무릇 5 등급이니라.」
736	此班爵之制也 五等通於天下 六等施於國中	10-02-03 天子一位 公一位 侯一位 伯一位 子男同一位 凡五等也 君一位 卿一位 大夫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凡六等	國君이 한 등급이요, 경이 한 등급이요, 대부가 한 등급이요, 상사가 한 등급이요, 중사가 한 등급이요, 하사가 한 등급이니, 무릇 6 등급이니라.
737	此以下 班祿之制也 不能猶不足也 小國之地 不足五十里者 不能自達於天子 因大國以姓名通謂之府庸 若春秋邾儀父之類是也	10-02-04 天子之制 地方千里 公侯 皆方百里伯 七十里 子男五十里 凡四等 不能五十里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	천자가 제어하는 땅은 사방이 천리요, 공과 후는 모두 사방 백리요, 백은 사방 70 리이고, 자와 남은 사방 50 리 이니, 무릇 4 등급이니라. 50 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천자에게 연계를 짓지 못하여 제후에게 부속되느니, 이를 부용이라고 하느니라.
738	視比也 徐氏曰 王畿之內 亦制都鄙受地也 元士上士也	10-02-05 天子之卿 受地視侯 大夫 受地視伯 元士 受地視子男	천자의 경은 후와 대등하게 땅을 받고, 대부는 백과 대등하게 땅을 받고, 원사(상사)는 자와 남과 대등하게 땅을 받았느니라.
739	七十倍之也 四四倍之也 倍加一倍也 徐氏曰 大國君田三萬二千畝 其入可食二千八百八十人 卿田三千二百畝 可食二百八十八人 大夫田八百畝 可食七十二人 上士田四百畝 可食三十六人 中士田二百畝 可食十八人 下士與庶人在官者田 百畝 可食九人至五人 庶人在官 府史胥徒也 愚按 君以下所食之祿皆助法之公田 藉農夫之力以耕而收其租 士之無田與庶人在官者則但受祿於官 如田之入而已	10-02-06 大國地方百里 君十 卿祿 卿祿 四大夫 大夫 倍上 士 上士 倍中士 中士 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 同祿 祿足以代其耕也	大國은 땅이 사방 백리이니, 國君은 경의 녹의 10 배요, 경의 녹은 대부의 4 배요, 대부는 상사의 배요, 상사는 중사의 배요, 중사는 하사의 배요, 하사와 평민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녹이 같았으니, 그 녹은 그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족하였느니라.
740	三謂三倍之也 徐氏曰 次國君田 二萬四千畝 可食二千一百六十人	10-02-07 次國地方七十里 君	그 다음의 나라는 땅이 사방 70 리 이니, 國君은 경의 녹의 10 배요, 경의 녹은 대부의 3 배요, 대부는 상사의 배요, 상사는 중사의

	740	卿田 二千四百畝 可食二百十六人	十卿祿 卿祿 三大夫 大夫 倍 上士 上士 倍中士 中士 倍下士 下士 與庶人在官者 同祿 祿足以代其耕也	배요, 중사는 하사의 배요, 하사와 평민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녹이 같았으니, 그 녹은 그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족하였느니라.
	741	二卽倍也 徐氏曰 小國君田一萬六千畝 可食千四百四十人 卿田一千六百畝 可食百四十四人	10-02-08 小國地方五十里 君 十卿祿 卿祿 二大夫 大夫 倍 上士上士 倍中士 中士 倍下士 下士 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小國은 사방 50 리 이니, 國君은 경의 녹의 10 배요, 경의 녹은 대부의 2 배요, 대부는 상사의 배요, 상사는 중사의 배요, 중사는 하사의 배요, 하사와 평민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녹이 같았으니, 그 녹은 그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족하였느니라.
	742	獲得也 一夫一妻 佃田百畝 加之以糞 糞多而力勤者 爲上農 其所收可供九人 其次用力不齊 故有此五等 庶人在官者 其受祿不同 亦有此五等也 ♥ 愚按此章之說 與周禮王制不同 蓋不可考 闕之可也 程子曰 孟子之時 去先王未遠 載籍未經秦火 然而班爵祿之制 已不聞其詳 今之禮書 皆掇拾於煨燼之餘 而多出於漢儒一時之傳會 奈何欲盡信而句爲之解乎 然則其事 固不可一二追復矣	10-02-09 耕者之所獲 一夫百畝 百畝之糞 上農夫 食九人 上次 食八人 中食七人 中次 食六人 下食五人 庶人在官者 其祿 以是爲差	농사짓는 사람의 소득은 한 男丁이 일백 무이니, 백무에 거름을 하고 농사를 지음에, 上농부는 9 인을 먹이고, 그 다음 농부는 8 인을 먹이고, 中농부는 7 인을 먹이고, 그 다음은 6 인을 먹이고, 下농부는 5 인을 먹였으니, 평민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그 녹이 이로써(농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듯) 차이가 있었느니라.」
	743	10-03 敢問友章	10-03 敢問友章	◇真正한 交友의 道를 論述한 내용이다. - 交友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서로 간에 德을 존중하는 것이 重要하고, 富貴나 權勢(권세) 등을 介在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씀이다.
	744	挾者兼有而恃之之稱	10-03-01 萬章 問曰 敢問友 孟子曰 不挾長 不挾貴 不挾兄弟而友 友也者 友其德也 不可以有挾也	만장이 묻기를, 「감히 벗 사귀는 道를 여쭈어보겠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이 많은 것을 介在시키지 말며, 신분이 귀한 것을 개재시키지 말며, 형제의 힘을 개재시키지 말고 사귀어야 할 것이다.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의 덕을 사귀는 것이니, 개재시키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745	<p>孟獻子魯之賢大夫仲孫蔑也 張子曰 獻子忘其勢 五人者忘人之勢 不資其勢而利其有然後 能忘人之勢 若五人者有獻子之家 則反爲獻子之所賤矣</p>	<p>10-03-02 孟獻子 百乘之家也 有友五人焉 樂正裘 牧仲 其三 人則予忘之矣 獻子之與此五人 者 友也 無獻子之家者也 此五 人者 亦有獻子之家 則不與之 友矣</p>	<p>맹현자는 백승의 大家의 사람이었는지라 벗이 5인이 있었는데, 악정구와 목중이요, 그 외 3인은 내가 잊어버렸도다. 현자가 이 5인과 더불어 벗을 함께 현자는 집안(부귀함)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이 5인도 역시 현자의 집안에 마음이 있었다면 그(현자)와는 벗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p>
746	<p>惠公費邑之君也 師所尊也 友所敬也 事我者所使也</p>	<p>10-03-03 非惟百乘之家爲然也 雖小國之君 亦有之 費惠公 曰 吾於子思則師之矣 吾於顏般則 友之矣 王順長息則事我者也</p>	<p>오직 百乘의 집안(大夫)만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작은 나라의 國君일지라도 또한 그러한 예가 있으니, 비 혜공이 말하기를, '나는 자사에 대하여는 스승으로 존경하고, 나는 안반에 대하여는 벗으로 사귀고, 왕순과 장식은 나를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였느니라.</p>
747	<p>亥唐晉賢人也 平公造之 唐言入 公乃入 言坐乃坐 言食乃食也 疎食糲飯也 不敢不飽 敬賢者之命也 ♥ 范氏曰 位日天位 職日天職 祿日天祿 言天所以待賢人 使治天民 非人君所得專者也</p>	<p>10-03-04 非惟小國之君 爲然 也 雖大國之君 亦有之 晉平公 之於亥唐也 入云則入 坐云則 坐 食云則食 雖疏食菜羹 未嘗 不飽 蓋不敢不飽也 然終於此 而已矣 弗與共天位也 弗與治 天職也 弗與食天祿也 士之尊 賢者也 非王公之尊賢也</p>	<p>오직 작은 나라의 國君만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큰 나라의 國君일지라도 또한 그렇게 한 예가 있으니, 晉나라 평공은 해당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먹으라고 하면 먹어서 비록 거친 밥과 야채국 일지라도 배불리 먹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어찌 감히 배부르게 먹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거기서 끝났을 때로이었으니, 하늘이 준 지위를 함께 나누어가지지 않았고, 하늘이 준 직분을 함께 나누어다스리지도 않았으며, 하늘이 준 뜻을 함께 나누어먹지도 않았으니, 그것은 선비가 현자를 존경한 것이었지 임금으로서 현자를 존경한 것은 아니었느니라.</p>
748	<p>尚上也 舜上而見於帝堯也 館舍也 禮妻父曰外舅 謂我舅者 吾謂之甥 堯二女妻舜 故謂之甥 貳室副宮也 堯舍舜於副宮而就饗其食</p>	<p>10-03-05 舜尚見帝 帝館甥于 貳室 亦饗舜 迭爲賓主 是天子 而友匹夫也</p>	<p>舜이 堯임금을 올라가 뵈었는데, 요임금은 사위를 副宮에다 머물리 있게 하고, 또한 舜에게 향연을 베풀고, 번갈아가며 손님과 주인이 되었으니, 그것은 천자이면서 필부를 벗으로 사귄 것이라.</p>
749	<p>貴貴尊賢皆事之宜者 然當時 但知貴貴而不知尊賢 故孟子曰 其義一也 ♥ 此言朋友人倫之一 所以輔仁 故以天子友匹夫而不爲詘 以匹夫友天子而不爲僭 此堯舜所以爲人倫之至而孟子言必稱 之也</p>	<p>10-03-06 用下敬上 謂之貴貴 用上敬下 謂之尊賢 貴貴尊賢 其義一也</p>	<p>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貴貴라 하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尊賢이라 하니, 貴貴와 尊賢은 그 意義는 같은 것이라.」</p>

750	10-04 敢問交際何心也章	10-04 敢問交際何心也章	<p>◇諸侯와 같은 尊貴한 사람이 正當한 방법으로 禮를 갖춰 幣帛을 내릴 경우에는 그 보내온 물건의 出處(출처)를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다. - 尊貴한地位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 孔子같은 聖人은 백성을 근심하고, 자기의 道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辭命(사명)이 있으면 벼슬에 나아가되, 맞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고, 또 오래 머물러있지도 않는다는 것이다.</p>
751	際接也 交際謂人以禮儀幣帛 相交接也	10-04-01 萬章 問曰 敢問交際 何心也 孟子曰恭也	만장이 묻기를, 「감히 물자옵건대 교제를 하는 것은 무슨 마음에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752	卻不受而還之也 再言之未詳 萬章疑交際之間 有所卻者 人便以爲不恭 何哉 孟子言尊者之賜 而心竊計其所以得此物者未知合義與 否 必其合義然後 可受 不然則卻之矣 所以卻之爲不恭也	10-04-02 曰却之 却之爲不恭 何哉 曰尊者賜之 曰其所取之 者義乎 不義乎 而後受之 以是 爲不恭 故弗却也	(만장이) 말하기를, 「그런 것(예물)을 돌려보내는 것을 불공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존귀한 사람이 내려준 것에 대해, '그것을 취하는 것이 義로운가? 義롭지 않은가?'를 따져본 뒤에 받는다면 그것은 불공한 것이니, 그래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니라.」
753	萬章以爲彼旣得之不義 則其餽不可受 但無以言辭間而卻之 直以心度其不義 而託於他辭以卻之 如此可否邪 交以道 如饋餧 聞戒 周其飢餓之類 接以禮 謂辭命恭敬之節 孔子受之 如受陽貨蒸豚之類也	10-04-03 曰請無以辭却之 以 心却之曰 其取諸民之不義也 而以他辭 無受 不可乎 曰其交 也以道 其接也以禮 斯孔子受 之矣	(만장이) 말하기를, 「청컨대 말로써 거절하지 말고 마음으로 거절하여 말하되, '그가 백성들에게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여 받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귀는 것을 道로써 하고 그 接對를 禮로써 하면, 그런 경우에는 공자께서도 받으셨느니라.」
754	禦止也 止人而殺之 且奪其貨也 國門之外 無人之處也 萬章以爲苟不問其物之所從來 而但觀其交接之禮 則設有禦人者用其御得之貨 以禮餽我 則可受之乎 康誥周書篇名 越顛越也 今書閔作暨 無凡民二字 譏怨也 言殺人而顛越之 因取其貨 閔然不知畏死 凡民無不怨之 孟子言 此乃不待教戒而當卽誅者也 如何而可受之乎 商受至爲烈十四字 語意不倫 李氏以爲此必有斷簡或闕文者 近之 而愚意其直爲衍字耳 然不可考 姑闕之可也	10-04-04 萬章曰 今有禦人於 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脩 也以禮 斯可受禦與 曰不可 康 誥 曰殺越人于貨 閔不畏死 凡 民 囂不譏 是不待教而誅者也 殷受夏 周受殷 所不辭也 於今 爲烈 如之何其受之	만장이 말하기를, 「이제 國門밖에서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멈춰 그 재물을 빼앗은 자가 交遊함을 道로써 하고, 보내주는데 禮로써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빼앗은 것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되느니라. (『書經』강고에 이르기를, '재물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길가에 버려두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가 없다.'고 했으니, 이는 군왕의 教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죽여 버릴 일이니, (그러한 法을) 은나라는 하나나라에서 물려받았고, 주나라는 은나라에서 물려받았으나 그만 두지 않고 지금에 와서도 그 법은 뚜렷이 살아있으니, 어찌 그런 물건을 받을 수 있겠는가?」

<p>比連也 言今諸侯之取於民 固多不義 然有王者起 必不連合而盡誅之 必教之不改而後 誅之 則其與禦人之盜不待教而誅者 不同矣 夫禦人於國門之外 與非其有而取之 二者固皆不義之類 然必禦人 乃爲眞盜 其謂非有而取爲盜者 乃推其類 至於義之至精至密之處而極言之耳 非便以爲眞盜也 然則今之諸侯雖曰取非其有 而豈可遽以同於人之盜也哉 又引孔子之事 以明世俗所尚 猶或可從 况受其賜何爲不可乎 獵較未詳 趙氏以爲田獵相較 奪禽獸以祭 孔子不違 所以小同於俗也 張氏以爲獵而較所獲之多少也 二說未知孰是</p>	<p>10-04-05 曰今之諸侯取之於民 也 猶禦也 苛善其禮際矣 斯君 子 受之 敢問何說也 曰子以爲 有王者作 將比今之諸侯而誅之 乎 其教之不改而後 誅之乎 夫 謂非其有而取之者 盗也 充類 至義之盡也 孔子之仕於魯也 魯人 獵較 孔子亦獵較 獵較 猶可而況受其賜乎</p>	<p>(만장이) 말하기를, 「지금의 제후들이 백성에게서 재물을 취하는 것이 사람을 멈추고 빼앗는 것과 같은데, 다만 그가 禮로써 교역을 잘하기만 하면, 그런 경우에는 군자도 그런 것을 받을 것이라 하니, 감히 문자옵건대 무슨 말씀(이유)이십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 생각에는 王者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의 제후들을 모조리 죽이겠나? 그들을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뒤에 죽이겠나? 무릇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자를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義의 극단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니라. 공자께서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실 때에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시합을 하거늘, 공자께서도 역시 사냥시합을 하셨으니, 사냥시합조차 괜찮거늘 그 내려주는 것을 받는 거야 어떻겠는가?」</p>
<p>此因孔子事而反覆辯論也 事道者 以行道爲事也 事道奚獵較也 萬章問也 先簿正祭器未詳 徐氏曰 先以簿書 正其祭器 使有定數而不以四方難繼之物實之 夫器有常數 實有常品 則其本正矣 彼獵較者將久而自廢矣 未知是否也 兆猶卜之兆 盖事之端也 孔子所以不去者 亦欲小試行道之端 以示於人 使知吾道之果可行也 若其端既可行 而人不能遂行之然後 不得已而必去之 蓋其去雖不輕 而亦未嘗不決 是以未嘗終三年留於一國也</p>	<p>10-04-06 曰然則孔子之仕也 非事道與 曰事道也 事道 奚獵 較也 曰孔子先簿正祭器 不以 四方之食 供簿正 曰奚不去也 曰爲之兆也 兆足以行矣而不行 而後 去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 也</p>	<p>(만장이) 말하기를, 「그러시다면 공자께서 벼슬하신 것은 道를 행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道를 행하고자 하심이었느니라.」 (만장이 말하기를,) 「道를 행하고자 하셨다면 어찌 사냥시합을 하셨을까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는 먼저 臺帳(대장)을 정리하여 祭器를 바로 살펴놓으셨다. 사방의 (珍奇한) 식품으로는 臺帳에 바로 잡아놓으신 제기에 올리지 않으신 것이니라.」 (만장이) 말하기를, 「(공자께서) 왜 그만두어버리지 않으신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다스릴) 징조를 마련하신 것이니, (道가) 행해질 징조가 족함에도 행해지지 않은 뒤에 떠나가신 것이니, 그래서 일찍이 한 나라에서 3년이 지날 때까지 머무르신 일이 없으셨느니라.」</p>

757	<p>見行可 見其道之可行也 際可接遇以禮也 公養國君養賢之禮也 季桓子 魯卿季孫斯也 衛靈公衛侯元也 孝公春秋史記皆無之 疑出公輒也 因孔子仕魯而言其仕有此三者 故於魯則兆足以行矣而不行然後去 而於衛之事 則又受其交際問餽而不卻之一驗也 ♥ 尹氏曰 不聞孟子之義 則自好者爲於陵仲子而已 聖賢辭受進退 惟義所在 愚按此章文義 多不可曉 不必強爲之說</p>	10-04-07 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隙可之仕 有公養之仕 於季桓子 見行可之仕也 於衛靈公 際可之仕也 於衛孝公 公養之仕也	<p>공자께서는 (道가) 행해질 수 있으면 벼슬을 하셨고, (禮로써) 接對함이 있으면 벼슬을 하셨으며, (賢者를) 길러줌이 있으면 벼슬을 하셨으니, 계환자에게서는 (道가) 행해질 수 있음을 보시어 벼슬살이를 하셨고, 위 영공에게서는 (禮로써) 接對함이 있음을 보시어 벼슬살이를 하셨으며, 위 효공에게서는 (賢者를) 길러줌이 있음을 보시고 벼슬살이를 하신 것이라.」</p>
758	10-05 仕非爲貧也章	10-05 仕非爲貧也章	<p>◇가난을 이기기 위한 벼슬살이라면 낮은 지위에서 봉祿만 받으면 그만이고, 經世濟民에 뜻을 두고 벼슬에 나아갔으면 正道가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p>
759	<p>仕本爲行道 而亦有家貧親老 或道與時違而但爲祿仕者 如娶妻本爲繼嗣 而亦有爲不能親操井臼而欲資其餽養者</p>	10-05-01 孟子曰 仕非爲貧也 而有時乎爲貧 娶妻非爲養也 而有時乎爲養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벼슬하는 것이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고, 아내를 맞는 것이奉養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봉양을 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느니라.」</p>
760	<p>貧富謂祿之厚薄 蓋仕不爲道 已非出處之正 故其所居但當如此</p>	10-05-02 爲貧者 辭尊居卑 辭富居貧	<p>가난을 이기기 위한 자는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며, 富를 사양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니라.</p>
761	<p>柝夜行所擊木也 蓋爲貧者 雖不主於行道 而亦不可以苟祿 故惟抱關擊柝之吏位卑祿薄 其職易稱 爲所宜居也 李氏曰 道不行矣 爲貧而仕者 此其律令也 若不能然 則是貪位慕祿而已矣</p>	10-05-03 辭尊居卑 辭富居貧 惡乎宜乎 抱關擊柝	<p>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며, 富를 사양하고 가난하게 살려면 어떤 자리가 마땅할 것인가? 문자기나 야경꾼일 것이라.</p>
762	<p>此孔子之爲貧而仕者也 委吏主委積之吏也 乘田主苑囿芻牧之吏也 苑肥貌 言以孔子大聖 而嘗爲賤官 不以爲辱者 所謂爲貧而仕 官卑祿薄而職易稱也</p>	10-05-04 孔子嘗爲委吏矣 曰 會計當而已矣 嘗爲乘田矣 曰 牛羊 苑壯長而已矣	<p>공자께서는 일찍이 委吏가 되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물건을 출납하는) 회계를 분명히 할 뿐이다.'라고 하셨고, 일찍이 乘田이 되셨을 때는 말씀하시기를, '소와 양을 살찌게 하고 힘차게 자라게 할 따름이다.'라고 하셨느니라.</p>

763	<p>以出位爲罪 則無行道之責 以廢道爲恥 則非竊祿之官 此爲貧者之所以必辭尊富而寧處貧賤也 ♥ 尹氏曰 言爲貧者 不可以居尊居尊者 必欲以行道</p>	<p>10-05-05 位卑而言高 罪也 立乎人之本朝而道不行恥也</p>	<p>지위가 낮으면서 국가의 큰政사를 논하는 것은 죄가 되고, 國君의 조정에서 벼슬을 하면서 道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p>
764	<p>10-06 士之不託諸侯章</p>	<p>10-06 士之不託諸侯章</p>	<p>◇賢者를 尊敬(존경)하고 君子를 기르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 賢者를 알아주는 방법으로는 그를 登用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를 扶養(부양)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p>
765	<p>託寄也 謂不仕而食其祿也 古者諸侯出奔他國 食其廩餼 謂之寄公 士無爵土 不得比諸侯 不仕而食祿 則非禮也</p>	<p>10-06-01 萬章曰 士之不託諸侯何也 孟子曰 不敢也 諸侯失國而後 託於諸侯禮也 士之託於諸侯 非禮也</p>	<p>만장이 묻기를, 「士(선비)가 제후에게 의탁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감히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 제후가 (자기) 나라를 잃은 후에 (다른)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은 禮이나, 士가 (다른)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은 禮가 아니나라.」</p>
766	<p>周救也 視其空乏 則周卽之 無常數 君待民之禮也</p>	<p>10-06-02 萬章曰 君餽之粟則受之乎 曰受之 受之何義也 曰 君之於氓也 固周之</p>	<p>만장이 묻기를, 「임금이 곡식을 주면 그것을 받아야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받아야하느니라.」 (만장이 묻기를,) 「그것을 받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國君은 본래 백성을 구제해주게 되어있느니라.」</p>
767	<p>賜謂予之祿 有常數 君所以待臣之禮也</p>	<p>10-06-03 曰周之則受 賦之則不受 何也 曰不敢也 曰 敢問 其不敢 何也 曰抱關擊柝者 皆 有常職 以食於上 無常職而賜 於上者 以爲不恭也</p>	<p>(만장이) 묻기를, 「구제해준다면 받고, 하사한다면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라.」 (만장이) 묻기를, 「감히 묻자옵건대, 감히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지기와 야경꾼은 모두 일정한 직분이 있어 國君의 祿俸을 받지마는, 일정한 직분이 없는데도 國君의 下賜를 받는 것은 불공하기 때문이니라.」</p>
768	<p>亟數也 鼎肉熟肉也 卒末也 摆麾也 數以君命來餽 當拜受之 非養賢之禮 故不悅而於其末後復來饋時 麾使者出 拜而辭之 犬馬畜伋 言不以人禮待己也 臺賤官 主使令者 蓋繆公愧悟 自此不復令臺來致餽也 舉用也 能養者未必能用 况又不能養乎</p>	<p>10-06-04 曰君餽之則受之 不識 可常繼乎 曰 繆公之於子思也 亟問 亟餽鼎肉 子思不悅於卒也 摆使者 出諸大門之外 北面稽首再拜 而不受曰 今而後 知君之犬馬畜伋 盖自是 臺無餽也 悅賢不能舉 又不能養也 可謂悅賢乎</p>	<p>(만장이) 묻기를, 「國君이 보내주면 받는다 하시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늘 계속해서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목공은 자사에게 자주 안부를 묻고 자주 요리에 쓸 고기를 보냈으나, 자사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마침내는 심부름 온 자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고, 북면하여 머리 숙여 재배하고 받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제야 비로소 國君이 나를 개나 말 기르듯이 대한다는 것을 알았노라.'라고 하니, 대체로 그 이후로 심부름을 하는 자가 오지 않았다고 하니, 賢者를 좋아하면서 등용하지 않고, 또 (그를) 기르지 못하면 賢者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p>

769	<p>初以君命來餽 則當拜受 其後 有司各以其職 繼續所無 不以君命來餽 不使賢者有亟拜之勞也 僕僕煩猥貌</p>	<p>10-06-05 曰敢問國君 欲養君子如何 斯可謂養矣 曰 以君命將之 再拜稽首而受 其後廩人 繼粟 庖人 繼肉 不以君命將之 子思以爲鼎肉 使己僕僕爾亟拜也 非養君子之道也</p>	<p>(만장이) 묻기를, 「감히 물자옵건대, 國君이 군자를 기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의 명으로서 줄 때에는 재배하고 머리를 숙여 받았는데, 그 뒤에는 창고지기가 곡식을 계속해서 주고, 푸줏간 담당자가 고기를 계속해서 보내되, 임금의 명으로서 보내지 않아, 자사는 고기가 자기를 죄송하고 번거롭게 자주 절하게 하는지라, (그것은) 군자를 기르는 道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니라.</p>
770	<p>能養 能舉 悅賢之至也 唯堯舜 爲能盡之 而後世之所當法也</p>	<p>10-06-06 堯之於舜也 使其子九男 事之 二女 女焉 百官牛羊倉廩備 以養舜於畎畝之中 後舉而加諸上位 故曰王公之尊賢者也</p>	<p>요임금이 舜에게 그의 아들 9人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며, 두 딸로 아내를 삼게 하고 백관과 소와 양과 창고를 마련하여 舜을 밭 가운데에서 기르게 하더니, 뒤에 (그를) 등용하여서 그에게 윗자리를 주었으니, 그리하여 말하기를, '왕공이 현자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니라.'</p>
771	<p>10-07 往見不義也章</p>	<p>10-07 往見不義也章</p>	<p>◇맹자께서 자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부르지 않는 한 결코 제후들을 만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내용이다. -君子의 뜻은 道를 行하는데 있기는 하지만, 합당한 禮를 얻지 못하면 역시 苛且스럽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p>
772	<p>傳通也 質者士執雉 庶人執鷺 相見以自通者也 國內莫非君臣 但未仕者 與執賚在位之臣 不同 故不敢見也</p>	<p>10-07-01 萬章曰 敢問不見諸侯 何義也 孟子 曰在國曰市井之臣 在野曰草莽之臣 皆謂庶人 庶人不傳質爲臣 不敢見於諸侯禮也</p>	<p>만장이 묻기를, 「감히 물자옵건대, 제후를 만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에 있으면 시정자신이라고 하고, 초야에 있으면 초망자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른인이라고 부르는데, 서인은 폐백을 전달하여 신하가 되지 않는 한, 감히 제후를 만나지 않는 것이 禮이니라.」</p>
773	<p>往役者庶人之職 不往見者 士之禮</p>	<p>10-07-02 萬章曰 庶人召之役則往役 君欲見之 召之則不往見之何也 曰往役義也 往見不義也</p>	<p>만장이 묻기를, 「서인은 賦役(부역)에 부르면 가서役事を 하는데, 임금이 그를 만나고 싶어서 그를 불러도 가서 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役사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가서 만나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니라.</p>

774	孟子引子思之言而釋之 以明不可召之意	<p>10-07-03 且君之欲見之也 何爲也哉 曰爲其多聞也 爲其賢也 曰爲其多聞也 則天子 不召師 而況諸侯乎 爲其賢也 則吾未聞欲見賢而召之也 繆公 亟見於子思曰 古千乘之國 以友士 何如 子思不悅曰 古之人有言曰 事之云乎 豈曰友之云乎 子思之不悅也 豈不曰以位則子君也 我臣也 何敢與君友也 以德則子事我者也 奚可以與我友 千乘之君 求與之友而不可得也 而況可召與</p>	<p>또 임금이 그를 만나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만장이) 말하기를, 「그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고, 그가 賢者이기 때문입니다.」(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면 천자도 스승을 부르지 않거늘 하물며 제후이랴? 그가 현자이기 때문이라면 나는 아직 현자를 보고자 그를 불러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느니라. 목공이 자주 자사를 만나보고 말하기를, '옛날에 천승의 나라 (임금이) 士와 벗하였으니,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자사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옛 사람의 말에 그(선비)를 섬긴다고 할지언정 어찌 그와 벗한다고 하리오.'하였으니, 자사가 기뻐하지 않은 것은 '자위로 말하면 임금이요, 나는 신하이니, 어찌 감히 임금과 벗을 할 것이며, 德으로 말하면 그대(임금)는 나를 (스승으로) 섬겨야할 자이니, 어찌 나와 더불어 벗할 수가 있으리오.'라고 어찌 말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천승의 나라 임금이 그(선비)와 더불어 벗하기를 구하되 그럴 수 없거늘, 하물며 불러서 볼 수야 있겠는가?</p>
775	說見前篇	<p>10-07-04 齊景公田 招虞人以旌 不至 將殺之志士 不忘在溝壑 勇士 不忘喪其元 孔子 奚取焉 取非其招不往也</p>	<p>제나라 경공이 사냥을 할 때,虞人(원유지기)을 旌으로 (신호를 하여) 부르는데 오지 않거늘, 그를 죽이려하였느니라. '志士는 개천과 구덩이에 (죽여) 던져져 있는 것을 잊지 않고,勇士는 그 머리를 잊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공자께서는 어떤 것을 취하셨겠는가? 그 부름이 禮가 아니므로 가지 않는 것을 취하신 것이라.</p>
776	<p>皮冠田獵之冠也 事見春秋傳 然則皮冠者 虞人之所有事也 故以是招之 庶人未仕之臣 通帛曰旆 土謂已仕者 交龍爲旆 析羽而注於旆干之首曰旌</p>	<p>10-07-05 曰敢問招虞人何以 曰以皮冠 庶人以旆 士旛 大夫 以旌</p>	<p>(만장이) 말하기를, 「감히 묻자옵건대,虞人은 무엇으로써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皮冠으로써 하는 것이니,庶人은 旆(전)으로써 하고, 士는 旛(기)로써 하며,大夫는 旌(정)으로써 부르느니라.</p>
777	<p>欲見而召之 是不賢人之招也 以士之招 招庶人 則不敢往 以不賢人之招 招賢人 則不可往矣</p>	<p>10-07-06 以大夫之招 招虞人 虞人死不敢往 以士之招 招庶人 庶人 豈敢往哉 況乎以不賢人之招 招賢人乎</p>	<p>大夫를 부르는 것으로써虞人을 부르거늘, 우인은 죽어도 감히 가지 않았으니, 士를 부르는 것으로庶人을 부르면 서인이 어찌 감히 갈 수 있으리오. 하물며 賢者가 아닌 자를 부르는 것으로써 賢者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p>

778	<p>詩小雅大東之篇 底與砥同 磺石也 言其平也 矢言其直也 視視以爲法也 引此 以證上文能由是路之義</p>	<p>10-07-07 欲見賢人而不以其道 猶欲其入而閉之門也 夫義路也 禮門也 惟君子 能由是路 出入 是門也 詩云 周道如底 其直如 矢 君子所履 小人所視</p>	<p>賢者를 보고자하면서 그 道가 아닌 것으로써 하는(부르는) 것은 마치 그가 들려오게 하려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으니라. 무릇 義는 길이고 禮는 門이니, 오직 군자만이 그(義로운) 길로 經由할 수가 있으면 그(禮의) 문으로 출입할 수가 있으니, 『詩經』에 이르기를, '周나라의 길은 솟돌같으니 그 곳기는 화살과 같다. 군자가 밟는 길이고 소인이 보는 바(법칙)이니라.'라고 하였느니라.</p>
779	<p>孔子方仕而任職 君以其官名召之 故不俟駕而行 徐氏曰 孔子孟子易地則皆然 ♥ 此章 言不見諸侯之義 最爲詳悉 更合陳代 公孫丑所問者而觀之 其說乃盡</p>	<p>10-07-08 萬章曰 孔子君命召 不俟駕而行 然則 孔子非與 曰 孔子 當仕有官職而以其官 召 之也</p>	<p>(만장이) 말하기를, 「공자께서는 國君이命으로 부르시면 車馬의 준비를 기다리지 않고서 출발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자께서는 잘못한 것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는 당시에 벼슬을 하고 있어, (國君이) 그 관직으로써 그(공자)를 불렀느니라.」)</p>
780	<p>10-08 是尚友也章</p>	<p>10-08 是尚友也章</p>	<p>◇偉大한 聖賢을 崇尚하여 그와 정신적인交友를 하는데 있어, 그들의 詩와 書를 誦讀하여 그들의 진실 됨을 把握하게 된다는 말씀. - 나아가서 그들이 處해 있던 時代의 世態를 論究하여 그들을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다.</p>
781	<p>言己之善 蓋於一鄉然後 能盡友一鄉之善士 推而至於一國天下 皆然 隨其高下 以爲廣狹也</p>	<p>10-08-01 孟子謂萬章曰 一鄉 之善士 斯友一鄉之善士 一國 之善士 斯友一國之善士 天下 之善士 斯友天下之善士</p>	<p>맹자께서 만장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한 시골의 착한 선비라야 곧 한 시골의 착한 선비를 벗하고, 한 나라의 착한 선비라야 곧 한 나라의 착한 선비를 벗하며, 천하의 착한 선비라야 곧 천하의 착한 선비를 벗하느니라.</p>
782	<p>尚上同 言進而上也 頌誦通 論其世 論其當世行事之迹也 言既觀其言 則不可以不知其爲人之實 是以又考其行也 夫能友天下之善士 其所友衆矣 猶以爲未足 又進而取於古人 是能進其取友之道而非止爲一世之士 矣</p>	<p>10-08-02 以友天下之善士 爲 未足 又尚論古之人 頌其詩 讀 其書 不知其人 可乎 是以 論 其世也 是尚友也</p>	<p>천하의 착한 선비를 벗하는 것으로써는 만족하지 못한다 하여, 또 옛 사람을 송상하여 논하게 되느니, 그(옛 사람)의 시를 낭송하고 그의 책을 읽고서도 그의 사람됨을 모른대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의 세대를 논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곧 그를 송상하여 벗하게 되는 것이니라.」</p>
783	<p>10-09 齊宣王問卿章</p>	<p>10-09 齊宣王問卿章</p>	<p>◇卿을 貴戚 出身과 異姓 出身으로 兩分하고, 前者は 나라를 위해서 國君을 廢位시키고 새 임금을 세우기도 하며, 後자는 國君에게 되풀이하여 諫(간)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떠나간다고 하면서, 卿은 國君을 바른길로 이끄는 것이 그 所任임을 밝힌 내용이다.</p>

784	<p>大過謂足以亡其國者 易位易君之位 更立親戚之賢者 蓋與君有親親之恩 無可去之義 以宗廟爲重 不忍坐視其亡 故不得已而至於此也</p>	<p>10-09-01 齊宣王 問卿 孟子曰 王 何卿之間也 王曰卿不同乎 曰不同 有貴戚之卿 有異姓之 卿 王曰 請問貴戚之卿 曰君 有大過則諫 反覆之而不聽則易 位</p>	<p>제나라 선왕이卿에 대하여 물으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께서는 어느 경에 대하여 물으시는 것입니까?」 왕이 말하기를, 「卿이 같지 않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지 아니하니, 귀척(왕과 친척)으로 경이 된 자가 있고, 다른 姓氏로 경이 된 자가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귀척출신의 경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에게 큰 잘못이 있으면 헌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여도 들어주지 않으면 임금의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p>
785	勃然 變色貌	10-09-02 王勃然變乎色	왕이 발끈하여 얼굴빛이 변하니,
786	孟子言也	10-09-03 曰王勿異也 王問臣 臣不敢不以正對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왕께서 저에게 물으시는데, 제가 감히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787	<p>君臣義合 不合則去 ♥ 此章 言大臣之義 親疎不同 守經行權 各有其分 貴戚之卿 小過非不諫也 但必大過而不廳 乃可易位 異姓之卿 大過 非不諫也 雖小過而不廳 已可去矣 然三仁貴戚 不能行之於紂 而藿光 異姓 乃能行之於昌邑 此又委任權力之不同 不可以執一論也</p>	<p>10-09-04 王色定然後 請問異 姓之卿 曰君 有過則諫 反覆之 而不聽則去</p>	<p>왕이 얼굴빛이 가라앉은 뒤에, 다른 姓氏의 경에 대하여 물으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잘못이 있으면 헌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여도 들어주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p>
788	11 告子章句上 - 凡二十章	11 告子章句上 - 凡二十章	[제 11 편. 告子章句(고자장구) 上]
789	11-01 性猶杞柳也章	11-01 性猶杞柳也章	◇맹자의 性論에 立脚(입각)한 倫理觀(윤리관)이 披瀝(피력)된 내용이다. - 告子와의 論辯을 통해 告子의 性無善惡說에 대해 性善說을 내세운 것.
790	<p>性者人生所稟之天理也 杞柳栢柳 栢棬屈木所爲 若巵匜之屬 告子言 人性本無仁義 必待矯揉而後成 如荀子性惡之說也</p>	<p>11-01-01 告子曰 性猶杞柳也 義猶栢棬也 以人性爲仁義 猶 以杞柳爲栢棬</p>	<p>고자가 말하기를, 「性(品)은 갯버들과 같고, 義는栢棬(갯버들나무로 만든 그릇)과 같으니, 사람의 인품으로써 仁과 義를 행하게 하는 것은 갯버들나무로써 栢棬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p>

791	<p>言如此 則天下之人 皆以仁義爲害性而不肯爲 是因子之言而爲仁義之禍也</p>	<p>11-01-02 孟子曰 子能順杞柳 之性而以爲桮棬乎 將戕賊杞柳 而後 以爲桮棬也 如將戕賊杞 柳 而以爲桮棬 則亦將戕賊人 以爲仁義與 率天下之人而禍仁 義者 必子之言夫</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갯버들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살려서 배권을 만드는가? 갯버들나무에傷害를 가해 가지고서 배권을 만드느니, 만약에 갯버들나무에傷害를 가해 가지고서 배권을 만드는 것이라면, 또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 가지고서 仁과 義를 행하게 할 것인가? 천하의 사람들을 거느려 仁과 義에 災禍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말일 것일세.」</p>
792	<p>11-02 性猶湍水也章</p>	<p>11-02 性猶湍水也章</p>	<p>◇告子의 性無善惡說에 대해 性善說을 강력히闡明(천명)한 내용이다. - 인간의 본성이 善하지만 不善을恣行(자행)하게 되는 것은 外部의 힘이 無理하게 作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p>
793	<p>湍波流灝回之貌也 告子因前說而小變之 近於揚子善惡混之說</p>	<p>11-02-01 告子曰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決諸西方 則 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東西也</p>	<p>고자가 말하기를, 「性은 돌고 있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르느니, 사람의 性에 착하고 착하지 아니함의 구분이 없는 것이 마치 물이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p>
794	<p>言水誠不分東西矣 然豈不分上下乎 性卽天理 未有不善者也</p>	<p>11-02-02 孟子曰 水信無分於 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 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진실로 동서의 구분은 없지마는, 상하의 구분도 없는가? 사람 성품의 착함이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사람이 착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p>
795	<p>搏擊也 跳躍也 頸額也 水之過額在山 皆不就下也 然其本性 未嘗不就下 但爲搏擊所使而逆其性耳 ❤ 此章 言性本善 故順之而無不善 本無惡 故反之而後 爲惡 非本無定體而可以無所不爲也</p>	<p>11-02-03 今夫水 搏而躍之 可 使過頸 激而行之可使在山 是 豈水之性哉 其勢則然也 人之 可使爲不善 其性 亦猶是也</p>	<p>이제 물을 쳐서 뛰게 하면 이마를 넘어가게 할 수도 있으며, 밀어서 보내면 산에도 올라가게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외부의 힘으로 그러한 것이니, 사람은 선하지 않은 짓을 하게 할 수도 있으나, 그 성질 역시 그것과 같으니라.」</p>

796	11-03 生之謂性章	11-03 生之謂性章	<p>◇告子와 性論의 출발점을 따진 내용이다. - 朱子는 集註에서 性과 理氣에 대해, '性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의 理이다. 生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의 氣이다. 性은 形而上의 것이고, 氣는 形而下의 것이다. 사람과 물건이 생겨나면 모두 그러한 性을 지니게 되고, 또 그러한 氣를 모두 지니게 된다. 그러나 氣를 가지고 말하자면 知覺과 運動은 사람과 물건이 다르지 않은 것 같으나, 理를 가지고 말한다면 仁義禮智의 天稟(천품)이야 어찌 물건이 온전하게 지닐 수 있겠는가? 이 점에서 사람의 性이 善하지 않은 것이 없고 萬物의 靈長이 된 까닭이 있다. 告子는 性이 理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이른바 氣를 가지고 充當(충당)시킨다.'라고 하였다.</p>
797	生指人物之所以知覺運動者而言 告子論性前後四章 語雖不同 然其大指 不外乎此 與近世佛氏所謂作用是性者 略相似	11-03-01 告子曰 生之謂性	고자가 말하기를, 「타고난 것을 性이라고 합니다.」
798	白之謂白 猶言凡物之白者 同謂之白 更無差別也 白羽以下 孟子再問而告子曰然 則是謂凡有生者 同是一性矣	11-03-02 孟子曰 生之謂性也 猶白之謂白與 曰然 白羽之白 也 猶白雪之白 白雪之白 猶白 玉之白與 曰然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타고난 것을 性이라고 하는 것은 흰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은가?」 (고자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흰 깃의 흰 것은 흰 눈의 흰 것과 같으며, 흰 눈의 흰 것은 흰 옥의 흰 것과 같은가?」 (고자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799	孟子又言 若果如此 則犬牛與人 皆有知覺 皆能運動 其性 皆無以異矣 於是 告子自知其說之非 而不能對也 ❤️ 愚按 性者人之所得於天之理也 生者人之所得於天之氣也 性形而上者也 氣形而下者也 人物之生 莫不有是性 亦莫不有是氣 然以氣言之 則知覺運動 人與物 若不異也 以理言之 則仁義禮智之稟 豈物之所得而全哉 此人之性 所以無不善而爲萬物之靈也 告子不知性之爲理 而以所謂氣者 當之 是以杞柳湍水之喻 食色無善無不善之說 縱橫繆戾 紛紜舛錯 而此章之誤 乃其本根 所以然者	11-03-03 然則犬之性 猶牛之 性 牛之性 猶人之性與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개의 性은 소의 性과 같고, 소의 性은 사람의 性과 같은가?」

	皆徒知知覺運動之蠢然者人與物同 而不知仁義禮智之粹然者人與物異也 孟子以是折之 其義精矣		
800	11-04 食色性也章	11-04 食色性也章	◇告子의 仁內 義外說과 그것에 대한 맹자의 비판 내용이다. - 일은 비록 외부에 있으나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모두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하여, 仁義가 안에서부터 우러남을 밝혀 告子의 迷惑(미혹)을 깨우쳐 준 것이다.
801	告子以人之知覺運動者爲性 故言人之甘食悅色者卽其性 故人愛之心生於內 而事物之宜由乎外 學者但當用力於仁 而不必求合於義也	11-04-01 告子曰 食色 性也 仁內也 非外也 義外也 非內也	고자가 말하기를, 「食(먹는 것)과 色(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性이니, 仁은 안에 있는 것(內在的)이고 밖에 있는 것(外在的)이 아니며, 義는 밖에 있는 것이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802	我長之 我以彼爲長也 我白之 我以彼爲白也	11-04-02 孟子曰 何以謂仁內 義外也 曰彼長而我長之 非有 長於我也 猶彼白而我白之 從 其白於外也 故謂之外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무엇으로) 仁은 내적인인 것이고, 義는 외적인인 것이라고 하오?」 (고자가) 말하기를, 「저 사람이 어른이기에 내가 그를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에게 어른으로 대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니, (그것은) 마치 저것이 희어서 내가 그것을 희다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니, 그 흰 것은 밖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인 것이라고 합니다.」

803 張氏曰 上異於二字 宜衍 李氏曰 或有闕文焉 愚按白馬白人 所謂彼白而我白之也 長馬長人 所謂彼長而我長之也 白馬白人 不異 而長馬長人不同 是乃所謂義也 義不在彼之長 而在我長之之心 則義之非外明矣	11-04-03 曰異於白馬之白也 無以異於白人之白也 不識 長 馬之長也 無以異於長人之長與 且謂長者義乎 長之者義乎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흰 것도 (각기) 다르니라. 말이 흰 것은 백인의 흰 것과 다름이 없겠지만, 알 수 없겠거니와, 나이 많은 말의 나이 많음은 나이 많은 사람의 나이 많음과 다른 것이 없겠는가? 또 나이 많은 것을 義라고 하는가? 나이 많은 자를 받드는 것을 義라고 하는가?」
804 言愛主於我 故仁在內 敬主於長 故義在外	11-04-04 曰吾弟則愛之 秦人 之弟則不愛也 是以我爲悅者也 故謂之內 長楚人之長 亦長吾 之長 是以長爲悅者也 故謂之 外也	(고자가) 말하기를, 「내 아우이면 사랑하고, 진나라 사람의 아우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적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나라 사람의 나이 많은 자를 공경하고, 또한 자기의 나이 많은 것을 공경하는데, 그것은 나이 많은 자가 좋아하는 것이라, 그래서 외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805 言長之耆之 皆出於心也 林氏曰 告子以食色爲性 故因其所明者而通之 ♥ 自篇首 至此四章 告子之辯 屢屈而屢變其說 以求勝 卒不聞其能自反而有所疑也 此正其所謂不得於言勿求於心者 所以卒於鹵莽이不得其正也	11-04-05 曰耆秦人之灸 無以 異於耆吾灸 夫物則亦有然者也 然則耆灸 亦有外與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나라 사람이 불고기를 즐겨먹는 것은 내가 불고기를 즐겨먹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무릇 사물에도 또한 그러함이 있으니, 그러면 불고기를 즐겨먹는 것 또한 외적인 것인가?」
806 11-05 先酌鄉人章	11-05 先酌鄉人章	◇ 義內說에 立脚하여 義外說을 反駁(반박)한 내용이다. - 凡人은 外形에 따르고 그 根源에根本을 두지 않고, 賢者는 人情에 통달해서 그렇게 되는 까닭을 아는 것이다.
807 孟季子 疑孟仲子之弟也 蓋聞孟子之言而未達 故私論之	11-05-01 孟季子問公都子曰 何以謂義內也	맹계자가 공도자에게 묻기를, 「어찌 義를 내적인 것이라고 합니까?」
808 所敬之人 雖在外 然知其當敬而行吾心之敬以敬之 則不在外也	11-05-02 曰行吾敬故 謂之內 也	(공도자가) 말하기를, 「내가 공경을 行하기 때문에 그래서 内재적이라고 하는 것이라.」
809 伯長也 酌酌酒也 此皆季子問 公都子答 而季子又言如此 則敬長之心 果不由中出也	11-05-03 鄉人 長於伯兄一歲 則誰敬 曰敬兄 酌則誰先 曰先 酌鄉人 所敬 在此 所長 在彼 果在外 非由內也	(맹계자가 묻기를,)「향리의 사람이 長兄보다 한 살 더 많으면 누구를 공경합니까?」 (공도자가) 말하기를, 「형을 공경하느니라.」 (맹계자가 묻기를,)「술을 따를 때는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공도자가) 말하기를, 「향리의 사람에게 먼저 술을 따르느니라.」 (맹계자가 말하기를,)「공경해야 할 사람은 여기에 있고, 나이 많은 이로 받아들어야 할 사람은 저기에 있으니, 과연 義는 외재적인 것이지 内재적인 것이 아니로다.」
810 戶祭祀所主以象神 雖弟子爲之	11-05-04 公都子不能答 以告	공도자가 대답을 못하고 맹자께 고하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숙부를

	然敬之當如祖考也 在位弟在戶位 鄉人在賓客之位也 常庸也 斯須暫時也 言因時制宜 皆由中出也	孟子 孟子曰 敬叔父乎 敬弟乎 彼將曰 敬叔父 曰弟爲戶則誰 敬 彼將曰 敬弟子曰 惡在其敬 叔父也 彼將曰 在位故也 子亦 曰 在位故也 常庸 敬 在兄 斯須 之敬 在鄉人	공경하느냐? 동생을 공경하느냐?'하면, 그 사람은 말하기를, '숙부를 공경합니다.'라고 하리라. (그러면) 말하기를, '동생이 시위에 있으면 누구를 공경합니까?'하면, 그 사람은 말하기를, '동생을 공경합니다.'라고 하리라. (그러면) 말하기를, '왜 숙부를 공경하지 않는가?'하면, 그 사람은 말하기를, '位에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할 것이니, 자네가 역시 말하기를, '위에 있기 때문이니라.'라고 말하게. 늘 공경하는 것은 형에게 있고, 임시로 공경하는 것은 향리 사람에게 있으니라.」
811	此亦上章耆炙之義 ♥ 范氏曰 二章問答 大指略同 皆反覆譬喻 以曉當世 使明仁義之在內 則知人之性善 而皆可以爲堯舜矣	11-05-05 季子聞之 曰敬叔父 則敬 敬弟則敬 果在外 非由內 也 公都子曰 冬日則飲湯 夏日 則飲水 然則 飲食 亦在外也	계자가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숙부를 공경하면 공경하는 것이고, 아우를 공경하면 공경하는 것이니, 과연 義는 외재적인 것이요, 내재적인 것이 아니로다.」 공도자가 말하기를, 「겨울에는 더운 물을 마시고 여름에는 냉수를 마시는데, 그렇다면 음식도 역시 외재적인 것이로다.」
812	11-06 乃若其情章	11-06 乃若其情章	◇性善說을 主張하는 맹자의 立論根據(입논근거)가 四端說(사단설)로써 說明되어 있는 내용이다. - 詩經의 내용과 공자의 評論을 引用하여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813	此亦生之謂性 食色性也 之意 近世蘇氏胡氏之說 蓋如此	11-06-01 公都子曰 告子曰 性 無善無不善也	공도자가 말하기를, 「고자가 말하기를, '性은 善한 것도 없고 善하지 않은 것도 없다.'라고 했고,
814	此卽湍水之說也	11-06-02 或曰性可以爲善 可 以爲不善 是故 文武興則民好 善 幽厲興則民 好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性은 善하게 될 수도 있고 善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文王과 武王이 일어났을 때에는 백성들이 善을 좋아하였고, 幽王과 厲王이 일어났을 때에는 백성들이 포악한 것을 좋아한 것이다.」라고 했으며,
815	韓子性有三品之說 蓋如此 按此文 則微子比干 皆紂之叔父 而書稱微子爲商王元子 疑此或有誤字	11-06-03 或曰有性善 有性不 善 是故以堯爲君而有象 以瞽 瞍爲父而有舜 以紂爲兄之子 且以爲君而有微子啓王子比干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性이 善한 사람도 있고 性이 善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그래서 堯가 임금으로 있으면서도 象이 나왔고, 고수가 아비이면서도 舜이 나왔으며, 紂가 형의 아들이자 또한 임금이면서도 미자계와 王자 비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816		11-06-04 今日性善 然則彼皆 非與	이제 '性은 善하다.'라고 하시니,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그들은 모두 그르다는 것입니까?」
817	乃若發語辭 情者 性之動也 人之情 本但可以爲善 而不可以爲惡 則性之本善 可知矣	11-06-05 孟子曰 乃若其情則 可以爲善矣 乃所謂善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本性을) 따라 움직이는 情은 善할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이 곤 이론바 性善이니라.」
818	才猶材質 人之能也 人有是性 則有是才 性既善 則才亦善	11-06-06 若夫爲不善 非才其 罪也	대저 不善을 하는 것은 才質의 죄가 아니니라.

	人之爲不善 乃物欲陷溺而然 非其才之罪也		
819	<p>恭者敬之發於外者也 敬者恭之主於中者也 鑠以火銷金之名 自外以至內也 算數也 言四者之心 人所固有 但人自不思而求之耳 所以善惡相去之遠 由不思不求而不能擴充以盡其才也 前篇 言是四者爲仁義禮智之端 而此不言端者 彼欲其擴而充之 此直因用以著其本體 故言有不同耳</p>	<p>11-06-07 憫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仁也 羞惡之心義也 恭敬之心禮也 是非之心智也 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 有之也 弗思耳矣 故曰求則得 之 舍則失之 或相倍蓰而無算 者 不能盡其才者也</p>	<p>측은해 하는 마음은 사람으면 다 가지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사람으면 다 가지고 있으며, 공경하는 마음도 사람으면 다 가지고 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도 사람으면 다 가지고 있으니, 측은해 하는 마음은 仁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義이며, 공경하는 마음은 禮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智이니, 仁·義·禮·智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니, 그래서 말하기를, '구하면 얻게 되고, 버리면 잃게 된다.'고 했으니, 혹 (선악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면) 數倍의 차이가 나고, (비교하여 볼 여지도) 없는 사람은 그(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p>
820	<p>詩大雅蒸民之篇 蒸詩作烝 衆也 物事也 則法也 夷詩作彝 常也 懿美也 有物必有法 如有耳目則有聰明之德 有父子則有慈孝之心 是民所秉執之常性也 故人之情 無不好此懿德者 以此觀之 則人性之善 可見 而公都子所問之三說 皆不辨而自明矣 ❤ 程子曰 性卽理也 理則堯舜至於塗人 一也 才稟於氣 氣有清濁 稟其清者爲賢 稟其濁者爲愚 學而知之 則氣無清濁 皆可至於善而復性之本 湯武身之是也 孔子所言下愚不移者 則自暴自棄之人也 又曰 論性不論氣 不備 論氣不論性 不明 二之則不是 張子曰 形而後 有氣質之性 善反之 則天地之性 存焉 故氣質之性 君子有弗性者焉 愚按 程子此說才字 與孟子本文 小異 蓋孟子 專指其發於性者言之 故以爲才無不善</p>	<p>11-06-08 詩曰天生蒸民 有物 有則 民之秉夷 好是懿德 孔子 曰 爲此詩者 其知道乎 故有物 必有則 民之秉夷也 故好是懿 德</p>	<p>『詩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온 백성을 내었는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다. 백성의 성품은 떳떳한 것이라 이 아름다운 德을 좋아하도다.'라고 했거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를 지은 사람은 道를 알고 있었던 것이로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는 것이니, 백성들의 성품은 떳떳한 까닭으로 이 아름다운 德을 좋아하는 것이로다.'라고 하셨다.」</p>

	程子兼指其稟於氣者言之 則人之才固有昏明強弱之不同矣 張子所謂氣質之性 是也 二說雖殊各有所當 然以事理考之 程子爲密蓋氣質所稟 雖有不善而不害性之本善 性雖本善而不可以無省察矯揉之功學者所當深玩也		
821	11-07 富歲子弟多賴章	11-07 富歲子弟多賴章	◇ 사람의 타고난 本性은 모두 같은 것으로 때로는 善良하게 때로는 暴惡하게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慾望에 左右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다. - 혹은 君子가 되고 혹은 小人이 되는 것은 밀과 보리가 똑같이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822	富歲豐年也 賴藉也 豊年衣食饒足故有所賴藉而爲善 凶年衣食不足故有以陷溺其心而爲暴	11-07-01 孟子曰 富歲子弟多賴 凶歲子弟多暴 非天之降才爾殊也 其所以陷溺其心者然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풍년에는 자제들(젊은이)이 얌전하고 흥년에는 자제들이 포악해지니, (그것은) 하늘이 才性을 부여한 것이 그렇게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빠지게 만든 것이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인なり.」
823	麰大麥也 穢覆種也 日至之時謂當成熟之期也 碣瘠薄也	11-07-02 今夫麰麥 播種而耰之 其地同 樹之時又同 勃然而生 至於日至之時 皆熟矣 雖有不同 則地有肥磽 雨露之養 人事之不齊也	이제 밀과 보리를 뿌리고 흙을 덮어주면, 그 땅이 같고 심은 때도 같으면 발연히 쑥이 나오고 자라서 夏至 때에 가서는 모두 여물게 된다. 비록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땅이 비옥하고 메마름이 있으며, 비와 이슬이 기르는 것과 사람의 손질이 같지 않다는 것인なり.
824	聖人亦人耳 其性之善 無不同也	11-07-03 故凡同類者 舉相似也 何獨至於人而疑之 聖人與我同類者	그러므로 종류가 같은 것은 다 비슷하니, 어찌 사람만을 의심하겠는가? 성인도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니라.
825	蕷草器也 不知人足之大小而爲之屨雖未必適中 然必似足形 不至成蕷也	11-07-04 故龍子曰 不知足而爲屨 我知其不爲蕷也 屢之相似 天下之足同也	그래서 용자는 말하기를, '발을 알지 못하고 신을 삼아도 그것이 삼태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했으니, 신이 서로 비슷한 것은 천하의 발이 같기 때문이다.

826	易牙古之知味者 言易牙所調之味 則天下皆以爲美也	11-07-05 口之於味 有同耆也 易牙先極我口之所耆者也 如使口之於味也 其性與人殊 若犬馬之於我不同類也 則天下何耆皆從易牙之於味也 至於味 天下期於易牙 是天下之口相似也	입이 맛에 대하여 같이 즐기는 것이 있으니, 역아는 우리의 입이 즐기는 것을 먼저 안 사람이다. 만약에 입으로 느끼는 맛에 있어서 그것을 느끼는 성품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개와 말이 나와 뿐이 다른 것과 같다면, 천하의 어떤 즐기는 것(맛)을 맛에 있어서의 역아의 그것(역아의 입맛)을 모두 따르겠는가? 맛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역아에게 기대하는데, 그것은 천하 사람들의 입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니라.
827	師曠能審音者也 言師曠所和之音 則天下皆以爲美也	11-07-06 惟耳亦然 至於聲 天下期於師曠 是天下之耳相似也	귀도 또한 그러하니, 소리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사광에게 기대하는데, 그것은 천하 사람들의 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니라.
828	子都古之美人也 嫣好也	11-07-07 惟目亦然 至於子都 天下莫不知其姣也 不知子都之姣者 無目者也	눈도 또한 그러하니, 자도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그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으니, 자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눈이 없는 사람이니라.
829	然猶可也 草食曰芻 牛羊是也 穀食曰豢 犬豕是也 程子曰 在物爲理 處物爲義 體用之謂也 孟子言 人心無不悅理義者 但聖人則先知先覺乎此耳 非有以異於人也 程子又曰 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此語親切有味 須實體察得義理之悅心 真猶芻豢之悅口 始得	11-07-08 故曰口之於味也 有同耆焉 耳之於聲也 有同聽焉 目之於色也 有同美焉 至於心獨無所同然乎 心之所同然者何也 謂理也 義也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그러므로 말하기를, '입으로 맛을 봄에는 다같이 즐기는 것이 있으며, 귀로 듣는 소리에는 다같이 듣기 좋아하는 것이 있고, 눈으로 보는 색에는 다같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했으니, 마음에 이르러서만이 유독 다같이 그렇다고(옳다고) 여기는 것이 없겠는가? 마음이 다같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理이고 義이니, 聖人은 먼저 나의 마음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알았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理와 義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치 소와 양과 개와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과 같으니라.'
830	11-08 牛山之木章	11-08 牛山之木章	◇仁義를 따르는良心을 지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物慾에 攪亂(교란)됨이 없이良心을操守(조수)하는 것만이 善한本性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길임을 나타냈다.
831	牛山齊之東南山也 邑外謂之郊 言牛山之木 前此固嘗美矣 今爲大國之郊 伐之者衆 故失其美耳 息生長也 日夜之所息 謂氣化流行 未嘗間斷 故日夜之間 凡物皆有所生長也 萌芽也 藥芽之旁出者也 灌灌光潔之貌 材材木也 言山木雖伐 猶有萌藥而牛羊 又從而害之 是以至於光潔而無草木也	11-08-01 孟子曰 牛山之木 菴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 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 又從而牧之 是以 若彼灌灌也 人見其灌灌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산의 나무는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큰 나라의 도성 교외에 있는지라, 도끼로 벌목을 해대니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밤낮으로 자라나고 비와 이슬의 潤澤(윤택)으로 쑥이 돋지 않은 일이 없었지만, 소와 양이 또 쫓아서 그것을 먹어댔는지라, 그러한 까닭으로 저와 같이 민동산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민동산만을 보고 일찍이 재목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라고 하겠는가?」

832	<p>良心者 本然之善心 卽所謂仁義之心也 平旦之氣 謂未與物接之時清明之氣也 好惡與人相近 言得人心之所同然也 幾希不多也 楷械也 反覆展轉也 言人之良心 雖已放失 然其日夜之間 猶必有所生長 故平旦未與物接 其氣清明之際 良心 猶必有發見者 但其發見至微 而旦晝所爲之不善 又已隨而楷亡之 如山木旣伐 猶有萌蘖 而牛羊 又牧之也 畫之所爲 既有以害其夜之所息 夜之所息 又不能勝其畫之所爲 是以 展轉相害 至於夜氣之生 日以寢薄 而不足以存其仁義之良心 則平旦之氣亦不能清 而所好惡遂與人遠矣</p>	11-08-02 雖存乎人者 岂無仁 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 其日夜之所息 平 旦之氣 其好惡與人相近也 者 幾希 則其旦晝所爲 有楷亡 之矣 楷之反覆 則其夜氣不足 以存 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 獸不遠矣 人見其禽獸也 而以 為未嘗有才焉者 是豈人之情也 哉	<p>비록 사람의 본성인들 어찌 仁과 義의 마음이 없겠는가마는, 그 양심을 내버리게 하는 까닭은 (또한) 도끼로 나무를 하는 것과 같으니, 날마다 벌목을 해대니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밤낮으로 (양심이) 자라나는 것과 아침의 맑은 기운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남과 서로 가까운 점이 어찌 적기야 하겠는가마는, 곧 그 낮에 하는 행위가 또 그것을 뒤섞어 없애버린다. 그것을 뒤섞기를 반복하면 밤사이에 길러지는 기운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밤사이에 길러지는 기운이 남아있지 못하게 되면 금수(짐승)와 다른이 멀지 않을(가까울) 것이니, 사람들이 그가 짐승 같은 것을 보고서 그에게는 일찍이 才性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 그것이 어찌 사람의 性情이라고 하겠는가?</p>
833	山木人心 其理一也	11-08-03 故苟得其養 無物不 長 苟失其養 無物不消	<p>그러므로 길러주는 힘을 얻기만 하면 자라지 않을 사물이 없고, 길러주는 힘을 잃어버리기만 하면 소멸되지 않을 물건이 없느니라.</p>
834	<p>公子言 心操之則在此 舍之則失去 其出入無定時 亦無定處如此 孟子引之 以明心之神明不測 得失之易而保守之難 不可頃刻失其養 學者當無時而不用其力 使伸清氣定 常如平旦之時 則此心常存 無適而非仁義矣 程子曰 心豈有出入 亦以操舍而言耳 操之之道 敬以直內而已 ❤ 愚聞之師 曰人理義之心 未嘗無 惟持守之 卽在爾 若於旦晝之間 不至楷亡 則夜氣愈清 夜氣清 則平旦未與物接之時 湛然虛明氣象 自可見矣 孟子發此夜氣之說 於學者 極有力 宜熟玩而深省之也</p>	11-08-04 孔子曰 操則存 舍則 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 謂與	<p>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으면 남아있고 놓으면 없어지느니, 때 없이 드나들면서 제 고장(一定한 곳)을 모른다는 것은 마음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라고 하셨느니라.」</p>

835	11-09 無或乎王之不智章	11-09 無或乎王之不智章	◇邪惡한 인간들이 가까이 있으면 善한本性이 가리어져 仁義를 따르는 良心을잃어버리게 되므로, 사람은 全心全力하여良心을 지키기에 热中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836	或與惑同 疑怪也 王疑指齊王	11-09-01 孟子曰 無或乎王之不智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지혜롭지 못한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지어다.
837	暴溫之也 我見王之時少 猶一日暴之也 我退則詔諛雜進之日多 是十日寒之也 雖有萌蘖之生 我亦安能如之何哉	11-09-02 雖有天下易生之物也 一日暴之 十日寒之 未有能生者也 吾見 亦罕矣 吾退而寒之者至矣 吾如有萌焉 何哉	비록 천하에서 가장 쉬이 자라는 생물이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 해를 쬐고 열흘동안 차게 한다면 능히 살 수 없을 것이니,내가 왕을 만나보지만 그 기회는 역시드물고, 내가 물러나면 그를 차게 하는 자가이르니, 내가 만약 썩을 틔운다고 한들 무엇하겠는가?
838	奕圍棋也 數技也 致極也 奕秋善奕者名秋也 繳以繩繫矢而射也 ♥ 程子爲講官 言於上曰 人主一日之間 接賢士大夫之時多 親宦官宮妾之時少 則可以涵養氣質而薰陶德性 時不能用 識者恨之 范氏曰 人君之心 惟在所養 君子養之以善則智 小人養之以惡則愚 然賢人 易疎 小人易親 是以寡不能勝衆 正不能勝邪 自古 國家治日常少而亂日常多 蓋以此也	11-09-03 今夫奕之爲數小數也 不專心致志 則不得也 奕秋 通國之善奕者也 使奕秋 誨二人 奕 其一人 專心致志 惟奕秋之爲聽 一人 雖聽之 一心 以爲有鴻鵠 將至 思援弓繳而射之 雖與之俱學 弗若之矣 爲是其智弗若與 曰非然也	이제 바둑의 수는 대단치 않은 수이지만,전심하여 뜻에 이르지(극진하지) 아니하면배우지 못할 것이다. 혁추는 전국을 통하여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다. 혁추가 두사람에게 바둑을 가르치는데, 그 중 한사람은 전심해서 뜻을 다하여 오직 혁추의가르침을 듣고, 한 사람은 비록 듣기는하지만 한 쪽 마음으로는 기러기가 오게되면 활에 주살을 매워서 그것을 쓸 생각을한다면, 비록 함께 배운다고 하더라도 같아질수가 없을 것이니, 그것은 그의 지혜가 같지않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라.」
839	11-10 魚與熊掌章	11-10 魚與熊掌章	◇小利에는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禮義를따지고, 大利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禮義를따지지 않는 등 本心을喪失하는矛盾(모순)을 分析解明(분석해명)하여, 世人의禮義와廉恥(엄치) 없음을 警告(경고)하고,義를 위해서는 生命의犧牲(희생)도不辭(불사)하는 正當한 인간이 되기를勸勉(권면)한 내용이다.
840	魚與熊掌皆美味 而熊掌尤美也	11-10-01 孟子曰 魚我所欲也 熊掌 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고기도 내가먹고자 하는 것이며 곰의 발바닥도 내가먹고자 하는 것이지마는, 두 가지를 겸하지못한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의 발바닥을취할 것이라. 사는 것도 또한 내가 바라는것이며 義도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마는, 두 가지를 겸하지 못한다면 삶을 버리고義를 취할 것이라.

841	<p>釋所以舍生取義之意 得得生也 欲生惡死者 雖衆人利害之常情 而欲惡有甚於生死者 乃秉彝義理之良心 是以欲生而不爲苟得 惡死而有所不避也</p>	<p>11-10-02 生亦我所欲 所欲 有 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死亦 我所惡 所惡 有甚於死者 故患 有所不辟也</p>	<p>사는 것도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마는 하고자 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삶을) 얻지 않으며, 죽음도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마는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환란도 피하지 않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라.</p>
842	<p>設使人無秉彝之良心 而但有利害之私情 則凡可以偷生免死者 皆將不顧禮義而爲之矣</p>	<p>11-10-03 如使人之所欲 莫甚 於生 則凡可以得生者 何不用 也 使人之所惡 莫甚於死者 則 凡可以辟患者 何不爲也</p>	<p>만약에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게 한다면 무릇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방법인들 쓰지 아니하며,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게 한다면 무릇 환란을 피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인들 쓰지 않겠는가?</p>
843	<p>由其必有秉彝之良心 是以其能舍生取義如此</p>	<p>11-10-04 由是則生而有不用也 由是則可以辟患而有不爲也</p>	<p>그러하기에 살 수 있음에도 쓰지 않는 (방법이) 있으며, 그러하기에 환란을 피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라.</p>
844	<p>羞惡之心 人皆有之 但衆人汨於利欲而忘之 惟賢者能存之而不喪耳</p>	<p>11-10-05 是故 所欲 有甚於生 者 所惡 有甚於死者 非獨賢者 有是心也 人皆有之 賢者 能勿 喪耳</p>	<p>그런 까닭에 하고자 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심한 경우가 있으며, 싫어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으니, 현자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마는, 현자는 그 마음(良心)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니라.</p>
845	<p>豆木器也 噏咄咤之貌 行道之人 路中凡人也 蹤踐踏也 乞人丐乞之人也 不屑 不以爲潔也 言雖欲食之急 而猶惡無禮 有寧死而不食者 是其羞惡之本心 欲惡有甚於生死者 人皆有之也</p>	<p>11-10-06 一簞食 一豆羹 得之 則生 弗得則死 噏爾而與之 行 道之人 弗受蹴爾而與之 乞人 不屑也</p>	<p>한 대그릇의 밥과 한 나무그릇의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더라도, 꾸짖으면서 주면 길을 가는 사람도 받지 아니하며, 발로 밀어서 주면 걸인도 받으려들지 않느니라.</p>
846	<p>萬鍾於我何加 言於我身無所增益也 所識窮乏者得我 謂所知識之窮乏者 感我之惠也 上言人皆有羞惡之心 此言衆人所以喪之由此三者 蓋理義之心 雖曰固有 而物欲之蔽亦人所易昏也</p>	<p>11-10-07 萬鍾則不辯禮義而受 之 萬鍾 於我何加焉 爲宮室之 美 妻妾之奉 所識窮乏者得我 與</p>	<p>만종이면 禮와 義를 따지지 않고서 받는다면, 그 만종이 자기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집의 아름다움과 처와 철의 받듦과 자기가 아는 궁핍한 자가 자기에게서 얻어가게 하기 위해서인가?</p>

847	<p>言三者 身外之物 其得失 比生死爲甚輕 鄉爲身 死猶不肯受嘵蹴之食 今乃爲此三者而受無禮義之萬鍾 是豈不可以止乎 本心 謂羞惡之心 ♥ 此章 言羞惡之心 人所固有 或能決死生於危迫之際 而不免計豐約於宴安之時 是以君子不可頃刻而不省察於斯焉</p>	<p>11-10-08 鄉爲身 死而不受 今爲宮室之美 爲之 鄉爲身 死而不受 今爲妻妾之奉 爲之 鄉爲身 死而不受 今爲所識窮乏者得我而爲之 是亦不可以已乎此之謂失其本心</p>	<p>접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죽더라도 받지 않다가 이 경우에는 집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받고, 접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죽더라도 받지 않다가 이 경우에는 차와 척의 받음을 위하여 받으며, 접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죽더라도 받지 않다가 이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궁핍한 자가 자기에게서 얻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다면, 그런 짓 역시 그만둘 수 없을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심(良心)을 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p>
848	11-11 求放心章	11-11 求放心章	<p>◇맹자의 學問論이 披瀝(피력)된 내용으로 맹자는 放失(방실)한 마음을 되찾는 것이 學問의 道라고 하셨다.</p>
849	<p>仁者心之德 程子所謂心如穀種 仁則其生之性 是也 연但謂之仁 則人曷知其切於己 故反而名之曰人心 則可以見其爲此身酬酢萬變之主而不可須臾失矣 義者 行事之宜 謂之人路 則可以見其爲出入往來必由之道而不可須臾舍矣</p>	<p>11-11-01 孟子曰 仁人心也 義人路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義는 사람의 길이니라.」</p>
850	<p>哀哉二字 最宜詳味 令人惕然有深省處</p>	<p>11-11-02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p>	<p>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을 버려두고 구할 줄을 모르다니, 슬프도다!</p>
851	<p>程子曰心至重 鷄犬至輕 鷄犬放則知求之 心放則不知求 豈愛其至輕而忘其至重哉 弗思而已矣 愚謂上兼言仁義 而此下專論求放心者 能求放心 則不違於仁 而義在其中矣</p>	<p>11-11-03 人有鷄犬放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p>	<p>사람이 닭이나 개가 도망을 하면 곧 그것을 찾을 줄 알면서, 마음이 放漫해지면 구할 줄을 모르니,</p>
852	<p>學問之事 固非一端 然其道則在於求其放心而已 蓋能如是 則志氣清明 義理昭著 而可以上達 不然則昏昧放逸 雖曰從事於學 而終不能有所發明矣 故程子曰 聖賢千言萬語 只是欲人將已放之心約之 使反復入身來 自能尋向上去 下學而上達也</p>	<p>11-11-04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p>	<p>학문의 道는 다른 것이 없다. 그 방만해진 마음을 구하는 것일 뿐이니라.」</p>

	此乃孟子開示切要之言 程子又發明之 曲盡其指 學者宜服膺而勿失也		
853	11-12 指不若人章	11-12 指不若人章	◇작고 末端的(말단적)인 것은 근심하고, 크고根本의인 것은 放置(방치)하는 사람의 矛盾을 지적하여 輕重(경중)과 本末의 頽倒(전도)를警戒(경계)한 내용이다.
854	無名指 手之第四指也	11-12-01 孟子曰 今有無名之指 屈而不信 非疾痛害事也 如有能信之者 則不遠秦楚之路爲指之不若人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무명지가 꾸부러져서 펴지지 않는 일이라도,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곧 진나라와 초나라의 길도 멀다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855	不知類 言其不知輕重之等也	11-12-02 指不若人 則知惡之心不若人 則不知惡 此之謂不知類也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으면 그것은 싫어할 줄 알면서 마음이 남과 같지 않으면 싫어할 줄을 모르니, 그것을 일컬어 類(일의 輕重의 종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라.」
856	11-13 拱把之桐梓章	11-13 拱把之桐梓章	◇자기 자신을 잘 修養(수양)하여 올바른 길로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重要함에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 疏忽(소홀)하다는 것을 警戒한 내용이다.
857	拱兩手所圍也 把一手所握也 桐梓二木名	11-13-01 孟子曰 拱把之桐梓人苟欲生之 皆知所以養之者至於身 而不知所以養之者 豈愛身 不若桐梓哉 弗思甚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손 안이나 한 손에 드는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도 사람이 진실로 그것들을 기르려고만 하면 모두 그것을 재배하는 방법을 알되, 자신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기르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어찌 자신을 아끼는 것이 오동나무나 가래나무에 미치지 못하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한 것이라.」
858	11-14 養小失大章	11-14 養小失大章	◇口腹과 心志를 兼養(겸양)할 수 있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하면 心志를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859	<p>人於一身 固當兼養 然欲考其所養之善否者 惟在反之於身 以審其輕重而已矣</p>	<p>11-14-01 孟子曰 人之於身也 兼所愛 兼所愛則兼所養也 無 尺寸之膚 不愛焉則無尺寸之膚 不養也 所以考其善不善者 豈 有他哉 於己 取之而已矣</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하여서는 아끼는 바를 겸하였으니, 아끼는 것을 겸하면 기르는 바도 겸하게 되느니라. 한 자나 한 치 되는 살도 아끼지 않는 것이 없다면 한 자나 한 치 되는 살을 기르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기르는 것)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자기 안(생각)에서 결정짓는 것일 뿐이니라.</p>
860	<p>賤而小者 口腹也 貴而大者 心志也</p>	<p>11-14-02 體有貴賤 有大小 無 以小害大 無以賤害貴 養其小 者 為小人 養其大者 為大人</p>	<p>몸에는 귀하고 천한 부분이 있으며 작고 큰 부분이 있으니, 작은 부분 때문에 큰 부분을 해치는 일이 없으며, 천한 부분 때문에 귀한 부분을 해치는 일이 없으니, 작은 부분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부분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되느니라.</p>
861	<p>場師治場圃者 梧桐也 檻梓也 皆美材也 檵棘小棗 非美材也</p>	<p>11-14-03 今有場師 奈其梧櫟 養其檮棘 則為賤場師焉</p>	<p>이제 한 원예사가 오동나무나 가래나무를 버리고서 멧대나무나 가시나무를 재배한다면 곧 천한 원예사라고 할 것이라.</p>
862	<p>狼善顧 疾則不能 故以爲失肩背之喻 背而不知也 則爲狼疾人也</p>	<p>11-14-04 養其一指 而失其肩 背而不知也 則爲狼疾人也</p>	<p>그 한 손가락을 고치려고 어깨나 등에 있는 병을 놓쳐버리고 알지 못한다면, 곧 낭질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 것이라.</p>
863	<p>飲食之人 專養口腹者也</p>	<p>11-14-05 飲食之人 則人賤之 矣 為其養小以失大也</p>	<p>음식을 탐내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그 작은 것만을 길러서 큰 것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p>
864	<p>此言若使專養口腹而能不失其大體 則口腹之養 軀命所關 不但爲尺寸之膚而已 但養小之人 無不失其大者 故口腹 雖所當養 而終不可以小害大賤害貴也</p>	<p>11-14-06 飲食之人 無有失也 則口腹 岳適爲尺寸之膚哉</p>	<p>음식을 탐내는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없다면, 곧 입과 배가 어찌 단지 한 자나 한 치의 살로만 될 뿐이겠는가?(심志를 기르는 것도 된다.)</p>
865	<p>11-15 從其大體爲大人章</p>	<p>11-15 從其大體爲大人章</p>	<p>◇大人과 小人, 大體와 小體, 心志와 耳目 등을 서로 對照(대조)시켜 그 사이의 차이를 설명한 내용이다. - 생각하는 마음의作用을發揮(발휘)시켜 情慾(정욕)에 誘惑(유혹)되지 않는 者를 大人으로 規定(규정)하고 있다.</p>
866	<p>鈞同也 從隨也 大體心也 小體耳目之類也</p>	<p>11-15-01 公都子問 曰鈞是人 也 或爲大人 或爲小人何也 孟 子曰 從其大體 為大人 從其小 體 為小人</p>	<p>공도자가 묻기를,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큰 몸(心志 등)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그 작은 몸(귀와 눈 등)을 따르면 소인이 되느니라.」</p>
867	<p>官之爲言 司也 而司聽 目司視 各有所職而不能思 是以蔽於外物 既不能思而蔽於外物 則亦一物而已 又以外物 交於此物</p>	<p>11-15-02 曰鈞是人也 或從其 大體 或從其小體 何也 曰耳目 之官 不思而列於物 物交物則</p>	<p>(공도자가) 말하기를,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큰 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몸을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와 눈의 기관은 생각하지 못하여 物慾에 가리게 되어, 外物이</p>

	<p>其引之而去不難矣 心則能思而以思爲職 凡事物之來 心得其職 則得其理而物不能蔽 失其職 則不得其理而物來蔽之 此三者 皆天之所以與我者 而心爲大 若能有以立之 則事無不思 而耳目之欲 不能奪之矣 此所以爲大人也 然此天之此 舊本 多作比 而趙註 亦以比方釋之 今本 既多作此 而註亦作此乃 未詳孰是 但作比字 於義爲短 故且從今本云 ♥ 范浚心箴曰 茫茫堪輿 俯仰無垠 人於其間 眇然有身 是身之微 太倉稊米 參爲三才 曰惟心爾 往古來今 究無此心 心爲形役 乃獸乃禽 惟口耳目 手足動靜 投間抵隙 爲厥心病 一心之微 衆欲攻之 其與存者 嘴呼幾希 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p>	<p>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 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所 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 者不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p>	<p>귀와 눈과 접촉하면 둠이 그것을 끌어당길(욕망을 일으킬) 따름이다. 마음이라는 기관은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사리)을 알게 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니,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니라. 먼저 그(자기의) 큰 것(心志 등)을 확립시켜 놓으면 그 작은 것(귀와 눈 등)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대인이 되는 것일 뿐이니라.」</p>
868	11-16 天爵人爵章	11-16 天爵人爵章	◇天爵의 貴重함을 論하려고 人爵과 대조시켜 설명한 내용이다. - 약간의 德이 있는 자가 獵官(업관)하여 성공한 후에는 그 나마의 德도 버려버리는 淺薄(천박)한 世情에 警鐘(경종)을 울린 것이다.
869	天爵者 德義可尊 自然之貴也	11-16-01 孟子曰 有天爵者 有 人爵者 仁義忠信 樂善不倦 此 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준 벼슬이 있고 사람이 준 벼슬이 있으니, 仁·義·忠·信과 善을 즐기고 게으르지 않은 것 그것이 天爵이고, 公·卿·大夫 그것은 人爵이니라.」
870	修其天爵 以爲吾分之所當然者耳 人爵從之 蓋不待求之而自至也	11-16-02 古之人 梢其天爵而 人爵從之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천작을 닦으면 인작이 그것에 따라왔느니라.
871	要求也 修天爵以要人爵 其心固已或矣 得人爵而棄天爵 則其惑又甚焉 終必並其所得之人爵而亡之也	11-16-03 今之人 梢其天爵 以 要人爵 既得人爵 而棄其天爵 則或之甚者也 終亦必亡而已矣	지금의 사람들은 자기의 천작을 닦아서 그것으로써 인작을 요구하고, 이미 인작을 얻었으면 자기의 천작을 버리나니, 곧 미혹됨이 심한 것이라. 마침내는 그것(인작)마저 반드시 잃어버릴 뿐이니라.」
872	11-17 趙孟之所責章	11-17 趙孟之所責章	◇修養을 쌓아서 仁義의 美德을 갖추게 된 사람의 高邁(고매)한 心境(심경)을 敘述(서술)한 내용이다.

873	貴於己者 謂天爵也	11-17-01 孟子曰 欲貴者 人之同心也 人人 有貴於己者 弗思耳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貴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니, 사람마다 몸에 귀한 것을 지니고 있지마는 생각하지 아니할 따름이니라.」
874	人之所貴 謂人以爵位加己而後貴也 良者本然之善也 趙孟晉卿也 能以爵祿與人而使之貴 則亦能奪之而使之賤矣 若良貴則人安得而賤之哉	11-17-02 人之所貴者 非良貴也 趙孟之所貴 趙孟 能賤之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본래 귀한 것이 아니니, 조맹이 귀하게 해준 것을 조맹이 천하게 만들 수 있느니라.
875	詩大雅既醉之篇 飽充足也 願欲也 膏肥肉 粱美穀 令善也 聞亦譽也 文繡衣之美者也 仁義充足而聞譽彰著 皆所謂良貴也 ♥ 尹氏曰 言在我者重 則外物輕	11-17-03 詩云 既醉以酒 既飽以德 言飽乎仁義也 所以不願人之膏粱之味也 令聞廣譽施於身 所以不願人之文繡也	『詩經』에 이르기를, '이미 술에 취해버렸고 이미 德에 배불러버렸노라.'고 했으니, 仁과 義에 배불렀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남의 膏粱珍味(고량진미)를 바라지 않는 것이며, 착한 소문과 널리 알려진 명예가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남의 아롱아롱 수를 놓은 웃(富貴한 사람의 웃)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
876	11-18 仁勝不仁章	11-18 仁勝不仁章	◇대수롭지 않은 仁을 가지고 不仁을 이길 수 없다고 仁의 無用論내지는 無力論을 펴는데 대하여 批判(비판)한 내용이다.
877	與猶助也 仁之能勝不仁 必然之理也 但爲之不力 則無以勝不仁 而人遂以爲真不能勝 是我之所爲 有以深助於不仁者也	11-18-01 孟子曰 仁之勝不仁也 猶水勝火 今之爲仁者猶以一杯水 救一車薪之火也 不熄則謂之水不勝火此 又與於不仁之甚者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함이 인자하지 않음을 이기는 것은 마치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으니라. 요즘 仁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한 잔의 물을 가지고 수레 한 대에 실려 있는 땔나무에 불은 불을 끄는 것과도 같아, 꺼지지 않으면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느니, 이것은 또한 인자하지 않음을 드는 것이 심한 것이라.」
878	言此人之心 亦且自怠於爲仁 終必并與其所爲而亡之 ♥ 趙氏曰 言爲仁不至而不反諸己也	11-18-02 亦終必亡而已矣	역시 끝내는 기필코 (그 작은 인자함마저) 잃어버리고야 말 따름이니라.」
879	11-19 仁亦在熟章	11-19 仁亦在熟章	◇仁을 行함에 있어 徹底(철저)를 期하기를 勸勉한 내용이다.
880	荑稗草之似穀者 其實亦可食 然不能如五穀之美也 但五穀不熟 則反不如荑稗之熟 猶爲仁而不熟 則反不如爲他道之有成 是以爲仁必貴乎熟 而不可徒恃其種之美 又不可以仁之難熟而甘爲他道之有成 也 ♥ 尹氏曰 日新而不已則熟	11-19-01 孟子曰 五穀者 種之美者也 苛爲不熟 不如荑稗 夫仁 亦在乎熟之而已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곡은 종자 가운데서 좋은 것들이나 진실로(만약에) 잘 여물지 않으면 비름과 피만도 못하니, 무릇仁도 역시 그것을 여물게 하는데 달려있을 따름이니라.」
881	11-20 必志於章	11-20 必志於章	◇學問을 할 때에는 그 要點(요점)을 터득하는데 專心해야 함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882	羿善射者也 志猶期也 穀弓滿也 滿而後發 射之法也 學謂學射	11-20-01 孟子曰 羿之教人射必志於穀 學者 亦必志於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남에게 활쏘기를 가르침에 반드시 활 당기기에 專心해야 한다고 했으니, 배우는 사람 역시 활 당기기에 專心해야 하느니라.」
883	大匠工師也 規矩匠之法也 ♥ 此章言事必有法然後 可成 師舍是則無以教 弟子舍是則無以學 曲藝 且然 況聖人之道乎	11-20-02 大匠 謨人 必以規矩 學者 亦必規矩	大木이 남을 가르치면 반드시 규구를 가지고 가르치느니, 배우는 사람 역시 규구를 가지고 배워야 하느니라.」
884	12 告子章句下 - 凡十六章	12 告子章句下 - 凡十六章	[제 12 편. 告子章句(고자장구) 下]
885	12-01 任人問屋廬子章	12-01 任人問屋廬子章	◇禮法과 食·色을 比較(비교)하는데 있어서도 그 輕重(경중)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 일에 臨함에 그 마땅함을 헤아려 그 輕重 또한 달리 여겨야 한다는 말씀
886	任國名 屋廬子 名連 孟子弟子也	12-01-01 任人 有問屋廬子曰 禮與食 孰重 曰禮重	임나라 사람이 옥려자에게 묻기를, 「예와 음식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옥려자가) 대답하기를, 「예가 소중하니라.」
887	任人復問也	12-01-02 色與禮 孰重	(임나라 사람이 묻기를,) 「女色과 예는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888		12-01-03 曰禮重 曰以禮食則 飢而死 不以禮食則得食 必以 禮乎 親迎則不得妻 不親迎則 得妻 必親迎乎	(옥려자가) 대답하기를, 「예가 소중하니라.」 (임나라 사람이) 묻기를, 「예를 차려서 먹자면 굶주려 죽고 예를 차리지 않고 먹자면 먹을 것을 얻는데, 그래도 예로써 해야 합니까? 친영의 예로써 하면 아내를 얻지 못하고 친영으로써 하지 않으면 아내를 얻는데, 그래도 반드시 친영으로써 해야 합니까?」
889	何有不難也	12-01-04 屋廬子不能對 明日 之鄒 以告孟子 孟子曰 於答是 也 何有	옥려자가 대답하지 못하고 다음 날에 추나라로 가서 맹자께 (그 일을) 고하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에 대답함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890	本謂下 末謂上 方寸之木 至卑 喻食色 岑樓樓之高銳似山者 至高 喻禮 若不取其下之平 而升寸木於岑樓之上 則寸木反高 岑樓反卑矣	12-01-05 不揣其本而齊其末 方寸之木 可使高於岑樓	그 근본이 되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서 그 말단만을 가지려면 한다면 길이가 한 치 되는 나무로써도 높은 누각보다도 더 높게 할 수 있는 것이라.
891	鉤帶鉤也 金本重而帶鉤小 故輕 喻禮有輕於食色者 羽本輕而一輿多 故重 喻食色有重於禮者	12-01-06 金重於羽者 豈謂一 鉤金與一輿羽之謂哉	쇠가 새털보다 무겁다는 것이 어찌 혁대 고리 쇠 하나와 한 수레의 새털과를 비교하는 말이겠는가?

892	<p>禮食 親迎 禮之輕者也 飢而死以滅其成 不得妻而廢人倫 食色之重者也 奚翅猶言何但 言其相去懸絕 不但有輕重之差而已</p>	<p>12-01-07 取食之重者 與禮之輕者 而比之 奚翅食重 取色之重者 與禮之輕者 而比之 奚翅色重</p>	<p>먹는 것의 소중한 것과 예의 가벼운 문제를 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한다면, 어찌 음식이 다만 소중함뿐이겠는가? 여색에 관한 소중한 것과 예의 가벼운 문제를 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한다면, 어찌 여색이 다만 소중함뿐이겠는가?</p>
893	<p>紂戾也 摶牽也 妻子處女也 此二者 禮與食色 皆其重者 而以之相較 則禮爲尤重也 ♥ 此章 言義理事物 其輕重 固有大分 然於其中 又各自有輕重之別 聖賢於此 錯綜斟酌 毫髮不差 固不肯枉尺而直尋 亦未嘗膠柱而調瑟 所以斷之 一視於理之當而已矣</p>	<p>12-01-08 往應之曰 紂兄之臂 而奪之食則得食 不紂則不得食 則將紂之乎 蹤東家牆而摶其處 子則得妻 不摶則不得妻 則將 摶之乎</p>	<p>가서 대답하기를, '형의 팔을 비틀어서 음식을 빼앗으면 음식을 얻게 되고, 비틀지 아니하면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곧 장차 그것을 비틀겠는가? 동쪽 집의 담을 넘어가서 그 집의 차자를 끌어오면 아내를 얻게 되고, 끌어오지 않으면 아내를 얻지 못한다면, 곧 장차 끌어오겠는가?'라고 말하라.]</p>
894	<p>12-02 曹交問章</p>	<p>12-02 曹交問章</p>	<p>◇사람이면 누구나 堯舜 같은 聖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길은 요·순의 道인 孝悌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하신 말씀이다.</p>
895	<p>趙氏曰 曹交 曹君之弟也 人皆可以爲堯舜 疑古語 或孟子所嘗言也</p>	<p>12-02-01 曹交問曰 人皆可以爲堯舜 有諸 孟子曰然</p>	<p>조교가 묻기를, 「사람이면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니라.」</p>
896	<p>曹交問也 食穀而已 言無他材能也</p>	<p>12-02-02 交聞文王十尺 湯九尺 今交九尺四寸以長 食粟而已 何如則可</p>	<p>(조교가 말하기를,)「交(제)가 듣기로는 '문왕은 키가 10 척이었고, 탕왕은 9 척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9 척 4 촌의 키를 가지고 곡식만 먹고 있을 뿐이니,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p>
897	<p>匹字 本作鷗 鷗也 從省作匹 禮記 說匹爲鷗 是也 烏獲 古之有力人也 能舉移千鈞</p>	<p>12-02-03 曰奚有於是 亦爲之而已矣 有人於此 力不能勝一匹雞 則爲無力人矣 今日舉百鈞 則爲有力人矣 然則舉烏獲之任 是亦爲烏獲而已矣 夫人豈以不勝爲患哉 弗爲耳</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런 것의 관계가 있으리오. 역시 하기 나름이니라.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오리새끼를 이길 수 없다면 곧 힘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오늘날 말하기를, '삼천 근을 듣다.'고 하면 곧 힘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니, 그런즉 오획이 감당한 것을 들면 그 사람 역시 오획이 된 것일 따름이니, 대저 사람이 어찌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으로써 근심을 하리오. 하지 아니할 뿐이니라.」</p>
898	<p>陳氏曰 孝弟者 人之良知良能自然之性也 堯舜 人倫之至 亦率是性而已 豈能加毫末於是哉 楊氏曰 堯舜之道大矣 而所以爲之 乃在夫行止疾徐之間 非有甚高難行之事也 百姓</p>	<p>12-02-04 徐行後長者 謂之弟 疾行先長者 謂之不弟 夫徐行者 豈人所不能哉 所不爲也 堯舜之道 弟孝而已矣</p>	<p>천천히 걸어서 어른의 뒤에 가는 것을 공손하다 이르고, 빨리 걸어서 어른의 앞에 가는 것을 불손하다고 이르는 것이니, 무릇 천천히 가는 것이야 어찌 사람의 능치 않은 것이겠는가? 하지 아니한 것이니, 요·순의 도는 효도와 공경일 뿐이니라.</p>

	蓋日用而不知耳		
899	言爲善爲惡 皆在我而已 詳曹交之間 淺陋驪率 必其進見之時 禮貌衣冠言動之間 多不循理 故孟子告之如此兩節云	12-02-05 子服堯之服 謌堯之 言 行堯之行 是堯而已矣 子服 桀之服 謌桀之言 行桀之行 是 桀而已矣	그대가 堯의 옷을 입고, 壯의 말을 외우며, 요의 행실을 행하면 그것은 堯일뿐이요, 그대가 桀의 옷을 입고, 걸의 말을 외우며, 걸의 행실을 행하면 그것은 桀일뿐이니라.」
900	假館而後受業 又可見其求道之不篤	12-02-06 曰交得見於鄒君 可 以假館 願留而受業於門	(조교가) 말하기를, 「제가 추나라 國君을 만나보게 되면 관사를 빌릴 수 있을 것이니, 거기에 머무르면서 선생의 문도로서 배우고 싶습니다.」
901	言道不難知 若歸而求之事親敬長之間 則性分之內 萬理皆備 隨處發見 無不可師 不必留此而受業也 ♥ 曹交事長之禮既不至 求道之心 又不篤 故孟子教之以孝弟而不容其受業 蓋孔子餘力學文之意 亦不屑之教誨也	12-02-07 曰夫道 若大路然 豈 難知哉 人病不求耳 子歸而求 之 有餘師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道는 큰길과 같으니 어찌 알기가 어렵겠는가?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것이 병일뿐이니, 그대가 돌아가서 구하면 남아있는 스승이 있을 것이니라.」
902	12-03 小弁凱風章	12-03 小弁凱風章	◇小弁과 凱風 두 篇의 詩를 해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자식이 아버지의 과오에 對處(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903	高子齊人也 小弁小雅篇名 周幽王娶申后 生太子宜臼 又得褒姒 生伯服 而黜申后 廢宜臼 於是 宜臼之傳 爲作此詩 以叙其哀痛迫切之情也	12-03-01 公孫丑問曰 高子曰 小弁小人之詩也 孟子曰 何以 言之 曰怨	공손추가 묻기를, 「고자가 말하기를, '소반은 소인의 시다.'라고 말하던데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공손추가) 말하기를, 「원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04	固謂執滯不通也 爲猶治也 越蠻夷國名 道語也 親親之心 仁之發也	12-03-02 曰固哉 高叟之爲詩 也 有人於此 越人 關弓而射之 則己談笑而道之 無他 疏之也 其兄關弓而射之 則己垂涕泣而 道之 無他 戚之也 小弁之怨 親親也 親親仁也 固矣 夫 高 叟之爲詩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루하구나. 고노인의 시를 해석함이여!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월나라 사람이 활을 당겨 그를 쏘았다고 하면 자기는 웃으면서 그것을 얘기할 것이니, 그것은 다른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월나라 사람을 소원하게 여겨서이고, 그의 형이 활을 당겨 그를 쏘았다고 하면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니, 그것은 다른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형을 친척으로 여기기 때문이니, 소반의 원망은 아버이를 아버이로 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 아버이를 아버지로 여기는 것은 仁이니, 고루하도다. 고노인의 시를 해석함이여!」

905	凱風 邶風篇名 衛有七子之母 不能安其室 七子作此 以自責也	12-03-03 曰凱風 何以不怨	(공손추가) 말하기를, 「개풍은 어찌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906	磯水激石也 不可磯 言微激之而遽怒也	12-03-04 曰凱風親之過小者也 小弁親之過大者也 親之過 大 而不怨 是愈疏也 親之過小而 怨 是不可磯也 愈疏不孝也 不 可磯 亦不孝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개풍에서는 어버이의 과오가 작은 것이고, 소반에서는 어버이의 과오가 큰 것이니, 어버이의 과오가 큼에도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욱 소원해지는 것이고, 어버이의 과오가 작은데도 원망하면 그것은 자식을 격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니, 더욱 소원해지는 것도 불효요, 자식을 격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불효이니라.」
907	言舜猶怨慕 小弁之怨 不爲不孝也 ♥ 趙氏曰 生之膝下 一體而分 喘息呼吸 氣通於親 當親而疏 怨慕號天 是以 小弁之怨 未足爲愆也	12-03-05 孔子曰 舜其至孝矣 五十而慕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임금은 그 효도가 지극하시어 오십이 되어도 (어버이를) 사모하였다.'라고 하셨느니라.」
908	12-04 宋輕將之楚章	12-04 宋輕將之楚章	◇맹자께서 宋輕의 戰爭반대와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그가 利를 내세우는 名分은 잘못이니, 仁과 義를 명분으로 해야 함을 지적한 내용이다.
909	宋姓 輕名 石丘地名	12-04-01 宋輕 將至楚 孟子遇 於石丘	송경이 초나라로 가는 길에, 맹자께서 석구에서 그를 만나자
910	趙氏曰 學士年長者 故謂之先生	12-04-02 曰先生 將何之	말씀하시기를, 「선생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911	時宋輕方欲見楚王 恐其不悅 則將見秦王也 遇合也 按莊子書 有宋輕者 禁攻寢兵 救世之戰 上說下教 強聒不舍 疏云齊宣王時人 以事考之 疑卽此人也	12-04-03 曰吾聞秦楚構兵 我 將見楚王 說而罷之 楚王 不悅 我將見秦王 說而罷之 二王我 將有所遇焉	(송경이) 대답하기를, 「나는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서, 초나라의 왕을 만나서 그를 설복시켜 그만두게 하려고 하지만, 초나라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진나라의 왕을 만나서 그를 설복시켜 그만두게 하려고하는데, 두 왕 중에서 (뜻이) 맞는 이를 만나게 될 것이요.」
912	徐氏曰 能於戰國擾攘之中 而以罷兵息民爲說 其志可謂大矣 然 利爲名 則不可也	12-04-04 曰軻也 請無問其詳 願聞其指 說之將如何 曰我將 言其不利也 曰先生之志則大矣 先生之號則不可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 상세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요지를 듣고 싶으니, 장차 그들을 어떻게 설복하실 겁니까?」(송경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 전쟁의 불리함을 말하려 합니다.」(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의 뜻은 위대합니다마는 선생의 명목은 불가할 것입니다.」

913		<p>12-04-05 先生 以利 說秦楚之王 秦楚之王 �慨於利 以罷三軍之師 是三軍之士 樂罷而慨於利也 為人臣者 �慨利以事其君 為人子者 �慨利以事其父 為人弟者 �慨利以事其兄 是君臣父子兄弟 終去仁義 �慨利以相接 然而不亡者 未之有也</p>	<p>선생께서 이익을 가지고 진나라와 초나라의 왕들을 설복시켜서, 진나라와 초나라의 왕들이 이익을 기뻐하여 삼군의 군대를 해산시킨다면, 그것은 삼군의 군사들이 해산을 즐거워하고 이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의 신하 된 자가 이익을 생각하여서 자기 임금을 섬기고, 남의 자식 된 자가 이익을 생각하여서 자기 아버지를 섬기며, 남의 동생 된 자가 이익을 생각하여서 자기 형을 섬긴다면, 그것은 군신과 부자와 형제가 마침내 仁과 義를 버리고 이익을 생각해서 서로 접촉하는 것이니, 그러면서도 망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p>
914	<p>此章 言休兵息民 為事則一 然其心有義利之殊 而其效有興亡之異 學者所當深察而明辨之也</p>	<p>12-04-06 先生 以仁義 說秦楚之王 秦楚之王 慙於仁義 而罷三軍之師 是三軍之士 樂罷而愒於仁義也 為人臣者 慨仁義以事其君 為人子者 慨仁義以事其父 為人弟者 慹仁義以事其兄 是君臣父子兄弟 去利 慨仁義 以相接也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何必曰利</p>	<p>선생께서 仁과 義를 가지고 진나라와 초나라의 왕들을 설복시켜서, 진나라와 초나라의 왕들이 仁과 義를 기뻐하여 삼군의 군대를 해산시킨다면, 그것은 삼군의 군사들이 해산을 즐거워하고 仁과 義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의 신하 된 자가 仁과 義를 생각하여서 자기 임금을 섬기고, 남의 자식 된 자가 仁과 義를 생각하여서 자기 아버지를 섬기며, 남의 동생 된 자가 仁과 義를 생각하여서 자기 형을 섬긴다면, 그것은 군신과 부자와 형제가 이익을 버리고 仁과 義를 생각해서 서로 접촉하는 것이니, 그러면서도 왕 노릇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있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익이라고 하십니까?」</p>
915	12-05 孟子居鄒章	12-05 孟子居鄒章	<p>◇맹자가 出處와 進退에 대하여 慎重을 期한 예를 설명한 내용이다. - 맹자는 禮에 未洽(미흡)하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p>
916	<p>趙氏曰 季任 任君之弟 任君 朝會於鄰國 季任 為之居守其國也 儲子 齊相也 不報者 來見則當報之 但以幣交則不必報也</p>	<p>12-05-01 孟子居鄒 季任 為任處守 以幣交 受之而不報 處於平陸 儲子爲相 以幣交 受之而不報</p>	<p>맹자께서 추나라에 계실 적에 계임이 임나라의 처수(留守)로 있으면서 페백을 보내 (맹자와의) 교제를 청해왔는데, 그것을 받으셨으나 가서 감사의 뜻을 표하지는 않으셨고, 평륙에 계실 때에는 저자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페백을 보내 (맹자와의) 교제를 청해왔는데, 그것을 받으셨으나 가서 감사의 뜻을 표하지는 않으셨다.</p>
917	<p>屋廬子之孟子之處此 必有義理 故喜得其間隙而問之</p>	<p>12-05-02 他日 由鄒之任 見季子 由平陸之齊 不見儲子 屋廬子喜曰 連得間矣</p>	<p>후일에 추에서 임나라로 가서 계자(계임)를 만나보시고, 평륙에서 제나라로 가서는 저자를 만나보지 않으셨는데, 옥려자가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따져볼 조건이 생겼다.」하면서</p>
918	<p>言儲子 但爲齊相 不若季子攝守君位 故輕之邪</p>	<p>12-05-03 問曰 夫子之任 見季子 之齊 不見儲子 為其爲相與</p>	<p>묻기를, 「선생님께서 임나라에 가셔서는 계자를 만나보시고, 제나라에 가셔서는 저자를 만나보지 않으시니, (그것은) 그가 재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p>

919	<p>書周書洛誥之篇 享奉上也 儀禮也 物幣也 役用也 言雖享而禮意不及其幣 則是不享矣 以其不用志于享故也</p>	<p>12-05-04 曰非也 書曰享 多儀 儀不及物 曰不享 惟不役志于 享</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니라.『서경』에 이르기를, '享見하는데는 儀法이 많으니, 의법이 폐물에 미치지 못하면 향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느니, 오직 마음을 향견하는 데에 쓰지 않는 것이니라.'하였으니,</p>
920	孟子釋書意如此	12-05-05 爲其不成享也	<p>그것은 향견례를 성립시키지 않기 때문이니라.」</p>
921	<p>徐氏曰 季子爲君居守 不得往他國以見孟子 則以幣交而禮意已備 儲子爲齊相 可以至齊之境內 而不來見 則雖以幣交 而禮意不及其物也</p>	<p>12-05-06 屋廬子悅 或問之 屋 廬子 曰季子 不得之鄒 儲子 得之平陸</p>	<p>옥려자가 기뻐하거늘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묻자, 옥려자가 대답하기를, 「계자는 추나라로 갈 수 없었지만, 저자는 평륙으로 갈 수 있었던 것지요.」</p>
922	12-06 先名實者章	12-06 先名實者章	<p>◇맹자가 客卿의 자리를 내놓고 齊나라를 떠나가는 것을 순우곤이 嘲弄(조롱)하는 語調로 비판하는데 대해 應酬(응수)한 내용이다. - 군자란 자기의 정치이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苛且(구차)하지 않게 떠나가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p>
923	<p>名聲譽也 實事功也 言以名實爲先而爲之者 是有志於救民者也 以名實爲後而不爲者 是欲獨善其身者也 名實未加於上下 言上未能正其君 下未能濟其民也</p>	<p>12-06-01 淳于髡 曰先名實者 爲人也 後名實者 自爲也 夫子 在三卿之中 名實 未加於上下 而去之 仁者 固如此乎</p>	<p>순우곤이 말하기를, 「명예와 공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명예와 공적을 뒤로 돌리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선생께서는 삼경에 들면서 명예와 공적이 위와 아래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떠나가시니, 인자한 사람은 본래 그런 것입니까?」</p>
924	<p>仁者無私心而合天理之謂 楊氏曰 伊尹之就湯 以三聘之勤也 其就桀也 湯進之也 湯豈有伐桀之意哉 其進伊尹以事之也 欲其悔過遷善而已 伊尹既就湯 則以湯之心爲心矣 及其終也 人歸之 天命之 不得已而伐之耳 若湯 初求伊尹 卽有伐桀之心 而伊尹遂相之以伐桀 是以取天下爲心也 以取天下爲心 豈聖人之心哉</p>	<p>12-06-02 孟子曰 居下位 不以 賢事不肖者 伯夷也 五就湯 五 就桀者 伊尹也 不惡汚君 不辭 小官者 柳下惠也 三者不同道 其趨一也 一者何也 曰仁也 君 子亦仁而已矣 何必同</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어진 것으로써 착하지 않은 자를 섬기지 않은 사람은 백이이고, 다섯 번 탕에게 나아가고 다섯 번 걸에게 나아간 자는 이윤이며, 더러운 임금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작은 벼슬을 사양하지 아니한 자는 유하혜이니, 세 사람이 道는 같지 아니하나, 그 意趣는 하나였소.」(순우곤이 묻기를),「하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것입니다. 군자는 역시 仁할 때를 아니하니, 어찌 반드시 (방법이) 같아야 할 것이야 있겠소?」</p>
925	<p>公儀子名休 爲魯相 子柳泄柳也 削地見侵奪也 髮譏孟子雖不去 亦未必能有爲也</p>	<p>12-06-03 曰魯繆公之時 公儀 子爲政 子柳子思爲臣 魯之削 也 滋甚 若是乎賢者之無益於 國也</p>	<p>(순우곤이) 묻기를, 「노나라 목공 때에 공의자가 정치를 맡아보고, 자류와 자사가 신하노릇을 하였는데, 노나라의 영토를 뺏기는 것이 더욱 심하였으니, 그와 같이 현자가 나라에 무익합니까?」</p>

926	百里奚 事見前篇	12-06-04 曰虞不用百里奚而亡 秦穆公 用之而霸不用賢則亡 削何可得與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虞나라에서는 백리해를 등용하지 않아서 멸망하였고, 秦나라 목공은 그를 등용해서 패자가 되었으니, 현자를 등용하지 않으면 멸망하느니 어찌 땅을 빼앗기는 정도로 그칠 수 있겠소?」
927	王豹衛人善謳 淇水名 綿駒齊人善歌 高唐齊西邑 華周杞梁二人皆齊臣 戰死於莒 其妻哭之哀 國俗化之 皆善哭 髡以此譏孟子仕齊無功 未足爲賢也	12-06-05 曰昔者 王豹處於淇 而河西善謳 綿駒處於高唐 而 齊右善歌 華周杞梁之妻 善哭 其夫 而變國俗 有諸內 必形諸 外 爲其事而無其功者 髡未嘗 睹之也 是故 無賢者也 有則髡 必識之	(순우곤이) 말하기를, 「옛날에 왕표가 기수 가에서 살자 하서지방 사람들이 소리를 잘했고, 면구가 고당에 살자 제우지방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렀으며, 화주와 기량의 처가 그 남편의 죽음에 곡을 잘하여 나라의 풍속이 변하였으니, 안에 들어있는 것(德)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느니, 그 일을 하였는데 그 공이 없는 것을 저는 아직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자가 없음이지, 있었다면 제가 반드시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928	按史記 孔子爲魯司寇 攝行相事 齊人聞而懼 於是 以女樂遺魯君 季桓子與魯君 往觀之 惰於政事 子路曰 夫子可以行矣 孔子曰 魯今且郊 如致膾于大夫 則吾猶可以上 桓子卒受齊女樂 郊又不致膾肉于大夫 孔子遂行 孟子言以爲爲肉者 固不足道 以爲爲無禮 則亦未爲深知孔子者 蓋聖人於父母之國 不欲顯其君相之失 又不欲無故而苟去 故不以女樂去而以膾肉行 其見幾明決而用意忠厚 固非衆人所能識也 然則孟子之所爲 豈髡之所能識哉 ♥ 尹氏曰 淳于髡未嘗知仁 亦未嘗識賢也 宜乎其言若是	12-06-06 曰孔子爲魯司寇 不 用 從而祭 燔肉不至 不稅冕而 行 不知者 以爲爲肉也 其知者 以爲爲無禮也 乃孔子則 欲以 微罪行 不欲爲苟去 君子之所 爲 衆人 固不識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노나라의 사구로 계셨는데 중용되지 않았고, 隨從(수종)하여 제사에 참여하였으나 번육(구운 고기)이 오지 않아서 면복도 벗지 않으시고 떠나가셨는데, 모르는 사람은 고기 때문이었다 하고, 아는 사람은 무례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자께서 작은 죄로써 떠나가시려 함이지, 구차하게 그만두려고 하지 않으신 것이니, 군자가 하는 일을 일반사람들은 본래 알지 못하는 것이요.」
929	12-07 逢君之惡章	12-07 逢君之惡章	◇五霸는 三王의,當時의 諸侯는 오패의, 당시의 大夫는 당시의 제후의 罪人임을 實證(실증)한 내용이다. - 當時의 歷史와 制度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됨
930	趙氏曰 五霸齊桓晉文秦穆宋襄楚莊也 三王夏禹商湯周文武也 丁氏曰 夏昆吾商大彭豕韋周齊桓晉文	12-07-01 孟子曰 五霸者 三王 之罪人也 今之諸侯 五霸之罪 人也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고, 지금의 제후는 오패의 죄인이며, 지금의 대부는 지금의 제후의 죄인이라.

	謂之五霸	人也	
931	<p>慶賞也 益其地以賞之也 搏克聚斂也 讓責也 移之者誅其人而變置之也 討者出命以討其罪 而使方伯連帥 帥諸侯以伐之也 伐者奉天子之命 聲其罪而伐之也 摟牽也 五霸牽諸侯 以伐諸侯 不用天子之命也 自入其疆 至則有讓 言巡狩之事 自一不朝 至六師移之 言述職之事</p>	<p>12-07-02 天子適諸侯 曰巡狩 諸侯朝於天子 曰述職 春省耕 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給 入 其疆 土地辟 田野治 養老尊賢 俊傑 在位則有慶 慶以地 入其 疆 土地荒蕪 遺老失賢 搏克在 位則有讓 一不朝則貶其爵 再 不朝則削其地 三不朝則六師 移之 是故 天子 討而不伐 諸 侯 伐而不討五霸者 摟諸侯 以 伐諸侯者也 故曰 五霸者 三王 之罪人也</p>	<p>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라 하고, 제후가 천자에게 입조하는 것을 술직이라 하니, 봄에는 밭가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주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것을 살펴서 넉넉지 못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니, (천자가 그 제후의) 봉지에 들어가서 토지가 개간되어 있고, 전야가 정리되어 있으며, 늙은이를 봉양하고 賢者를 존경하며, 준걸이 벼슬에 있으면 賞을 주는데, 賞은 땅으로써 아니라. (제후의) 봉지에 들어가서 토지가 황폐하고, 늙은이를 내버려두고 賢者를 잃어버리며, 권세를 믿고 힘부로 세금을 징수하는 자가 벼슬에 있으면 견책하였느니라. (제후가) 한 번 입조하지 않으면 그 작위를 낮추고, 두 번 입조하지 않으면 그 봉지를 줄였으며, 세 번 조회하지 않으면 六軍(천자의 군대)을 그곳으로 이동시켰으니, 그렇기 때문에 천자는 討罪를 하지 征伐하지는 않았고, 제후는 정벌을 하지 토죄하지는 않는 것이니, 오패는 제후들을 끌어 모아서 제후를 정벌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라.</p>
932	<p>按春秋傳僖公九年葵丘之會 陳牲而不殺 讀書加於牲上 壹明天子之禁 樹立也 已立世子 不得擅易 初命三事 所以修身正家之要也 賓賓客也 旅行旅也 皆當有以待之 不可忽忘也 士世祿而不世官 恐其未必賢也 官事無攝 當廣求賢才以充之 不可以闕人廢事也 取士必得必得其人也 無專殺大夫 有罪則請命于天子而後 殺之也 無曲防 不得曲爲隄防 壽泉激水 以專小利 痘鄰國也 無遏糴鄰國凶荒 不得閉糴也 無有封而不告者 不得專封國邑而不告天子也</p>	<p>12-07-03 五霸 桓公 爲盛 葵 丘之會 諸侯束牲載書而不歃血 初命曰 誅不孝 無易樹子 無以 妾爲妻 再命曰 尊賢育才 以彰 有德 三命曰 敬老慈幼 無忘賓 旅 四命曰 士無世官 官事無攝 取士必得 無專殺大夫 五命曰 無曲防 無遏糴 無有封而不告 曰凡我 同盟之人 旣盟之後 言 歸于好 今之諸侯 皆犯此五禁 故曰 今之諸侯 五霸之罪人也</p>	<p>오패 중에 (齊나라) 환공이 가장 위세가 있어, 규구의 회맹에서 제후들은 희생을 끓어놓고서 그 위에 盟約을 쓴 문서를 올려놓고 삽혈은 하지 않았다. (그 盟約書의) 첫째 條項은 '불효한 자를 죽이고, 세운 세자를 바꾸지 말며, 칩을 처로 삼지 말라.'이며, 둘째 條項은 '賢者를 존중하고 인재를 길러 德이 있는 자를 드려낸다.'이며, 셋째 條項은 '늙은이를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빈객과 여행자를 소홀하게 잊지 말라.'이며, 넷째 條項은 '士에게는 관직을 세습시키지 말고, 관직의 일을 兼務시키지 말며, 士는 반드시 좋은 인물을 발탁하고, 대부를 독단으로 죽이지 말 것이다.'이며, 다섯째 條項은 '제방을 굽혀 쌓지 말고, 양곡 매입을 막지 말며, 봉하고서 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였으며, (그리고) 말하기를, '무릇 우리 동맹한 사람들은 맹약을 맺고 난 후에는 서로 우호적으로 지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제후들은 모두 이 다섯 가지 금지조항을 어기고 있으니, 고로 말하기를, '지금의 제후는 오패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라.</p>
933	<p>君有過 不能諫 又順之者 長君之惡也 君之過未萌 而先意導之者 遷君之惡也 ❤</p>	<p>12-07-04 長君之惡 其罪小 逢 君之惡 其罪大 今之大夫 皆逢</p>	<p>國君의 惡을 助長하는 것은 그 죄가 작고, 國君의 惡에迎合하는 것은 그 죄가 크니,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의 대부는 지금의 제후의 죄인이다.'라고 하니라.」</p>

	<p>林氏曰 邳子有言 治春秋者不先治五霸之功罪 則事無統理而不得聖人之心 春秋之間 有功者未有大於五霸 有過者亦未有大於五霸 故五霸者功之首罪之魁也 孟子此章之意其亦若此也與 然五霸得罪於三王 今之諸侯得罪於五霸 皆出於異世 故得以逃其罪 至於今之大夫 宜得罪於今之諸侯 則同時矣 而諸侯非惟莫之罪也 乃反以爲良臣而厚禮之 不以爲罪而反以爲功 何其謬哉</p>	<p>君之惡 故曰 今之大夫 今之諸侯之罪人也</p>	
934	12-08 魯欲使慎子爲將軍章	12-08 魯欲使慎子爲將軍章	◇맹자께서 魯나라는 이미 본래 封해진 領土의 5 배가 되었음에도 慎子를 시켜 齊나라를 침략하고자 함에 이를 비판한 내용이다.
935	慎子魯臣	12-08-01 魯欲使慎子 爲將軍	노나라에서 신자를 장군으로 삼고자함에,
936	教民者 教之禮義 使知入事父兄 出事長上也 用之使之戰也	12-08-02 孟子曰 不教民而用之 謂之殃民 殃民者 不容於堯舜之世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서 (전쟁에) 동원해 쓰는 것은 백성들을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라 하니, 백성들을 재앙에 빠뜨리는 자는 요·순의 시대에는 용납되지 못했느니라.
937	是時 魯蓋欲使慎子伐齊 取南陽也 故孟子言就使慎子善戰 有功如此 且猶不可	12-08-03 一戰勝齊 遂有南陽 然且不可	한 번 싸워서 제나라를 이겨 마침내 남양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느니라.」
938	滑釐慎子名	12-08-04 慎子 勃然不悅曰 此則滑釐 所不識也	신자가 발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런 것은 골리(신자)가 알 수 없는 바입니다.」
939	待諸侯 謂待其朝覲聘問之禮 宗廟典籍 祭祀會同之常制也	12-08-05 曰明告子 天子之地 方千里 不千里 不足以待諸侯 諸侯之地 方百里 不百里 不足以守宗廟之典籍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네에게 명백하게 일러주리라. 천자의 땅은 사방 천리이니 천리가 안 되면 제후를 접하기에 부족하고, 제후의 땅은 사방 백리이니 백리가 안 되면 종묘의 전적을 지키기에 부족하니라.
940	二公有大勳勞於天下 而其封國 不過百里 儉止而不過之意也	12-08-06 周公之於封魯 爲方百里 地非不足而儉於百里 太公之封於齊也 亦爲方百里也 地非不足也 而儉於百里	주공이 노나라에 봉해졌을 때에는 사방 백리였으니 땅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백리에 그쳤으며, 태공이 제나라에 봉해졌을 때에도 역시 사방 백리였으니 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만 백리에 그쳤던 것이니라.

941	魯地之大 皆并吞小國而得之 有王者作 則必在所損矣	12-08-07 今魯 方百里者五 子以爲有王者作 則魯在所損乎 在所益乎	지금의 노나라는 사방 백리 되는 것이 다섯이니, 자네 (생각에)는 왕자가 일어나면 노나라는 땅이 줄어들겠는가? 늘어나겠는가?
942	徒空也 言不殺人而取之也	12-08-08 徒取諸彼 以與此 然 且仁者 不爲 況於殺人以求之 乎	그냥 저 나라에서 가져다가 이 나라에 주는 일조차도 仁자는 하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을 죽이고서 그것(땅)을 구하겠는가?
943	當道謂事合於理 志人 謂心在於仁	12-08-09 君子事君也 務引其 君以當道 志於仁而已	군자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기 임금을 마땅한 道로써 힘써 이끌어, 仁에다 뜻을 두게 할 뿐이니라.」
944	12-09 今之所謂良臣章	12-09 今之所謂良臣章	◇맹자가 當面한 世代의 作風을 批判하고, 仁과 道에 따른 政治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大業을 成就할 수 없음을 示唆(시사)한 내용. - 正道에 어긋난 방법으로는 비록 天下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斷言(단언)한 것이다.
945	辟開墾也	12-09-01 孟子曰 今之事君者 曰 我能爲君 辟土地 充府庫 今之所謂良臣 古之所謂民賊也 君不鄉道不志於仁 而求富之 是富桀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에 임금을 섬기는 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임금을 위하여 토지를 개간하며, 창고를 가득 차게 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금의 이른바 좋은 신하는 옛날의 이른바 백성의 도적이니라. 임금이 道를 지향하지 않고 仁에다 뜻을 두지 않는데, 그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桀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
946	約要結也 與國和好相與之國也	12-09-02 我能爲君 約與國 戰 必克 今之所謂良臣 古之所謂 民賊也 君不鄉道 不志於仁 而 求爲之強戰 是輔桀也	'나는 임금을 위하여 우호국과 맹약을 맺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이른바 좋은 신하는 옛날의 이른바 백성의 도적이니라. 임금이 道를 지향하지 않고 仁에다 뜻을 두지 않는데, 그를 위하여 무리하게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桀을 도와주는 것이라.
947	言必爭奪而至於危亡也	12-09-03 由今之道 無變今之 俗 雖與之天下 不能一朝居也	지금의 방법에 따르고 지금의 습속을 고치지 않으면, 비록 천하를 줄지라도 하루아침도 그것을 지탱해 내지 못할 것이라.」
948	12-10 大貉小貉章	12-10 大貉小貉章	◇堯·舜의 遺法인 十一租(십일조)보다 줄여도 안 되고, 늘려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다.
949	白圭名丹 周人也 欲更稅法 二十分而取其一分 林氏曰 按史記 白圭能薄飲食 忍嗜欲 與童僕同苦樂 樂觀時變 人棄我取 人取我與 以此居積致富 其爲此論 蓋欲以其術 施之國家也	12-10-01 白圭曰 吾欲二十而 取一 何如	백규가 말하기를, 「나는 20 분의 1 의 세금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950	貉北方夷狄之國名也	12-10-02 孟子曰 子之道 貝道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방법은 맥의 방법이로다.」
951	孟子設喻以詰圭 而圭亦知其不可也	12-10-03 萬室之國 一人 陶則可乎 曰不可 器不足用也	만호가 사는 나라에서 한 사람이 陶器를 만든다면 괜찮겠소?」(백규가) 말하기를, 「안됩니다. 器物이 쓰임에 부족할 것입니다.」
952	北方地寒 不生五穀 孫早熟 故生之 饔飧以飲食饋客之禮也	12-10-04 曰夫貉 五穀不生 惟 孫生之 無城郭宮室宗廟祭祀之 禮 無諸侯幣帛饔飧 無百官有 司 故二十取一而足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맥나라에서는 오곡이 나지 않고 오직 기장(수수)만 나니, 성곽과 궁궐, 그리고 종묘에서 제사지내는 예법이 없고, 제후의 페백과 손님을 대접함도 없으며, 백관과 유사도 없는지라, 고로 20 분의 1 을 세금으로 받아도 충분할 것이라.」
953	無君臣祭祀交際之禮 是去人倫 無百官有司是無君子	12-10-05 今居中國 去人倫 無 君子 如之何其可也	지금 중국에 살면서 인륜을 버리고 군자(백관과 유사)가 없으면 어떻게 그것이 괜찮겠는가?
954	因其辭以折之	12-10-06 陶而寡 且不可以爲 國 況無君子乎	陶器가 적은 것으로도 나라를 다스리기가 불가하거늘, 하물며 군자(백관과 유사)가 없음이랴?
955	什一而稅 堯舜之道也 多則桀 寡則貉 今欲輕重之 則是小貉小桀而已	12-10-07 欲輕之於堯舜之道者 大貉小貉也 欲重之於堯舜之道 者 大桀 小桀也	요·순의 방법보다 가볍게 하려는 자는 대맥이나 소맥이고, 요·순의 방법보다 무겁게 하려는 자는 대걸이나 소걸이니라.」
956	12-11 丹之治水章	12-11 丹之治水章	◇자기나라만 피해를 謂免(모면)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은 큰 잘못임을 지적한 내용이다.
957	趙氏曰 當時諸侯 有小水 白圭爲之築堤 壹而注之他國	12-11-01 白圭曰 丹之治水也 愈於禹	백규가 말하기를, 「제가 치수한 것이 우임금보다 낫습니다.」
958	順水之性也	12-11-02 孟子曰 子過矣 禹之 治水 水之道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잘못이로다. 우임금이 치수한 것은 물이 제 길로 가게 한 것이라.」
959	壑受水處也	12-11-03 是故禹以四海爲壑 今吾子以隣國爲壑	그래서 우임금은 사해를 골짜기(구렁)로 삼았던 것인데, 지금 그대는 이웃나라를 골짜기(구렁)로 삼고 있음이니라.
960	水逆行者 下流壅塞 故水逆流 今乃壅水以害人 則與洪水之災無異矣	12-11-04 水逆行 謂之洚水 濢 水者 洪水也 仁人之所惡也 吾 子過矣	물이逆行하는 것을 강수라고 하는데, 강수라는 것은 홍수로서 인자한 사람이 싫어하는 것인니, 그대는 잘못이로다.」
961	12-12 君子不亮章	12-12 君子不亮章	◇군자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이다.

962	亮信也 與諒同 惡乎執 言凡事苟且無所執持也	12-12-01 孟子曰 君子不亮 惡乎執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신용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963	12-13 魯欲使樂正子爲政章	12-13 魯欲使樂正子爲政章	◇ 善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온갖 사람들의 지혜를 얻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음을 밝힌 내용이다. - 아울러 獨善者가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움을 밝혔다.
964	喜其道之得行	12-13-01 魯欲使樂正子 為政 孟子曰 吾聞之 喜而不寐	노나라에서 악정자에게 정사를 맡기고자 하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잠을 자지 못하였노라.」
965	此三者 皆當世之所尚 而樂正子之所短 故丑疑而歷問之	12-13-02 公孫丑曰 樂正子 強乎 曰否 有知慮乎 曰否 多聞識乎 曰否	공손추가 말하기를, 「악정자는 굳센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그렇지 않다)」(공손추가) 말하기를, 「지혜와 惠慮(사려)가 있습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그렇지 않다)」(공손추가) 말하기를, 「듣고 아는 것이 많습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그렇지 않다)」
966	丑問也	12-13-03 然則 奚爲喜而不寐	(공손추가 말하기를,)「그러면 어째하여 기뻐서 자지 못하였습니까?」
967	丑問也	12-13-04 曰其爲人也 好善 好善 足乎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사람들이 착한 것을 좋아하느니라.」(공손추가 말하기를,)「착한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968	優有餘裕也 言雖治天下 尚有餘力也	12-13-05 曰好 優於天下 而況魯國乎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천하에 뛰어나거늘, 하물며 노나라에서 이겠느냐?」
969	輕易也 言不以千里爲難也	12-13-06 夫苟好善 則四海之內 皆將輕千里而來 告之以善	무릇 진실로 善을 좋아하면 사해 안의 사람들이 모두 천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찾아와 善으로써 일러주게 될 것이고,
970	詭詭自足其智 不嗜善言之貌 君子小人 迭爲消長 直諒多聞之士遠 則讒諂面諛之人至 理勢然也 ♥ 此章言爲政 不在於用一己之長 而貴於有以來天下之善	12-13-07 夫苟不好善 則人將曰詭詭 予既已知之矣 詭詭之聲音顏色 距人於千里之外 士止於千里之外 則讒諂面諛之人至矣 與讒諂面諛之人居 國欲治 可得乎	대저 진실로 善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는 꼴을 내 이미 알고 있노라.'라고 할 것이니,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는 목소리와 안색은 사람들을 천리 밖으로 물러나게 할 것이다. 선비들이 천리 밖에 떨어져있으면 참소하고 아첨하며 아양을 떠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니, 참소하고 아첨하며 아양을 떠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면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바란들 그럴 수 있겠는가?」
971	12-14 所就三所去三章	12-14 所就三所去三章	◇ 군자의 去就를 三等級으로 갈라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 去就에는 慎重(신중)하고 毅然(의연)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972	其目在下	12-14-01 陳子曰 古之君子 何如則仕 孟子曰 所就三所去三	진자가 말하기를, 「옛날의 군자는 어떻게 하면 벼슬을 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벼슬하려) 나아가는 경우가 세 가지이고, 물러나는 경우가 세 가지이니라.
973	所謂見行可之仕 若孔子於季桓子是也 受女樂而不朝 則去之矣	12-14-02 迎之致敬以有禮 言將行其言也 則就之 禮貌未衰 言弗行也 則去之	맞이함에 공경을 다하여 禮貌(예모)가 있고 장차 자기의 말을 (받아들여) 행하려 한다고 말하면 (벼슬하려) 나아가고, 예모는 쇠하지 않았으나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벼슬에서) 물러나느니라.
974	所謂際可之仕 若孔子於衛靈公是也 故與公遊於圃 公仰視蜚雁而後去之	12-14-03 其次 雖未行其言也 迎之致敬以有禮 則就之 禮貌 衰則去之	그 다음은 비록 자기의 말을 (받아들여)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맞이함에 공경을 다하여 禮貌(예모)가 있으면 (벼슬하려) 나아가고, 예모가 쇠하면 (벼슬에서) 물러나느니라.
975	所謂公養之仕也 君之於民 固有周之之義 況此又有悔過之言 所以可受 然未至於飢餓不能出門戶 則猶不受也 其曰 免死而已 則其所受亦有節矣	12-14-04 其下 朝不食 夕不食 飢餓不能出門戶 君聞之曰吾大 者 不能行其道 又不能從其言 也 使飢餓於我土地吾恥之 周 之 亦可受也 免死而已矣	그 아래로는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저녁밥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 문밖을 나서지 못하는 것을 임금이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크게 잡더라도 그의 道를 행하지 못하고, 또한 그의 말을 따르지 못하겠으나, 내 땅에서 굶주리게 한다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라 하고, 구제해준다면 역시 (벼슬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죽음을 면하는 것일 따름이니라.」
976	12-15 天將降大任於是人章	12-15 天將降大任於是人章	◇苦痛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激勵(격려)하여 奮發(분발)하게 하고, 安易(안이)한 環境(환경)에서 懈怠(해태)해진 사람들에게 警覺心(경각심)을 促求(촉구)한 내용이다.
977	舜耕歷山 三十 登庸 說築傅巖 武丁舉之 膠鬲遭亂 鷺販魚鹽 文王舉之 管仲囚於士官 桓公舉以相國 孫叔敖隱處海濱 楚莊王舉之爲令尹 百里奚事見前篇	12-15-01 孟子曰 舜發於畎畝 之中 傳說 舉於版築之間 膠鬲 舉於魚鹽之中 管夷吾 舉於士 孫叔敖 舉於海 百里奚 舉於市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은 밭 가운데에서 등용되었고, 부열은 성벽을 쌓는 사이에 등용되었고, 교격은 생선과 소금을 파는 데서 등용되었고, 관이오(관중)는 獄官(옥관)에게 잡혀있는 데서 등용되었고, 손숙오는 바닷가에서 등용되었고, 백리해는 저자에서 등용되었느니라.
978	降大任使之任大事也 若舜以下是也 空窮也 乏絕也 拂戾也 言使之所爲不遂 多背戾也 動心忍性 謂竦動其心 堅忍其性也 然所謂性 亦指氣稟食色而言耳 程子曰 若要熟也 順從這裏過	12-15-02 故天將降大任於是人 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 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 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 能	그러므로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큰일을 맡기는 명을 내리려면 반드시 먼저 그들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들의 근골을 수고롭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며, 그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서 (그들이)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과는 어긋나게 만드는데,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의) 성질을 참아서 그들이 해내지 못하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니라.

979	<p>恒常也 猶言大率也 橫不順也 作奮起也 徵驗也 喻曉也 此又言中人之性 常必有過然後能改 蓋不能謹於平日 故必事勢窮蹙 以至困於心 橫於慮然後 能奮發而興起 不能燭於幾微 故必事理暴著 以至驗於人之色 發於人之聲然後 能警悟而通曉也</p>	<p>12-15-03 人恒過然後 能改 困 於心 衡於慮然後 作徵於色 發 於聲而後 喻</p>	<p>사람들은 언제나 과오를 저지르고 난 뒤에야 고칠 수 있느니, 마음속으로 범민하고 생각으로 재어본 뒤에야 하며, 안색으로 나타내고 음성으로 발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느니라.</p>
980	<p>此言國亦然也 法家法度之世臣也 拂士輔弼之賢士也</p>	<p>12-15-04 入則無法家拂士 出 則無敵國外患者 國恒亡</p>	<p>들어가면 법도가 있는 세臣과 보필하는 선비가 없고 나가면 적국과 외부의 우환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언제나 멸망하느니라.</p>
981	<p>以上文觀之 則知人之生全 出於憂患 而死亡由於安樂矣 ♥ 尹氏曰 言困窮拂鬱 能堅人之志 而熟人之仁 以安樂失之者多矣</p>	<p>12-15-05 然後 知生於憂患而 死於安樂也</p>	<p>그렇게 되고 난 뒤에야 우환 속에서는 살고, 안락 속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느니라.」</p>
982	<p>12-16 教亦多術章</p>	<p>12-16 教亦多術章</p>	<p>◇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消極的으로 가르쳐준 것이라는 말씀이다.</p>
983	<p>多術言非一端 屑潔也 不以其人爲潔而拒絕之 所謂不屑之教誨也 其人若能感此 退自修省 則是亦我教誨之也 ♥ 尹氏曰 言或抑或揚或與或不與 各因其材而篤之 無非教也</p>	<p>12-16-01 孟子曰 教亦多術矣 予不屑之教誨也 者 是亦教誨 之而已矣</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는 데에도 역시 방법이 많으니, 내가 탐탁지 않아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 역시 가르쳐주는 것일 따름이니라.」</p>
984	<p>13 盡心章句上 - 凡四十六章</p>	<p>13 盡心章句上 - 凡四十六章</p>	<p>[제 13 편. 盡心章句(진심장구) 上]</p>
985	<p>13-01 盡心知性章</p>	<p>13-01 盡心知性章</p>	<p>◇ 맹자 철학의 本源(본원)이라고 할 수 있는 心·性·天이 披瀝(피력)되어 있는 내용이다. - 心과 性과 天의 相關關係와 事天 立命의 방법을闡明(천명)한 것이다.</p>
986	<p>心者人之神明 所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性則心之所具之理 而天 又理之所從以出者也 人有是心 莫非全體 然 不窮理 則有所蔽而無以盡乎此心之量 故 能極其心之全體而無不盡者 必其能窮夫理而無不知者也 既知其理 則其所從出 亦不外是矣 以大學之序言之 知性則物格之謂</p>	<p>13-01-01 孟子曰 盡其心者 知 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마음을 다하면 자기의 性을 알게 되느니, 자기의 性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되느니라.」</p>

	盡心則知至之謂也		
987	存謂操而不舍 養謂順而不害 事則奉承而不違也	13-01-02 存其心 養其性 所以 事天也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자기의 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라.
988	夭壽命之短長也 貳疑也 不貳者 知天之至 修身以俟死 則事天以終身也 立命謂全其天之所付 不以人爲害之 ♥ 程子曰 心也 性也 天也 一理也 自理而言 謂之天 自稟受而言 謂之性 自存諸人而言 謂之心 張子曰 由太虛 有天之名 有氣化 有道之名 合虛與氣 有性之名 合性與知覺 有心之名 愚謂 盡心知性而知天 所以造其理也 存心養性以事天 所以履其事也 不知其理 固不能履其事 然 徒造其理 理不履其事 則亦無以有諸己矣 知天而不以夭壽貳其心 智之盡也 事天而能修身以俟死 仁之至也 智有不盡 固不知所以爲仁 然 智而不仁 則亦將流蕩不法而不足以爲智矣	13-01-03 夭壽不貳 脩身以俟 之 所以立命也	短命(단명)과 長壽(장수)에 의심을 두지 않고 몸을 닦아서 기다리는 것이 天命을 지키는 방법이니라.」
989	13-02 莫非命也章	13-02 莫非命也章	◇자가 할 正當한 道理를 다하고 죽는 것이 正命이라는 말씀이다. - 아울러 諦念(체념)도 融和(융화)시킨 것이 맹자의 命觀이라고 할 수 있다.
990	人物之生 吉凶禍福 皆天所命 然 惟莫之致而至者 乃爲正命 故 君子修身以俟之 所以順受乎此也	13-02-01 孟子曰 莫非命也 順 受其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命 아닌 것이 없으니 그 올바른 것을 따라서 받아야하느니라.
991	命謂正命 巖牆之將覆者 知正命 則不處危地以取覆壓之禍	13-02-02 是故 知命者 不立乎 巖牆之下	그러한 까닭으로 命을 아는 자는 (무너지려는) 돌담 밑에 서지 않느니라.
992	盡其道 則所值之吉凶 皆莫之致而至者矣	13-02-03 罷其道而死者 正命 也	자기의 道理를 다하고 죽는 자는 올바른 命에 죽는 것이고,

993	<p>桎梏所以拘罪人者 言犯罪而死 與立巖牆之下者 同 皆人所取 非天所爲也 ♥ 此章與上章 蓋一時之言 所以發其末句未盡之意</p>	13-02-04 桊梏死者 非正命也	<p>질곡에 매여서 죽는 것은 올바른命이 아니나라.」</p>
994	13-03 求則得之章	13-03 求則得之章	<p>◇ 사람들이 부질없이 富貴榮達을 구하는 데는 汲汲하면서 仁義禮智를 구하여 德을 갖추는 일에는 疏忽(소홀)함을 警戒한 말씀이다.</p>
995	在我者 謂仁義禮智 凡性之所有者	13-03-01 孟子曰 求則得之 舍 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 我者也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얻게 되고 버려두면 잃게 되느니, 이때에는 구하는 것이 얻는데 유익하니,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니라.」</p>
996	<p>有道 言不可妄求 有命 則不可必得 在外者 謂富貴利達凡外物 皆是 ♥ 趙氏曰 言 爲仁由己 富貴在天 如不可求 從吾所好</p>	13-03-02 求之有道 得之有命 是求無益於得也 求在外者也	<p>구하는 데 방법이 있고 얻는 데 命이 있으니, 이때에는 구하는 것은 얻는 데 무익하니, 나 밖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니라.」</p>
997	13-04 萬物皆備於我章	13-04 萬物皆備於我章	<p>◇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仁義禮智(인의예지)를 살려 성실하고 容恕(용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최선임을 말씀하신 것이다.</p>
998	<p>此 言理之本然也 大則君臣父子 小則事物細微 其當然之理無一不具於性分之內也</p>	13-04-01 孟子曰 萬物皆備於 我矣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의 이치는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p>
999	<p>誠實也 言反諸身而所備之理 皆如惡惡臭 好好色之實然 則其行之不待勉強而無不利矣 其爲樂 墓大於是</p>	13-04-02 反身而誠 樂莫大焉	<p>자신을 반성하여 성실하면 즐거움이 그보다 클 데가 없고,</p>
1000	<p>強勉強也 恕推己以及人也 反身而誠則仁矣 其有未誠 則是猶有私意之隔而理未純也 故 當凡事勉強 推己及人 庶幾心公理得而仁不遠也 ♥ 此章 言萬物之理 具於吾身 體之而實 則道在我而樂有餘 行之以恕 則私不容而仁可得</p>	13-04-03 強恕而行 求仁莫近 焉	<p>노력하여 용서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면 仁을 구함이 그보다 가까운 길이 없을 것이니라.」</p>
1001	13-05 行之而不著焉章	13-05 行之而不著焉章	<p>◇ 태고난 本性에서 우러나오는 善에 대한 自覺, 理解, 意識의in 실천이 부족한 사람이 많음을 指摘(지적)한 내용이다.</p>

1002	著者 知之明 察者 識之精 言方行之而不能明其所當然 既習矣而猶不識其所以然 所以終身由之而不知其道者多也	13-05-01 孟子曰 行之而不著 焉 習矣而不察焉 終身由之而 不知其道者衆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뚜렷이 파악하지 않고, 습성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살피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그것에 따르면서도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라.」
1003	13-06 人不可以無恥章	13-06 人不可以無恥章	◇ 義의 端緒(단서)라고 할 수 있는 羞惡之心(수오지심)을 意識的으로 가져야 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1004	趙氏曰 人能恥己之無所恥 是能改行從善之人 終身無復有恥辱之累矣	13-06-01 孟子曰 人不可以無 恥 無恥之恥 無恥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니,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
1005	13-07 恥之於人大矣章	13-07 恥之於人大矣章	◇ 前章에 이어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 不正不義하면 그것을 깨달아 改過遷善(개과천선)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
1006	恥者 吾所固有羞惡之心也 存之則進於聖賢 失之則入於禽獸 故 所繫爲甚大	13-07-01 孟子曰 恥之於人大 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큰 것이니,
1007	爲機械變詐之巧者 所爲之事 皆人所深恥 而彼方且自以爲得計 故 無所用其愧恥之心也	13-07-02 爲機變之巧者 無所 用恥焉	임시변통하는 기교를 부리는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써볼 데가 없느니라.
1008	但無恥一事 不如人 則事事不如人矣 或曰 不恥其不如人 則何能有如人之事 其義亦通 或問 人有恥不能之心 如何 程子曰 恥其不能而爲之 可也 恥其不能而掩藏之 不可也	13-07-03 不恥不若人 何若人 有	남과 같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과 같아지겠는가?」
1009	13-08 孟子謂宋句踐章	13-08 孟子謂宋句踐章	◇ 賢士는 權勢에 屈服(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道를 즐겼음을 말하며, 당시의 선비들에게 覺醒(각성)을促求(촉구)한 내용이다. - 맹자의 孤高不屈(고고불굴)하는 自尊心의一面을 엿볼 수 있다.
1010	言 君當屈己以下賢 士不枉道而求利 二者勢若相反 而實則相成 蓋亦各盡其道而已	13-08-01 孟子曰 古之賢王好善 而忘勢 古之賢士何獨不然 樂 其道而忘人之勢 故王公不致敵 盡禮則不得亟見之 見且猶不得 亟 而況得而臣之乎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의 현명한 왕들은 善을 좋아하고 권세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옛날의 현량한 선비인들 어찌 훌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자기의 道를 즐기고 사람의 권세는 잊어버리고 있었음에, 그런고로 王과 公이 경의를 표하고 예를 다하지 않으면 그들을 자주 볼 수 없었으니, 만나는 일도 자주 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들을 얻어서 신하로 삼는 것이라?」

1011	13-09 孟子謂宋句踐章	13-09 孟子謂宋句踐章	◇遊說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德性을涵養하는 방법을 말씀한 내용. - 進退나窮達(궁달)에 있어 泰然自若(태연자약)하여야 하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德을 尊重하고 義를 즐겨야 한다고 하셨다.
1012	宋姓 句踐名 遊遊說也	13-09-01 孟子謂宋句踐曰子好遊乎 吾語子遊	맹자께서 송구천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네가 유세하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자네에게 유세하는 것을 말하리라. 남들이 자기 말을 알아주어도 태연하고, 남들이 자기 말을 알아주지 않아도 태연해야 하느니라.」
1013	趙氏曰 囂囂自得無欲之貌	13-09-02 人知之 亦囂囂 人不知 亦囂囂	(송구천이) 묻기를, 「어떻게 해야 태연해질 수 있겠습니까?」
1014	德謂所得之善 尊之則有以自重而不慕乎人爵之榮 義謂所守之正 樂之則有以自安而不徇乎外物之誘矣	13-09-03 曰何如斯可以囂囂矣 曰尊德樂義則可以囂囂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을 존중하고 義를 즐기면 태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
1015	言 不以貧賤而移 不以富貴而淫 此尊德樂義 見於行事之實也	13-09-04 故士窮不失義達不離道	그러므로 선비는 궁해도 義를 잃지 아니하며, 잘되어도 正道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1016	得己 言不失己也 民不失望 言人素望其興道致治 而今果如所望也	13-09-05 窮不夫義故 士得己焉 達不離道故民不失望焉	궁해도 義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는 자기를 유지해 가고, 잘되어도 正道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 것이라.
1017	見 謂名實之顯著也 此 又言事得己 民不失望之實 ♥ 此章 言內重而外輕 則無往而不善	13-09-06 古之人 得志澤加於民 不得志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옛날 사람들은 뜻을 이루면 은택이 백성들에게 더해졌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자신의 덕을 닦아서 세상에 뚜렷이 나타냈으니, 궁하면 혼자서 자신을 善하게 해나갔고, 잘되면 함께 천하를 善하게 해나갔느니라.」
1018	13-10 凡民豪傑章	13-10 凡民豪傑章	◇일반백성들은 聖君의 教化를 받아야만奮發(분발)하지만, 호걸스런 선비는 스스로 분발하여 正道를 행한다는 말씀이다. - 豪傑스런 선비(君子)가 되도록 촉구한 말씀.
1019	興者 感動奮發之意 凡民庸常之人也 豪傑 有過人之才智者也 蓋降衷秉彝 人所同得 唯上智之資無物欲之蔽 爲能無待於教而自能感發以有爲也	13-10-01 孟子曰待文王而後興者凡民也 若夫豪傑之士 雖無文王 獨興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왕이 나오고 난 뒤에 분발한 것은 일반백성이었으니, 만약에 호걸스런 선비라면 비록 문왕이 없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분발했을 것이라.」
1020	13-11 附之以韓·魏之家章	13-11 附之以韓·魏之家章	◇富貴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自身의 人格向上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매우 卓越(탁월)한 인물이라는 말씀이다.
1021	附益也 韓魏晉卿 富家也 欲然不自滿之意 尹氏曰 言有過人之識 則不以富貴爲事	13-11-01 孟子曰附之以韓魏之家 如其自視欲然則過人 遠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과 위의 가문의 (재산을) 보태주더라도 만약에 그 스스로가 뜻에 차지 않게 여긴다면, 남을 지나침이 멀게 되느니라.(남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1022	13-12 以佚道使民章	13-12 以佚道使民章	◇百姓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 부림을 받고 혹 생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爲政者를 怨望(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1023	程子曰 以佚道使民 謂本欲佚之也 播穀乘屋之類是也 以生道殺民 謂本欲生之也 除害去惡之類是也 蓋不得已而爲其所當爲 則雖拂民之欲 而民不怨 其不然者 反是	13-12-01 孟子曰以佚道使民 雖勞不怨 以生道殺民 雖死不 怨殺者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도로써 백성들을 부리면 비록 수고로우나 원망하지 않고, 살려주는 도로써 백성들을 죽이면 비록 죽더라도 죽인 자를 원망하지 않느니라.」
1024	13-13 霸者之民章	13-13 霸者之民章	◇王者의 德治를 禮讀(예찬)한 내용이다. - 맹자의 正道政治論의一面을 披瀝(피력)한 글이다.
1025	驩虞與歡娛同 嵋峩廣大自得之貌 程子曰 驩虞有所造爲而然 廿能久也 耕田鑿井 帝力 何有於我 如天之自然 乃王者之政 楊氏曰 所以致人驩虞 必有違道干譽之事 若王者則如天 亦不令人喜 亦不令人怒	13-13-01 孟子曰霸者之民驩虞 如也王者之民峩峩如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패자의 백성들은 기뻐서 뽐내는 것 같고, 왕자의 백성들은 너그럽고 만족하는 것만 같으니라.」
1026	此 所謂峩峩如也 廉功也 豊氏曰 因民之所惡而去之 非有心於殺之也 何怨之有 因民之所利而利之 非有心於利之也 何庸之有 輔其性之自然 使自得之 故民日遷善而不知爲之者	13-13-02 殺之而不怨 利之而 不庸 民日遷善而不知爲之者	(왕자의 백성들은) 죽여도 원망하지 아니 하며, 이롭게 하여도 공덕을 찬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날로 착하게 되어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1027	君子聖人之通稱也 所過者化 身所經歷之處 卽人無不化 如舜之耕歷山而田者遜畔 陶河濱而器不苦窳也 所存者神 心所存主處 便神妙不測 如孔子之立斯立 道斯行 紿斯來 動斯和 莫知其所以然而然也 是其德業之盛 乃與天地之化 同運並行 舉一世而甄陶之 非如霸者但小小補塞其罅漏而已 此則王道之所以爲大	13-13-03 夫君子所過者化 所 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 豈曰 小補之哉	무릇 군자가 지나가는 곳은 교화되고, 머물러 있는 곳은 (잘 다스려져) 神妙한지라, 위와 아래가 천지와 흐름을 같이 하니, 어찌 조금 돕는다고 하겠는가?(어찌 패자의 변변치 않은 정치에 비할 수 있겠는가?)」

	而學者所當盡心也		
1028	13-14 善教得民心章	13-14 善教得民心章	◇德治를 崇尚(승상)하는 王道政治의 要諦(요체)가 披瀝(피력)되 내용임
1029	程子曰 仁言 謂以仁厚之言 加於民 仁聲 謂仁聞 謂有仁之實 而爲衆所稱道者也 此尤見仁德之昭著 故其感人尤深也	13-14-01 孟子曰仁言 不如仁 聲之入人深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말은 어질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드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1030	政謂法道禁令 所以制其外也 教謂道德齊禮 所以格其心也	13-14-02 善政不如善教之得民 也	착한 정치는 잘 가르쳐서 백성을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1031	得民財者 百姓足而君無不足也 得民心者 不遺其親 不後其君也	13-14-03 善政民畏之 善教民 愛之 善政得民財 善教得民心	착한 정치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착한 가르침은 백성들이 사랑하나니, 잘하는 정사는 백성들의 재물을 얻고, 착한 가르침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느니라.」
1032	13-15 良知良能章	13-15 良知良能章	◇良知와 良能을 定義하고, 그에 바탕을 둔 仁義를 具現하도록 하는 것이 善政이라는 말씀이다. - 性善說을 발전시킨 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1033	良者 本然之善也 程子曰 良知 良能 皆無所由 乃出於天 不繫於人	13-15-01 孟子曰人之所不學而 能者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其 良知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능한 것은 본래 능한 것이고, 생각하지 않고서도 아는 것은 본래 아는 것이니라.
1034	孩提二三歲之間 知孩笑可提抱者也 愛親敬長 所謂良知良能者也	13-15-02 孩提之童無不知愛其 親也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 也	어린 아기도 자기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지 않고, 자라나서는 자기 형을 공경할 줄 모르지 않느니라.
1035	言親親敬長 雖一人之私 然 達之天下 無不同者 所以爲仁義也	13-15-03 親親仁也 敬長義也 無他 達之天下也	어버이를 친하게 하는 것은 仁이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義이니, 다른 것이 없고 그것을 온 천하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니라.」
1036	13-16 舜居深山之中章	13-16 舜居深山之中章	◇맹자의 聖人論의 一端으로, 聖人과 平凡한 사람과의 다른 점을 말한 내용이다.

1037	<p>居深山 謂耕歷山時也 蓋聖人之心 至虛至明 渾然之中 萬理畢具 一有感觸 則其應甚速而無所不通 非孟子造道之深 不能形容至此也</p>	<p>13-16-01 孟子曰 舜之居深山 之中 與木石居 與鹿豕遊 其所 以異於深山之野人者 幾希 及 其聞一善言 見一善行 若決江 河 沛然莫之能禦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임금이 깊은 산중에 살면서 나무와 돌 틈에 거처하고 사슴과 산돼지와 함께 놀았으니 깊은 산의 야인들과 다른 점이 거의 없었는데, 한 가지 착한 말을 듣고 한 가지 착한 행실을 보고서는 마치 장강과 황하를 터놓아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그것(善을 향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느니라.」</p>
1038	13-17 無爲其所不爲章	13-17 無爲其所不爲章	<p>◇君子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일러준 내용이다.</p>
1039	<p>李氏曰 有所不爲不欲 人皆有是心也 至於私意一萌而不能以禮義制之 則爲所不爲 欲所不欲者多矣 能反是心 則所謂擴充其羞惡之心者而義不可勝 用矣 故曰如此而已矣</p>	<p>13-17-01 孟子曰 無爲其所不爲 無欲其所不欲 如此而已矣</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며, 욕심내서는 안 될 것을 욕심내지 않아야 하니, 이와 같이 할 때름이니라.」</p>
1040	13-18 孤臣孽子章	13-18 孤臣孽子章	<p>◇逆境(역경)에 處해 豪患(우환)과 孤獨 속에서 苦悶하는 가운데 德慧術知(덕혜술지)가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다. - 艱難(간난)과 辛苦(신고)가 인간을 玉成(옥성)시킨다는 敎訓이다.</p>
1041	<p>德慧者 德之慧 術知者 術之知 疢疾猶災患也 言人必有疢疾 則能動心忍性 增益其所不能也</p>	<p>13-18-01 孟子曰 人之有德 慧 術知者恒存乎疢疾</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덕의 지혜와 기술의 지식을 가진 자는 항상 재앙과 근심이 있는 것인なり.」</p>
1042	<p>孤臣遠臣 孳子庶子 皆不得於君親而常有疢疾者也 達謂達於事理 卽所謂德慧術知也</p>	<p>13-18-02 猶孤臣孽子 其操心 也危 其慮患也深 故達</p>	<p>오직 외로운 신하와 庶子만이 그 마음가짐이 위태로움을 겁내고 근심을 생각함이 깊기 때문에, 고로 事理에 통달하게 되느니라.」</p>
1043	13-19 有事君人者章	13-19 有事君人者章	<p>◇事君人, 安社稷臣, 天民, 大人 등 四等級의 인물을 分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 그중에서 大人이야말로 理想的인 君子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다.</p>
1044	<p>阿徇以爲容 逢迎以爲悅 此鄙夫之事 妾婦之道也</p>	<p>13-19-01 孟子曰 有事君人者 事是君則爲容悅者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國君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 그 임금을 섬김에 (임금 앞에서) 風色을 부드럽게 하여 기쁘게 해주는 자이니라.」</p>
1045	<p>言大臣之計安社稷 如小人之務悅其君 眷眷於此而不忘也</p>	<p>13-19-02 有安社稷臣者 以安 社稷爲悅者也</p>	<p>사직을 편안하게 하는 신하가 있으니, (그는) 사직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써 기쁨을 삼는 자이니라.</p>
1046	<p>民者無位之稱 以其全盡天理 乃天之民 故 謂之天民 必其道可行於天下然後 行之 不然 則寧沒世不見知而不悔 不肯小用其道以徇於人也 張子曰</p>	<p>13-19-03 有天民者 達可行於 天下而後 行之者也</p>	<p>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있으니, (자기가) 도달한 지위가 천하에 (자기의 理想을) 실행할 수 있게 된 뒤에야 그것을 실행하는 자이니라.</p>

	必功覆斯民然後出 如伊呂之徒		
1047	<p>大人德盛而上下化之 所謂見龍在田天下文明者 ❤ 此章 言人品不同 略有四等 容悅佞臣 不足言 安社稷則忠矣 然猶一國之士也 天民則非一國之士矣 然猶有意也 無意無必 唯其所在而物無不化 惟聖者能之</p>	13-19-04 有大人者 正己而物 正者也	대인이라는 것이 있으니, 자기를 바로잡아 나가면 모든 사물이 바로 되어나가는 자이니라.」
1048	13-20 君子有三樂章	13-20 君子有三樂章	◇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맹자의 글 중에서도 특히有名한 내용이다.
1049		13-20-01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에 왕노릇 하는 것은 그 속에 있지 않느니라.」
1050	<p>此人所深願 而不可必得者 今既得之 其樂可知</p>	13-20-02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부모가 다 계시며 형제에게 사고가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1051	<p>程子曰 人能克己 則仰不愧 俯不怍 心廣體胖 其樂可知 有息則餒矣</p>	13-20-03 仰不愧於天 俯不作 於人 二樂也	우러러보아서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보아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며,
1052	<p>盡得一世明睿之才 而以所樂乎己者 教而養之 則斯道之傳 得之者衆 而天下後世將無不被其澤矣 聖人之心所願欲者 莫大於此 今既得之 其樂爲何如哉</p>	13-20-04 得天下英才 而教育 之 三樂也	천하에 뛰어난 인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니라.
1053	<p>林氏曰 此三樂者 一係於天 一係於人 其可以自致者 惟不愧不怍而已 學者可不勉哉</p>	13-20-05 君子有三樂 而王天 下 不與存焉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에 왕노릇 하는 것은 그 속에 있지 않느니라.」
1054	13-21 君子所性章	13-21 君子所性章	◇君子는 그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仁義禮智 四德을 精鍊(정련) 純化(순화)시키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야 하며, 四德이 순화되면 그것이 光彩를 발해 온 몸에 나타나고, 남이 보아도 그가 덕을 지닌 사람임을 알게 해준다는 말씀이다.

1055	地闢民聚 澤可遠施 故 君子欲之 然 未足以爲樂也	13-21-01 孟子曰 廣土衆民 君 子欲之 所樂 不存焉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토를 넓하고 백성을 많게 하는 것을 군자가 하고자 하지마는 (그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 속에) 있지 않느니라.」
1056	其道大行 無一夫不被其澤 故 君子樂之 然 其所得於天者 則不在是也	13-21-02 中天下而立 定四海 之民 君子樂之 所性 不存焉	천하의 중앙에 자리 잡고 서서 사해의 백성들을 안정시켜주는 일을 군자가 즐거워하나 (그가) 본성으로 지니는 것은 (그 속에) 있지 않느니라.
1057	分者所得於天之全體 故 不以窮達而有異	13-21-03 君子所性 雖大行 不 加焉 雖窮居 不損焉 分定故也	군자가 본성으로 지니는 것은 道가 크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조금도) 더해지지 않으며, 비록 궁하게 산다 하더라도 덜어지지 않으니, (본래 지닌 자질로) 분수가 일정하기 때문이니라.
1058	上言所性之分 與所欲所樂不同 此乃言其蘊也 仁義禮智 性之四德也 根本也 生發見也 眇然清和潤澤之貌 盞豐厚盈溢之意 施於四體 謂見於動作威儀之間也 喻曉也 四體不言而喻 言四體不待吾言而自能曉吾意也 蓋氣稟清明 無物欲之累 則性之四德 根本於心 其積之盛 則發而著見於外者 不待言而無不順也 程子曰 眇面盞背 皆積盛致然 四體不言而喻 惟有德者能之 ♥ 此章 言君子固欲其道之大行 然 其所得於天者 則不以是而有所加損也	13-21-04 君子所性 仁義禮智 根於心 其生色也 眇然見於面 盞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 喻	군자가 본성으로 지니는 인·의·예·지는 마음의 근본인자라, 그것이 빛으로 발하면 윤택하게 얼굴에 나타나며 등에 넘쳐흐르고 사체에 베풀어져, 사체는 말하지 않으나 깨닫게 되느니라.」
1059	13-22 無凍餒之老章	13-22 無凍餒之老章	◇늙은이를 잘 봉양하는 사람에게 天下의 仁인이 歸順해 오고 결국은 천하를 얻어 왕자가 된다는 말씀이다. - 文王의 王道政治의 기본은 善養老였다. 곧 孝의 실천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1060	己歸 謂己之所歸 餘見前篇	13-22-01 孟子曰 伯夷辟紂 居 北海之濱 聞文王作興 曰盍歸 乎來 吾聞西伯 善養老者 太公 辟紂居東海之濱 聞文王作興 曰盍歸乎來 吾聞西伯 善養老 者 天下有善養老 則仁人 以爲 己歸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이가 주를 피해서 북해 가에서 살더니, 문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어찌 (그에게로) 가지 않겠는가? 나는 서백이 늙은이를 잘 봉양한다고 들었노라.'하였고, 태공이 주를 피해서 동해 가에서 살더니, 문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어찌 (그에게로) 가지 않겠는가? 나는 서백이 늙은이를 잘 봉양한다고 들었노라.'하였으니, 천하에 늙은이를 잘 봉양한 곳이 있으면仁者가 자기가 돌아갈 곳으로 여기느니라.」

1061	此文王之政也 一家養母鷄五母彘二也 餘見前篇	13-22-02 五畝之宅 樹牆下以桑 匹婦蠶之 則老者足以衣帛矣 五母鷄 二母彘 無失其時老者足以無失肉矣 白畝之田匹夫耕之 八口之家可以無饑矣	5 무 택지의 담 밑에다가 뽕나무를 심고 한 여자가 누에를 치면 늙은이가 넉넉히 비단옷(깁옷)을 입을 것이며, 다섯 마리의 어미닭과 두 마리의 어미돼지를 그(번식)시기를 잃지 않으면 늙은이가 고기를 잃지 않고 넉넉히 먹을 것이며, 백무의 밭을 한 사내가 경작하면 여덟 식구의 집이 굶주림이 없이 족할 것이라.
1062	田謂百畝之田 里謂五畝之宅 樹謂耕桑 畜謂鷄彘也 趙氏曰 善養老者 敎道之 使可以養其老耳 非家賜而人益之也	13-22-03 所謂西伯 善養老者制其田里 敎之樹畜 導其妻子使養其老 五十 非帛不煖 七十非肉不飽 不煖不飽 謂之凍餒文王之民 無凍餒之老者 此之謂也	이른바 서백이 늙은이를 잘 봉양한다는 것은 그 밭과 집을 지어서 심고 기르는 것을 가르치며, 그 처자를 인도하여 늙은이를 봉양하게 하는 것이니, 50 대의 사람은 비단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70 대의 사람은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느니, 따뜻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은 것을 알고 주린다고 이르니, 문왕의 백성들이 알고 주린 늙은이가 없었다는 것은 이를 일컫는 말이니라.」
1063	13-23 蔟粟如水火章	13-23 蔟粟如水火章	◇百姓들의 生活을 安定시켜주면 惡한 짓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씀이다.
1064	易治也 璛耕治之田也	13-23-01 孟子曰 易其田疇 薄其稅斂 民可使富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밭을 돌봐주고 그들의 세금을 적게 거두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
1065	敎民節儉 則財用足矣	13-23-02 食之以時 用之以禮財不可勝也	제 때에 맞추어 먹으며 예로써 용도를 절제하면 재물을 이루 다 쓰지 못할 것이라.
1066	水火 民之所急 宜其愛之 而反不愛者 多故也 尹氏曰 言禮義生於富足 民無常產 則無常心矣	13-23-03 民非水火 不生活 昏暮 叩人之門戶 求水火 無弗與者 至足矣 聖人 治天下 使有菽粟 如水火 蕺粟 如水火 而民 焉有不仁者乎	백성들은 물과 불이 아니면 생활하지 못할 것이나, 저녁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물과 불을 구하면 주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은 매우 넉넉하기 때문이니, 성인이 천하를 다스림에 콩과 조(곡식)를 물과 불같이 (흔하게) 만드니, 콩과 조가 물과 불 같으면 백성들이 어찌 仁하지 않은 자가 있겠는가?」
1067	13-24 孔子登東山章	13-24 孔子登東山章	◇聖人의 大道를 體得하여 聖人과 같은 理想的인 境地에 到達(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德을 完成해 나가는 不斷(부단)한 努力이 있어야 함을 말한 내용이다.
1068	此 言聖人之道大也 東山 蓋魯城東之高山 而太山則又高矣 此言所處益高 則其視下益小 所見既大 則其小者不足觀也 難爲水 難爲言 猶仁不可爲衆之意	13-24-01 孟子曰 孔子 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故觀於海者 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 難爲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 동산에 오르셔서는 노나라가 작다고 여기셨고, 태산에 오르셔서는 천하가 작다고 여기셨으니, 고로 바다를 본 자는 물이라 하기 어렵고, 성인의 문하에서 놀았던 자는 말하기를 어려워하느니라.

1069	<p>此言道之有本也 澄水之湍急處也 明者光之體 光者明之用也 觀水之澄 則知其源之有本矣 觀日月於容光之隙 無不照 則知其明之有本矣</p>	<p>13-24-02 觀水有術 必觀其濁 日月有明 容光必照焉</p>	<p>물을 보는데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波濁(파란)을 보아야하느니라. 해와 달은 밖으니 작은 틈바구니에까지도 반드시 다 비치느니라.</p>
1070	<p>言學當以漸 乃能至也 成章所積者厚而文章外見也 達者足於此而通於彼也 ♥ 此章 言聖人之道 大而有本 學之者必以其漸 乃能至也</p>	<p>13-24-03 流水之爲物也 不盈 科不行 君子之志於道也 不成 章不達</p>	<p>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용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흐르지 않느니, 군자가 道에 뜻을 두어도 文彩(문채)를 이룩하지 못하면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느니라.」</p>
1071	<p>13-25 舜與蹠之分章</p>	<p>13-25 舜與蹠之分章</p>	<p>◇聖人인 舜임금과 惡名 높은 強盜인 盜蹠의 區別은 善과 利를追求(추구)하는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신 말씀이다. - 利를 추구하기에 汲汲하지 말고 善을 指向하며 살기를 勸勉한 내용이다.</p>
1072	<p>孳孳勤勉之意 言雖未至於聖人 亦是聖人之徒也</p>	<p>13-25-01 孟子曰 鷄鳴而起 孳 孳爲善者 舜之徒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하는 자는 순임금의 무리이며,</p>
1073	<p>蹠盜蹠也</p>	<p>13-25-02 鷄鳴而起 孳孳爲利 者 蹠之徒也</p>	<p>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로운 일을 하는 자는 도척의 무리이니,</p>
1074	<p>程子曰 言間者 謂相去不遠 所爭毫末耳 善與利 公私而已矣 才出於善 便以利言也 ♥ 楊氏曰 舜蹠之相去遠矣 而其分 乃在利善之間而已 是豈可以不謹 然 講之不熟 見之不明 未有不以利爲義者 又學者所當深察也 或問 鷄明而起 若未接物 如何爲善 程子曰 只主於敬 便是爲善</p>	<p>13-25-03 欲知舜與蹠之分 無 他 利與善之間也</p>	<p>순임금과 도척의 구별을 알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고, 利와 善의 여부를 알아보면 되느니라.」</p>
1075	<p>13-26 楊墨子莫章</p>	<p>13-26 楊墨子莫章</p>	<p>◇楊朱·墨翟·子莫 등이 한 가지 主義를 固執(고집)하고 融通性(융통성)이 없는 것은 正道를 해치는 結果를 초래한다고 批判한 내용이다. - 儒家의 입장에서 楊·墨 등 異端을 批判하는 名文章으로 많이 傳誦(전송)됨.</p>
1076	<p>楊子名朱 取者僅足之意 取爲我者 僅足於爲我而已 不及爲人也 列子稱其言曰 百成子高不以一毫利物 是也</p>	<p>13-26-01 孟子曰 楊子 取爲我 拔一毛利而天下 不爲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자는 나를 위하는 것을 취하니, 한 오라기의 털을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할지라도 하지 아니하느니라.」</p>

1077	墨子名翟 兼愛無所不愛也 摩頂摩突其頂也 放至也	13-26-02 墨子 兼愛 摩頂放踵 利天下 為之	목자는 겸애를 주장하니, 머리 꼭대기로부터 발꿈치까지 털이 다 많아 없어지더라도 천하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할 것이라.
1078	子莫魯之賢者也 知楊墨之失中也 故度於二者之間 而執其中 近近道也 權稱錘也 所以稱物之輕重而取中也 執中而無權 則膠於一定之中 而不知變 是亦執一而已矣 程子曰 中字夾難識 須是默識心通 且試言一廳則中央爲中 一家則廳非中而堂爲中 一國則堂非中而國之中爲中 推此類 可見矣 又曰 中不可執也 識得則事事物物 皆有自然之中 不待安排 安排著 則不中矣	13-26-03 子莫 執中 執中 為 近之 執中無權 猶執一也	자막은 그 중간을 취하니, 중간을 취하는 것이 道에 가까우나 중간을 취하여 權道가 없음은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것과 같으니라.
1079	賊害也 為我害仁 兼愛害義 執中者害於時中 皆舉一而廢百者也 ♥ 此章 言道之所貴者中 中之所貴者權 楊氏曰 禹稷三過其門而不入 苟不當其可 則與墨子無異 顏子在陋巷 不改其樂 苟不當其可 則與楊氏無異 子莫執爲我兼愛之中而無權 鄉鄰有鬪而不知閉戶 同室有鬪而不知救之 是亦猶執一耳 故 孟子以爲賊道 禹稷顏回易地則皆然 以其有權也 不然則是亦楊墨而已矣	13-26-04 所惡執一者 為其賊 道也 舉一而廢百也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 正道를 해치게 되는 것이니, 한 가지를 내걸고 백 가지를 없애는 것이라.
1080	13-27 飢者甘食章	13-27 飢者甘食章	◇ 貪賤 때문에 마음을動搖(동요)시키지 않게 되는 것이 重要함을 말씀한 내용이다.
1081	口腹爲飢渴所害 故 於飲食 不暇擇而失其正味 人心爲貪賤所害 故 於富貴 不暇擇而失其正理	13-27-01 孟子曰 饑者甘食 渴 者甘飲 是未得飲食之正也 饑 渴害之也 豈惟口腹有饑渴之害 人心亦皆有害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굶주린 사람은 달게 먹고, 목마른 사람은 달게 마시나니, 그것은 마시고 먹는 바른 맛을 아는 것은 아니고, 굶주림과 목마름이 그 맛을 해치느니, 어찌 입과 배에만 굶주림과 목마름의 해가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도 역시 다 해로움이 있는 것이라.
1082	人能不以貪賤之故而動其心 則過人遠矣	13-27-02 人能無以饑渴之害 爲心害則不及人 不爲憂矣	사람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해를 가지고 마음의 해로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면, (자기의 부귀가) 남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심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라.

1083	13-28 以三公易其介章	13-28 以三公易其介章	◇높은 爵位를 얻기 위해서, 또는 높은 爵位를 얻었다고 해서 자기의 節概(절개)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1084	介有分辨之意 柳下惠 進不隱賢 必以其道 遺佚不怨 跛窮不憫 直道事人 至於三黜 是其介也 ♥ 此章 言柳下惠和而不流 與孔子論夷齊不念舊惡 意正相類 皆聖賢微顯闡幽之意也	13-28-01 孟子曰 柳下惠不以三公易其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하혜는 삼공으로써 그의 절개를 바꾸지 아니하였느니라.」
1085	13-29 辟若掘井章	13-29 辟若掘井章	◇仁義를 指向하는 사람이라면 大人格을 完成할 때까지 修德하는 데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 中途에서 그만두면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1086	八尺日仞 言鑿井雖深 然未及泉而止 猶爲自棄其井也 ♥ 呂侍講曰 仁不如堯 孝不如舜 學不如孔子 終未入於聖人之域 終未至於天道 未免爲半塗而廢 自棄前功也	13-29-01 孟子曰 有爲者辟若掘井 掘井九軔而不及泉 猶爲棄井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자는 마치 우물을 파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니, 아홉 길이나 파내려갔는데도 샘이 솟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우물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라.」
1087	13-30 久假而不歸章	13-30 久假而不歸章	◇仁義를 실천한 代表의 例들을 들어 그 段階를 설명한 내용이다. - 堯·舜의 性之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 다음이 湯·武의 身之이며, 五霸의 假之는 取할 것이 못됨을 나타낸 말씀이다.
1088	堯舜天性渾全 不假修習 湯武修身體道 以復其性 五霸則假借仁義之名 以求濟其貪欲之私耳	13-30-01 孟子曰 堯舜性之也 湯武身之也 五霸假之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순은 그것(仁義)을 본성으로 태고났던 것이고, 탕왕과 무왕은 그것(仁義)을 체득한 것이며, 오빠는 그것(仁義)을 빌렸던 것인니라.」
1089	歸還也 有實有也 言竊其名以終身 而不自知其非真有 或曰蓋歎世人莫覺其僞者 亦通 舊說久假不歸 卽爲真有則誤矣 ♥ 尹氏曰 性之者 與道一也 身之者 履之也 及其成功則一也 五霸則假之而已 是以功烈 如彼其卑也	13-30-02 久假而不歸 惡知其非有也	오래도록 빌리고 돌려보내지 않았으니, 자신이 그것(仁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1090	13-31 有伊尹之志則可章	13-31 有伊尹之志則可章	◇伊尹과 같은 큰 뜻을 갖고 私心이 없다면 임금을 잠시 내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다. - 後세에 이 故事を 名分으로 임금의 位를 築奪(찬탈)하는 것을 警戒한 말씀.

1091	予不狎于不順 太甲篇文 狹習見也 不順 言太甲所爲不順義理也 餘見前篇	13-31-01 公孫丑曰 伊尹曰 予 不狎于不順 放太甲于桐 民大 悅 太甲賢 又反之民大悅	공손추가 말하기를, 「이윤이 말하기를, '나는 정道를 따르지 않는 것을 그냥 보고 견딜 수가 없다.'고 하며, 태갑을 푸으로 쫓아냈는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고, 또 태갑이 어진 사람이 되자 다시 돌아오게 하였는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으니,
1092		13-31-02 賢者之爲臣也 其君 不賢則 固可放與	현자는 남의 신하가 되어서 그 임금이 어질지 못하면 본래 쫓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까?」
1093	伊尹之志 公天下以爲心 而無一毫之私者也	13-31-03 孟子曰 有伊尹之志 則可 無伊尹之志則篡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윤과 같은 뜻이 있다면 그럴 수 있으나, 이윤과 같은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찬탈이이니라.
1094	13-32 君子居是國也章	13-32 君子居是國也章	◇君子는 비록 肉體勞動은 하지 않지만 正道에 따라 行하면 그의 功勞는 祿을 먹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이다.
1095	詩魏國風伐檀之篇 素空也 無功而食祿 謂之素餐 此與告陳相彭更之意同	13-32-01 公孫丑曰 詩曰不素 餐兮 君子之不耕而食何也 孟 子曰 君子居是國也 其君用之 則安富尊榮 其子弟從之則 孝 弟忠信 不素纂兮 勃大於是	공손추가 말하기를, 「시에 이르기를, '일하지 않고 먹지 않는다.'고 했으니, 군자가 경작하지 않고서 먹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그 나라에 삶에 그 임금이 그를 등용하면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며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며, 그 나라의 자제들이 그를 따라가 배우면 효성 있고 우애 있으며 충성스럽고 신용 있게 되느니, 일하지 않고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크겠는가?」
1096	13-33 王子塾問章	13-33 王子塾問章	◇선비는 仁과 義를 指向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王子라는 尊貴한 신분을 가진 塾에게 無罪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죽이지 말고, 자기 所有가 아닌 것은 빼앗지 말라는 것으로, 仁義의 실천을 勉勵한 善導(선도)의 내용이기도 하다.
1097	塾齊王之子也 上則公卿大夫 下則農工商賈 皆有所事 而士居其間 獨無所事 故王子問之也	13-33-01 王子塾 問曰士何事	왕자 점이 묻기를, 「선비는 무엇을 일삼아야 합니까?」
1098	尚高尚也 志者心之所之也 士既未得行公卿大夫之道 又不當爲農工商賈之業 則高尚其志而已	13-33-02 孟子曰尚志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을 승상하느니라.」
1099	非仁非義之事 雖小不爲 而所居所由 無不在於人矣 此士所以尚其志也 大人謂公卿大夫 言士雖未得大人之位 而其志如此 則大人之事體用已全 若小人之事	13-33-03 曰何謂尚志曰仁義而 已矣 殺一無罪非仁也 非其有 而取之非義也 居惡在 仁是也 路惡在義是也 居仁由義大人之	(왕자 점이) 묻기를, 「뜻을 승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仁과 義일 따름이니,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仁이 아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취하는 것은 義가 아니니, 몸 둘 곳은 어디에 있겠는가? 仁이 그곳이니라. 같 길은 어디에 있겠는가? 義가 그것이니라. 仁에 몸을 두고 義를 따라가면 대인의 일은

	則固非所當爲也	事備矣	갖추어지는 것이니라.」
1100	13-34 以其小者信其大者章	13-34 以其小者信其大者章	◇陳仲子의例를 들어, 人倫의 大義를 忘却(망각)하고 些少(사소)한 일에 廉潔(염결)함을 나타내는 것은 取할 게 아님을 말한 내용이다.
1101	仲子陳仲子也 言仲子設若非義而與之齊國 必不肯受 齊人皆信其賢 然此但小廉耳 其辟兄離母 不食君祿 無人道之大倫 罪莫大焉 岂可以小廉 信其大節 而遂以爲賢哉	13-34-01 孟子曰 仲子不義 與之齊國而弗受 人皆信之 是舍簞食豆羹之義也 人莫大焉 亡親戚君臣上下 以其小者 信其大者奚可哉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자는 義롭지 않은 것으로 그에게 제나라를 주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믿고 있지마는, 그것은 대그릇의 밥과 나무그릇의 국을 버리는 義이다. 사람에게는 친척과 군신과 상하의 義를 忘却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으니, 그 작은 일을 가지고 그 큰일도 그러하리라고 믿어서야 어찌 되겠는가?」
1102	13-35 諱瞍殺人章	13-35 諱瞍殺人章	◇부모의 罪를 감추는 것은 자식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행하여야 할 德行임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부모를 위해서는 天子의 地位도 버리고, 國法을 忌避(기피)하는 것까지도 不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103	桃應孟子弟子也 其意以爲舜雖愛父 而不可以私害公 鼎陶雖執法 而不可以刑天子之父 故設此問 以觀聖賢用心之所極 非以爲真有此事也	13-35-01 桃應問曰 舜爲天子 鼎陶爲士 諱瞍殺人則如之何	도옹이 묻기를, 「舜은 천자가 되고 고요는 士師가 되었는데,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104	言 鼎陶之心 知有法而已 不知有天子之父也	13-35-02 孟子曰 執之而已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체포하였을 따름이니라.」
1105	桃應問也	13-35-03 然則舜不禁與	(도옹이 묻기를,)「그렇다면 순임금이 금하지 않겠습니까?」
1106	言 鼎陶之法 有所傳受 非所敢私 雖天子之命 亦不得而廢之也	13-35-04 曰夫舜惡得而禁之 夫有所受之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순임금이 어떻게 그것을 금할 수가 있겠느냐? 그(고요)에게는 물려받은 것(법)이 있었느니라.」
1107	桃應問也	13-35-05 然則舜 如之何	(도옹이 묻기를,)「그렇다면 순임금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1108	蹤草履也 遵循也 言 舜之心 知有父而已 不知有天下也 孟子嘗言舜視天下 猶草芥 而惟順於父母 可以解憂 與此意 互相發 ♥ 此章 言 爲士者 但知有法而不知天子父之爲尊 爲子者 但知有父而不知天下之爲大 蓋其所以爲心者 莫非天理之極 人倫之至 學者察此而有得焉 則不待較計論量	13-35-06 曰舜視棄天下 猶棄敝蹤也 竊負而逃 遵海濱而處終身訢然樂而忘天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임금은 천하를 버리는 것을 생각하기를 헌 짚신 버리는 것같이 하고, 몰래 업고 달아나 바닷가에 가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흔연히 즐거워하며 천하를 잊을 것인니라.」

	而天下無難處之事矣		
1109	13-36 居移氣章	13-36 居移氣章	◇環境(환경)의 중요성을 論한 내용이다. - 가장 理想의인 것은 仁이라는 천하의 廣居에 居處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1110	范齊邑 居所謂處之位 養奉養也 言人之居處 所繫甚大 王子亦人子耳特以所居不同 故 所養不同而其氣體有異也	13-36-01 孟子自范之齊 望見齊王之子 唁然嘆曰居移氣 養移體 大哉居乎 夫非盡人之子與	맹자께서 범읍으로부터 제나라로 가시더니, 제나라 왕의 아들을 바라보시고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거처하는 환경이 氣象을 바꾸고, 봉양하는 것이 몸을 바꾸나니, 대단하도다. 거처하는 환경이여! 무릇 다 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1111	張鄒皆云羨文也	13-36-02 (孟子曰)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1112	廣居見前篇 尹氏曰 瞚然見於面蓋於背 居天下之廣居者然也	13-36-03 王子宮室車馬衣服多與人同而王子若彼者其居使之然也 況居天下之廣居者乎	「왕자의 궁실과 거마와 의복이 대부분 남들과 같으나, 왕자가 저와 같은 것은 그가 거처하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하물며 천하의 넓은 곳(仁義)에 거처하는 자에게 있어서이랴?」
1113	堙澤 宋城門名也 孟子又引此事爲證	13-36-04 魯君之宋 呼於堙澤之門 守者曰此非吾君也 何其聲之似我君也 此無他 居相似也	노나라의 임금이 송나라로 가서 질택의 문을 열라고 소리쳤는데, 문지기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 임금이 아닌데 어찌하여 그 목소리가 우리 임금과 같은가.'라고 했으니, 그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처하여 있는 지위가 비슷하기 때문이니라.」
1114	13-37 恭敬而無實章	13-37 恭敬而無實章	◇國君이 賢者를 머물러있게 하려면 真心으로 그를 恭敬해야 함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1115	交接也 畜養也 獸謂犬馬之屬	13-37-01 孟子曰 食而弗愛 獸交之也 愛而不敬 獸畜之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이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돼지로 대하는 것이고, 사랑하면서도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니라.」
1116	將猶奉也 詩曰 承筐是將 程子曰恭敬 雖因威儀幣帛而後發見 然幣之未將時 已有此恭敬之心非因幣帛而後有也	13-37-02 恭敬者 幣之未將者也	공경이라는 것은 幣帛을 보내지 않았을 때부터 갖는 마음이니라.
1117	此言 當時諸侯之待賢者特以幣帛爲恭敬而無其實也 拘留也	13-37-03 恭敬而無實 君子不	공경하면서도 그 진실성이 없으면 군자는 헛되이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라.」

		可虛拘	
1118	13-38 惟聖人然後可以踐形章	13-38 惟聖人然後可以踐形章	◇ 사람마다 體軀(체구)와 容貌(용모)는 잘 타고 나지마는, 聖人만이 그 타고난 體貌(체모)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體貌에는 어울리지 않게 잘못 살아간다는 뜻이다. 곧 仁義로써 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1119	人之有形有色 無不各有自然之理 所謂天性也 践如踐言之踐 蓋衆人有是形而不能盡其理 故 無以踐其形 惟聖人 有是形而又能盡其理 然後 可以踐其形而無歉也 ♥ 程子曰 言聖人 畫得人道而能充其形也 蓋人得天地之正氣而生 與萬物不同 既爲人 須盡得人理然後 稱其名 衆人 有之而不知 賢人踐之而未盡 能充其形 惟聖人也 楊氏曰 天生烝民 有物有則 物者形色也 則者性也 各盡其則 則可以踐形矣	13-38-01 孟子曰 形色天性也 惟聖人然後 可以踐形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形貌(형모)와 風色(안색)은 天性이니, 오직 聖人이라야 (타고난 形貌와 颜色을) 그대로 지녀갈 수 있는 것이라.」
1120	13-39 齊宣王欲短喪章	13-39 齊宣王欲短喪章	◇ 三年喪은 자식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禮法이지만, 不可避하면 하루라도 더 服喪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다. - 一年喪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兄의 팔을 조금 서서히 비트는 것과 같은 無道한 짓이라는 것이다.
1121	已猶止也	13-39-01 齊宣王欲短喪 公孫丑曰爲朞之喪 猶愈於己乎	제나라 선왕이 喪期를 짧게 하고자 하거늘, 공손추가 말하기를, 「一年喪을 입는 것은 그래도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1122	紓戾也 教之以孝弟之道 則彼當自知兄之不可戾而喪之不可短矣 孔子曰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所謂教之以孝弟者如此 蓋示之以至情之不能已者 非強之也	13-39-02 孟子曰 是猶或 紓其兄之臂 子謂之姑徐徐云爾 亦教之孝弟而已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의 팔을 비트는 것을 자네가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좀 천천히 하구려.'하는 것과 같으니, 역시 그에게 효도와 우애를 가르쳐야 할 때임이니라.」

1123	<p>陳氏曰 王子所生之母死 厭於嫡母而不敢終喪 其傳爲請於王 欲使得行數月之喪也 時又適有此事 丑問如此者 是非何如 按儀禮 公子爲其母 練冠 麻衣 總緣 既葬除之 疑當時 此禮已廢 或既葬而未忍卽除 故請之也</p>	13-39-03 王子有其母死者 其傳爲之請數月之喪 公孫丑曰若此者 何如也	<p>王子로 그의 母親이 죽은 자가 있었는데, 그의 스승이 그를 위해 몇 달 동안의 哀만이라도 입게 해달라고 청한 일이 있자, 공손추가 말하기를, 「이러한 것은 어떻습니까?」</p>
1124	<p>言王子欲終喪而不可得 其傳爲請 雖止得加一日 猶勝不加 我前所譏 乃謂夫莫之禁而自不爲者耳 ♥ 此章 言 三年通喪 天經地義 不容私意有所短長 示之至情 則不肖者有以企而及之矣</p>	13-39-04 曰是欲終之而不可得也 雖加一日 愈於己 謂夫莫之禁而弗爲者也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哀期를 끝까지(三年喪) 마치려고 하여도 허락될 수 없는 일입니, 비록 하루라도 더하면 그만두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니, (앞의 경우는) 그것을 금하지 않았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p>
1125	13-40 君子之所以教章	13-40 君子之所以教章	<p>◇君子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 被教育者の資質(자질)을 헤아려서 그에게 가장適合(적합)한 교육 방법을 썼음을 알 수 있다. - 直接 가르치지 않지만 자기의 學問과 德을 본받아 배울 수 있는 境遇(경우)를 생각하여,君子가 平素에 處身하고 學問하는데 있어서 謹慎(근신)하고 真摯(진지)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였다.</p>
1126	下文五者 蓋因人品高下 或相去遠近先後之不同	13-40-01 孟子曰君子之所以教者五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가르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p>
1127	<p>時雨及時之雨也 草木之生 播種封植 人力已至 而未能自化 所少者 雨露之滋耳 及此時而雨之 則其化速矣 教人之妙亦猶是也 若孔子之於顏曾 是已</p>	13-40-02 有如時雨化之者	<p>제때에 내리는 비가 (草木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p>
1128	<p>財與材同 此各因其所長而教之者也 成德 如孔子之於冉閔 達財如孔子之於由賜</p>	13-40-03 有成德者 有達財者	<p>德을 이루게 해주는 방법이 있으며, 才能을 발달시켜주는 방법이 있고,</p>
1129	<p>就所問而答之 若孔孟之於樊遲萬章也</p>	13-40-04 有答問者	<p>물음에 대답해주는 방법이 있으며,</p>
1130	<p>私竊也 淑善也 艾治也 人或不能及門受業 但聞君子之道於人而竊以善治其身 是亦君子教誨之所及 若孔孟之於陳亢夷之 是也 孟子亦曰</p>	13-40-05 有私淑艾者	<p>혼자서 德을 닦게 해주는 방법이 있으니,</p>

	予未得爲孔子徒也 予私淑諸人也		
1131	聖賢施教 各因其材 小以成小 大以成大 無棄人也	13-40-06 此五者 君子之所以 教也	이 다섯 가지는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니라.」
1132	13-41 道則高矣美矣章	13-41 道則高矣美矣章	◇ 배워서 터득하기 어렵다고 하여 그 道의 水準(수준)을 낫출 수는 없다는 말씀이다. - 군자가 가르침에 임할 때는 자기 자신이 正道에 맞게 하여서, 배우는 자가 그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133		13-41-01 公孫丑曰 道則高矣 美矣 宜若似登天然 似不可及 也 何不使彼 為可幾及而日孳 孳也	공손추가 말하기를, 「道는 높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마는 마치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아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만 같으니, 어찌 저들로 하여금 거의 미칠 수 있다고 하여 날로 부지런히 힘쓰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1134	彀率 彎弓之限也 言 教人者皆有不可易之法 不容自貶以徇學者之不能也	13-41-02 孟子曰 大匠 不爲拙 工 改廢繩墨 翼不爲拙射 變其 彀率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목수는 졸렬한 목수를 위해 먹줄 쓰는 법을 고치거나 없애지 아니하며, 예는 졸렬한 사수를 위해 그의 활 당기는 법을 변경하지는 않느니라.」
1135	引弓也 發發矢也 躍如如踊躍而出也 因上文彀率而言君子教人 但授以學之之法 而不告以得之之妙 如射者之引弓而不發矢 然 其所不告者 已如踊躍而見於前矣 中者無過不及之謂 中道而立 言其非難非易 能者從之 言學者當自勉也 ♥ 此章 言 道有定體 教有成法 卑不可抗 故不可貶 語不能顯 默不能藏	13-41-03 君子引而不發 跳如 也 中道而立能者從之	군자는 활을 당기고 아직 쏘지는 않고 있으나, 지금 막 쏘려는 태세를 하여 正道에 맞게 선다면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서 할 것이니라.」
1136	13-42 以道殉身章	13-42 以道殉身章	◇君子가 治世와 亂世를 對處해 나가는 태도를 밝힌 내용이다. - 어떠한 경우라도 正道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惡과 不正에 결코妥協(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1137	殉如殉葬之殉 以死隨物之名也 身出則道在必行 道屈則身在必退 以死相從而不離也	13-42-01 孟子曰 天下有道 以 道殉身 天下無道 以身殉道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正道가 행하여지면 道를 가지고 몸을 따라가고, 천하에 正道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몸을 가지고 道를 따라가느니,

1138	以道從人 妻婦之道	13-42-02 未聞以道 殉乎人者也	道를 가지고 남을 따라간다는 맡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느니라.」
1139	13-43 滕更在門章	13-43 滕更在門章	◇맹자는 배우러 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謙遜(겸순)한 태도로 虛心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對應해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이는 消極的인 教誨(교회)의 방법을 쓴 것이었다.
1140	趙氏曰 滕更滕君之弟 來學者也	13-43-01 公都子曰 滕更之在門也 若在所禮而不答 何也	공도자가 말하기를, 「등경이 선생님 문하에 와 있는 것이 예로써 대해주실 만도 한 것 같은데, (그에게) 대답해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141	趙氏曰 二謂挾貴 挾賢也 尹氏曰 有所挾 則受道之心 不專 所以不答也 ♥ 此言 君子雖誨人不倦 又惡夫意之不盛者	13-43-02 孟子曰 挾貴而問 挾賢而問 挾長而問 挾有勳勞而問 挾故而問 皆所不答也 滕更有二焉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귀한 것을 믿고 묻거나, 현명한 것(재주 있음)을 믿고 묻거나, 年長者임을 믿고 묻거나, 功勳이 있음을 믿고 묻거나, 緣故(안 면)을 믿고 물으면 다 대답해주지 않는 경우들이니, 등경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지니고 있느니라.」
1142	13-44 於不可已而已章	13-44 於不可已而已章	◇모자라는 것이나 지나치는 것은 모두 取할 것이 못됨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正道에 따라 中庸(중용)의 道를 지켜나가야 함을 일깨워준 것이다.
1143	已止也 不可止 謂所不得不爲者也 所厚 所當厚者也 此 言不及者之弊	13-44-01 孟子曰 於不可已而已者 無所不已 於所厚者薄 無所不薄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될 데서 그만두어버리는 자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는 없을 것이고, 후하게 대해야 할 데에서 박하게 대하면 박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없을 것이라.」
1144	進銳者 用心太過 其氣易衰 故退速 ♥ 三者之弊 理勢必然 雖過不及之不同 然 卒同歸於廢弛	13-44-02 其進 銳者 其退速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날랜 자는 그 물러남도 빠르니라.」
1145	13-45 君子之於物章	13-45 君子之於物章	◇君子가 動植物을 아끼고, 사람들에게 仁德을 베풀고, 어버이를 받들고 하는 데는 각각 順序와 限界가 있음을 밝힌 내용이다. - 仁과 愛와 親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46	物謂禽獸草木 愛謂取之有時 用之有節 程子曰 仁推己及人 如老吾老 以及人之老 於民則可 於物則不可 統而言之 則皆仁 分而言之 則有序 楊氏曰 其分不同 故所施 不能無差等 所謂理一而分殊者也 尹氏曰 何以有是差等 一本故也 無僞也	13-45-01 孟子曰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動植物에게는 아껴주기는 하나 인자하게 대하지는 않고, 백성들에게는 인자하기는 하나 친밀하게 대하지는 않느니, 어버이를 어버이로 받들고서 백성들에게 인자하게 대하며, 백성들에게 인자하게 대하고서 동식물을 아껴주느니라.」

1147	13-46 當務之爲急章	13-46 當務之爲急章	◇ 每事에 先後를 가리지 못하고 本末을 顛倒(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1148	知者固無不知 然 常以所當務者爲急 則事無不治 而其爲知也大矣 仁者固無不愛 然 常急於親賢 則恩無不洽 而其爲仁也博矣	13-46-01 孟子曰 知者無不知 也 當務之爲急 仁者無不愛也 急親賢之爲務 堯舜之知而不偏 物 急先務也 堯舜之仁不偏愛 人 急親賢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알지 못할 것이 없으나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을 급히 하고, 인자한 자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 없으나 현자와 친해지는 일을 서두르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라. 요·순의 지혜로써도 온갖 사물을 두루 다 알지 못했던 것은 먼저 힘써야 할 것을 서둘렀기 때문이고, 요·순의 인자함으로써도 두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현자와 친해지는 일을 서둘렀기 때문이니라.」
1149	三年之喪 服之重者也 總麻三月 小功五月 服之輕者也 察致詳也 放飯大飯 流歎長歎 不敬之大者也 齒決齧斷乾肉 不敬之小者也 問講求之意 ♥ 此章 言君子之於道 識其全體 則心不狹 知所先後 則事有序 豐氏曰 智不及於先務 雖偏知人之所知 偏能人之所能 徒弊精神而無益於天下之治矣 仁不及於親賢 雖有仁民愛物之心 小人在位無由下達 聰明日蔽於上 而惡政 日加於下 此孟子所謂不知務也	13-46-02 不能三年之喪而總小 功之察 放飯流歎而問無齒決 是之謂不知務	삼년상을 지키지 못하면서 總麻(시마)나 小功(소공)을 살피며, 밥을 마구 퍼먹고 국물을 헹그러 들이키면서도 (마른 고기를) 齒牙(치아)로 끊어먹는 것을 問題(문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라.」
1150	14 盡心章句下 - 凡三十八章	14 盡心章句下 - 凡三十八章	[제 14 편. 盡心章句(진심장구) 下]
1151	14-01 不仁哉梁惠王章	14-01 不仁哉梁惠王章	◇ 侵略의 野慾(야욕)을 充足하기 위해 自身의 子弟까지도 牝牲(희생)시키는 殘虐性(잔학성)을 비판한 내용이다. - 野慾 때문에 殘忍無道한 짓을恣行하고도 깨닫지 못한 것을 警戒한 것.
1152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所謂以其所愛 及其所不愛也	14-01-01 孟子曰 不仁哉 梁惠 王也 仁者 以其所愛 及其所不 愛 不仁者 以其所不愛 及其所 愛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질지 않구나. 양 혜왕이여! 인자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는데, 인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1153	<p>梁惠王以下 孟子答辭也 糜爛其民 使之戰鬪 糜爛其血肉也 復之復戰也 子弟謂太子申也 以土地之故 及其民 以民之故 及其子 皆以其所不愛 及其所愛也 ♥ 此承前篇之末三章之意 言仁人之恩 自內及外 不仁之禍 由疏逮親</p>	<p>14-01-02 公孫丑曰 何謂也 梁 惠王 以土地之故 糜爛其民而 戰之 大敗 將復之 恐不能勝故 驅其所愛子弟 以殉之 是之謂 以其所不愛 及其所愛也</p>	<p>공손추가 말하기를, 「무엇을 이르는 말씀입니까?」(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양혜왕은 땅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썩혀 뭉크러뜨려가며 전쟁을 하다가 대패하고, (그것을) 보복하려는데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제를 내몰아서 죽게 하였으니, 이런 것을 두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p>
1154	14-02 春秋無義戰章	14-02 春秋無義戰章	<p>◇春秋時代에는 征伐(정벌)과 誅討(주토)가 王命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正義의 戰爭이 없었다고 한 것이다.</p>
1155	<p>春秋每書諸侯戰伐之事 必加譏貶 以著其擅興之罪 無有以爲合於義而許之者 但就中彼善於次者則有之 如召陵之師之類 是也</p>	<p>14-02-01 孟子曰 春秋 無義戰 彼善於此則有之矣</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춘추시대에는 義로운 전쟁은 없고, 저 나라가 이 나라보다 善했다는 것은 있느니라.」</p>
1156	<p>征所以正人也 諸侯有罪 則天子討而正之 此春秋所以無義戰也</p>	<p>14-02-02 征者 上伐下也 敵國 不相征也</p>	<p>정벌이라는 것은 위의 天子가 아래의 제후를 치는 것이니, 대등한 제후국 간에는 서로 정벌하지 않는 것이라.」</p>
1157	14-03 盡信書則不如無書章	14-03 盡信書則不如無書章	<p>◇맹자가 古典을 읽는 태도를 말한 것으로, 충분히 批判을 加해서 事理에 어긋나지 않도록 理解해야 한다는 말씀이다.</p>
1158	<p>程子曰 載事之辭 容有重稱而過其實者 學者當識其義而已 苟執於辭 則時或有害於義 不如無書之愈也</p>	<p>14-03-01 孟子曰 盡信書則不 如無書</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書經을 그대로 다 믿는다면 書經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도다.」</p>
1159	<p>武成周書篇名 武王伐紂 歸而記事之書也 策竹簡也 取其二三策之言 其餘 不可盡信也 程子曰 取其奉天伐暴之意 反政施仁之法而已</p>	<p>14-03-02 吾於武成 取二三策 而已矣</p>	<p>나는 無成篇의 글은 (그 중에) 이상 쪽을 취할 따름이로다.</p>
1160	<p>杵春杵也 或作鹵 檻也 武成 言 武王伐紂 紂之前徒倒戈 攻于後以北 血流漂杵 孟子言此則其不可信者 然 書本意 乃謂商人自相殺 非謂武王殺之也 孟子之設是言 懼後世之惑 且長不仁之心耳</p>	<p>14-03-03 仁人 無敵於天下 以 至仁 伐至不仁 而何其血之流 杵也</p>	<p>인자한 사람은 천하에 적이 없으니, 지극히 어진 사람으로서 지극히 어질지 않은 사람을 쳤는데, 어찌 그렇게 피가 방패를 흘려 보내기야 하였겠는가?」</p>

1161	14-04 焉用戰章	14-04 焉用戰章	◇전쟁의 手段을 통해서 國勢를 擴張(확장)하려는 것은 가장 큰 罪惡임을 强調한 말씀이다. - 國君이 仁을 좋아하면 天下가 慨服해 오고 對敵할 자가 없어 戰爭은 필요 없게 된다는 말씀이다.
1162	制行伍曰陳 交兵曰戰	14-04-01 孟子曰 有人 曰我善爲陳 我善爲戰 大罪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戰陣을 잘 치며 전쟁을 잘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죄이니라.
1163	此引湯之事以明之 解見前篇	14-04-02 國君 好仁 天下 無敵焉 南面而征 北狄怨 東面而征 西夷怨 曰奚爲後我	국군이 인자함을 좋아하면 천하에 (對)敵이 없으니, 남쪽을 향해서 정벌하면 북쪽 오랑캐들이 원망하고, 동쪽을 향해서 정벌하면 서쪽 오랑캐들이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어찌 우리는 뒤로 돌리는 거야?'라고 했느니라.
1164	又以武王之事明之也 兩車數一車兩輪也 千書序作百	14-04-03 武王之伐殷也 革車三百兩 虎賁三千人	무왕이 은나라를 칠 때에는 革車가 삼백량이고 勇士가 삼천 명이었는데,
1165	書泰誓文 與此小異 孟子之意 當云王謂商人曰 無畏我也 我來伐紂 本爲安寧汝 非敵商之百姓也 於是 商人 稽首至地 如角之崩也	14-04-04 王曰 無畏 寧爾也 非敵百姓也 若崩厥角稽首	(무)왕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이니라. 백성들을 對敵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였는데, (백성들은) 머리를 무너지듯이 땅에 박고 조아렸느니라.
1166	民爲暴君所虐 皆欲仁者來正己之國也	14-04-05 征之爲言正也 各欲正己也 焉用戰	征은 바로잡는다는 말이니, 각기 자기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어찌 전쟁을 하겠는가?」
1167	14-05 梓匠輪輿章	14-05 梓匠輪輿章	◇技術은 자기 자신의 努力으로 心得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다. - 學問과 仁德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168	尹氏曰 規矩法度 可告者也 巧則在其人 雖大匠 亦未如之何也已 蓋下學 可以言傳 上達 必由心悟 莊周所論斲輪之意 蓋如此	14-05-01 孟子曰 梓匠輪輿 能與人規矩 不能使人巧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木工과 수레바퀴 만드는 匠人(장인)은 남에게 컴퍼스와 곱자(직각자)는 줄 수 있어도, 남에게 기술이 좋아지게 할 수는 없느니라.」
1169	14-06 舜之飯糗茹草章	14-06 舜之飯糗茹草章	◇聖人の 마음은 貧賤(빈천)하다고 해서 밖의 일을 부러워하지 않고, 富貴하다고 해서 動搖(동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1170	飯食也 糜乾糒也 茹亦食也 袗畫衣也 二女堯二女也 果女侍也 言聖人之心 不以貧賤而有慕於外 不以富貴而有動於中 隨遇而安 無預於己 所性分定故也	14-06-01 孟子曰 舜之飯糗茹草也 若將終身焉 及其爲天子也 被袗衣鼓琴 二女果 若固有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舜이 마른 밥을 먹고, 푸성귀를 먹는 것이 평생 그러할 것 같더니, 그가 천자가 되어서는 繡(수)를 놓은 옷을 입고 거문고를 타며 두 여인의 侍從(시종)을 받는데, 본래부터 그러한 것을 가진 것처럼 하였느니라.」
1171	14-07 殺人父兄章	14-07 殺人父兄章	◇容恕(용서)함으로써 仁을 行하는 것이 禍(화)를 멀리하는 端緒(단서)임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맹자가 직접 復讐(복수) 사건을 目擊(목격)하고 난 다음 하신 말로 여겨짐.

1172	<p>言吾今而後知者 必有所爲而感發也 一間者 我往彼來 間一人耳 其實與自害其親無異也 范氏曰 知此則愛敬人之親 人亦愛敬其親矣</p>	<p>14-07-01 孟子曰 吾今而後 知殺人親之重也 殺人之父 人亦殺其父 殺人之兄 人亦殺其兄然則非自殺之也 一間耳</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야 남의 아버이를 죽이는 것의 嚴重(엄중)함을 알았노라. 남의 아비를 죽이면 남도 역시 제 아비를 죽이고, 남의 형을 죽이면 남도 역시 제 형을 죽이느니, 그리고 보면 제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제 손으로 죽인 것과는) 약간의 차이 밖에 없느니라.」</p>
1173	14-08 古之爲關也章	14-08 古之爲關也章	<p>◇맹자가 당시에 關門(관문)에서 過重한 稅金을 徵收(징수)하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다.</p>
1174	譏察非常	<p>14-08-01 孟子曰 古之爲關也 將以禦暴</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관문을 만든 것은 포악한 짓을 막기 위해서였는데,</p>
1175	<p>征稅出入 ♥ 范氏曰 古之耕者 什一 後世或收太半之稅 此以賦斂爲暴也 文王之圃 與民同之 齊宣王之圃 爲阱國中 此以園囿爲暴也 後世爲暴 不止於關 若使孟子用於諸侯 必行文王之政 凡此之類 皆不終日而改也</p>	<p>14-08-02 今之爲關也 將以爲 暴</p>	<p>지금에 관문을 만드는 것은 포악한 짓을 하기 위함이로다.」</p>
1176	14-09 身不行道章	14-09 身不行道章	<p>◇자신부터 道理에 맞게 處身(처신)하고, 남도 道理에 맞게 부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p>
1177	<p>身不行道者 以行言之 不行者 道不行也 使人不以道者 以事言之 不能行者 令不行也</p>	<p>14-09-01 孟子曰 身不行道 不 行於妻子 使人不以道 不能行 於妻子</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道를 행하지 않으면 처자에게도 행해지지 아니하고, 남을 부리는 데 道로써 하지 않으면 처자에게도 하게 할 수 없느니라.」</p>
1178	14-10 周於利者章	14-10 周於利者章	<p>◇利에만 浚渢(급급)하면 보람 없이 목숨을 延命(연명)할 수는 있고, 德을 추구하는데 周到(주도)하면 崇高(숭고)한 人格을 끗끗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말씀이다.</p>
1179	周足也 言積之厚則用有餘	<p>14-10-01 孟子曰 周于利者 凶 年不能殺 周于德者 邪世不能 亂</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익을 추구하는 데 周到(주도)한 사람은 흉년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德을 추구하는데 주도한 사람은 邪惡(사악)한 세상도 그를 혼란하게 하지 못하느니라.」</p>
1180	14-11 好名之人章	14-11 好名之人章	<p>◇真正으로 명예를 貴하게 여긴다면 讓步(양보)하는 것 또한 眞實(진실)된다는 말씀이다.</p>
1181	<p>好名之人 矯情干譽 是以能讓千乘之國 然若本非能輕富貴之人 則於得失之小者 反不覺其眞情之發見矣 蓋觀人</p>	<p>14-11-01 孟子曰 好名之人 能 讓千乘之國 苛非其人 簇食豆 羹見於色</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의 나라를 사양할 수도 있느니, (그러나) 그가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한 대그릇의 밥과 한 나무그릇의 국에도 내색을 하느니라.」</p>

	不於其所勉而於其所忽 然後 可以見其所安之實也		
1182	14-12 不信仁賢章	14-12 不信仁賢章	◇나라를 다스림에 仁賢과 禮義와 政事を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1183	空虛言若無人然	14-12-01 孟子曰 不信仁賢則 國空虛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하고 현량한 (사람을) 신임하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해지고,
1184	禮義所以辨上下 定民志	14-12-02 無禮義則上下亂	禮와 義가 없으면 상하의 (질서가) 紊亂(문란)해지며,
1185	生之無道 取之無度 用之無節故也 ♥ 尹氏曰 三者 以仁賢爲本 無仁賢 則禮義政事 處之皆不以其道矣	14-12-03 無政事則財用不足	政事를 무시하면 財政이 부족해지느니라.」
1186	14-13 不仁而得國章	14-13 不仁而得國章	◇仁慈하지 않은 자라도 天子의 親屬(친속)이거나, 奸智(간지)나 暴虐(포학)한 手段을 써서 제후국을 얻을 수는 있지마는, 天命을 받들어 天子가 되는 것은 인자한 사람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말씀이다.
1187	言不仁之人 騞其私智 可以盜千乘之國 而不可以得丘民之心 鄒氏曰 自秦以來 不仁而得天下者有矣 然 皆一再傳而失之 猶不得也 所謂得天下者 必如三代而後 可	14-13-01 孟子曰 不仁而得國 者有之矣 不仁而得天下未之有 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하지 않고서도 諸侯國(제후국)을 얻은 자는 있었지만, 인자하지 않고서도 天下를 얻은 일은 아직 있지 않았느니라.」
1188	14-14 民爲貴章	14-14 民爲貴章	◇백성이 나라의 根本임을 밝힌 名文으로, 맹자의 民本思想이 잘 나타난 내용이다. - 統治者は 무엇보다 백성들의 뜻과 생활을 貴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1189	社土神 稷穀神 建國則立壇壝以祀之 蓋國 以民爲本 社稷亦爲民而立 而君之尊 又係於二者之存亡 故其輕重如此	14-14-01 孟子曰 民爲貴 社稷 次之 君爲輕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귀중하고, 社稷(사직)은 그 다음이며, 國君은 가벼운 것이니,
1190	丘民田野之民 至微賤也 然得其心 則天下歸之 天子 至尊貴也 而得其心者 不過爲諸侯耳 是民爲重也	14-14-02 是故得乎丘民而爲天 子 得乎天子爲諸侯 得乎諸侯 爲大夫	그렇기 때문에 밭일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들게 되면 天子가 되고, 천자의 마음에 들게 되면 제후가 되며, 제후의 마음에 들게 되면 大夫가 되느니라.
1191	諸侯無道 將使社稷爲人所滅 則當更立賢君 是君輕於社稷也	14-14-03 諸侯危社稷則變置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갈아 치우느니라.

1192	<p>祭祀不失禮 而土穀之神 不能爲民禦災捍患 則毀其壇壝而更置之 亦年不順成八蜡不通之意 是社稷 雖重於君 而輕於民也</p>	<p>14-14-04 犧牲既成 納盛既潔 祭祀以時 然而旱乾水溢則變置 社稷</p>	<p>희생의 (祭物이) 살찌게 마련되고, 제물로 올린 곡식이 淨潔(정결)하게 마련되어, 제사를 제때에 지냈는데도 旱魃(한魃)과 水灾(수재)가 나면 사직을 갈아 치우느니라.」</p>
1193	14-15 聖人百世之師也章	14-15 聖人百世之師也章	<p>◇聖人の 偉大한 感化力を 말씀하신 내용이다. - 本章은 '親炙(친자)'라는 말의 出處가 된다.</p>
1194	<p>興起感動奮發也 親炙 親近而薰炙之也 餘見前篇</p>	<p>14-15-01 孟子曰 聖人百世之師也 伯夷柳下惠是也 故聞伯夷之風者 穎夫廉 懶夫有立志聞柳下惠之風者 薄夫敦鄙夫寬 奮乎百世之上 百世之下 聞者莫不與起也 非聖人而能若是乎 而況於親炙之者乎</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聖人은 百代의 스승이니 백이와 유하혜가 그들이다. 그러므로 백이의 作風을 들으면 穎惡(완악)한 사내가 청렴해지고, 겁 많은 사내도 志操를 세우게 되며, 유하혜의 作風을 들으면 野薄(야박)한 사내가 敦篤(돈독)해지고, 鄷陋(비루)한 사내가 너그러워졌느니, 百代前에서 奮發한 것을 百代 後에 듣는 사람들이例外없이 감동하게 되니, 聖人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물며 聖人에게 가까이 접촉하는 자에게 있어서랴?」</p>
1195	14-16 合而言之道也章	14-16 合而言之道也章	<p>◇仁과 人, 그리고 道의 관계를 簡潔(간결)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다.</p>
1196	<p>仁者人之所以爲人之理也 然仁理也 人物也 以仁之理 合於人之身而言之 乃所謂道者也 ❤ 程子曰 中庸所謂率性之謂道 是也 或曰 外國本 人也之下 有義也者宜也 禮也者履也 智也者知也 信也者實也 凡二十字 今按如此 則理極分明 然未詳其是否也</p>	<p>14-16-01 孟子曰 仁也者人也 合而言之道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仁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니, 합하여 말하면 道이니라.」</p>
1197	14-17	14-17	◇
1198	重出	<p>14-17-01 孟子曰 孔子之去魯 曰遲遲吾行也 去父母國之道也 去齊接淅而行 去他國之道也</p>	<p>맹자 가라사대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심에 가라사대 더디고 더뎌라, 나의 걸음이여 하시니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도이오, 제나라를 떠나심에 쌀을 일어 건져 가시니 다른 나라를 떠나는 도이니라.</p>
1199	14-18 君子之厯於陳蔡章	14-18 君子之厯於陳蔡章	<p>◇孔子가 困難을 겪은 일에 대한 해명의 말씀이다. - 君子는 困窮해저도 節操(절조)를 굳게 지키며, 正道를 變改(변개)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p>
1200	君子孔子也 厲與厄同 君臣皆惡 無所與交也	<p>14-18-01 孟子曰 君子之厯於陳蔡之間 無上下之交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困難(곤란)을 당하신 것은 (진나라와 채나라에) 위아래로 (교류할만한 사람이 없어)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p>

1201	14-19 稽大不理於口章	14-19 稽大不理於口章	◇贤聖한 人物일수록 남의 憤怒(분노)를 사게 되므로 남이 헐뜯는 말에 대해 크게 關心을 두지 말고, 자기만 올바로 잘 해나가면 된다는 말씀이다. - 世俗의 論評에 左右되지 말고 所信대로 正道를 행할 것을 勸勉한 내용이다.
1202	趙氏曰 豪姓 稽名 爲衆口所訕 理賴也 今按漢書 無俚方言亦訓賴	14-19-01 豪稽曰 稽大不理於口	맥계가 말하기를, 「제가 크게 (사람들의) 입에 비방당할 것입니다.」
1203	趙氏曰 爲士者 益多爲衆口所訕 按此則憎當從土 今本 皆從心 蓋傳寫之誤	14-19-02 孟子曰 無傷也 士憎 茲多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傷心할 것이 없느니라. 선비는 더욱 口舌이 많은 것이라.」
1204	詩邶風柏舟及大雅線之篇也 悄悄憂貌 懵怒也 本言衛之仁人 見怒於群小 孟子以爲孔子之事可以當之 肆發語辭 隕墜也 問聲問也 本言大王事昆夷 雖不能殄絕其憤怒 亦不自墜其聲問之美 孟子以爲文王之事可以當之 ❤ 尹氏曰 言 人顧自處如何 盡其在我者而已	14-19-03 詩云憂心悄悄 懵于 群小孔子也 肆不殄厥憤 亦 不隕厥問文王也	『詩經』에 이르기를, '근심하는 마음이 초초하거늘, (그것은) 많은 소인배들을 성나게 하였기 때문이라.'하였으니, 공자의 경우가 그러하였고, '비록 그들의 노여움을 사라지게 하자는 못하였으나, 그의 명성도 잊지는 않았도다.'하였으니, 문왕의 경우가 그러하였느니라.」
1205	14-20 賢者以其昭昭章	14-20 賢者以其昭昭章	◇治者와 被治者의 관계를 論한 내용이다. - 賢者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의 잘못을 비판한 것이다.
1206	昭昭明也 昏昏闇也 尹氏曰 大學之道 在自昭明德而施於天下國家 其有不順者寡矣	14-20-01 孟子曰 賢者以其昭 昭 使人昭昭 今以其昏昏 使人 昭昭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자는 자신의 밝은 법도로써 남을 밝게 만드는데, 지금은 자기의 흐려진 법도로써 남을 밝게 만들려고 하고 있도다.」
1207	14-21 山徑之蹊間章	14-21 山徑之蹊間章	◇자신의 德을 닦는 일은 中斷(중단)없이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1208	徑小路也 躕人行處也 介然倏然之頃也 用由也 路大路也 爲間少頃也 茅塞茅草生而塞之也 言理義之心 不可少有間斷也	14-21-01 孟子謂高子曰山徑之 蹊間 介然用之而成路 爲間不 用則茅塞之矣 今茅塞子之心矣	맹자께서 고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산 지름길의 작은 길은 잠시 동안 그것을 이용하다보면 길이 되지만, 잠시 이용하지 않으면 떠 풀이 그것(길)을 막아버리느니, 지금의 자네의 마음이 떠 풀로 막혀있노라.」
1209	14-22 禹之聲章	14-22 禹之聲章	◇事物의 表面的인 條件만을 보고 優劣(우열)을 가리거나 判斷(판단)을 내리는 것은 誤謬(오류)를 犯(범)하기 쉽다는 말씀이다. - 前代의 聖人이나 後代의 聖人이나 崇尚(승상)할 것은 같다는 뜻이다.

1210	尙加尙也 豊氏曰 言禹之樂過於文王之樂	14-22-01 高子曰 禹之聲 尚文王之聲	고자가 말하기를, 「우의 음악은 문왕의 음악보다 훌륭했습니다.」
1211	豐氏曰 追鐘紐也 周禮所謂旋蟲是也 蠶者 鬪木蟲也 言禹時鐘在者鐘紐如蟲蠹而欲絕 蓋用之者多而文王之鐘不然 是以 知禹之樂過於文王之樂也	14-22-02 孟子曰 何以言之 曰以追蟲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가?」 (고자가) 말하기를, 「종의 꼭지가 닳아버린 것으로써 입니다.」
1212	豐氏曰 奚足 言此何足以知之也軌車轍迹也 兩馬 一車所駕也城中之涂 容九軌 車可散行 故其轍迹淺 城門惟容一車 車皆由之故 其轍迹深 蓋日久車多所致非一車兩馬之力 能使之然也 言禹在文王前千餘年 故 鐘久而紐絕文王之鐘 則未久而紐全不可以此而譏優劣也 ♥ 此章文義本不可曉 舊說相承如此而豐氏差明白 故 今存之亦未知其是否也	14-22-03 曰是奚足哉 城門之軌 兩馬之力與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야 어찌 족하겠는가? 성문의 바퀴자국이 말 두필의 힘만 이겠는가?」
1213	14-23 是爲馮婦章	14-23 是爲馮婦章	◇不可하다고 생각하여 일단 그만두어버린 일을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고 해서 다시 나서서 한다는 것은 羞恥(수치)스러운 일임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 當時 齊王을 벼랑 턱을 등에 지고 베티고 있는 호랑이에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맹자 자신은馮婦와 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있다.
1214	先時 齊國嘗饑 孟子勸王發棠邑之倉以賑貧窮 至此又饑 陳臻問言齊人望孟子復勸王發棠而又自言恐其不可也	14-23-01 齊饑陳臻曰 國人皆以夫子將復爲發棠 殆不可復	제나라에 기근이 들자 진진이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다들 선생님께서 또 그들을 위해서 당읍의 (양곡을) 풀어주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또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1215	手執曰搏 卒爲善士 後能改行爲善也之適也 負依也 山曲曰嵎 摟觸也笑之笑其不知止也 疑此時齊王已不能用孟子 而孟子亦將去矣故 其言如此	14-23-02 孟子曰 是爲馮婦也晉人有馮婦者善搏虎 卒爲善士則之野 有衆逐虎 虎負嵎 莫之敢撣 望見馮婦 趨而迎之 馮婦攘臂下車 衆皆悅之 其爲士者笑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풍부같이 되는 것이로다. 진나라 사람에 풍부라는 자가 있었는데, 범을 때려잡기를 잘 하다가 나중에는 착한 선비가 되어서 들을 지나갈 때에, 여러 사람들이 범을 쫓으니 범이 벼랑 턱을 등에 지고 베티고 있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다가 풍부를 바라보고는 달려와서 맞이하니, 풍부가 팔뚝을 걷고 수레에서 내렸는데, 대중들이 모두 기뻐하였지만 그 선비가 된 자들은 비웃었느니라.」

1216	14-24 有命有性章	14-24 有命有性章	<p>◇君子는 仁義禮智의 德性을 發揮(발휘)하는 것을 天命으로 돌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本性에서 우러나는 것임을 깊이 認識(인식)해 꾸준히 努力하여 自己 向上을 圖謀(도모)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 五官의 欲求는 本性에서 우러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天命이 介在(개재)되어 있는 바,君子는 이를 充足(충족)하기 위해 汲汲(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p>
1217	<p>程子曰 五者之欲性也 然 有分不能皆如其願 則是命也 不可謂我性之所有而求必得之也 愚按不能皆如其願 不止爲貧賤 蓋雖富貴之極 亦有品節限制 則是亦有命也</p>	14-24-01 孟子曰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 於臭也 四肢於安佚也 性也 有 命焉 君子不謂性也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이 좋은 맛을, 눈이 좋은 빛을, 귀가 좋은 소리를, 코가 좋은 냄새를, 사지가 편안한 것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本性이나, 거기에는 (마음대로 안 되는) 天命이 있으므로 군자는 (그것들을) 본성이라 말하지 않느니라.</p>
1218	<p>程子曰 仁義禮智天道在人 則賦於命者 所稟 有厚薄清濁 然而性善 可學而盡 故不謂之命也 張子曰 晏嬰智矣 而不知仲尼 是非命邪 愚按 所稟者厚而清 則其仁之於父子也 至 義之於君臣也 盡 禮之於賓主也 恭 智之於賢否也 哲 聖人之於天道也 無不脗合而純亦不已焉 薄而濁則反是 是皆所謂命也 或曰 者當作否 人衍字 更詳之 ❤ 愚聞之師 曰此二條者 皆性之所有而命於天者也 然 世之人 以前五者爲性 雖有不得 而必欲求之 以後五者爲命 一有不至則不復致力 故孟子各就其重處言之 以伸此而抑彼也 張子所謂養則付命於天 道則責成於己 其言 約而盡矣</p>	14-24-02 仁之於父子也 義之 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智之 於賢者也 聖人之於天道也 命 也 有性焉 君子不謂命也	<p>仁이 부자 간에 베풀어지고, 義가 군신 간에 지켜지고, 禮가 主客 간에 행해지고, 智가 賢者에게 發現(발현)되고, 聖人에게 실현되는 하늘의 道는 (모두 마음대로 안 되는) 天命이나, 거기에는 本性이 있으므로 군자는 (그것들을) 天命이라 말하지 않느니라.」</p>
1219	14-25 樂正子何人也章	14-25 樂正子何人也章	<p>◇善·信·美·大·聖·神이라는 인간의 여섯 가지 德性의 差等(차등)을 提示하고 定義한 내용이다. - 악정자는 前二者에 속하고, 後四者에는 미치지 못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다.</p>

1220	趙氏曰 浩生姓 不害名 齊人也	14-25-01 浩生不害問曰 樂正子何人也 孟子曰 善人也信人也	호생불해가 묻기를, 「악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사람이며, 미더운 사람입니다.」
1221	不害問也	14-25-02 何謂善 何謂信	(호생불해가 묻기를,)「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을 미덥다고 하는 것입니까?」
1222	天下之理 其善者必可欲 其惡者必可惡 其爲人也可欲而不可惡 則可謂善人矣	14-25-03 曰可欲之謂善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근하고 싫어지게 하는 것을 善하다 하고,
1223	凡所謂善 皆實有之 如惡惡臭 如好好色 是則可謂信人矣 張子曰 志仁無惡之謂善 誠善於身之謂信	14-25-04 有諸己之謂信	자신이 善한 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信이라 하며,
1224	力行其善 至於充滿而積實 則美在其中而無待於外矣	14-25-05 充實之謂美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美라 하고,
1225	和順積中而英華發外 美在其中而暢於四支 發於事業 則德業至盛而不可加矣	14-25-06 充實而有光輝之謂大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서 광휘가 있는 것을 大라 하며,
1226	大而能化 使其大者 泯然無復可見之迹 則不思 不勉 從容中道 而非人力之所能爲矣 張子曰 大可爲也 化不可爲也 在熟之而已矣	14-25-07 大而化之之謂聖	크면서 감화시키는 것을 聖이라 하고,
1227	程子曰 聖不可知 謂聖之至妙 人所不能測 非聖人之上 又有一等神人也	14-25-08 聖而不可知之之謂神	성스러우면서 알아볼 수 없는 것을 神이라 하니,
1228	蓋在善信之間 觀其從於子敖 則其有諸己者或未實也 張子曰 顏淵樂正子 皆知好仁矣 樂正子 志仁無惡而不致於學 所以但爲善人信人而已 顏子好學不倦 合仁與智 具體聖人 獨未至聖人之止耳 ♥ 程子曰 士之所難者 在有諸己而已 能有諸己 則居之安 資之深 而美且大 可以馴致矣 徒知可欲之善 而若存若亡而已	14-25-09 樂正子二之中 四之下也	악정자는 앞의 두 가지(善과 信)중에 놓여있고, 뒤의 네 가지(美·大·聖·神) 밑에 있느니라.」

	則能不受變於俗者鮮矣 尹氏曰 自可欲之善 至於聖而不可知之神 上下一理 擴充而至於神 則不可得而名矣		
1229	14-26 逃墨必歸於楊章	14-26 逃墨必歸於楊章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寬大(관대)하게 그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 墨家의 兼愛說(겸애설)이나 楊朱의 爲我說(위아설)은 결국 儒家(유가)로 돌아오게 되어있다는 말씀이기도 하다.
1230	墨氏務外而不情 楊氏太簡而近實 故其反正之漸 大略如此 歸斯受之者 憫其陷溺之久而取其悔悟之新也	14-26-01 孟子曰 逃墨必歸於 楊 逃楊必歸於儒 歸斯受之而 已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묵자에서 도망하면 반드시 양자에 돌아가고, 양자에서 도망하면 반드시 유가에 돌아올 것이니, 돌아오거든 곧 받아줄 따름이니라.」
1231	放豚 放逸之豕豚也 茅闌也 招罷也 羈其足也 言彼旣來歸 而又追咎其旣往之失也 ♥ 此章 見聖賢之於異端 距之心嚴 而於其來歸 待之甚恕 距之嚴故 人知彼說之爲邪 待之恕故 人知此道之可反 仁之至 義之盡也	14-26-02 今之與楊墨辯者 如 追放豚 旣入其茅 又從而招之	지금 양·묵과 爭辯(쟁변)하는 사람은 놓친 돼지를 쫓듯이 하니, 이미 그 우리에 들어갔는데 또 쫓아서 그 다리를 끓는 것이로다.」
1232	14-27 有布縷之征章	14-27 有布縷之征章	◇백성들을 稅金과 賦役(부역)으로 지나치게 괴롭히는 것을 警戒(경계)한 말씀이다.
1233	征賦之法 歲有常數 然 布縷取之於夏 粟米取之於秋 力役取之於冬 當各以其時 若并取之 則民力 有所不堪矣 今兩稅三限之法 亦此意也 尹氏曰 言民爲邦本 取之無度 則其國危矣	14-27-01 孟子曰 有布縷之征 粟米之征 力役之征 君子用其 一 緩其二 用其二而民有殍 用 其三而父子離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와 실의 徵稅(징세)와 곡물의 징세와 노동력의 徵發(징발)이 있는데, 군자는 그 중의 한 가지를 適用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緩和(완화)하여 徵收하느니, 그 두 가지를 적용하면 백성들에게 짚어죽는 주검이 생기고, 그 세 가지를 다 적용하면 父子가 離散(이산)하게 되느니라.」
1234	14-28 諸侯之寶三章	14-28 諸侯之寶三章	◇諸侯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土地와 百姓과 政事를 무엇보다 所重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다.

1235	尹氏曰 言寶得其實者安 寶失其實者危	14-28-01 孟子曰 諸侯之寶三 土地 人民 政事 寶珠玉者 殘 必及身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후의 보배는 세 가지이니, 토지와 인민과 정사이니라. 주목을 보배로 여기는 자는 殘禍(양화)가 반드시 몸에 미치게 될 것이라.」
1236	14-29 死矣盆成括章	14-29 死矣盆成括章	◇君子의 大道를 터득하고 事理의 大體를 把握(파악)하여 萬事를 處理(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의 말씀이다. - 조그만 재주만을 믿고 날뛰면 생명의 危險(위험)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다.
1237	盆成姓 括名也 恃才妄作 所以取禍 徐氏曰 君子道其常而已 括有死之道焉 設使幸而獲免 孟子之言 猶信也	14-29-01 盆成括 仕於齊 孟子 曰 死矣 盆成括 盆成括 見殺 門人 問曰 夫子 何以知其將見 殺 曰其爲人也 小有才 未聞君 子之大道也 則足以殺其軀而已 矣	분성괄이 제나라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되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을 것이로다. 분성괄이여!」 분성괄이 피살되었거늘, (맹자의) 문인이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가 장차 피살될 것을 아셨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사람됨이 작은 재주는 있으나, 군자의 큰 道를 듣지 못하였으니, 곧 그의 몸을 죽이게 될 따름이니라.」
1238	14-30 館於上宮章	14-30 館於上宮章	◇신발이 紛失(분실)된 일과 관련시켜, 맹자가 그의 門下의 人物들을 대하는 態度를 披瀝(피력)한 내용이다. -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지극하다면 비록 신발을 훔친다고 하더라도 맹자는 拒絕(거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239	館舍也 上宮別宮名 業履織之有次業而未成者 蓋館人所作 置之牖上而失之也	14-30-01 孟子之滕 館於上 宮 有業履於牖上 館人 求之弗 得	맹자께서 등나라로 가셔서 상궁에 유숙하셨는데, 살창위에 신 삼던 것이 있었으나, 그 집 사람이 그것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1240	或問之者 問於孟子也 廟匿也 言子之從者乃匿人之物 如此乎 孟子答之 而或人 自悟其失 因言此從者固不爲竊履而來 但夫子設置科條 以待學者 苟以向道之心而來 則受之耳 雖夫子 亦不能保其往也 門人取其言有合於聖賢之指 故記之	14-30-02 或問之曰 若是乎 從 者之廟也 曰予以是 爲竊履來 與 曰殆非也 夫子之設科也 往 者不追 來者不拒 苟以 是心至 斯受之而已矣	어떤 사람이 그것을 묻기를, 「따르는 자가 그것을 숨긴 것 같습니다그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그들이 (이곳으로) 신이나 훔치려왔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기야 않겠지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하여서는 가는 사람을 붙들지 않고,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소. 진실로 (배우려는) 지극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면 곧 그를 받아들일 따름입니다.」
1241	14-31 人皆有所不忍章	14-31 人皆有所不忍章	◇仁과 義를 擴充(확충)시켜서 이상적인 仁人과 義士가 되는 길을 설명한 내용이다.
1242	惻隱羞惡之心 人皆有之 故莫不有所不忍不爲 此仁義之端也 然以氣質之偏 物欲之蔽 則於他事 或有不能者 但推所能 達之於所不能 則無非仁義矣	14-31-01 孟子曰 人皆有所不 忍 達之於其所忍 仁也 人皆有 所不爲 達之於其所爲 義也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모두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차마 하는 것에까지 통달하면 仁이고, 사람들은 모두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하는 것에까지 통달하게 되면 義이니라.」

1243	<p>充滿也 穿穿穴 踏踏牆 皆爲盜之事也 能推所不忍 以達於所忍 則能滿其無欲害人之心 而無不仁矣 能推其所不爲 以達於所爲 則能滿其無穿踰之心 而無不義矣</p>	<p>14-31-02 人能充無欲害人之心 而仁 不可勝用也 人能充無穿 蹰之心而義 不可勝用也</p>	<p>사람이 남을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채워나가면 仁을 이루 다 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도둑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채워나가면 義를 이루 다 쓰지 못할 것이라.</p>
1244	<p>此申說上文充無穿踰之心之意也 蓋爾汝 人所輕賤之稱 人雖或有所貪昧隱忍而甘受之者 然其中心 必有慙忿而不肯受之之實 人能卽此而推之 使其充滿 無所虧缺 則無適而非義矣</p>	<p>14-31-03 人能充無受爾汝之實 無所往而不爲義也</p>	<p>사람이 애 재 하고 천대받지 않게 실력을 채워나가면 어디에 가더라도 義롭지 않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p>
1245	<p>餂採取之也 今人 以舌取物曰餂 卽此意也 便佞 隱默 皆有意採取於人 是亦穿踰之類 然其事隱微 人所易忽 故特舉以見例 明必推無穿踰之心 達於此而悉去之然後 爲能充其無穿踰之心也</p>	<p>14-31-04 士未可以言而言 是 以言餂之也 可以言而不言 是 以不言餂之也 是皆穿踰之類也</p>	<p>선비가 아직 말할 때가 아닌데 말을 하면 그것은 말로써 남을 떠보려는 것이요, 말을 해야 할 때에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떠보려는 것입니, 그런 것도 다 도둑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p>
1246	<p>14-32 人病舍其田章</p>	<p>14-32 人病舍其田章</p>	<p>◇修己治人(수기치인)의 道理를 說明한 내용이다. - 道를 면 데서 구하지 말고 자기 몸의 가까운 곳(일상생활에서의 五倫의 실천)에서 찾아야한다는 말씀이다.</p>
1247	<p>古人視不下於帶 則帶之上 乃目前常見至近之處也 舉目前之近事 而至理存焉 所以爲言近而指遠也</p>	<p>14-32-01 孟子曰 言近而指遠 者 善言也 守約而施博者善道 也 君子之言也 不下帶而道存 焉</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은 卑近하면서 그 뜻이 深遠한 것이 좋은 말이고, (자신을) 지킴은 簡略하면서 넓게 베푸는 것이 좋은 方道이니, 군자의 말이란 허리띠를 내려가기까지 하지 않아도 거기에 道가 들어있느니라.」</p>
1248	<p>此所謂守約而施博也</p>	<p>14-32-02 君子之守脩其身而天 下平</p>	<p>군자가 지켜나가는 것이란 그 자신을(德을) 닦아서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p>
1249	<p>此言 不守約而務搏施之病</p>	<p>14-32-03 人病 舍其田而芸人 之田 所求於人者重 而所以自 任輕也</p>	<p>사람들의 痘廢(병폐)는 자기의 밭은 내버려두고 남의 밭에서 김을 매는 것입니,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嚴重하고 자기가 맡은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p>
1250	<p>14-33 堯·舜性者也章</p>	<p>14-33 堯·舜性者也章</p>	<p>◇군자는 本性에 따를 뿐이지, 人爲的으로 計算(계산)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p>
1251	<p>性者得全於天 無所汚壞 不假修爲 聖之至也 反之者 修爲以復其性</p>	<p>14-33-01 孟子曰 堯舜性者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순은 본성대로 산 사람들이고, 탕왕·무왕은 본성으로 돌아갔느니라.」</p>

	<p>而至於聖人也 程子曰 性之反之 古未有此語 蓋自孟子發之 呂氏曰 無意而安行 性者也 有意利行而至於無意 復性者也 堯舜不失其性 湯武善反其性 乃其成功則一也</p>	湯武反之也	
1252	<p>細微曲折 無不中體 乃其盛德之至 自然而中 而非有意於中也 經常也 回曲也 三者亦皆自然而然 非有意而爲之也 皆聖人之事 性之之德也</p>	14-33-02 動容周旋 中禮者 盛 德之至也 哭死而哀 非爲生者 也 輕德不回 非以干祿也 言語 必信 非以正行也	행동하는 모양과 진퇴의 곡질이 禮에 맞는 자는 德의 성함이 지극한 것이니, 죽음을 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산 자를 위함이 아니며, 德으로써 살아가고 邪惡하게 굴지 않은 것은 爵祿을 구하자는 것은 아니며, 언어를 반드시 미덥게 하는 것은 행실을 바르게 하자는 것은 아니니라.
1253	<p>法者天理之當然者也 君子行之而吉凶禍福 有所不計 蓋雖未至於自然 而已非有所爲而爲矣 此反之之事 董子所謂正其義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 正此意也 ♥ 程子曰 動容周旋 中禮者 盛德之至 行法以俟命者 朝聞道夕死可矣之意也 呂氏曰 法由此立 命有此出 聖人也 行法以俟命 君子也 聖人性之 君子所以復其性也</p>	14-33-03 君子 行法 以俟命而 已矣	군자는 법도대로 행하여 천명을 기다릴 따름이니라.」
1254	14-34 說大人則藐之章	14-34 說大人則藐之章	◇所信을 갖고 남을 說服(설복)시킬 때에는 相對의 物質的 威勢(위세)에 놀리지 말고 자기의 道義的 優越性(우월성)으로 堂堂(당당)하게 臨(임)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1255	<p>趙氏曰 大人當時尊貴者也 藥輕之也 巍巍富貴高顯之貌 貓焉而不畏之則志意舒展 言語得盡也</p>	14-34-01 孟子曰 說大人則藐 之 勿視其巍巍然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인을 설득시킬 때에는 그를 가볍게 여기고 그의 위세 좋은 것을 보지 말 것이라.
1256	<p>棟桷也 題頭也 食前方丈 饌食列於前者方一丈也 此皆其所謂巍巍然者 我雖得志 有所不爲 而所守者 皆古聖賢之法 則彼之巍巍者 何足道哉 ♥ 楊氏曰 孟子此章 以己之長 方人之短 猶有此等氣象 在孔子則無此矣</p>	14-34-02 堂高數仞 棟題數尺 我得志 弗爲也 食前方丈 侍妾 數百人 我得志 弗爲也 般樂飲 酒 驅騁田獵 後車千乘 我得志 弗爲也 在彼者 皆我所不爲也 在我者 皆古之制也 吾何畏彼	집의 높이가 여러 길이 되고 추녀 머리가 여러 척이 되는 집은 내가 뜻을 얻더라도 갖지 않을 것이고, 음식을 사방 열 자 되는 상에다 늘어놓고 시종 드는 첨 수백 사람을 두는 일은 내가 뜻을 얻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크게 즐기며 술을 마시고 말을 달려 사냥하며 천승의 수레를 뒤따르게 하는 짓은 내가 뜻을 얻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다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이고, 나에게 있는 것은 다 옛날의 제도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哉	두려워하겠는가?」
1257	14-35 養心莫善於寡欲章	14-35 養心莫善於寡欲章	◇仁義禮智(인의예지)의 本心을 기르기 위해서는 慾望을 적게 갖도록 하는 것이 最善(최선)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1258	欲如口鼻耳目四支之欲 雖人之所不能無 然多而不節 未有不失其本心者 學者所當深戒也 程子曰 所欲不必沈溺 只有所向 便是欲	14-35-01 孟子曰 養心 莫善於 寡欲 其爲人也寡欲 雖有不存 焉者 寡矣 其爲人也多欲 雖有 存焉者 寡矣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수양하는 데는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그 사람됨이 욕망이 적으면 비록 그것을 보존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도 (잃는 것이) 적고, 그 사람됨이 욕망이 많으면 비록 그것을(본심을) 보존하는 수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적을 것이라.」
1259	14-36 曾晳嗜羊棗章	14-36 曾晳嗜羊棗章	◇맹자가 曾子의 孝行을 解明한 내용이다.
1260	羊棗實小 黑而圓 又謂之羊矢棗 曾子以父嗜之 父沒之後食必思親 故不忍食也	14-36-01 曾晳 嗜羊棗 而曾子 不忍食羊棗	증석이 (생전에) 양조를 즐겨 먹었으므로, 증자는 (아버지를 追慕하는 마음에) 차마 양조를 먹지 못하였다.
1261	肉矗而切之爲膾 炙炙肉也	14-36-02 公孫丑問曰膾炙與羊 棗孰美 孟子曰 膾炙哉 公孫 丑曰 然則曾子何爲食膾炙而不 食羊棗 曰膾炙 所同也 羊棗 所獨也 謹名不謹性 性所同也 名所獨也	(이에) 공손추가 묻기를, 「회· 散炙과 양조는 어느 것이 더 맛있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와 산적이겠지.」 공손추가 묻기를, 「그렇다면 증자는 무엇 때문에 회와 산적은 먹고, 양조는 먹지 않은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와 산적은 다같이 (좋아하는) 것이고, 양조는 (증석이) 혼자만 (좋아했던) 것이라. 이름은 꺼리어 부르지 않고, 성은 꺼리지 않고 부르는 것이니, 성은 다같이 쓰는 것이고 이름은 혼자만 쓰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
1262	14-37 吾黨之士狂簡章	14-37 吾黨之士狂簡章	◇中道者, 狂獷(광현), 鄉原 등의 人間類型(유형) 내지 人間等級을 大分하여 偽善(위선)의 象徵(상징)인 鄉原을 排擊(배격)하고 不變(불변)하는 正道에의 復歸(복귀)를 勸勉(권면)한 내용이다. -似而非(사이비)한 偽善者를 물리치고 차라리 과격하고 고집 센 사람을 取하겠다는 孔子의 意圖(의도)를 明白히 이해하게 해주는 글이다.
1263	盍何不也 狂簡謂志大而略於事 進取謂求望高遠 不忘其初 謂不能改其舊也 此語與論語小異	14-37-01 萬章 問曰 孔子在陳 曰 盍歸乎來 吾黨之士 狂簡 進取 不忘其初 孔子在陳 何思 魯之狂士	만장이 묻기를, 「공자께서 陳나라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우리 고장의 선비들은 과격하고 단순하여 진취적이되 初志를 잊지 않는데.'라고 하셨는데, 공자께서 陳나라에 계시면서 무엇 때문에 魯나라의 과격한 선비들을 생각하셨을까요?」

1264	<p>不得中道 至有所不爲 據論語 亦孔子之言 然則孔子字下 當有日字 論語道作行 猥作狷 有所不爲者 知恥自好 不爲不善之人也 孔子豈不欲中道以下 孟子言也</p>	14-37-02 孟子曰 孔子 不得中道而與之 必也狂獮乎 狂者進取 獲者有所不爲也 孔子豈不欲中道哉 不可必得故 思其次也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께서는, '中道를 가는 사람을 얻어서 가르치지 못한다면, 나는 반드시 과격한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을 택할 것이로다. 과격한 자는 진취적이고 고집이 센자는 하지 않는 일이 있음이라!」 하셨는데, 공자께서 어찌 중도를 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반드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가는 사람을 생각하셨던 것이라.)</p>
1265	萬章問	14-37-03 敢問何如 斯可謂狂矣	<p>(만장이 묻기를,)「감히 물건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것을 과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p>
1266	<p>琴張名牢 字子張 子桑戶死 琴張臨其喪而歌 事見莊子 雖未必盡然 要必有近似者 曾晳 見前篇 季武子死 曾晳倚其門而歌 事見檀弓 又言志異乎三者者之撰 事見論語 牧皮未詳</p>	14-37-04 曰如琴張曾晳牧皮者 孔子之所謂狂矣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장·증석·목피 같은 사람들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과격한 자들이니라.」)</p>
1267	萬章問	14-37-05 何以謂之狂也	<p>(만장이 묻기를,)「어찌하여 그들을 과격하다고 하는 것입니까?」</p>
1268	<p>嘵嘵志大言大也 重言古之人 見其動輒稱之 不一稱已也 夷平也 掩覆也 言平考其行 則不能覆其言也 程子曰 曾晳言志而夫子與之 蓋與聖人之志同 便是堯舜氣象也 特行有不掩焉耳 此所謂狂也</p>	14-37-06 曰其志嘵嘵然曰 古之人古之人 夷考其行而不掩焉者也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뜻은 몹시 커서 말하기를, '옛 사람이여! 옛 사람이여!' 하지만, 그들의 행실을 공평하게 살펴보면 그대로 실천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라.」)</p>
1269	<p>此因上文所引 遂解所以思得獮者之意 狂有志者也 獮有守者也 有志者能進於道 有守者不失其身 肩潔也</p>	14-37-07 狂者 又不可得 欲得 不屑不潔之士而與之 是獮也 是又其次也	<p>과격한 사람을 또한 얻지 못하면 더러운 것을 접근시키지 않으려는 선비를 얻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니, 그것이 고집이 센 사람으로, 이는 또 그 다음가는 사람이니라.」</p>
1270	<p>鄉原非有識者 原與愿同 荀子原慤字 皆讀作願 謂謹願之人也 故鄉里所謂願人 謂之鄉原 孔子以其似德而非德 故以爲德之賊 過門不入而不恨之 以其不見親就 爲幸 深惡而痛絕之也 萬章 又引孔子之言而問也</p>	14-37-08 孔子曰 過我門而不入我室 我不憾焉者 其惟鄉原乎鄉原 德之賊也 曰何如 斯可謂之鄉原矣	<p>(만장이 묻기를,)「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문을 지나가면서도 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오직 향원일 뿐일 게다. 향원은德을 해치는 자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여야 곧 그를 향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p>

1271	<p>蹠蹠獨行不進之貌 涼涼薄也 不見親厚於人也 鄉原 譏狂者曰 何用如此寥寥然行不掩其言 而徒每事必稱古人邪 又譏狷者曰 何必如此蹠蹠涼涼 無所親厚哉 人既生於此世 則但當爲此世之人 使當世之人 皆以爲善則可矣 此鄉原之志也 閨如奄人之奄 閉藏之意也 媚求悅於人也 孟子言此深自閉藏 以求親媚於世 是鄉原之行也</p>	<p>14-37-09 曰何以是寥寥也 言 不顧行 行不顧 言則曰古之人 古之人 行何爲蹠蹠涼涼 生斯 世也 為斯世也 善斯可矣 閨然 媚於世也者 是鄉原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뜻이 큰 것으로 어찌자는 건가? 말은 (자기의) 행실을 돌보지 않고, 행실은 말을 돌보지 않으면서, 말로는 '옛 사람이여! 옛 사람이여!'하는데, 행실은 어찌하여 그렇게 외롭고 차가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을 위하여 착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하여, 숨어서 세상에 아부하는 자가 바로 향원이니라.」</p>
1272	<p>原亦謹厚之稱 而孔子以爲德之賊 故萬章疑之</p>	<p>14-37-10 萬章 曰一鄉 皆稱原 人焉 無所往而不爲原人 孔子 以爲德之賊 何哉</p>	<p>만장이 말하기를, 「한 고을이 다 原人이라고 부른다면, 가는 곳마다 원인이 되지 않는 자가 없거늘, 공자께서 덕을 해치는 자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p>
1273	<p>呂侍講曰 言 此等之人 欲非企則無可舉 欲刺之則無可刺也 流俗者 風俗頽靡 如水之下流 衆莫不然也 汚濁也 非忠信而似忠信 非廉潔而似廉潔</p>	<p>14-37-11 曰非之無擧也 刺之 無刺也 同乎流俗 合乎汚世 居 之似忠信 行之似廉潔 衆皆悅 之 自以爲是而不可與入堯舜之 道 故曰德之賊也</p>	<p>(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비난하려 들어도 들 것이 없고, 그를 풍자하려고 해도 풍자할 것이 없으니, 流俗과 동조하고 더러운 세상과 합류하며, 거함에 충직하고 신의가 있는 것 같고, 행실에는 청렴결백한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거늘, 스스로 옳다고 하지만 요·순의 道에는 함께 들어갈 수 없으니, 그래서 말하기를, '덕을 해치는 자이다.'라고 하신 것이니라.」</p>
1274	<p>孟子又引孔子之言以明之 莖似苗之草也 佞才智之稱 其言似義而非義也 利口多言而不實者也 鄭聲淫樂也 樂正樂也 紫閨色 朱正色也 鄉原不狂不獪 人皆以爲善 有似乎中道而實非也 故恐其亂德</p>	<p>14-37-12 孔子曰 惡似而非者 惡莠 恐其亂苗也 惡佞 恐其亂 義也 惡利口 恐其亂信也 惡鄭 聲 恐其亂樂也 惡紫 恐其亂朱 也 惡鄉原 恐其亂德也</p>	<p>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이비한 것을 미워하느니, 가라지(강아지풀)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곡식의 죽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말을 잘 둘러대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義를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며, 날카로운 구변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신의를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정나라의 음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雅樂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며, 자줏빛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주홍빛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그가 德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다.'라고 하시니라.</p>
1275	<p>反復也 經常也 萬世不易之常道也 興興起於善也 邪慝如鄉原之屬 是也 世衰道微 大經不正 故人得爲異說 以濟其私 而邪慝并起 不可勝正 君子於此 亦復其常道而已 常道既復 則民興於善 而是非明白 無所回互</p>	<p>14-37-13 君子反經而已矣 經 正則庶民興 庶民興 斯無邪慝 矣</p>	<p>군자는 常道로 돌아갈 따름이니, 常道가 바로 잡히면 서민들에게도 (그것이: 常道) 일어나게 되고, 서민들에게 (그것이: 常道) 일어나게 되면 곧 邪慝(사특)한 것이 없어질 것이라.」</p>

	<p>雖有邪慝 不足以惑之矣 ♥ 尹氏曰 君子取夫狂獮者 蓋以狂者 志大而可與進道 獮者有所不爲而可與有爲也 所惡於鄉原而欲痛絕之者 爲其似是而非 惑人之深也 絶之之術 無他焉 亦曰反經而已矣</p>		
1276	14-38 由堯·舜至於湯章	14-38 由堯·舜至於湯章	◇聖人出現의 五百年週期說(오백년주기설)과 道統傳承(도통전승)의 系譜(계보)가 나타나 있고, 맹자 자신이 그 系譜에 參與(참여)한다는 意識(의식)과 自己가 적어도 聖人 다음가는 人物은 된다는 意思를 隱然中(은연중)에 나타낸 내용이다. - 本章으로 맹자가 本冊(본책)을 結束(결속)지은 心中을 헤아려 볼 수 있다.
1277	<p>趙氏曰 五百歲而聖人出 天道之常 然 亦有遲速 不能正五百年 故言有餘也 尹氏曰 知謂知其道也</p>	14-38-01 孟子曰由堯舜至於湯 五百有餘歲 若禹臯陶則見而知 之 若湯則聞而知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순으로부터 탕에 이르기까지 오백여 년이니, 우와 고요 같은 이들은 보고서 그들을(요와 순) 알았고, 탕 같은 이는 들어서 그들을(요와 순) 알았느니라.
1278	<p>趙氏曰萊朱湯賢臣 或曰卽仲虺也 爲湯左相</p>	14-38-02 由湯至於文王 五百 有餘歲 若伊尹萊朱則見而知之 若文王則聞而知之	탕왕으로부터 문왕에 이르기까지 오백여 년이니, 이윤과 내주 같은 이들은 보고서 그를(탕왕) 알았고, 문왕 같은 이는 들어서 그를(탕왕) 알았느니라.
1279	<p>散氏 宜生名 文王賢臣也 子貢曰 文武之道 未墜於地 在人賢者識其大者 不賢者識其小者 莫不有文武之道焉 夫子焉不學 此所謂聞而知之也</p>	14-38-03 由文王至於孔子 五 百有餘歲 若太公望散宜生則見 而知之 若孔子則聞而知之	문왕으로부터 공자에 이르기까지 오백여 년이니, 태공망과 산의생 같은 이들은 보고서 그(문왕)를 알았고, 공자 같은 이는 들어서 그(문왕)를 아셨느니라.
1280	<p>林氏曰 孟子言孔子至今時未遠 鄒魯相去又近 然而已無有見而知之者矣 則五百餘歲之後 又豈復有聞而知之者乎 愚按此言 雖若不敢自謂己得其傳 而憂後世遂失其傳 然乃所以自見其有不得辭者 而又以見夫天理民彝不可泯滅 百世之下 必將有神會而心得之者耳 故於篇終歷序群聖之統 而終之以此 所以明其傳之有在</p>	14-38-04 由孔子而來 至於今 百有餘歲 去聖人之世 若此其 未遠也 近聖人之居 若此其甚 也然而無有乎爾 則亦無有乎爾	공자로부터 지금까지는 백여 년이니, 성인이 세상을 떠난 것이 이와 같이 멀지 아니하며, 성인이 살던 곳과 가까움이 이처럼 근접한데, 그럼에도 (그를 아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를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로다!」

而又以俟後聖於無窮也 其旨深哉 ❤
有宋元豐八年 河南程顥伯淳卒
潞公文彥博 題其墓曰 明道先生
而其弟頤正叔 序之曰 周公沒
聖人之道不行 孟軻死 聖人之學不傳
道不行 百世無善治 學不傳
千載無真儒 無善治
士猶得以明夫善治之道 以淑諸人
以傳諸後 無真儒
則天下貿貿焉莫知所之
人欲肆而天理滅矣
先生生乎千四百年之後
得不傳之學於遺經 以興起斯文
爲己任 辨異端 闢私設 使聖人之道
煥然復明於世
蓋自孟子之後一人而已 然學者於道
不知所向 則孰知斯人之爲功
不知所至 則孰知斯名之稱情也哉

1282	01 梁惠王章句上 - 凡七章	[제 1 편. 梁惠王章句(양혜왕장구) 上]	[제 1 편. 梁惠王章句(양혜왕장구) 上]
1283	02 梁惠王章句下 - 凡十六章	[제 2 편. 梁惠王章句(양혜왕장구) 下]	[제 2 편. 梁惠王章句(양혜왕장구) 下]
1284	03 公孫丑章句上 - 凡九章	[제 3 편. 公孫丑章句(공손추장구) 上]	[제 3 편. 公孫丑章句(공손추장구) 上]
1285	04 公孫丑章句下 - 凡十四章	[제 4 편. 公孫丑章句(공손추장구) 下]	[제 4 편. 公孫丑章句(공손추장구) 下]
1286	05 滕文公章句上 - 凡五章	[제 5 편. 滕文公章句(등문공장구) 上]	[제 5 편. 滕文公章句(등문공장구) 上]
1287	06 滕文公章句下 - 凡十章	[제 6 편. 滕文公章句(등문공장구) 下]	[제 6 편. 滕文公章句(등문공장구) 下]
1288	07 離婁章句上 - 凡二十八章	[제 7 편. 離婁章句(이루장구) 上]	[제 7 편. 離婁章句(이루장구) 上]
1289	08 離婁章句下 - 凡三十三章	[제 8 편. 離婁章句(이루장구) 下]	[제 8 편. 離婁章句(이루장구) 下]
1290	09 萬章章句上 - 凡九章	[제 9 편. 萬章章句(만장장구) 上]	[제 9 편. 萬章章句(만장장구) 上]
1291	10 萬章章句下 - 凡九章	[제 10 편. 萬章章句(만장장구) 下]	[제 10 편. 萬章章句(만장장구) 下]
1292	11 告子章句上 - 凡二十章	[제 11 편. 告子章句(고자장구) 上]	[제 11 편. 告子章句(고자장구) 上]
1293	12 告子章句下 - 凡十六章	[제 12 편. 告子章句(고자장구) 下]	[제 12 편. 告子章句(고자장구) 下]
1294	13 睞心章句上 - 凡四十六章	[제 13 편. 睞心章句(진심장구) 上]	[제 13 편. 睞心章句(진심장구) 上]
1295	14 睞心章句下 - 凡三十八章	[제 14 편. 睞心章句(진심장구) 下]	[제 14 편. 睞心章句(진심장구) 下]